

# 2019 한국문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 기획주제

전쟁과 지역(1) - 동아시아 전쟁과 부산

|| 일시 ||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09:00~19: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문관 501호(시습관)

|| 주최 || 한국문학회

|| 주관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문학회



# 2019 한국문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 기획주제

전쟁과 지역(1) - 동아시아 전쟁과 부산

|| 일시 ||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09:00~19:00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문관 501호(시습관)

|| 주최 || 한국문학회

|| 주관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한국문학회



## 2019 한국문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기획주제 : 전쟁과 지역(1) - 동아시아 전쟁과 부산

- ◎ 주최 : 한국문학회
- ◎ 일시 : 2019년 12월 21일 토요일 09:00~19:00
-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문관 501호(시습관)

### 개 회 식

등록 및 개회사      김경복 한국문학회 회장      9:00~09:30

### 학술발표

#### 【제1부 학문후속세대 발표 및 자유주제 발표】

사회: 손남훈(부산대)

- ▶ 「기성잡시(髡城雜詩)」에 나타난 다산의 두 가지 시선(視線)      09:30~10:00  
발표: 김은미(부산대)      토론: 조수미(부경대)
- ▶ ‘연안(延安)’을 통해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      10:00~10:30  
발표: 김성화(부산대)      토론: 김명훈(포스텍)
- ▶ 이어령의 일본문화론과 전후세대의 식민주의적 무의식      10:30~11:00  
발표: 전성욱(동아대)      토론: 이희원(부산대)
- ▣ 휴식      11:00~11:10
- ▶ 문학의 게임화(Gamification of Literature)      11:10~11:40  
발표: 고성범(진형연구소)      토론: 임태훈(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죽음에 갇힌 자와 일상적 공포의 기원 : 부역자의 경계성과  
냉전의 ‘마음’ -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과      11:40~12:10  
사회적 의미  
발표: 이선미(경남대)      토론: 김주현(인제대)

▣ 점심식사 및 휴식

12:10~13:30

【포스터 발표】

- ▶ 게임 속에서 ‘한국인’ 캐릭터 서사의 문제 발표: 이예슬(부산대)
- ▶ 전쟁에 대한 기억 전쟁 발표: 이해숙(부산대)
- ▶ 박태원과 스저춘의 심리소설에 대한 연구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마도>를 중심으로 발표: 곽윤청(부산대)

【제2부 기획주제 발표 - 동아시아 전쟁과 부산】

사회: 황병익(경성대)

- ▶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13:30~13:50  
발표: 정은영(가톨릭대) 토론: 심민정(동명대), 류속영(부산대)
- ▶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 <동래양부하전(東萊梁敷河傳)> 13:50~14:10  
발표: 송철호(동서대) 토론: 김재웅(경북대)
- ▶ <仙遊洞記>에 대한 연구 14:10~14:30  
발표: 이강석(부산대) 토론: 김소연(경북대), 박양리(창원대)

▣ 휴식

14:30~14:50

- ▶ 壬辰戰爭을 묘사한 작품 속의 부산 실상 - 漢詩를 중심으로 14:50~15:10  
발표: 김강식(한국해양대) 토론: 정규식(동아대), 임주탁(부산대)
- ▶ ‘전후/해방’ 공간의 재배치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 이은  
직 장편소설 『탁류』(1967~68)를 중심으로 15:10~15:30  
발표: 조은애(동국대) 토론: 최병구(경상대), 이순욱(부산대)

**【제3부 종합토론 및 총회】**

좌장 : 하강진(동서대)

종합토론	16:00~18:00
연구윤리교육(이순욱, 편집위원장)	18:00~18:30
학술상 시상식 및 총회(김경복, 학회장)	18:30~19:00

## 차 례

### 전쟁과 지역(1) - 동아시아 전쟁과 부산

#### 자유주제 및 기획주제 발표

##### 【학문후속세대 발표 및 자유주제 발표】

「기성잡시(鬢城雜詩)」에 나타난 다산의 두 가지 시선(視線) .....	김은미(부산대)	1
토론문 .....	조수미(부경대)	17
‘연안(延安)’을 통해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 .....	김성화(부산대)	18
토론문 .....	김명훈(포스텍)	33
이어령의 일본문화론과 전후세대의 식민주의적 무의식 .....	전성욱(동아대)	35
토론문 .....	이희원(부산대)	53
문학의 게임화(Gamification of Literature) .....	고성범(진형연구소)	54
토론문 .....	임태훈(대구경북과학기술원)	70



죽음에 갇힌 자와 일상적 공포의 기원 : 부역자의 경계성과 냉전의 ‘마음’ - 1970년  
 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과 사회적 의미 ..... 이선미(경남대)  
 ..... 71  
 토론문 ..... 김주현(인제대)  
 ..... 77

**【포스터 발표】**

게임 속에서 ‘한국인’ 캐릭터 서사의 문제 ..... 발표 : 이예슬(부산대)  
 전쟁에 대한 기억 전쟁 ..... 발표 : 이해숙(부산대)  
 박태원과 스저춘의 심리소설에 대한 연구 -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마도>를  
 중심으로 ..... 발표 : 곽윤청(부산대)

**【기획주제 발표 - 동아시아 전쟁과 부산】**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 정은영(가톨릭대)  
 ..... 78  
 토론문 ..... 심민정(동명대)  
 ..... 98  
 토론문 ..... 류숙영(부산대)  
 ..... 100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 <동래양부하전(東萊梁敷河傳)> ..... 송철호(동서대)  
 ..... 101  
 토론문 ..... 김재웅(경북대)  
 ..... 102

<仙遊洞記>에 대한 연구 ..... 이강석(부산대)  
 ..... 103  
 토론문 ..... 김소연(경북대)

.....	116
토론문 .....	박양리(창원대)
.....	118
壬辰戰爭을 묘사한 작품 속의 부산 실상 - 漢詩를 중심으로 .....	김강식(한국해양대)
.....	119
토론문 .....	정규식(동아대)
.....	133
토론문 .....	임주탁(부산대)
.....	134
‘전후/해방’ 공간의 재배치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 이은직 장편소설 『탁류』(1967 ~68)를 중심으로 .....	조은애(동국대)
.....	136
토론문 .....	최병구(경상대)
.....	157
토론문 .....	이순욱(부산대)
.....	158

## 「기성잡시(鬢城雜詩)」에 나타난 다산의 두 가지 시선(視線)

김은미(부산대)

### 차 례

1. 서론
2. 다산과 「기성잡시(鬢城雜詩)」
3. 「기성잡시」 속 두 가지 시선
  - 1) 자기응시의 시선
  - 2) 관찰자적 시선
4. 다산 시선의 의미
  - 1) 적객(謫客)의 울울함과 자중의 태도
  - 2) 관념적 인식의 탈각(脫却)과 실증적 사고
5. 결론

### 1. 서론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에게 유배는 강하고도 지속적인 충격이었다. 정조의 승하 이후 다산이 겪은 광풍과도 같은 일들은 마흔이 된 다산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다산은 겨우 목숨만을 구해 궁벽한 시골로 쫓겨가야 했다.

관료 사회에 진입한 이후 다산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여러 자리에 중용되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는 다산은 정조에게도 불안한 선택이었다. 노론뿐만 아니라 공서파까지 나서서 정약용과 정약전(巽庵 丁若銓, 1758~1816) 형제를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의 약점은 서학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었다. 이벽(曠庵 李穡, 1754~1785)의 소개로 처음 접하게 된 서학<sup>1)</sup>은, 학문적 호기심이 왕성한 젊은 다산 형제에게 큰 지적 자극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그들을 평생 울아맨 구속이기도 하였다. 관료사회에서는 서학에 접근하고 그것을 공부한 이들 형제 이하 신서파를 백안시하였다. 스스로 해명한 대로 후에 다산은 배교를 선택하지만, 노론은 물론이고 같은 남인의 공서파조차도 이를 믿지 않았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노론이야 남인에 대해 적대적이었겠으나, 신서파 때문에 남인이 절멸되리라 우려한 공서파도 노론 못지않게 배타적이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조는 다산을 지방관으로 보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예봉을 피하게 하였다. 형조참의에 제수되었던 다산이 좋지 않은 여론 때문에 곡산부사로 나가게 된 일<sup>2)</sup>은 이를 잘

1) 다산의 나이 23세이던 1784년의 일이다. 「사암선생연보」, 송재소, 《다산시 연구-부 다산연보》, 창작사, 1986. 198~199쪽 참고

2) “임금이 말하기를, “구설(口舌) 때문에 두려우니 물러가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마

보여준다. 그러나 그랬던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정조의 죽음 이후, 다산 형제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었다.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한 후, 정순왕후의 세력 하에서 이들 형제는 서학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는 책롱사건에 휘말려 유배를 떠나게 된다. 다산은 경상도의 장기현으로, 손암은 전라도의 신지도로 가게 된 것이다. 1801년 3월의 일이었다.

장기 유배가 다산의 첫 유배는 아니었다. 1700년 다산은 이미 해미(海美)에서 유배살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유배는 상대편의 공격으로부터 다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조의 선제적 보호책이었다. 실제로 유배를 명받고 해미에 도착할 무렵 다산은 바로 해배되었고, 그래서 다산은 다시 며칠 지나지 않아 한양으로 되돌아갔다.<sup>3)</sup>

그러나 장기 유배는 달랐다. 정조가 승하한 후 권력을 잡은 정순왕후는 정조 승하 다음 해인 1800년 1월 10일 천주교 금지령을 발표한다. 서울에 있던 윤지눌과 이유수 등은 사건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정약용에게 편지를 보냈고, 초천에 있던 정약용은 편지를 받자마자 바로 상경했다. 초천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직접 정세를 파악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2월 8일에 정약전이 체포되고, 다음 날 정약용도 투옥되며, 2월 11일에는 셋째 형 정약종(丁若鍾, 1760~1801)도 잡혀 들어간다. 여러 차례의 국문과 심문을 거쳐, 정약용은 2월 17일에 부내(府內)에 보방(保放)되는 형식으로 일단 풀려나지만, 2월 26일에 정약종은 이승훈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다행히 정약용과 정약전은 사형에서 감면하여, 다산은 장기로, 정약전은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된다.<sup>4)</sup> 이 모든 것이 겨우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러니 이번은 확실한 유배였고 분명한 형벌이었다. 다산의 인생을 통시적으로 놓고 볼 때 18년이나 되는 강진 유배기가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다산의 실질적인 첫 유배지는 장기였다. 유배의 경험은 자신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음을 절감하게 하는 일이었다. 다산은 첫 유배인 장기 유배를 통해,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음을 비로소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장기 유배기의 초기 시를 통해, 시에 나타난 다산의 유배 초기 정서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시가 개인적 정서와 소원의 표현<sup>5)</sup>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신상의 급격한 변화를 겪는 다산의 정서를 그가 남긴 시를 통해 파악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장기 유배 초기에 다산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다산 시에 대한 연구 성과 가운데 유배기 다산 시를 다룬 연구가 매우 많지만, 상대적으로 장기 유배기는 강진 유배기에 비해 연구자의 관심을 덜 받아왔다. 그러나 다산 유배기 문학의 모습, 넓게는 다산 시문학의 전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배기 문학으로 통칭되는 것 가운데에서 장기 유배기 문학에도 따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장기 유배기의 여러 시 가운데 초기부터 순차적으로 다산의 정서를 재구해 보아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런 점에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다산과 「기성잡시(鬢城雜詩)」

1801년 3월 9일 장기에 도착한 다산은, 같은 해 10월 20일 다시 서울로 압송되기 전까지

---

침 곡산에 빈 자리가 있어 어필(御筆)로 첨서낙점(添書落點)하였다.”, 송재소 (1986) 255쪽

3) 다산의 나이 29세이던 1790년의 일이다. “3월 초 8일, 임금의 엄한 분부를 받고 해미현(海美縣)으로 정배(定配)되었다. 13일에 배소(配所)에 이르렀는데, 19일에 용서를 받고 풀려났다.”, 송재소 (1986) 207쪽

4)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6. 499쪽~514쪽 참고

5) 김준오, 《시론》 제3판, 삼지원, 1991. 22~23쪽

220일 정도<sup>6)</sup>를 장기에서 머물렀다. 장기까지의 여정은 길었다. 2월 29일 서울을 떠난 다산은 석우촌, 사평촌, 가흥 등을 거쳐 하담에 이르고,<sup>7)</sup> 하담 선영에 들러 인사를 올린 후 문경새재를 넘어 장기로 들어왔다.

유배길에서 다산이 지은 시는 여러 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기에 도착해서 지은 첫 번째 시는 「기성잡시」이다. 그 동안은 “장기 지방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묘사”<sup>8)</sup>한 시라든가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기 풍경과 사물을 노래한”<sup>9)</sup> 시로만 언급되었던 이 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유배 초기의 정서를 드러낸 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26수나 되는 시의 분량 때문이다.

선행 연구<sup>10)</sup>에 따르면 다산은 장기에 있는 동안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61제 186수<sup>11)</sup>에 달하는 시와, 부(賦) 1편, 편지 4편과 함께, 서문만 남은 『촌병혹치(村病或治)』, 또 『몽학의회(蒙學義彙)』라는 이름의 정약전 저작으로 뒤바뀌어 전하는 『이아술(爾雅述)』,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과 『정체전중변(正體傳重辨)』으로 발전된 『기해방례변』, 지금은 전하지 않는 『삼창고훈(三倉誥訓)』이 모두 이 시기의 저작이다.

이 가운데 장기 유배 초기에 지은 「기성잡시」는 이 시기 다산 저술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저작 시기가 유배 초기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장기에 도착한 직후”<sup>12)</sup>라거나,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sup>13)</sup>라고 보기도 하며, “배열순서와 내용으로 보아 3월 10일 성선봉의 집에 머무르게 된 이후 대략 3월 중순 무렵의 시점에 지었다고 추정”<sup>14)</sup>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시기순으로 정리된 다산 문집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유배기 제일 앞에 놓인 이 시가 장기 유배기 초기 시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다만, 이것은 시작(詩作)의 시작(始作)에 대해서만 그렇다. 시의 내용을 보면 이 시는 하루 이들의 경험으로 쓴 시가 아니다. 적어도 다산이 자신의 유배지에 적응할 정도까지의 시간적 경험에 기반한 시이다. 「기성잡시」는 유배 초기 일정 정도의 시간적 경험이 녹아 있는 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다산은 「기성잡시」에 대해, “긴긴 날에 할 일이 없어 지은 짧은 시구로, 뒤섞여 순서가 없다”<sup>15)</sup>고 말하였다. 따로 할 일이 없는 유배객이 틈틈이 읊은 시를 모았다는 것이다. 틈틈이 읊은 시들을 모아놓은 것이므로, 이 시에 치밀한 구성이나 일관된 주제의식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시인의 시작(詩作) 목적이 선명하지 않은 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는 “장기 지방 사람들의 모습과 생활을 묘사”<sup>16)</sup>했거나 “유배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장기

6) 김윤규, <장기 유배기 다산 시의 성격>,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57권, 2013. 12. 253쪽  
 7) 다산의 문집에는 「석우별(石隅別)», 「사평별(沙坪別)», 「하담별(荷潭別)», 「과탄금대(過彈琴臺)», 「조령(鳥嶺)」 등 장기로 향하는 유배길에 지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87~389쪽 참고  
 8) 김봉남, <다산의 장기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38권, 2006. 12. 383쪽  
 9) 김윤규 (2013), 264쪽  
 10) 김윤규 (2013), 264쪽 주26번에 이런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11) 김봉남은 장기 유배기의 시를 60제 158수로 파악하였다. <다산의 장기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38권, 2006. 12. 366쪽. 김윤규는 이 시기 다산의 시를 61제 186수로 정리하며, 다산이 수(首)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도 있고 형식을 섞어서 장시(長詩)의 형태로 지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자 자신의 언급이나 내용과 운자(韻字)를 구분 준거로 삼아 편의에 따라 세어본 것”이라 밝히고 있다. 김윤규 (2013) 264쪽 주25번 참고  
 12) 김봉남 (2006) 383쪽  
 13) 김윤규 (2013) 264쪽  
 14) 조성을 (2016) 538쪽  
 15) “長日無事 時得短句 雜而無次”,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90쪽  
 16) 김봉남 (2006) 383쪽

풍경과 사물을 노래”<sup>17)</sup>한 시로만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점이 오히려 시인의 솔직한 정서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구성을 생각하고 주제를 의식하며 지은 시에서 찾을 수 없는, 시인 자신의 진솔한 시각이 잘 드러난 시일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장기 지방의 사물과 장기 지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을 시화하는 가운데 시인 자신의 모습이 산견(散見)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연구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실제로 26수의 시는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장기의 풍속을 읊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경주는 물론 고향 초천에까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 속에 다산의 시선이 녹아있음은 물론이다.

### 3. 「기성잡시」 속 두 가지 시선

「기성잡시」에서 다산은 많은 것들을 시로 썼다. 시에 나타난 내용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투영된 다산의 시선을 재분류하는 것은 다산의 문학적 생애를 고려할 때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유배 초기의 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환경에 놓인 다산이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에 나타난 다산의 시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은 각각, 자기 문제에 몰두하는 자기 응시의 시선과,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 관찰자적 시선이다. 유배객 다산은 자신이 살게 될 유배지와 자신의 새로운 환경에 시선을 보내지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유배라는 자신의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 다산의 「기성잡시」에는 이런 다산의 두 가지 시선이 모두 드러나 있다.

#### 1) 자기 응시의 시선

장기에서 다산이 거처를 얻은 것은 장기 도착 다음 날인 3월 10일의 일이었다. 시에 따르면 다산은 멧집 한 곳을 지정받는다.

朝海樓頭落日紅	조해루 꼭대기에 지는 해 붉은데
官人驅我出城東	관리가 나를 몰아 성 동쪽에 나왔네
石田茅屋春溪上	동쪽 시내 위 자갈밭에 멧집 하나
也有佃翁作主翁 <sup>18)</sup>	밭가는 노인이 그 집 주인이라네

석양빛이 비치는 것으로 보아 조해루는 성의 서쪽에 있는 누각일 텐데, 관리는 저녁 무렵에야 성의 서쪽에서 출발하여 성의 동쪽 마을의 한 집으로 다산을 데리고 간 것이다.

다산은 시냇가 자갈밭에 선 집을 한 채 본다. 그리고는 그 주변에서 밭을 갈던 노인을 만난다. 마산리에 있는 늙은 장교(將校)<sup>19)</sup> 성선봉(成善封)의 집을 정하여 있게 되었다는 원주에 따르면, 이 노인은 집의 주인이자, 원주에 소개된 성선봉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선봉은 장교직을 수행하면서 농사도 짓는 모양이었다.

17) 김윤규 (2013) 264쪽

18) 제4수

19) 장교는 조선시대 각 군영에 속하여 있던 군관을 가리킨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다산이 거하게 된 덧집은 다소 허술한 공간이다.<sup>20)</sup> 시에는 배소(配所)에서 살아가는 다산의 삶이 나타난다. 다산은 평상에 앉아 쉬거나 보리송늬를 마시기도 하고, 이른 봄 맑은 날씨 덕에 잘 마른 해초에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sup>21)</sup> 새잎이 돋은 나무를 보고서 이것이 바닷가 석류구나 하는 작은 발견의 기쁨도 누린다.<sup>22)</sup> 허술하고 남루한 곳에서도 일상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경세의 꿈을 펼치고자 관료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던 다산에게 이런 일상이 좋을 수는 없었다. 적객(謫客)의 삶은 그야말로 무위도식(無爲徒食) 그 자체였다. 소일거리는 한 가지도 없어서 밥을 먹고 하릴없이 잠을 자는 삶이 이어졌다. 때때로 이웃 영감이 와서 함께 장기를 두지만, 그것이 다산에게 만족스런 생활일 수는 없었다. 목표를 세울 수 없는 유배지에서 이런 삶은 무료하기 그지없다.<sup>23)</sup>

病濕經春癱瘓成	습한 병이 봄 지나 마비가 왔네
北脾不慣喫南烹	북녘 입맛이 남쪽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지
思服禁方蒼朮酒	비방인 창출술을 생각해 보지만
小奴持鑣問鄉名 <sup>24)</sup>	종녀적은 약술 들고 고향을 묻는구나

이 무렵 다산은 아프기도 했다. 다산은 유배를 떠나기 전에도 습증이 있었던 모양인데, 봄이 지나고 유배지에 머물게 되면서 병이 심해졌다. 다산은 그 이유로 음식을 끊고 있다. 북쪽에 살던 다산이 남쪽 바닷가 마을에 와서 입에 맞지 않는 음식으로 고생을 했던 것이다. 세자가 아플 때 약을 지으러 입궐할 뻔도 했던 다산의 만년을 생각할 때, 자신의 병세에 대한 비방<sup>25)</sup>으로 창출술을 떠올리는 것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병이 심해지면서 다산은 고향을 생각한다. 문면에 향수(鄉愁)가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소노의 입을 빌려 고향[鄉]이라는 말을 적고 있다. 유배지에서 무료하게 지내다가 병까지 깊어진 다산은 떠난 고향을 생각하고 고향의 음식을 떠올려 보는 것이다. 유배객 다산의 괴롭고 우울한 심사와 향수(鄉愁)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書卷深知誤此生	서책을 깊이 알아 이 인생을 그르쳤지
餘生逝與割恩情	남은 삶은 맹세코 그 정을 끊으려 했는데
心根苦未消磨盡	아직도 남아있는 마음 속 뿌리가 괴롭구나
臥聽隣兒讀史聲 <sup>26)</sup>	이웃 아이 책 읽는 소리 누워서 듣고 있으니

그러나 제18수를 보면 다산이 무료하고 병약한 현재 상황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산의 시선은 그런 일상의 괴로움을 넘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응시하고 있다.

이 시에서 다산은 자신의 인생을 이미 그르친 삶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서책에 있다고 한다. 서책을 깊이 안 것이 자신의 삶을 망쳤다는 것이다. 유배의 원인도 서권심지(書

20) “炕室涼軒各一間 主人相對有歡顏 新補竹籬疏似網 不愁遮斷面前山” 제12수

21) “毛羅驥帽據松牀 日本瓷杯進麥湯 海菜今年都善曬 早春風日幸清涼” 제13수

22) “飯稻羹魚事便休 不將花木費閒愁 籬間擁腫知何木 新葉看來是海榴” 제14수

23) “飯罷須眠眠罷飢 飢來命酒熬金絲 都無一事堪銷日 隣叟時來著象棋” 제16수

24) 제17수

25) 다산은 의술에도 조예가 깊었다. 장기에 있는 동안에도, 시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약초로 병을 다스릴 수 있도록 『촌병혹치(村病或治)』를 지었다. 정민, 《파란》, 천년의상상, 2019. 357~358쪽 참고

26) 제18수

卷深知)라는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자신의 남은 삶에서는 서책에 대한 정을 끊으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심이였다. 자신의 삶을 망친 서책에는 눈길도 주지 않으리라 마음먹지만, 그러나 다산은 누워서도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다. 누워 있는 다산의 귀에 옆집 아이의 음성이 들린 것이라 하지만, 이것은 사실 다산이 책 읽는 그 소리를 확대해서 듣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산의 관심이 여전히 서책에 있는 것이다. 책을 끊으려 한다고 했으나 끊지 못 하는 모습인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는 자신의 마음 속 뿌리이면서, 그래서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은 옆집 아이의 책 읽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즉 여전히 서책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다산은 시속과 단절한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세상과 절연할 생각이 없는 다산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배지에 묶여 있었다. 이런 구속 상태의 다산과 달리, 자연은 자유로우며 생기를 더하고 있다. 보리는 푸르게 자라고 열매 맺은 복숭아도 조금씩 커가고 있다.<sup>27)</sup> 꽃도 피고 나비도 난다.<sup>28)</sup> 유배지에 도착한 3월 9일 이후로,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하고 있다. 다산은 그런 세상을 보고 싶기도 하고, 슬슬 구경을 나가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시기상조이다. 지금 자신은 죄인의 신분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깊은 곳에 틀어박혀 지은 죄만 생각하며<sup>29)</sup> 자중하고 있다. 가까운 산에라도 가고 싶지만, 산책도 하지 않고 칩거하며 자성하는 것이다. 지은 죄를 생각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숙하고 자중하는 것은 다산이 유배객이기 때문이다. 제20수에는 자신이 유배 중임을 인식하는 다산의 모습이 나타난다.

憶上烏棲落日看	오서에 올라 지는 해 보았던 일 기억하는데
桑溟又見浴金盤	오늘은 또 동해에서 뜨는 해를 보는구나
吾遊豈盡東西海	내가 어찌 동해 서해 구경하게 되었을까
疆場由來未許寬 <sup>30)</sup>	국토가 그리 넓지 않아서겠지

시의 원주에서 다산은 “옛날 금정(金井)에서 귀양살이할 때 오서산(烏棲山)에 올라가 해지는 것을 구경한 일이 있었다”<sup>31)</sup>고 적었다. 다산은 자신의 귀양살이 이력(履歷)을 더듬어 보는 것이다. 오서산에 올라 지는 해를 보았던 금정에서의 삶과, 동해에서 뜨는 해를 바라보는 지금 장기의 삶은 모두 유배지의 삶이다. 국토가 넓지 않다든가, 동해 서해 다 구경했다든가 하는 말은 표면적인 언술일 뿐, 사실 다산은 유배지에서 동해도 보고 서해도 보는 자신의 삶을 각성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다산이 금정 시기를 귀양살이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금정 찰방 시절은 엄밀히 말해 유배가 아니었다. 좌천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관료로 지냈던 시절이었다.<sup>32)</sup> 그런데 이 시

27) “非靄非雲養麥天 小桃如醉柳如眠” 제19수

28) “小園風暖菜花開 黃蝶青蟲遞去來” 제24수

29) “緩豈無步看山意 只得深居念罪愆” 제19수

30) 제20수

31) “舊謫金井 登烏栖山觀日入”,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92쪽

32) 1795년 7월 26일, 34세의 다산은 금정도 찰방으로 외보(外補)된다. 정조는 이 무렵 다산을 중용할 계획이었으나, 이 해 여름에 일어난 주문모(周文謨, 1752~1801) 신부 사건과 연이은 박장설(朴長高, 1729~?)의 상소 등으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해 12월 용양위 부사직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다산은 5개월 간 금정에 머물게 된다. 송재소 (1986) 237~242쪽 참고



에 따르면 다산은 그 시절을 귀양살이나 다름없는 시기로 인식했던 것이다. 지금 다산은 그런 유배의 삶을 장기에서 다시 살아야 한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런 인식은 고단함을 불러일으킨다. 다산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고단하고 힘든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한다. 어느 덧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생각도 이 무렵에 하게 된다.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 했던 흰 털에 대해 새로 깨닫게 되며, 터럭의 개수에도 민감해진다.<sup>33)</sup> 어느 새 물리적으로 노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모습을 여기서 처음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의 주거 환경도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 생선기름 때문에 비린내가 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sup>34)</sup> 날이 더워지면서 비린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파리마저 꼬여 괴롭다. 송(宋)나라 구양수(歐陽脩)가 「증창승부(憎蒼蠅賦)」 지은 일을 떠올리며 파리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파리가 나의 게으름을 흠으라 징계하는 것이라 의미를 부여하려 해도, 파리는 괴로울 정도로 많다.

鮑腥蒸鬱苦多蠅	폭폭 찌는 비린내에 파리가 괴롭게도 많아
飯每徐抄睡早興	밥은 매양 늦게 들고 잠은 항상 일찍 깨지
天意分明懲懶散	이는 분명 하늘이 게으름 흠으라 징계함이니
昔人詞賦枉相憎 <sup>35)</sup>	옛사람이 부를 써서 미워했었지

그런데 파리가 들끓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밥이 늦게 들어오는 것은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다. 파리가 많아서 파리를 쫓느라 잠을 일찍 깨지만 그것이 실은 게으름을 멀리 하도록 하는 하늘의 뜻이라 이해해도, 밥이 늦게 든다는 사실을 시에 언급할 필요는 없었다. 이것은 다산을 괴롭히는 것이 파리뿐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파리도 성가시지만, 파리를 쫓느라 잠은 일찍 깨는데 밥은 항상 늦게 들어오는 자신의 일상도 다산이 괴롭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늘이 게으름을 흠으라 뜻한 것은 파리를 쫓는 일뿐만 아니고, 밥을 늦게 들어오는 일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비린내와 파리 탓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 밥이 들어올 때까지가 매우 길게 느껴지는 지금의 상황 때문에, 옛사람처럼 자신도 파리가 밉고, 파리를 포함한 지금의 상황까지 밉다는 것이다.<sup>36)</sup>

蠶蝨嚼肌睡不成	이가 깨무니 잠을 이룰 수 없고
吳公行壁又堪驚	지네가 벽에 다녀 사람 놀라네
須知蠹齒非吾有	작은 벌레들 이빨도 내 맘대로 못하니
念此怡然順物情 <sup>37)</sup>	그렇게 생각하고 형편대로 할 수밖에

33) “初春兩個白毛新 一個猶玄一個純 此地又來添一個 天然三個白如銀” 제21수

34) “新榨魚油腥滿家” 제7수

35) 제22수

36) 엄밀히 보자면, 구양수의 이 글과 다산의 시는 소재적 측면에서만 공통점이 있다 할 수 있다. 구양수의 작품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청승(靑蠅)을 모방하여서 참소꾼을 쉬파리에 비유하여 비난한 것이다. 쉬파리가 보잘 것 없는 미물이면서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마치 간악한 소인배들이 참언으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이나 같다고 이 글에서는 풍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학주 역저, 『고문진보』 후집, 명문당, 1989. 387쪽. 파리를 보고 구양수의 명문을 떠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기는 하나, 다산이 「증창승부」가 비흥(比興)임을 몰랐을 리 없다. “止棘之詩 垂之六經 於此見詩人之博物 比興之爲精”, 구양수, 「증창승부」, 김학주 (1989) 386~387쪽.

37) 제23수

다산을 괴롭히는 것은 파리만이 아니었다. 이가 깨무는 통에 잠을 잘 잘 수 없고, 벽에 지네가 다녀 때때로 놀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작은 벌레의 이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부(賦)를 지어 파리를 미워하던 구양수와 달리, 이와 지네에 대해 다산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무력한 모습은 스스로의 의지대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유배 상황에 기인한다.

이 시에서 다산은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을 관찰하고 시로 쓰기도 하지만, 자신의 내면과 감정 속으로 침잠하기도 한다. 제25수에는 아버지에 대한 다산의 그리움이 나타난다.

疇昔烏繩小隱囊	옛날에 검정실로 짠 작은 은낭
隻身携汝到殊方	나 혼자 너를 안고 이곳저곳 다 간 것은
非唯臥起相須切	누우나 서나 네가 절실해서뿐 아니라
爲是摩挲手澤方 <sup>38)</sup>	아버지가 매만지시던 자취가 있어서지

은낭은 앉을 때 세워놓고 몸을 기대는 방석, 즉 안석(案席)을 말한다. 그런데 다산은 유배길에 그 은낭을 챙겨왔다. 황망하게 떠났을 유배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일부러 챙긴 은낭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은낭은 아버지께서 쓰시던 것으로, 다산은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유품을 유배지까지 가져온 것이었다.

아홉 살에 친모를 여윈 다산은 한동안 형수의 돌봄을 받으며 크다가 서모가 들어온 뒤에야 새어머니의 보살핌 속에 자라게 된다. 그 사이 몇 년은 아버지의 애정을 받으며 자랐고, 공부도 다른 스승이 아닌 아버지에게 배웠다. 아버지에 대한 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다산이었다.

장기로 오는 도중, 다산은 선영이 있는 하담에 들러 아버지의 묘소에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낭을 지닌 채 장기로 향했다. 다산은 선친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유배길내내 간직한 것이다.

## 2) 관찰자적 시선

뒤섞여 순서가 없다고 했지만, 「기성잡시」의 앞부분에 배치된 시들은 대개 다산이 자신의 새로운 주변 환경을 관찰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산은 제1수에서 동해의 풍경을 시로 적었다. ‘동쪽으로 부상(扶桑)까지 섬 하나 없이 물빛만 가득’<sup>39)</sup>한 동해를 그리고 있다. 또 제2수에서는 ‘끝도 없는 푸른 물 넘어’<sup>40)</sup> 일본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이제 자신이 머물게 된 장기의 자연 환경,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바다라는 환경에 주목한 것이다.

제3수에서는 자신의 배소(配所)가 될 장기의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다산이 일별(一瞥)한 장기의 풍경은 쓸쓸하고 남루하다. 샘이 없는 산꼭대기까지 인가가 벌여있고, 그 집들에는 제대로 된 대문 대신 거적문이 드리워져 있다. 다산이 장기에 도착한 음력 3월 9일 무렵에는 봄꽃도 시들고 있어, 지다 남은 꽃과 거적문이 마을의 남루함을 더한다.

38) 제25수

39) “東直扶桑水氣昏” 제1수

40) “眼前一碧無邊水” 제2수

峯頂蕭條四十家      산꼭대기에는 사십 채 인가 쓸쓸한데  
 縣門敲側倚殘花      거적문이 지다 남은 꽃 속에 비스듬하네  
 都無一眼泉供飲      한눈에도 동네에는 물 마실 샘 없는데  
 將謂縋城用水車<sup>41)</sup>      성 위에도 줄 매달고 수차를 쓰리라 말하네

이것이 장기현 읍성 안의 풍경은 아니다. 읍성 안에 4개의 우물과 2개의 못이 있고, 현의 남쪽 2리에 있는 옛 읍성 안에 샘이 2개 있다는 이전 기록<sup>42)</sup>에 따르면, 제3수의 마을은 우물과 못이 있다는 읍성 안이 아니고, 옛 읍성 안에 샘이 있다는 성의 남쪽도 아니다. 제4수를 고려할 때 이곳은 성의 동쪽 풍경이라 할 수 있다. 시의 원주<sup>43)</sup>에 나오는 마산리(馬山里)일 것이다.

집은 크지 않다. 방과 마루가 각 한 칸인데, 대울타리는 그물 같이 성글고 앞산이 흰히 보여서 주인과 마주치면 서로 겸연쩍어하며 웃는 상황이다.<sup>44)</sup> 당시 기성의 방비가 처마 끝에 그물을 치고 긴 창까지 꽃아둘 정도로 삼엄했던 것을 생각하면, 다산이 머문 집은 허술하게까지 느껴진다. 다산도 장기의 살벌한 울타리에 시선을 주고 있다.

樹柵家家二丈強      집집마다 두 길 넘게 울타리를 세워두고  
 欄頭施罟插長槍      처마 끝에 그물 치고 긴 창까지 꽃았네  
 問渠何苦防如許      어찌해서 저와 같이 힘써 방비하는가 물으니  
 終古鬻城壯虎狼<sup>45)</sup>      예부터 장기에는 범과 이리 기승부린다 하네

장기의 집들은 집집마다 사람 키의 두 배나 되는 울타리를 세우고, 그것으로 모자라 처마 끝에는 그물을 치는가 하면, 긴 창까지 꽃았다. 이런 살벌한 경계는 범과 이리 같은 맹수 때문이라 한다. 맹수의 공격에 노출된 장기의 환경과 그에 따라 발달한 무시무시한 방비책, 이런 살풍경(殺風景)이 앞으로 다산이 머물 곳의 모습인 것이다.

기성에 대한 다산의 관찰은 다음 시에서도 나타난다.

女音如慍復如嬌      여인들 말씨가 성난 듯 혹은 교태부리는 듯  
 孫穆書中未盡描      손목(孫穆)처럼 쓴다 해도 묘사 다 못 해  
 不用一錢思買髭      다리[加髭] 살 생각에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額前紅髮插雙條<sup>46)</sup>      이마 앞 붉은 머리 두 갈래로 꽃아두네

이 시의 수련과 함련은 장기 사투리에 대한 다산의 인상을 담아내고 있다. 성난 듯 느껴지기도 하고 교태 부리는 듯 느껴지기도 하는 기성 여인들의 말씨<sup>47)</sup>에 다산은 특히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하다. 한양과 마재를 주로 오가며 살았던 다산에게는 경상도 억양이 인상적이었을 것

41) 제3수

42)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Ⅲ, 민족문화추진회, 1968. 387쪽

43) “三月初九日 到長鬐縣 朔明月 安插于馬山里老校成善封之家”,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290쪽

44) “炕室涼軒各一間 主人相對有歡顏 新補竹籬疏似網 不愁遮斷面前山” 제12수

45) 제5수

46) 제6수

47) 다산은 장기 여성들의 특이한 억양을 들으며 손목을 떠올리고 있다. 송나라 사람 손목이 쓴 《계림유사(鷄林類事)》에는 고려 시대의 어휘 3백 50개 단어가 한자(漢字)로 표기되어 있다고 한다. 『국역 다산시문집』 제4권 194쪽 주3번

이다.

그런데 다산의 관찰자적 시선은 장기 여인들의 말씨 외에, 그들의 머리 꾸밈새에도 향하고 있다. 당시의 여성들은 머리술이 많아 보이도록 탄머리를 덧대어 드리우곤 하였다. 이런 풍조는 당대를 휩쓸던 것이어서, 영정조 때에는 다리를 금하는 명을 내린 일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모두 한양 중심적 삶의 이야기이다. 한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여인들이 머리 꾸밈을 위해 다리를 장만하는 것이 익숙한 일일지 모르나,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 지역의 여인들은 다리를 사는 데에 돈을 쓰지 않는다. 머리를 이마 앞에 두 갈래로 꽂을 뿐이다. 그야말로 생활형 머리꾸밈새인 것이다. 한양에서 주로 지냈던 다산의 눈에는 이런 기성 여인들의 꾸밈새가 낯설다. 그런 꾸밈새를 실용적거나 한 것으로 평가하지도 않았다. 다음에 그려진 장기의 생활상을 고려할 때, 다산은 장기 여인들의 이런 머리꾸밈새를 촌스럽다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

新榨魚油腥滿家	새로 짠 생선기름 온 집안에 비린내
靑蘇不種況芝麻	들깨도 안 심는데 참깨가 있을까
石苔充朮杞牽髮	김 그릇 숟가락엔 머리카락 끌려나오고
山糴烹銼飯有沙 <sup>48)</sup>	가마솥 산돌벼밥에는 모래까지 섞여있네

시에 나타난 기성의 시골살림은 형편없다. 집안에는 비린내가 진동한다. 기름류로는 보통 참깨나 들깨를 짜서 쓰는데, 장기는 참깨는 물론 들깨도 심지 않으니 당연히 그런 것들로 기름을 짤 수 없고, 그래서 생선기름을 짜서 쓰는 바람에 온 집안에 비린내가 가득한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장기의 작물과 관련된 생활상의 특징일 수 있다. 농작물이 다양하지 않아 생선기름으로 식용유를 대체하는 기성의 특성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련과 미련에서 이어지는 다음 내용들은 장기의 수준 낮은 생활상에 대한 다산의 인식을 보여준다. 김이 담긴 그릇에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돌벼밥에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비위생적 생활상이다. 이 시에는 이런 생활수준에 대한 다산의 당황스러움과 생경함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인들의 머리꾸밈새도 다산에게는 ‘다르다’ 대신 ‘못하다’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제7수에서 수준 낮은 시골살림을 바라보는 다산의 시선은 제6수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곳이 바로 기성인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유배지의 열악한 생활형편을 관찰하고 그려낼 뿐 아니라, 은연 중에 이에 대한 다산의 당혹스러움과 생경함까지 드러내고 있다. 다산은 앞으로 이런 곳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다.

다산은 장기의 산물(産物)을 시로 그리기도 했다. 그것은 각각 울릉도에서부터 채취해온 대나무와, 문어나 해구신 등의 해산물<sup>49)</sup>, 그리고 동산의 뇌록(磊碌)이다. 죽란시사(竹欄詩社)를 꾸렸던 다산으로서는 대나무가 그다지 신기한 토산품이 아니었겠지만, 문어라든가 해구신, 뇌록 등은 진귀한 물품이었다. 기성에서 이런 물산을 본 다산은 이를 시로 남겼다.

東山磊碌亦奇珍	동산의 뇌록 또한 진기하구나
石髓靑筋似茯神	돌에 박힌 파란 줄기는 복신과도 비슷하네

48) 제7수

49) “休放兒童港口漁 怕他纏著八梢魚 年來膾膾逢刁躑 頻有京城宰相書”

染局不曾充歲貢      제용감(濟用監)<sup>50</sup>에서 공물로 받지 않은 덕에  
零陵乳穴<sup>51</sup>自千春<sup>52</sup>      영릉의 종유혈이 천 년 내내 계속이라네

제10수는 염료의 원료가 되는 뇌록에 대한 시이다. 시의 원주<sup>53</sup>에 따르면 뇌록은 녹색(綠石)으로, 뇌성산(磊城山)에서 난다. 뇌성산은 장기현의 북쪽 19리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나는 뇌록은 장기의 토산품으로 알려져 왔다.<sup>54</sup> 다산은 제용감에서 뇌록을 공물로 받지 않은 덕에 장기에서는 지금도 뇌록이 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뇌록을 바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시달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도 뇌록이 많다는 것이다. 공물 문제가 백성들의 삶에 직결된다는 다산의 인식이 관찰자적 시선에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

#### 4. 두 가지 시선의 의미

다산이 관찰자적 시선으로 장기의 면면을 살피는 것은 유배 이전 다산이 보여주던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연상시킨다. 다산은 여러 관직을 거쳤는데, 특히 암행어사로 나갔을 때와 곡산부사로 재직했을 때 백성들의 삶을 가까이서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다산이 바라본 백성의 삶은 교화의 대상으로서 파악되는 백성의 삶이었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바라보았다기보다는, 관료의 입장에서 백성의 삶을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려 했다. 백성은 교화의 대상이었고, 자신은 교화의 주체였던 것이다.

##### 1) 적객(謫客)의 울울함과 자중의 태도

더 이상 교화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백성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라도 그들의 삶을 관찰하는 다산은, 그런 관찰 중간에도 문득문득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다. 자기 응시의 시선이 관찰자적 시선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莫向毛黎嶺山行      모려산 쪽으로는 향하지 말자  
蓁蓁厓嶂使愁生      우거진 숲 낭떠러지가 근심 자아낸다네  
眼前一碧無邊水      눈앞에는 끝도 없는 푸른 물  
如見蝦夷匹練城<sup>55</sup>      하이들 필련성<sup>56</sup>을 보일 것 같네

50) 왕실에서 쓰는 각종 직물·인삼의 진상과 국왕이 사여하는 의복 및 사(紗)·나(羅)·능(綾)·단(緞)·포화(布貨)·채색입염(彩色入染 : 색을 입히고 물감을 들임)·직조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1) 이것은 유종원(柳宗元, 773~819)의 「연주군복유혈기(連州郡復乳穴記)」와 관련된 내용이다. 김학주(1989) 321~324쪽. 이 글에서 유종원은, 고갈 상태로 보고되었던 석종유가 연주자사 최공의 부임 이후에 복구되었다는 변화를 들어, 관리의 덕치가 백성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메시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이 이 부분을 차용한 것은 표면적으로 종유혈과 뇌록의 소재적 유사성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 목민관의 태도에 대한 주장도 담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52) 제10수

53) “磊城山産綠石 可以施采 土人謂之磊碌”,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391쪽

54) 『국역 신중동국여지승람』 III, 386쪽

55) 제2수

56) 『국역 다산시문집』에서는 각각 하이(蝦夷)를 고대 일본 북단에 거주하던 미개 종족으로, 필련성(匹練城)을 백마(白馬)를 사육하고 훈련시키는 곳으로 설명한다. 『국역 다산시문집』 제4권 193~194쪽 주

제2수에서 다산은 장기 바닷가에서 일본 쪽을 조망하고 있다. 그런데 바다 너머 일본으로 시선을 두면서 다산은 엉뚱하게도 모려산 쪽으로는 향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 근심을 자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려산이 어디이길래 다산은 일본을 보면서 모려산을 언급하는 것인가?

모려산의 위치는 장기 유배기 다산의 또 다른 시<sup>57)</sup> 「유산(西山)은 귀양살이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곳이다. 집을 떠나 있어 마음을 편안히 하지 못함이다(西山遷人之思也 離其室家不能安土焉)」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에서 다산은 모려령이 고향 초천에 있는 여산<sup>58)</sup>이라 밝히면서, 고향에 이르면 자신의 답답함이 풀리리라<sup>59)</sup> 말한다.

그렇다면 지금 다산은 장기가 면한 바다 앞에서 시선을 일본 쪽에 두면서도, 마음으로는 모려산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장기의 환경을 관찰하는 중에도 고향을 떠올리고 있는 다산의 이런 모습은 장기에 묶인 적객의 향수를 드러낸 것이다.

다산의 향수는 초천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장기 지방의 토산품인 해구신을 시에 쓰면서 해구신을 구매하려고 장기까지 서신을 보내는 서울 재상들을 언급하는가 하면,<sup>60)</sup> 동산의 뇌록을 보면서 제용감을 떠올린다.<sup>61)</sup> 자기가 떠나온 정치 무대의 일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산은 한양과 초천의 환경에서 강제로 격리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런 환경과 상황을 다산이 단박에 잊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본 쪽 바닷가에서 초천의 모려산을 떠올리고, 장기의 해구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서울의 관료들을 염두에 두며, 뇌록을 보면서 제용감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자신이 잘 아는 세계였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거하던 시공간이었다. 그런 자신의 세계로부터 강제로 격리된 지금의 다산은 자신의 세계였던 그곳을 유배지에서서도 기억하고 떠올려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다산은 배소에 있다. 향수에 시달리기도 하면서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죄인의 신분인 것이다. 그래서 다산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산은 금화전에 오르거나 옥당에 의지할 생각을 끊어버리자 한다.<sup>62)</sup> 지금 자신은 유배지에 있으니 유배지에 맞도록 어부의 삶이나 살피자 한다. 그래서 어부가 아내를 맞을 때 어떻게 하는지, 자식을 분가시킬 때 무엇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시에 담는 것이다. 이것은 유배 상황의 불완전한 내면화이다. 지금 자신이 유배지에 있기는 하나, 유배의 상황에 완전히 스며들지는 못하고 있다. 온전히 어부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화전과 옥당으로 돌아갈 생각을 접기 위해 대신 어부의 삶을 파악하는 것이다.

서책을 깊이 알아 인생을 망쳤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옆집 아이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다산의 모습과,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괴로운 뿌리에 대해 다산이 실토하는 시<sup>63)</sup>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산은 떠나온 세계를 반추하며 그 세계로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다. 어부의 삶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자신의 소망을 은폐하기도 하지만, 다산은 유배지를 벗어나 다시 그 세계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자신은 적객인 것이다.

---

#### 1.2번

57)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4, 408~409쪽

58) “黎山 毛黎嶺也”

59) “西山之下 爰有我廬 洌之洋洋 有物其魚 有園有圃 有琴有書 登彼黎山言采其蔚 涉彼漢矣 踰彼屹矣 至彼洌矣 抒我鬱矣(후략)”

60) “年來膾膈逢刁躄 頻有京城宰相書” 제9수

61) “東山磊碌亦奇珍 石髓青筋似茯神 染局不曾充歲貢 零陵乳穴自千春” 제10수

62) “休上金華倚玉堂 魚蠻生理羨漁郎” 제15수

63) “書卷深知誤此生 餘生逝與割恩情 心根苦未消磨盡 臥聽隣兒讀史聲” 제18수

그래서 다산은 자중한다. 해구신을 사기 위해 장기까지 편지를 보내는 서울의 재상들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은 삼킨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참소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 을지라도 구양수의 글에서는 파리 자체만 이야기하며, 공물 문제를 놓고 목민관의 도리를 언 급하는 대신 종유혈 이야기만 시에 넣었다.

다산은 유배길을 지나오면서 하담에 들러 선친 묘소에 참배하였다. 당시의 심정을 그린 시에 서는 자신의 참담함을 표현했으나, 다음 여정에 다다른 다산은 유배객의 우울함 대신 신립의 패인을 분석하는 현실 참여적 모습을 보인다.<sup>64)</sup> 이것은 다산이 고통스러운 유배의 길로 들어 서기는 했으나 여전히 현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지향하던 경제의 꿈을 펼 칠 기회도 단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에 도착한 유배 초기의 다산은 이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적객의 심사나 그려내면서 자중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 2) 관념적 인식의 탈각(脫却)과 실증적 사고

백성은 여전히 교화의 대상일지 모르나 다산 자신은 당분간 교화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 뿐 아니라, 교화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그 백성의 틈에서 그 백성의 모습으로 지내야 했다. 이 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에서 백성의 삶을 바라볼 때는 상층의 관료가 기층의 민을 바라보 듯 할 수 없었다. 이전과 달리 관념적 인식을 벗고 보다 찝진한 사실에 기반하여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인식해야 했고 또 인식하게 된 것이다.

유배 전에 다산은 「양강에서 고기잡이를 만나다(楊江遇漁者)」<sup>65)</sup>에서도 어부를 그려낸 바 있 다. 그런데 이때의 어부는 매우 관념화된 어부이다. 멀리서 바라본 어부의 삶은 관념의 윤색 을 통해 이상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시의 제3수에서는 잡은 물고기를 팔기 위해 관솔불을 켜 놓고 고기를 가지에 꿰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다산은 이 장면을 그려내면서 고기 냄새를 듣는다(聞魚香)는 낭만적인 시구를 사용한다. 비린내를 의미하는 ‘성(腥)’이 아니라 ‘향(香)’이 라는 시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현실성의 탈색은 다산이 고기잡이 영감의 삶을 이상화한 데 기인한다. 다산의 시에서 어부의 삶은 현실적 어부의 삶이 아닌 탈속적 어부의 삶으로 그려지 고 있는 것이다.<sup>66)</sup> 그런데 「기성잡시」에 제시된 어부의 삶은 이보다 현실적이다.

休上金華倚玉堂	금화전 오르고 옥당 의지할 생각 말게
魚蠻生理羨漁郎	고기잡이 생활습성 어부를 부러워 한다네
迎妻好贈鯨鬚尺	아내 맞이할 때에는 곧잘 고래수염 자를 주고
析子皆分蟹甲鎗 <sup>67)</sup>	자식 분가시킬 때는 모두 게딱지솔 나눠주네

시에서는 어부의 사실적인 생활 모습을 소개한다. 어부는 아내를 맞아들일 때 고래수염 자를 주고, 자식을 분가시킬 때는 게딱지같은 작은 솔을 줄 뿐이다. 고래수염으로 만든 자가 무엇 을 가리키는지는 분명히 알기 어려우나,<sup>68)</sup> 자식을 분가시키면서 혼수로 작은 솔 하나를 주는 것은 「양강우어자(楊江遇漁者)」에서 파악했던 여유있고 이상적인 어부의 삶과는 분명히 차이

64) 김은미, <정약용 시문학의 노년 인식 양상>, 부산대 박사논문, 2019. 120~122쪽

65) 이 시는 다산의 나이 35세 때 지은 시이다. 『정본 여유당전서』 시집 권3, 315쪽

66) 김은미 (2019) 50~51쪽 참고.

67) 제15수

68) 고래수염의 일정한 간격 때문에 고래수염을 자로 만들어 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송광사지」에 는 책 이름표인 경패를 고래수염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가 있다. 다시 옥당에 들 기대 따위는 애초에 끊어버리느라 어부의 삶이나 살핀다면 자중의 태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때의 어부의 삶은 현실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성잡시」에서는 물고기와 관련해 ‘문어향(聞魚香)’ 같은 미화된 시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린내[腥]<sup>69)</sup>일 뿐이고, 파리가 꼬이는<sup>70)</sup> 고약한 냄새일 따름이다. 어부의 삶을 이상화해서 이해하던 유배 전과 달리, 이제 다산은 어부의 삶을 사실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관념적 인식을 벗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성잡시」에 나타난 다산의 관찰에는 또한 실증적 사고가 드러난다. 다산은 자신의 배소를 관찰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접하지만,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는다. 제1수는 바다에 면한 장기의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산의 실증적 사고의 편린을 찾을 수 있다.

星山浦口石爲門	성산포 포구는 돌로 문을 삼았는데
東直扶桑水氣昏	동으로 부상까지 물빛만 아스라하다
豈有龍來平島嶼	어찌 용이 와서 섬들 평정했겠나
鷄林六部亦荒村 <sup>71)</sup>	계림의 육부 역시 황폐한 마을이라네

다산은 동해의 풍경을 시로 썼다. 시에 그려진 동해는 섬 하나 없이 물빛만 아스라하다. 동해에 섬이 없는 것은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신용이 포구에서 나와 모든 섬들을 다 깎아 없애 버렸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다산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용이 와서 섬들을 평정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다산은 전설의 신빙성을 제기한다. 전설이 전하는 성산은 경주에 있는데, 그 경주 계림의 6부 역시 지금은 황폐한 마을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용이 와서 섬을 없앴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지만, 계림 즉 경주 역시 이제는 황폐한 마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여 경주에 전하는 그 전설은 경주의 황폐함과 마찬가지로 퇴락한 전설이므로 그 전설은 믿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자연 환경을 설명하는 전설에 대해 합리적으로 확인해 보는 다산의 태도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기성잡시」의 마지막 수에서도 사람들의 말에 대해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다산의 모습이 나타난다.

西南海色接金陵	서남해 바닷빛 금릉까지 닿고
商舶東來數日能	장사배도 동으로 와 며칠이면 된다네
未信瓊雷解相望	경뢰 바라보인다는 그 말 믿지 못하겠네
叢攢島嶼碧崢嶸 <sup>72)</sup>	뾰뾰하게 모인 섬들 푸르고도 험하니

지역민들은 장기가 중국과 가깝다고 이야기한 듯하다. 서남해빛이 닿는다고 한 점과, 경련의 경뢰라는 시어를 고려할 때, 금릉은 중국 난징을 이르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남해 바다가 금릉까지 닿기 때문에 중국에서 출발한 장사배도 동쪽으로 며칠만 오면 장기에 닿는다고 한다. 심지어, 경뢰도 보인다고 한다. 중국 광둥성의 뇌주반도(雷州半島)와

69) “新榨魚油腥滿家” 제7수  
70) “鮑腥蒸鬱苦多蠅” 제22수  
71) 제1수  
72) 제26수



남해도(南海島) 사이에 위치한 경주해협(瓊州海峽)을 일명 뇌주해협(雷州海峽)이라고도 하기<sup>73)</sup> 때문에 시에서는 경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장기 사람들에게 따르면 그 경뢰까지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산은 믿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지역에서 믿어지는 말들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후 이런 사실은 믿을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다산은 뻘뻘하게 모인 섬들이 푸르고도 험하다고도 시에 적는다. 이것은 얼핏 보아 제1수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동해에 섬이 없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제1수에서 다산이 의심을 가지고 부정하는 것은 동해에 섬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용이 와서 평정했기 때문에 동해에 섬이 없다는 그 설명이었다. 그런데 제26수에 이르면 푸르고 험한 섬들이 뻘뻘하게 모여있다고 한다. 이것은 동해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 험하고 푸른 여러 섬들 사이로 경뢰가 보일 리가 없다는 뜻으로, 장기가 면한 동해가 아닌 서남해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서남해의 다도해 사이로 시야가 막혀서도 경뢰를 볼 수 없다는, 사실 관계에 대한 다산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것이다. 지역민의 이야기를 그냥 옮기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다산의 실증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 5. 결론

이 연구는 장기 유배기의 초기 시를 통해, 시에 나타난 다산의 유배 초기 정서를 이해해 보려는 시도였다.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된 다산의 정서를 그가 남긴 시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 것이다.

「기성잡시」를 살펴보면 다산의 시선은 자기문제로 향하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향하기도 한다. 형제의 죽음을 목도하며 떠난 장기 유배길에서 인간 정약용이 가졌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기록의 엄정함 때문에 자기 검열의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다산은 자기 응시의 시선을 통해서 적객의 울울한 심사와 향수를 드러내는 한편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산은 또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는 관념의 껍질을 벗고 사실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는 실증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유배 상황에 처하여 자중하는 태도에 가려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다산은 실증적으로 사고하면서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관념적 인식을 탈각하고 현실적으로 민의 생활을 인식하는 장기 유배 초기 다산의 태도는 이후 강진 유배기에 이르면 보다 적극적인 사회시로 구체화된다는 추정도 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상론은 다음으로 미룬다.

---

73) 『국역 다산시문집』 제4권 198쪽 주33번

## 참고 문헌

- 『국역 신중동국여지승람』,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정본 여유당전서』, 다산학술문화재단  
『고문진보』, 김학주 편역, 명문당, 1989

- 김봉남, <다산의 장기 유배기 시에 함축된 내면의식의 제양상>,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38권, 2006. 12  
김윤규, <장기 유배기 다산 시의 성격>, 동방한문학회, 《동방한문학》 57권, 2013. 12.  
김은미, <정약용 시문학의 노년 인식 양상>, 부산대 박사논문, 2019  
김준오, 《시론》 제3판, 삼지원, 1991  
송재소, 《다산시연구-부 다산연보》, 창작사, 1986.  
정민, 《파란》, 천년의상상, 2019.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6.

## <「기성잡시(鬢城雜詩)」에 나타난 다산의 두 가지 시선(視線)> 토론문

조수미(부경대)

이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장기 유배기 시문집인 「기성잡시(鬢城雜詩)」를 대상으로 하여 시들을 관통하는 다산의 두 가지 시선과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다산의 장기 유배가 다산의 실질적인 첫 유배경험이므로 이 시기의 시들을 통해 다산의 유배 초기 정서를 이해하고자 한다.”(2쪽), “「기성잡시(鬢城雜詩)」를 주로 장기 지방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낸 것으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관찰자로서의 시선 가운데 산견(散見)되는 다산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4쪽)는 서두의 언급은 이어질 연구의 결과에 대한 기대와 흥미를 높이고 있다.

「기성잡시(鬢城雜詩)」가 가진 유배시집으로서의 가치, 풍속시처럼 여겨지는 시들 속에서도 시인의 내면을 찾아야 한다는 연구의 목적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고자 한다.

1. 본론 3장의 ‘자기 응시’라는 표현의 정확한 함의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예시로 언급된 시들은 배소에서 일상적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소소하게 즐겁기도 하고 주로는 무료하며 때때로 괴로운 유배지의 일상과 유배객으로서의 자각, 지난 삶의 태도에 대한 헛된 반성 등 다양한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시들을 ‘자기 응시’라는 말로 묶은 까닭은 무엇인가? 그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굳이 ‘응시’라는 말을 쓸 까닭이 있는 것일까?

2. ‘4장 두 가지 시선의 의미’의 첫 번째 항목은 ‘적객의 울울함과 자중의 태도’라는 제명 아래, ‘자기 응시의 시선이 관찰자적 시선과 함께 나타나는’ 시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 예로 장기의 환경이나 풍속 등을 그리면서 동시에 고향이나 떠나 온 정치무대 등을 생각하는 시를 들었다.

1) 그러나 단순히 관찰대상과 자신의 그리움 등을 같이 서술했다고 해서 자기 응시의 시선이 관찰자적 시선과 함께 나타난다고 표현 할 수 있는 것일까?

2) 3장의 두 가지 시선, 즉 ‘1) 자기 응시의 시선’과 ‘2) 관찰자적 시선’이 4장의 ‘1)적객의 울울함과 자중의 태도’, ‘2)관념적 인식의 탈각과 실증적 사고’와 각각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 ‘연안(延安)’을 통해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

김성화(부산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차 례

- I. 서론
- II. 항일의 성지, 도래할 미래상—‘延安(연안)’ 및 ‘연안’ 이야기
- III. 연안 ‘정풍운동’과 『노마만리』-지식인의 사상개조와 자기비판
- IV. 결론

### I. 서론

2013년, 북한에서는 전승 60돌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공사와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었다. 이때 종군작가로서 여러 편의 종군기를 남겼던 김사량이 북한사회에 의해 호명되는 방식은 주목해 볼만하다. 김정은 정권은 김사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했고, 7월 말에 준공된 ‘조국해방전쟁참전 렬사묘’에는 ‘공화국 영웅 김사량 동지’라고 새긴 묘비가 세워졌으며 묘비에는 군복차림의 김사량이 새겨졌다.<sup>1)</sup> 사후 60년 동안 북한체제에서 결코 잊혀진 적이 없었던 김사량은 ‘전승’을 위한 ‘축제’에서 다시 한 번 국가 권력에 의해 소환되었다. 북한 정권은 종전 후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김사량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항간에서 여러 가지 ‘설’이 떠돌고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가족들 역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으나, 김사량에 대한 ‘변치않는 령도자의 믿음’<sup>2)</sup>이 있었기에 그의 장렬한 최후는 드디어

1) 평양발 김지영 기자, 「전승 60돌의 해에 인민이 추억한 종군작가/김사량 영웅 칭호 수여에 잇든 비화」, 『조선신보』, 2013년 12월6일. 위의 사진자료들은 모두 『조선신보』 기자 문광선 촬영.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기관지로 주로 조선어로 발간되고 있다. 본사는 일본 도쿄에 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에 지국을 두고 있다.

2) 김사량의 최후에 대해 여러 가지 소문이 떠돌았으나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를 믿어 주었으며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여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음을 해명하게 되었다. 김정일은 김사량에게 ‘혁명작가’ 명예를 수여했고 잇달아 『김사량 작품집』이 출간되기도 했다. 2000년에 이르러 ‘혁명작가’들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질 당시 김사량은 또 한 번 가장 먼저 재조명되기도 했다.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北 공화국영웅 칭호 받은 종군작가 김사량의 최후는?」, 2013.07.08 ; 연합뉴스, 「북, ‘혁명작가’ 재조

해명될 수 있었고 공화국 최고의 명예를 받아 안음과 동시에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지게 되었음을 강조했다.

〈사진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증서와 훈장

〈사진 2〉 ‘조국해방전쟁참전 련사묘’에 있는 아버지 김사량의 묘비 앞에 선 아들 김광림

〈사진 3〉 왼쪽에서 김사량의 딸 김애경(딸딸 2013년 당시 70세), 김애리(둘째 딸, 2013년 당시 67세), 아들 김광림(2013년 당시 63세)

『조선신보』의 기사에서는 『노마만리』를 언급하며 이를 김사량 ‘항일문학’의 시발점이자 ‘김일성장군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칭송<sup>3)</sup>으로 읽어내고 있었는데 이러한 해석은 대체로 80년대에 김사량이 ‘혁명작가’로 조명되었을 때의 평가를 이어받는 것이었다. 80년대 말 장형준(북한의 문학 평론가)은 김사량이 해방 전에 창작한 『노마만리』에서 이미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고 김일성의 부대를 ‘태양부대’라고 불렀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김일성장군의 위대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 조선인민혁명군의 혁혁한 승리와 그 세계사적 의의를 격동적으로 노래한 작품”<sup>4)</sup> 이라고 평가했다.

2011년에 이르러서는 1940년대 문학작품 중 김사량의 「물오리섬」(『국민문학』, 1942.1)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해방 전 창작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어용잡지에 실린 그의 일본어 소설마저도 ‘작가의 고충과 긍정적 시도에 대해 응당하게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점에서 김사량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노마만리』는 여전히 ‘반일’에서 ‘항일’로 나아간 전환점으로, “조선인민혁명군에 참군할 것을 결심하고 유격대를 찾아 만주지방을 헤맸으나 종시 부대를 찾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항일유격대를 ‘태양부대’라고 칭송한 장편기행문”<sup>5)</sup>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하여 김사량의 해방 전 문학은 북한에서 ‘반일’, ‘항일’, ‘민족’이라는 공적서사 속에 매끄럽게 기입되었다.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한국에 소개된 것은 80년대 말 ‘민족문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였다. 이때 『노마만리』는 ‘암흑기를 뚫은 민족해방의 문학’으로, ‘일제 말기가 친일과 전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위 암흑기가

명 활발], 2003.07.14.

- 3) “김사량은 김일성장군께서 이끄시는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하려고 만주광야를 헤매다가 조선인민혁명군의 선을 찾지 못해 중국팔로군과 연결된 비밀통로를 따라 연안의 해방지구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탈고하였다. 그는 광복전에 씌어진 이 작품에서 김일성장군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을 정식 ‘태양부대’로 명기하고 ‘세계에서 굴지의 빨찌산’이라고 자랑하였다.” 위의 기사.
- 4) 장형준, 「작가 김사량과 그의 문학」, 김사량 지음, 김재남 엮음, 『중군기』, 살림터, 1992.4, 324~325쪽. 이 논문은 원래 1987년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발간된 『김사량 작품집』에 실린 것이다.
- 5) 【북한】류희정, 『현대조선문학선집53-1940년대 문학 작품집(해방전편)』, 문학예술출판사, 2011.4, 19~20쪽. 『노마만리』에 대한 평가는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재인용한 것임.

아니었음<sup>6)</sup>을 증명해주는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뒤 『노마만리』는 드디어 세 판본<sup>7)</sup>이 함께 출간되면서 작품의 전모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작품집 부제-‘항일중국망명기’와 앞부분에 실린 사진들<sup>8)</sup>은 『노마만리』가 어떤 시각에서 재전유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노마만리』에 대한 평가는 80년대 말의 논의를 이어받으면서도 해외독립운동 중 하나였던 조선의용군의 존재에 주목하여 ‘소중한 역사의 기록’이자 ‘항일의 빛나는 저항문학’<sup>9)</sup>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논의들은 ‘항일문학’이라는 공통분모를 공유하면서도 또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노마만리』를 재전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북한은 『노마만리』에 나타나고 있는 (단행본에만 있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찬송’에만 주목하여 김일성 수령화 작업의 일환으로 복속시키고 있는 반면, 한국은 현대사의 ‘암흑기’가 가져다주는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해외독립운동 즉 의용군의 항일투쟁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항일 저항문학’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항일문학’이란 북한 사회에서만 아니라 남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식인들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시대의 이야기’임을 증명해준다.

2000년대 이후 접할 수 있는 북한 자료들이 풍부해지면서 한국에서 『노마만리』에 대한 연구는 북한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곽형덕의 경우 『노마만리』의 세 판본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김사량이 태항산-의용군 체험과 기억들을 해방 후 신속하게 재편되어 가고 있는 민족과 국가,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 『노마만리』에 담아내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김일성에 대한 찬양은 김사량이 북한의 정치상황에서 ‘기억’을 ‘기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대와의 격투의 흔적을 아로새긴 것으로, 그가 다시 한 번 국가가 요구하는 글을 주문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말해준다고 했다.<sup>10)</sup> 그러나 이러한 연구경향은 김사량과 『노마만리』를 북한체제 속에 묶어둠으로써 쉽게 ‘체제 순응적’이라거나 ‘기회주의자’라는 결론을 내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sup>11)</sup>

6) 이상경, 「암흑기를 뚫은 민족해방의 문학-김사량의 삶과 문학」, 『노마만리』, 동광출판사, 1989, 406~408쪽.

7) 김사량은 해방 후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머무는 동안 『민성』 편집자의 요청으로 「연안망명기-山寨譚」(1946년 1월호에 「종이騷動」, 2월호로 「담배와 불」) 두 편을 발표했고 그 후 평양에 돌아가서 다시 태항산근거지에서의 기록들을 소재로 『민성』에 「驚馬萬里-延安亡命記(序言/驚馬萬里)」, 「驚馬萬里-延安亡命記②~⑦」(『민성』, 1946년 3월호, 4월호, 6월호, 11월호, 1947년 2월호<北朝鮮 特輯號>, 3월호, 7월호)을 연재했다. 1947년 8월에 연재가 중단된 후 김사량은 1947년 10월 평양에서 『노마만리』(평양: 양서각) 단행본을 출간했으나 이 판본은 현재 찾아볼 수 없으며, 김사량 사후인 1955년에 평양 국립출판사에서 『김사량 선집』을 출판했는데 그 속에 『노마만리』가 수록되어 있다.布袋敏博, 『초기 북한문단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김사량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28~33쪽 참조. 김재용이 편주한 『항일중국망명기-노마만리』(실천문학사, 2002)에는 이상 세 시기의 텍스트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8) 사진은 주로 염인호의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 2001)에서 인용이 되고 있는 만큼 태항산 일대에서 활동한 조선의용군의 행적을 전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9) 「해제-김사량과 「노마만리」, 김사량 지음, 김재용 편저, 『노마만리』, 실천문학사, 2002, 20쪽; 김재용, 「김사량-망명 혹은 우회적 글쓰기의 돌파구」,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242쪽; 김재용, 「일제 최후기 조선문학과 중국」, 『현대문학의 연구』6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233~237쪽. 이러한 흐름은 중국 학계에도 이어져 2005년 한중 작가협회가 공동으로 태항산 조선의용군 군영이 있던 호가장(胡家庄) 마을 입구에 김학철, 김사량 ‘항일문학비(抗日文學碑)’를 세우면서 김사량은 중국에서도 항일투사로 부각되었다.

10) 곽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9, 267~390쪽.

11) 정백수는 해방 직후 문학자들의 자기비판에 직면하여 김사량은 ‘일본어’ 창작경력이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해방직후의 위기상황을 식민지말기에 연안지구로의 탈출이라는 ‘항일’ 경력으로 극복하려고 했고, 다음으로는 연안파와 연결되어 선전되는 작품을 다수 발표했던 자신의 과거가 초래하게 될 정

이상으로부터 볼 수 있다시피 ‘항일문학’ 혹은 북한체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노마만리』를 고찰했을 때 늘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며 작품의 보다 다양한 면모들은 보이지 않게 된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이상 논의들은 이 작품이 중국의 ‘화북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 본진’에서 이미 창작된 「土亮稿箋」, 「山寨譚」 등 육필원고에 의존한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연안’이라는 키워드를 누락하고 있었다. 본고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김사량 자신이 결코 도착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이 그의 작품 속에 빈번히 나타나는 원인과 ‘연안’이 남긴 흔적들을 살펴봄으로써 해방기 김사량 및 『노마만리』에 대한 논의를 보충, 확장해보고자 한다.

## II. 항일의 성지, 도래할 미래상—‘延安(연안)’ 및 ‘연안’ 이야기

延安, 이곳은 중국 공산혁명의 발상지이자 신중국의 모태로서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紅色教育’기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36년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홍군이 국민당 군에 쫓겨 자리를 잡게 된 곳이 바로 연안이었으며 여기에서 항일근거지를 설립하고 공산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연안은 지리적인 원인과, 중일전쟁의 전면 폭발 및 국공합작 결렬로 인해 외부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안의 ‘실체’를 중국 내지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것은 미국인 기자 에드거 · 스노(Edgar Snow, 1905~1972)<sup>12)</sup>에 의해서였다.

스노는 1936년 6월에 연안에 도착하여 4개월 동안 근거지 생활을 체험하면서 모택동을 비롯한 중공 지도자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영국 런던에서 『Red Star Over China』(London, Victor Gollancz Ltd, 1937.10)라는 책을 출판했다. 스노의 ‘연안방문기’는 영미권에서 폭발적인 반응과 인기를 얻었고 미국 내지 세계 여론으로 하여금 중국 공산당과 홍구(紅區)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했으며, 중국공산당이 꿈꾸는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공헌했다.<sup>13)</sup> 스노에 의해 밝혀진, 소련과 차별되는 또 하나의 공산국가가 태동하고 있었던 연안의 국제적 의미는 남다른 것<sup>14)</sup>으로서 이즈음 연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붉은 별’로 떠오르게 되었다.

『Red Star Over China』는 영국에서 출판된 후 바로 중국으로 반입이 되어 상해에서 『서행만기(西行漫記)』(집단 번역, 상해 復社, 1938년 2월)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sup>15)</sup>되며 전국적인 항일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중국의 많은 진보적 청년 지

지적 위기를 이변에는 김일성의 영웅화를 작품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극복하려고 했다고 보았다. 동시에 이런 기회주의적 면모는 북한에서 김사량의 문학활동 전체의 흐름을 특징짓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鄭百秀, 「抗日闘争文学」というイデオロギー—金史良の中国脱出紀行『驚馬万里』, 『櫻美林世界文学』(3), 桜美林大学世界文学会, 2007.03, 1~17쪽.

12) 스노는 1928년에 중국 상해에 와서 1932~1941년까지 런던 데일리헤럴드지(Daily Herald, 영국노동당 기관지) 특파원으로 있는 동안 많은 중국의 지식인 작가들과 친분을 쌓았다. 1936년 6월에 북경에서 연안으로 들어가 모택동, 주은래 등 공산당 간부들과 만나고 교류했으며 모택동과 중요한 담화를 나누었다. 같은 해 10월에 그는 연안에서 빠져나와 『밀러즈 리뷰(Millard's Review)』(1917년에 미국인이 상해에서 창간한 영자신문)에 모택동과 자신과의 대담을 게재했고 1937년에 영국에서 『중국의 붉은 별』을 탈고했다. 【中】에드가 · 스노 저, 董樂山 역, 『서행만기』, 해방군문예출판사, 2002, 384~386쪽.

13) 또 루스벨트는 미국에서 출판된 스노의 책, 스노 본인과의 만남을 통해 중국 공산정권의 향방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미군관찰조(美軍觀察組, 중국에서의 공식명칭, 영어로는 Dixie Mission)를 연안에 주둔시켜 공산정권과의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다. 【中】上海市美國問題研究所課題組, 「Edgar Snow對中國共產黨發展國際關係的貢獻和影響」, 『湖北社會科學』, 2011년 제7기, 43쪽.

14) 신형기,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 삼인, 2015, 43쪽.

15) 【中】崔玉軍, 「抗戰時期到訪延安的美國人及其‘延安敘事」, 『齊魯學刊』, 2017년 제5기, 38쪽.

식민들 역시 이 책을 통해 연안에 대해 알게 되었고 연안행을 결심하게 되었다. 스노의 발자취를 따라 서구 기자들, 해외 공산세력들과 항일세력들, 그리고 중국 내 진보적 지식인 청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연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 중 1935~1945년 사이에 연안에서 활동하거나 연안을 다녀간 조선인은 2, 3천명에 달한다고 한다.<sup>16)</sup> ‘특종’ 발굴을 위한 영미의 서양기자들의 연안 방문과는 달리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의 혁명가·지식인들에게 있어 연안의 의미는 좀 더 특별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연안은 ‘항일의 성지’이자 희망과 기회의 땅이기도 했다. 태항산에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건립된 이튿날인 1941년 7월 8일 연안에서는 조청 섬감녕변구(陝甘寧邊區)<sup>17)</sup> 분회가 창립되었는데, 무정은 이날의 대회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참석자들은 연안에 조선혁명간부학교를 건립하여 조선 혁명의 간부를 양성코자 결의했다는 점에서 연안은 조선인 독립 운동의 중심<sup>18)</sup>이 될 것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그 뒤에 태항산에 설립되긴 했으나 1944~45년 초에 이르러서는 국제반파쇼전쟁의 승리를 앞두고 조선혁명군정학교 사생과 각지의 조선의용군은 연안에서 집결하게 되었다. 이들은 연안에서 다시 설립한 조선혁명군정학교에서 함께 학습하며 일제 패망 이후의 새 나라 건설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역량을 축적하고 있던 와중에 일제 패망의 소식을 접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연안에서 출발한 조선의용군의 귀국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대부분 병력이 중국 동북지역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해방된 조선에 가장 먼저(1945년 11월) 돌아온 의용군은 바로 김학철이었다. 이때 김학철은 혁명가로서, 작가로서 해방 직후 조선사회의 환대를 받게 되는데, 그의 고난의 투쟁경력-중국에서 오랫동안 항일운동을 하다가 조선의용군에 가담하며 호가장 전투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고 포로로 잡힌 후 감옥에서 한 쪽 다리를 잃게 됨-은 의용군의 항일투쟁사를 몸으로 전달해주고 있었다. 해방공간에서 발표한 그의 소설들은 재빨리 『조선의용군』이라는 단편집으로 출판을 계획하게 되는데 신간소개에는 “朝鮮義勇軍으로 抗日戰에 參戰하여 다리를 잃고 延安서 도라온 가장 期待되는 作家의 괴로 記錄된 歷史的인 珠玉篇이다!”<sup>19)</sup>라고 씌어졌다. 이 소설들은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의용군 출신의 작가가 썼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김학철의 전투경력과 처각의 몸, 투쟁의 기록으로서의 해방기 소설들은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한 조선의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다.<sup>20)</sup> 1942년에 포로로 잡혀서부터 광복 전까지 3년 동안 일본에서 투옥 증으로 분명 연안에 있지 않았으나 ‘연안서 도라온’자로 회자되고 있음은 ‘연안’이란 바로 조선의용군의 항일무장투쟁의 성지를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16) 【中】王建宏, 「朝鮮革命者在延安活動述論(1935-1945)」, 『延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40권 제6기, 2018.12, 64~69쪽.

17) 일명 섬감녕혁명군거지. 지리적으로 중국 서북부의 섬서, 감숙, 녕하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1937년에 연안에서 성립되며 모택동을 비롯한 공산당의 영도 간부들이 줄곧 이 곳에 있었기에 연안을 중심으로 하는 섬감녕변구 역시 전국 항일의 중심지였다.

18) 염인호,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90쪽.

19) 『신문학』 창간호, 신간광고. 1946.7. 이 책은 결국 출판되지 않았다.

20) 김학철 자신의 회억으로는 “내가 서울에 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은 일본군과 직접 싸웠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학도병으로서 일본 측에서 싸운 사람은 있었지만 일본군의 반대 측에서 정면으로 전쟁을 한 경험은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하고 말합니다. 게다가 다리가 하나 밖에 없었기에 유난히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大村益夫, 『解放直後ソウル時代の金学鉄』, 『植民地文化研究: 資料と分析』(17), 浦安: 植民地文化学会, 2018,



1945년 11월 하순에 연안에서 갓 돌아온 김태준은 기자회견을 통해 연안에서 조선독립동맹의 활동, 중국 국내 사정, 조선의용군의 항일전에 대해 전달했으며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에 「연안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3회에 걸쳐 연재<sup>21)</sup>하기도 했다. 김태준은 항일의 전투경험은 없었으나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활약상-‘연안’ 이야기의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였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무정(武亭)이 창건한 조선의용군은 현재 병력이 5, 6만이상이 될 것은 사실”로, 이들은 현재 만주에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렸다.<sup>22)</sup> 연안에서 돌아오게 될 조선의용군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유혈 투쟁을 한 진정한 용사들이며, 해방된 조선의 민중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무장부대로서 ‘연안’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다.

김태준의 「연안현지보고」 후, <재지반도출신학병위문> (1945. 5) 도중 ‘연안’으로 탈출했다던 소문의 주인공 김사량이 서울에 나타났을 때 그 역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김사량은 1945년 6월에 태항산 항일근거지에 도착하였으며 거기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 귀국선발대에 들어 귀국했다. 흥미로운 것은 김사량의 행방에 대해 언론은 태항산, 화북, 연안 등 지리적 장소를 혼용 내지 오용<sup>23)</sup>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전달된 의미는 김사량이 연안에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봉황각 좌담회에서 김남천도 “최근 색다른 체험을 하고 연안 방면에서 돌아오신 김사량 씨”라고 소개를 하며 김사량 자신도 ‘태항산’과 ‘연안’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에게 ‘태항산’이나 ‘연안’은 모두 ‘항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안으로 갔다’는 것은 바로 ‘항일하러 갔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다.

지난 五월 삼엄한 일인 경관과 헌병들의 감시를 뚫고 北京, 南京을 거쳐 延安까지 갔다가 이번 조국의 해방과 함께 도라온 작가 金史良씨는 그간 고향인 平壤에 있다가 十일아침 서울에 왔는데 다음과 가타 이야기하였다.

“延安까지 가는데 꼭 한달이 걸렸스나 이번에 도라오는 길은 두달이상이 걸렸으며 延安의 제일선인太行山속에 드러있다가 三천리를 거러나왔다.”

- 「太行山서 三千里를 步行 延安갔던 金史良 氏의 入京談」, 『자유신문』, 1945년12월11일.

김사량의 『노마만리』에서도 비전투지역인 중경과 달리 연안은 ‘적과 총칼을 맞대고 싸워 나가는 곳’,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계속되는 곳’으로 항일무장투쟁이 직접 벌어지는 장소로 재현되고 있었다. 김사량은 『민성』에 『연안망명기-산채담』을 먼저 발표한 후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연재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연안에 가지 못했으나 제목에서부터 ‘연안’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또 게재 당시 『민성』 편집자도 김사량을 ‘연안에 망명하였던 작가’<sup>24)</sup>로 소개하고 있었는데 ‘항일의 성지-연안’은 의용군의 항일투쟁사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함에 있어 꼭 필요한 존재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그가 태항산근거지에서 창작하고 무대에 옮겼던 희곡 「호접(胡蝶)」(일명 호가장전투)<sup>25)</sup>은 가장 일찍 조선의용군을 영웅화한 작

21) 「연안행」, 『문학』 제1~3호, 1946.7~1947.4.

22) 「進歩的인 獨立同盟의 活動 義勇軍은 抗日戰에도 活躍-金台俊氏의 延安現地報告」, 『중앙신문』, 1945년 12월 7일, 1면.

23) 「太行山서 三千里를 步行 延安갔던 金史良 氏의 入京談」(『자유신문』, 1945년12월11일); 「소설가 김사량 씨 華北延安으로 가신 뒤 소식이 없더니 今般 무사히 귀국하여 入京」(『중앙신문』, 1945년 12월 12일자, 2면)

24) “日帝政은 그 斷末魔에 잇서서 直筆을 든 作家에 대하여 強壓을 加하여, 혹은 붓을 꺼게하고 혹은 이를 붓들어 囹圄에 監禁하기에 汲汲하였을 때, 海外革命勢力에 協力코져 朝鮮을 脫出하여 延安에 亡命하였던 作家 金史良氏가 잇섯슴은 우리 記憶에 새롭다.” 『민성』제2권 제2호, 1946.1, 3쪽, 布袋敏博, 앞의 논문, 29쪽 재인용.

품으로 김사량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 작품을 먼저 내놓았다.

김사량이 『민성』지에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본격적으로 연재하고 있을 즈음 『민성』의 경쟁지였던 『신천지』는 1946년 3월호(제1권 제2호)에 ‘독립동맹특집’을 선보였다. 이 특집은 보다 상세하게 독립동맹과 의용군 및 그들의 투쟁사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으며, 5월호에는 의용군 출신인 김학철의 소설 「아아, 호가장-피로 기록한 항일사」, 10월호부터는 님 웨일즈의 『김산: 아리랑-조선인 반항자의 일대기』를 연재하기 시작했다. 특히 해방기 잡지에서 스노<sup>26)</sup>의 글들이 자주 번역 게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중국의 붉은 별』이 아닌, 님 웨일즈가 남편 스노와 함께 연안에 갔을 때 인터뷰한 조선인 혁명가 김산(본명 장지락)의 일대기를 연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해방된 조선에서 ‘연안’은 ‘항일의 성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조선독립단체와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신천지』의 이 기획특집을 통해 『민성』에 실린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어떠한 맥락에서 수용되고 있었는지도 더욱 뚜렷해진다.

‘연안’ 및 ‘연안’ 이야기들의 존재로 인해 식민지 조선의 해방은 결코 도적같이 찾아온 것이 아니게 되었으며 ‘우리(민족)’가 이국타지에서 피와 생명으로 바꾸어 온 것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안’이란 장소는 식민지 조선인이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허무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워지고 떳떳해질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기탁으로 작용했다. 신형기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항일무장투쟁의 이야기가 증식되고 고착되었던 과정이 곧 그의 권력이 절대화되는 과정”<sup>27)</sup>이라고 주장하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이야기의 역능을 짚어보았을 때 해방직후 양산되는 ‘연안’ 이미지와 ‘연안이야기’ 즉 조선의용군과 독립동맹의 항일의 이야기는 그에 못지않은 거대한 역능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되돌아가 80년대 말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항일독립운동’, ‘항일문학’에 대한 발굴과 평가를 볼 때 이는 해방직후의 ‘작업’과 얼마나 많이 닮아있는지, 나아가 현대사의 ‘암흑기’라는 말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콤플렉스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사량의 『노마만리-연안망명기』와 『노마만리』에서 ‘연안’이란 ‘항일의 성지’라는 의미에서 한 발 나아가 항전 승리 후 찾아오게 될 ‘미래’와 관련되는 장소로서 건국을 눈앞에 둔 탈식민 주체들이 참조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었다. 김사량이 중경을 포기하고 연안을 선택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연안’이란 ‘미래’를 미리 견학할 수 있는 피안의 이상향으로 상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럴 듯이 연안은 반제반봉건이라는 오랜 과제를 비약적으로 해결할 인민의 국가수립을 목표하는 점에서 해방조선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아시아적 예증이 아닐 수 없었다. ‘신민주주의’를 배워 건국의 진함에 이바지하겠다고 한 김사량의 발언은 그런 생각의 표현이었다.<sup>28)</sup> 태항산채(근거지)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 ‘새로운 하늘’, ‘새날을 맞이하는 세계’를 보았으며 이 대지에서 ‘새 정신, 새 생활, 새 문화’가 이룩되고 있다며 흥분을 금치 못했다. 그가 탈출 노상에서 지켜보았던 중국의 공산혁명은 ‘거의 같은 단계에 있는 조선에 무한한 경험과 교훈을 제시해주는 바’로서 따라 배워야 할 것이었다.

특히 김사량이 첩첩산중에서 백오십리를 달려 의용군의 본거지인 남장촌에 도착했을 때

25) “「호접」3막, 김사량 작.(일명 ‘호가장의 전투’). 조국애에 불타는 조선의용군의 29용사가 왜군을 격파한 혈투의 일대감동편”, 『문화통신』 제2권 제1호, 서울, 1946.1.20. 20쪽.

26) 『서행만기』에 정리된 스노의 경력을 본다면 그는 1945년 말~1946년 조선에서 취재했다고 한다.

27) 신형기, 앞의 책, 71쪽.

28) 신형기, 앞의 책, 43쪽.

그의 눈앞에는 오색영롱한 신천지가 펼쳐진다.

백양나무와 호두나무, 감나무 숲이 여기저기 물켜선 사이를 백사지가 지도같이 펼쳐진 가운데 한 줄기의 시내가 굽이쳐 흐르고 있었다. 강 이름을 물으니까 두루두루 산간을 감돌아 창덕으로 흘러내리는 맑은 시내라고 해서인지 청창하(淸彰河). 팔따시만한 메기와 송어며 바위만한 자라가 꿈틀거린다는 것이 바로 이 강일 것이다. 태항산중에서도 드물게 맑은 물이라고 한다. 강을 끼고 점점이 촌락이 들어앉아 있고 그 주위에는 기름진 밭이 초록 비단을 깔아 바야흐로 오곡백화에 무르녹았다. 푸르른 전원에 수를 놓은 듯이 웅기종기 하얗게 서리어 도는 것은 식채로서 유명한 황화의 재배전이라고 한다.(김사량 지음, 김재용 편주, 『항일중국망명기-노마만리』, 실천문화사, 2002, 243쪽)

‘동맹과 의용군의 본거지’인 남장촌에 대한 이상 신화적인 분위기의 묘사는 함께 동행했던 노인이 “왜놈들이 하나도 없는, 사철 꽃이 만발하고 땅은 기름지며 바다에는 굴, 조개, 고기 수북한 꿈같은 섬”, “의인들이 많이 모여 나라를 찾으려고 무술을 닦고 있다”는 ‘남풍도’라는 전설 속의 공간과 합치되는 것으로 ‘나’는 “여기가 분명 남풍도인가 봅니다.”라고 말한다. 근거지에 도착했을 당시 보았던 이 광경은 「연안망명기-산채기」에서 언급했던 열악한 근거지의 경제적 상황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때 이는 김사량이 꿈꾸었던 ‘연안’이자 도래해야 할 조선의 미래였다.

김사량은 남장촌의 군정학교에서 ‘우렁차게 울려나오는 나팔소리’와 ‘왜놈 군대를 죽이며 조국을 향하여 진격할 우리의 군인들’의 구령소리와 군가를 들었으며, 그들이 노동하는 모습과 학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한다. 또 담 벽에 장식되어 있는 중국 깃발과 ‘우리’의 깃발, 조선어와 일본어로 쓴 항일의 구호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 김사량이 식민지 말기 일본어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고민과 괴로움을 룡잉쥬과의 서신<sup>29)</sup>에서 토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일인(日人)이 없는 근거지에서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은 그에게 가장 큰 감격과 해방감을 주었음에 분명하다. 말과 언어의 해방은 작가 김사량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도 더욱 매혹적이었을 것이다. 김사량이 비록 연안에 가보지 못했지만 또 바로 가보지 못했기에 남장촌은 곧 김사량이 상상했던 ‘연안’의 모습이자 또 장차 건설해야 할 새 조선의 풍경이었음에 다름 아니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이라면 『노마만리』에서 ‘연안’을 통해 상상되는 미래는 자주 어린 시절의 고향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버드나무 선 조그마한 섬 동네’ 고향은 종달새가 노래하고 송아지가 풀을 뜯는, 처녀애들의 명랑하고 쾌활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고향으로 ‘내게 있어서 유일한 아름다운 동화의 세계’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으로 이 모든 행복이 짓밟혀 파괴되었음을 떠올리며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분개하고 목숨 바쳐 싸우리라 결심하는 장면에서 ‘연안’이란 김사량에게 되찾아야 할 고향으로 다가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적 특징은 「빛 속으로」를 비롯한 일본어소설과도 이어지는 부분으로, 김사량에게 있어 인간세상이란 디스토피아거나 유토피아로, 제3의 중간지대란 결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29) 김사량은 대만 출신의 작가인 룡잉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내지인을 향한 작품을 쓴다는 것이 두려우며 괴롭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느낌을 ‘흔들리는 손’이라 표현하고 있다.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없는) 정치-루쉰 룡잉쥬 김사량 ‘아’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제6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9, 378~379쪽.

### III. 연안 '정풍운동'과 『노마만리』-지식인의 사상개조와 자기비판

서론에서도 지적하다시피 『노마만리』 연구에 있어 그 육필원고는 중국의 태항산 항일근거지에서 창작된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1942년부터 1945년 일제 항복 전까지 연안을 중심으로 근거지를 휩쓸었던 '정풍운동'과 1942년 5월에 문예공작자들을 상대로 한 모택동의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sup>30)</sup>(이하 「강화」)는 공산당 내의 사상정치운동인 동시에 문인들에게는 그들의 입장과 태도 및 문예운동의 근본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었다. 특히 「강화」는 지식인(작가)을 소부르주아 계급의 문제와 연결시켜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적인 사상개조와 자기비판을 촉구했다.<sup>31)</sup> 근거지의 지식인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정풍운동의 강력한 영향 하에 근거지에서는 차츰 지식인의 자기비판이 일상화되며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자기비판의 서사가 근거지 문예창작의 중요한 한 갈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지식인의 자기비판은 해방 직후 조선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해방을 맞이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준비위원회'는 일체로부터의 해방이 '우리 민족 자신의 피로써 얻은 것이 아니다'<sup>32)</sup>라고 선언했으며 「조선공산당 1945년 8월테제」는 항일, 반파쇼의 전장에서 응당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한 조선민족의 '전 민족적 자기비판'을 촉구했다. 조선공산당중앙위원회의 「조선민족문화건설의 노선(잠정안)」(1946.4)에서도 7번째 문제로 자기비판의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면서 "적지 않은 작가, 예술가, 학자가 왜적의 강압 밑에 본의 아닌 언행을 하여 소시민 출신의 투쟁적 취약성을 노정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비판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더욱이 문학자에 있어 특히 자기비판은 재출발의 한 원천이 되도록 해야 한다"<sup>33)</sup>고 했다.

해방이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무엇보다 앞서 수행되어야 했던 것은 과거에 대한 성실한 자기비판이었다.<sup>34)</sup> 이는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주체의 확립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서 작가를 포함한 모든 지식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다. 실제로 해방 직후 지식인 계층의 자기비판<sup>35)</sup>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이무영은 해방 후 일 년 동안 끊임없이 요구받았던 자기비판을 '강요하는 자기비판'<sup>36)</sup>이라고 하면서 피로움과 피로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문인들의 공개적인 자기비판은 앞서 조선공산당 측에서 말했던 '민족적 자기비판'이라는 집단적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문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자기비판의 관점은 민

30) 김사량 역시 『노마만리』에서 모택동이 문예강화를 발표한 뒤로 작가들의 창작이 보다 정확하고 적극적인 노선 위에서 활발히 진전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毛澤東의 강화는 해방 초기에 이미 「文藝와 革命工作」(『신문학』 창간호, 新文學同人會, 1946.4)로 부분 번역, 게재되었다. 174~178쪽.

31) 【中】吳敏, 『延安文人研究』, 文匯出版社, 2010, 92~102쪽. '소부르주아'계급은 '工農兵'을 포함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과 대조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모택동은 「강화」에서 '대다수 지식인은 소부르주아출신이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문인들에게 정풍운동이란 바로 이 '소부르주아'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32) 신형기, 위의 책, 83쪽 재인용.

33) 송기한 · 김외근, 『해방공간의 비평문학1』, 태학사, 1991.10. 159쪽.

34) 신형기, 「해방 직후 문학 논의의 쟁점」, 『해방전후사의 인식6-쟁점과 과제』, 한길사, 1989, 265쪽.

35) 해방기 문인들의 자기비판을 좌담회 「조선문학의 지향-문인 좌담회 속기록」(『예술』 3호, 1946.1. 서울 雅紋園), 「문학자의 자기비판」(『인민예술』 2호, 1946.10. 서울 봉향각), 한효의 「문학자의 자기비판」, 이원조 · 홍효민 · 권환 · 김영건 「재출발에 있어 문학적 자기비판」(『신문예』 2호, 1946.7), 김기림 등, 「건국동원과 지식계급」(『대조』 2호, 1946.7) 등이 있다.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2쪽.

36) 이무영, 「강요되는 자기비판」, 『경향신문』, 1946년10월6일자. 칼럼/논단.

족이라는 범주 속에 문인들 자신도 포함시킴으로써 결국은 전 민족의 문제로서 귀결되어버려 진정한 자기비판이 수행되기가 어려웠다. 자기비판의 문제는 일종의 통과의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문학자들이 사실상 통렬하고 근본적인 자기비판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sup>37)</sup> 결국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기비판들은 있었으나 「문학자들의 자기비판」이라 제목을 내 건 조직적 차원의 자기비판은 해방도 한참 지난 당해 12월에 이르러서야 임화를 위수로 하는 조선문학가동맹의 정식 출범을 앞두고 진행되었다.

일명 봉황각 좌담회라 불리는 이 좌담회에서 ‘연안’에서 돌아온 김사량과 이태준 사이에 발생한 언쟁은 잘 알려져 있다. 김윤식은 김사량이 이 좌담회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오류를 비판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혁명세력의 일원이라는 ‘지위의 우위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sup>38)</sup>. 그러나 김사량이 봉황각 좌담회에서 보여주었던 떳떳함과 당당함, 그 어느 참석자보다도 논리적이고 철저했던 자기비판은 항일근거지에서 요구되었던 소부르주아 지식인의 사상개조와 자기비판과, 해방을 맞이한 조선에서 당면과제로 제기되었던 지식인 문인의 자기비판이라는 틈새 속에 위치시켜 볼 때 ‘지위의 우위성’만이 아닌 새로운 균열의 지점을 찾아낼 수 있다.

식민지 말기에 조선을 탈출하여 항일의 최전선에 달려갔던 김사량에게 있어 자기비판이란 조선에 남아있었던 기타 문학자들에 비해 한발 앞선 것이었으며 또 그들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항일근거지에서 지식인의 사상개조와 자기비판은 일상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으며 주요하게는 소부르주아라는 계급출신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김사량도 해방 후 입경 시 “문학방면의 작가들을 이야기하자면 팔로군 관계에는 별로 이리타할 작가가 업스며 본래가 수가 적은데다가 사상적으로 늘 정풍(이곳서 말하는 숙청)이 있어서 사상이 건전치 못한 작가는 그 지위를 보존치목하며……”<sup>39)</sup>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에서 ‘소부르주아’ 출신으로서의 김사량 역시 사상개조와 자기비판은 면치 못했을 것이다. 탈출 학도병들의 수기를 본다면 김사량이 태항산근거지에서 사상개조를 받고 있었다는 기록들이<sup>40)</sup>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김사량 자신의 계급출신<sup>41)</sup>과 연결시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시 『노마만리-연안망명기』를 본다면 작품 속 Y거인<sup>42)</sup>은 당시 북경반점에 머물면서 막연하게나마 탈출의 기회를 잡아보려는 ‘나’를 찾아와서 ‘연안’ 방면으로 갈 것을 제안한다.

37) 구재진, 「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 제47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2, 247쪽.

38)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81쪽.

39) 태항산서 삼천리를 보행 연안갔던 김사량씨의 입경담, 『자유신문』, 1945년12월11일.

40) 당시 탈출 학도병이었던 신상초는 근거지에서 강요되는 사상개조와 자기비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치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회억했다. 거는 귀국길에서 “인텔리 출신의 자타가 공인하는 공산당원이었고 후일 남도당 간부로 있다가 붙잡혀 총살당한 김태준마저가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투쟁대회를 겪었다고 한다. 그리고 작가로서 해방 직전에 여기까지 발을 들여 놓았던 김사량은 일제가 파견한 밀정으로 몰릴 뻔했다고 하니……”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신상초, 『탈출』, 녹문각, 1966, 149쪽.

엄영식 역시 탈출 학도병으로서 훗날 『탈출』에서 사상개조를 강요받았던 점과 화북지대 이익성이란 지대장으로부터 “김사량이란 자가 이곳에 와 있는데 지금 그는 연금상태에 있으며 매일 자술서를 쓰고 있다”고 하면서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있었다고 했다. 엄영식, 『탈출』, 야스미디어, 2005, 110쪽.

41) 김사량은 평양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내 최창옥 역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 또 김사량은 일본 유학시절에 일본에서 등단했고 일본어소설을 많이 창작했으며 탈출 당시 신분은 ‘재지반도출신 학병 위문’ 작가였다. 게다가 그의 형인 김시명은 당시 총독부 전매국장까지 한 유명한 ‘친일파’였다는 점에서 김사량은 충분히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42) Y거인이란 바로 이영선으로, 당시 북경에서 여운형의 건국동맹과 연안독립동맹 사이에서 연락활동을 하는 지하공작원이었다.

갑작스런 제안에 혹시 스파이는 아닐까 걱정하는 나에게 Y거인은 “소설을 통해 당신을 믿기에.”라고 하는데 ‘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대뜸 그와 손잡게 되었다고 했다. 이 대화는 바로 직전에 진행되었던 「문학자의 자기비판」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볼 때 결코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대목임은 분명하다. 좌담회에서 김사량은 언어는 하나의 표현 수단에 불과하며, 그 언어로 전달하고자 한 내용-식민지 조선의 ‘진상’-과, 그러한 언어라도 그것으로 적극적이고 양심적이며 민족적인 작가로서의 소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소설 창작은 그 동기나 내용에 있어 전혀 의심할 바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소설을 통해 당신을 믿기에”라는 말과 같은 맥락에 놓인 것으로 과거 자신의 문인으로서의 행적은 전혀 의심스러운 면이 없으며 ‘소설=믿음’의 등식을 성립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김사량은 자신의 문학-일본어문학까지 포함하여 결코 작가 문인으로서의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았으며, 또 좌담회 문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연안 다녀온 김사량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좌담회 전반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해방직전에 이미 자기비판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새출발’을 시작한 김사량과 이제 막 자기비판을 시작한 이태준 사이에는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중국의 항일근거지에서 진행되었던 지식인의 자기비판을 참조점으로 해방직후 조선의 지식인 문인들의 자기비판을 재고해볼 때 이들의 자기비판은 사실 과거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음/않았음에 대한 반성으로, 이를 통해 결코 양심적인 자기비판, 나아가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거기에는 모택동이 말했던 ‘장기간의 고통스럽기까지 한 연마과정’ 즉 새로운 자아로 성장하기 위한 ‘고난의 서사’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 ‘고난의 서사’란 항일근거지로 찾아들어가는 김사량의 험난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근대문명을 습득한 지식인이 이제 민중의 계몽자로서의 주체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피계몽자의 위치에서 개조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노동자 농민 대중과 혁명 간부, 혁명적 지식인들과의 비교 속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소부르주아 계급으로서의 모든 타락한 가치관과 습성들을 끊임없이 반성하고 부정하며 마침내 ‘새 세상’을 맞이할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노마만리』를 식민지 시대 양심적 지식인의 자기반성<sup>43)</sup>으로 보든, 자기 성찰을 통한 자전적 글쓰기<sup>44)</sup>로 보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자기비판 의식은 그만큼 철저하고 강력했으며 그것은 소부르주아 지식인이라는 근거지 ‘타자’ 신분에 대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지식인이라는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김사량이 귀국 후 서울에 나타났을 당시 가장 먼저 문단에 내놓은 것은 「연안망명기-산채기」-「종이소동」, 「담배와 불」이었다. 「산채기」는 ‘회상풍’의 에피소드로, 실은 김사량이 근거지 체험에서 가장 인상 깊게 경험했던 ‘물자난(物資難)’을 다루고 있다. 당시 근거지 정부는 국민당 정부와 일제의 경제적 봉쇄로 인한 물자난과 가격폭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급제’와 자급자족의 생산방식을 실행하고 있었다. 근거지의 대다수 민중들이 식량난으로 하루에 두 끼밖에 먹을 수 없었던 상황에서 김사량은 헐벗고 굶주리는 문제보다도 ‘중

43) 이해영은 『노마만리』에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양심적 지식인으로서의 자기반성의식이 의식 흐름의 주조음으로 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해영, 「1940년대 延安體驗形象化研究 : 「항전별곡」, 「연안행」, 「노마만리」를 중심으로」,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01, 64~67쪽.

44) 유임하는 『노마만리』의 자서전적 서사 특징에 주목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서발턴에 대한 탐색이라는 익숙한 경로에서 이탈하여 제국과 길항하는 탈식민의 주제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으며, 자기 성찰적 서술방식을 통해 ‘자기 신화 만들기’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임하, 「김사량의 『노마만리』 재론-서발턴의 탐색에서 제국주의와의 길항으로」, 『일본학』제40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5, 147~175쪽.

이’, ‘담배’, ‘불’을 가장 필요로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종이’, ‘담배’, ‘불’을 걱정해본 적이 없는 ‘나’는 과거 넉넉한 물질생활을 누렸던 부르주아 지식인 출신으로서 ‘종이’는 ‘나의 집 서재 방에 그득히 쌓여 있으며’, ‘담배’ 역시 근거지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아 물부리 파이프’로 피웠으며 켈런이나 비싼 성냥도 몇 갑씩 사서 넣을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근거지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나는 ‘다복한’ 과거 생활을 ‘소시민의 타성’이라 비판하고 부정하며 과거와 결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고 근거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가 이야기 기록자와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적구에 공작하러 갔던 동무가 왜놈의 편전지를 들고 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나’는 달려가 ‘근거지에 차고 들어간 시계’로 종이를 바꾼다. 담배 역시 근거지에 들고 들어간 ‘여분의 노타이 셔츠와 겨울 양복 바지’를 팔아 구하게 되며 ‘불’은 근거지 토착민의 방법을 배워 해결한다. 그는 과거의 ‘유물’이자 근거지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소부르주아의 것, 이질적인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시계’, ‘양복’, ‘노타이 셔츠’를 버리는 방식을 통해 부르주아 지식인으로서의 ‘외양’을 탈피하고 또 근거지 민중에게서 배우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명실 상부한 민중-‘산채인’으로 탈바꿈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

『노마만리-연안망명기』는 조선에서 출발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북경에서 京漢線을 타고 가다가 폭격을 맞아 기차에서 내리는 장면까지만 연재되어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지 않지만 여기서도 ‘나’의 자기비판은 계속하여 나타난다.

“탁류 속을 숨 가쁘게 헤엄치던 생활! 도시 인텔리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무난한 살림살이에만 급급하던 태도! 양심의 갈피 아래 요리 저리 헤매며 그러되면 부스러질 만치 연약하기 유리알 같은 정신! 거기에는 하나도 합리화할 과거가 없었다.”

탈출 길에 나선 ‘나’는 항일이라는 위대한 혁명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자로서 과거 도시 인텔리로서의 연약함과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려던 소시민성 등에 대해 무자비하고 냉혹한 비판을 가한다. 『노마만리-연안망명기』는 비록 과거시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플롯들은 망명할 때부터 적어놓은 기록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배치하고 있어 탈출 당시 ‘나’의 심리를 생생하게 잘 전달해주고 있다. 기차에 오른 나는 새로운 자아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기에 과거의 ‘나’ 자신에 대한 전면부정과 결별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

단행본 『노마만리』에서도 김사량은 여전히 소부르주아라는 신분에 대해 집요하게 성찰하고 비판하고 있었는데 서사전략 상 ‘과거의 나’(舊我)와 ‘현재의 나’(新我)라는 두 개의 ‘나’를 병치시키고 있다. 이는 모택동의 「강화」 이후 소부르주아 출신의 지식인-문인들에 대한 계급적, 문학적 차원의 비판과 자기비판이 강조되고 일상화되면서 연안 문인들의 문학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수법이였다.

그러나 연안시기 문인들의 자기비판적 서사와 다른 점(오히려 스노와 같은 외국인 기자들의 보고문학과 닮은 점)이라면 바로 김사량은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의 이야기들을 기록하여 ‘국내’에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임무를 떠맡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마만리』는 사실상 두 개의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실제 기록으로서의 이야기 즉 의용군의 중국에서의 항일투쟁의 이야기 및 근거지 및 근거지로 향하는 노상에서 보고 듣고 겪은 이야기와 그 속에 은폐되어 있는 ‘나’ 자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전달자, 관찰자로서의 ‘나’는 은폐된 화자로 작용하지만, 그것이 나의 과거와 연결되는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는 연안망명기의 내적 시간관계-‘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만들어냄으로써 ‘나’를 위한 이야기의 공간을 마련한다. ‘신아’는 작품 전편을 조망하는 위치에서 과거의 ‘나’를 바라보며, 심문한다. 또 ‘신아’는 완성된 ‘신인간’으로서 도덕적, 양심적으로 우위에 위치해 있기에 수시로 구아를 해부하거나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 있다.

조국의 깃발은 나의 가슴에 안기기 전에 뭉뚱이를 두다리며 묻는 것이다. 충실하였느냐 조국 앞에? 그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 무엇인가? 안일이었다. 하찮은 자기 변호의 그늘 밑이었다. 차포자기의 독배를 들며 나날이 여위어가는 팔다리를 주무르던 일이 결코 자랑일 수 없으며 깊은 골짜기로 찾아 들어가 삼간초옥에서 나물을 먹고 물 마시며 팔을 베고 道士인 양 晝耕夜讀하며 누웠대서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을 것이다. 아니, 엄정히 말할진대 도리어 농들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기가 일쑤였던 치욕의 반생-찌저린 뉘우침이 스며들어 치가 떨렸다. (김사랑 지음, 김재용 편주, 『항일중국망명기-노마만리』, 실천문학사, 2002, 178쪽)

『노마만리』에서 ‘과거의 나’에 대한 평가는 극히 부정적이다. ‘나’는 ‘굴욕의 진창 속에서 더러운 옷깃을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생애를 찾아 들어오게 된’ 인물로서 ‘천하 게으름뱅이요 눈치꾼이요 이기주의자’이다. ‘나’는 비판과 개조를 받아 마땅하며 ‘굴욕의 진창’에서 ‘나’를 구원해준 자는 의용군, 팔로군 병사들과 간부들, 농민을 포함한 평범하고 불쌍한 민중들이었다. 팔로군 정치위원은 ‘나’가 ‘더러운 옷깃을 떨치고 일어나 이렇게 새로운 생애를 찾아 들어오게 되었음을 축복해주며 따사로운 태도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며’, 현동무로부터 보았던 조선의용군의 간부는 필요이상의 말도, 실없이 웃지도 않았지만 모든 일에 앞장서며 동지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아무런 압박감과 거리감’도 주지 않는 미래의 새 간부의 모습이었다. 나는 이들을 보라보며 언제나 존경과 함께 머리가 수그러짐을 느낀다고 했다.

‘나’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은 또 적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탈출노상에 보았던 중국 민중은 도탄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으며 일제의 삼광(燒, 殺, 搶)정책으로 인해 말할 나위 없이 피폐한 모습이었다. 일제에게 아들을 빼앗기고 정신이상에 걸린 ‘배장수 할머니’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조선에 있는 학도병 어머니의 이야기를 연상케 하며 짓밟힌 고향땅이 생각나게 한다. 또 의용군이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던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은 아주 상세히 다루어지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일제에 대한 적개심과 동시에 강렬한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 감정이 폭발하며 더욱 강력하게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고 비판하기에 이른다.

자기비판적 시각에서 다시 본 『노마만리』는 해방기의 단순한 ‘연안’ 이야기가 아니었으며 ‘연안’ 이야기를 통한 김사랑 자신의 이야기였다. 해방 후 서울에 나타난 김사랑은 근거지에서 사상개조와 자기비판을 통해 소부르주아 지식인으로서의 일체 과거와 구분 짓고 부정하면서 ‘신아’ 즉 ‘새 인간’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이었다.

#### IV. 결론

본고는 ‘연안’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방기 양산되는 ‘연안’이야기 속에 『노마만리』를 위치 시킴으로써 이 작품에 대한 해방기 및 80년대 이후 지식인들의 전유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또 그들의 욕망과는 어긋나는 작가 자신의 순수한 의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결코 도착하지 못했던 ‘연안’은 김사랑에게 항일의 상징이자 도래해야 할 미래상이었으며 또



되찾아야 할 고향이기도 했다. 또 지식인들의 욕망에 의해 가려졌던 것으로, ‘연안’ 및 정풍 운동이 남긴 흔적으로서의 작품 속의 ‘나’의 이야기를 읽어냄으로써 이 작품의 사료적 가치를 뛰어넘어 작가의 창작의도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해방 후 북한에 남은 김사량은 북한문단에서 여러 직무를 겸임하는 한편 작가로서도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가장 먼저 김일성을 영웅화하는 희곡작품 『퇴성』(1946.8)을 창작하였으며 북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서양문학 강의를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이력서’에 남아있는 김사량의 조사서를 뒤져본다면 ‘출신성분’란에 적혀있는 ‘소시민’이라는 세 글자는 유난히 눈이 띈다.

그가 태항산의 항일근거지에서 그토록 ‘소부르주아’라는 계급출신에 대해 비판과 자기비판을 했고 『노마만리』 단행본을 통해 과거와 결별한 ‘새로운 자아’로 성장했음을 피력했지만 분단 후 북한의 정치상황 속에서 김사량은 여전히 ‘소시민’이라는 딱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실제로도 이 신분으로 인해 비판과 자기비판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전쟁발발 후 그 누구보다도 먼저 중군작가로 전장에 나가 수 편의 심금을 울리는 중군기로 인생을 마감한 김사량에게 중군작가의 길 또한 연안 탈출과 마찬가지로 소시민이라는 과거 출신에 대한 부정이며 새로운 자아증명의 방식이 아니었을까 상상해본다.

## 참고문헌

### <1차자료>

『신문학』, 『문학』, 『중앙신문』, 『자유신문』, 『경향신문』, 『문화통신』  
김지영, 「전승 60돐의 해에 인민이 추억한 중군작가/김사량 영웅 칭호 수여에 깃든 비화」, 『조선신보』, 2013.12.6.  
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北 공화국영웅 칭호 받은 중군작가 김사량의 최후는?」, 2013.07.08.  
연합뉴스, 「북, ‘혁명작가’ 재조명 활발」, 2003.07.14.

### <단행본>

김사량 지음, 김재용 편주, 『항일중군망명기-노마만리』, 실천문학사, 2002.  
김윤식, 『해방공간 한국 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곽형덕, 『김사량과 일제 말 식민지문학』, 소명출판, 2017.  
송기한·김외근, 『해방공간의 비평문학1』, 태학사, 1991.  
신형기, 『시대의 이야기 이야기의 시대』, 삼인, 2015.  
신상초, 『탈출』, 녹문각, 1966.  
엄영식, 『탈출』, 야스미디어, 2005.  
염인호, 『조선의용대 · 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中】에드가 · 스노 저, 董樂山 역, 『서행만기』, 해방군문예출판사, 2002.  
【中】吳敏, 『延安文人研究』, 文匯出版社, 2010.  
【朝】류희정, 『현대조선문학선집53-1940년대 문학 작품집(해방전편)』, 문학예술출판사, 2011.

### <논문>

김재용, 「김사량-망명 혹은 우회적 글쓰기의 돌파구」,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7.  
김재용, 「일제 최후기 조선문학과 중국」, 『현대문학의 연구』65,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6.  
구재진, 「해방 직후 자기비판소설의 윤리성과 정치성」, 『비교문학』 제47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2.  
신형기, 「해방 직후 문학 논의의 쟁점」, 『해방전후사의 인식6-쟁점과 과제』, 한길사, 1989.

- 유임하, 「김사량의 『노마만리』 재론-서발턴의 탐색에서 제국주의와의 길항으로」, 『일본학』 제 40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5.
- 이상경, 「암흑기를 뚫은 민족해방의 문학-김사량의 삶과 문학」, 『노마만리』, 동광출판사, 1989.
- 이해영, 「1940년대 延安體驗形象化研究 : 「항전별곡」, 「연안행」, 「노마만리」를 중심으로」, 한신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장형준, 「작가 김사량과 그의 문학」, 김사량 지음, 김재남 엮음, 『종군기』, 살림터, 1992.4.
- 정호웅, 『해방공간의 자기비판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황호덕, 「제국 일본과 번역 (없는) 정치-루쉰 룡잉쥬 김사량 '아'적 삶과 주권」, 『대동문화연구』 제63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9.
- 布袋敏博, 『초기 북한문단 성립 과정에 대한 연구-김사량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 【中】上海市美國問題研究所課題組, 「Edgar Snow對中國共產黨發展國際關係的貢獻和影響」, 『湖北社會科學』, 2011년 제7기.
- 【中】崔玉軍, 「抗戰時期到訪延安的美國人及其‘延安敘事’」, 『齊魯學刊』, 2017년 제5기.
- 【中】王建宏, 「朝鮮革命者在延安活動述論(1935-1945)」, 『延安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40권 제6기, 2018.12.
- 【日】鄭百秀, 「『抗日闘争文学』というイデオロギー—金史良の中国脱出紀行『驚馬万里』」, 『櫻美林世界文学』(3), 桜美林大学世界文学会, 2007.3.
- 【日】大村益夫, 「解放直後ソウル時代の金学鉄」, 『植民地文化研究 : 資料と分析』(17), 浦安 : 植民地文化学会, 2018.

## ‘연안(延安)’을 통해서 본 김사량의 『노마만리』 토론문

김명훈(포스텍)

이 연구는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다른 정치적·이념적 목적에 따라 전유되는 양상을 문제적으로 포착하고, 이처럼 “국가와 민족이라는 틀”에 제한된 시각만으로는 온전히 해명하기 어려운 김사량의 문제의식을 ‘연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실감나게 구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노마만리』가 해방 이후 북한에서만 집필된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항일중국망명기’ 동안 현장에서 작성된 육필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논의 방식(‘민족’과 ‘국가’라는 거대담론과 권력이 개인의 사유를 한없이 위축시켰다고 철저히 믿는)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노마만리』의 낭만적(?) 세계관과 (해방기) 철저한 자기비판의 배경을 밀도 있게 재구성하였습니다. 김사량의 『노마만리』가 남북한에서 전유되는 양상의 문제성, ‘연안’으로 표상되는 지식인의 낭만적 세계인식, 그리고 해방기 문인들의 수많은 자기비판 중에서도 특히 이채를 발하는 김사량의 발언 배경 등에 대한 발표자의 전반적인 입장과 해설에 공감하면서, 이 연구의 핵심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먼저, ‘연안’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연안’은 해방 이후 북한 권력 구조를 분석할 때 자주 언급되긴 했지만,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혁명 과정에서도 그 성지로서 중요성이 재차 언급되었지만, 일제말기 조선인 혁명가들의 유토피아로 ‘연안’을 호명하는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었습니다. 더불어 ‘연안’ 외에도 항일투쟁의 근거지는 중국에 여럿 있다는 점도 ‘연안’을 조선인 혁명가들의 유토피아로 첫손에 꼽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사량이 『노마만리』에서 ‘연안’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자못 의미심장합니다. 아래는 『노마만리』 1부인 ‘탈출기’의 일부입니다.

①그것은 조선의 독립이 조선을 떠나서 있을 수 없으며 조선 민족의 해방이 그 국토를 떠나서 있을 수 없으니만치 왕성한 해외의 혁명 역량에 호응할 역량이 국내에도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②국내에서 배겨나지 못하게 되어 망명하는 이는 별문제로 하고 ③나와 같이 국내에 받을 디디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일부러 망명한다는 것은 하나의 도피요 안일을 찾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③-④제일선에서 총이라도 들고 싸우는 곳이면 또 모르려니와 ③-⑥몇천 리 산 넘어 물 건너 대후방의 중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보다 더 비겁한 도피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중략) ②이런 형편이니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신변의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이 되었다. 출국의 결심이 여기서 다시 생기게 된 것이다. ②-④이 불안한 환경으로부터 빠져나가 어떻게든지 중국 땅에 다시 건너서서 연안으로 새어들어가 싸움의 길에 나서리라..... ③-⑥냉엄한 자아비판을 하자면 역시 무서운 현실에서 도망하자는 것이 최초의 동기였는지도 모른다.<sup>45)</sup>

45) 김재용 편주, 『노마만리』, 실천문화사, 2002, 39-41쪽.

이 부분에서 김사량은 항일투쟁의 순도(純度)를 위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①이 가장 순결한 투쟁의 방식이고, ③으로 갈수록 순도가 떨어지는 것이지요. ③중에서도 ㉞는 가장 낮은 위계를 할당받습니다. 이 같은 위계에 따르자면 김사량에게 연안은 조선 내에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그 중요도가 낮지만 조선 내에서 투쟁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최전방의 장소이자 전선이라 하겠습니다. 김사량은 자신의 ‘연안’행을 처음에는 ㉡-㉠로 파악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③-㉞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냉엄한 자기비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되듯,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행위주체로서 김사량의 연안행은 미래의 서술주체 김사량에 의해 낭만적이고 도피적인 태도로 비판되는데, 이 서술주체의 시간적 좌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해방 전이나, 해방 후냐, 북한 진입 전이나, 진입 후냐 등)에 따라 김사량의 ‘연안’에 대한 인식과 자기비판의 배경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안’이라는 키워드를 특히 주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발표자의 연구 배경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해방 이후 김사량의 자기비판이 태항산에서의 ‘정풍학습’에 의해 단련된 것이라는 관점을 김사량의 ‘연안’에 대한 인식과 연결시킬 경우 어떤 해석이 도출되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사량의 연안행이 지식인의 낭만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정풍학습’은 그러한 낭만적 인식 자체를 교정하는 과정이었을 것이고, 만약 이를 승인한다면 김사량은 태항산에서의 항일투쟁과 정풍학습을 통해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투사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라는 해석에 도달하게 됩니다. 한국전쟁기 종군작가 활동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해되겠지요. 문제는 이러한 해석과 이해가 북한에서 김사량의 삶과 문학을 전유 혹은 왜곡하는 방식과 매우 닮아 있다는 점입니다. 낭만적인 부르주아 지식인 김사량이 ‘항일중국망명기’를 통해 투철한 사회주의 혁명투사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해석이 그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로당 계통의 지식인들이 그러했듯, 김사량의 종군 과정에도 북한 내 정치파벌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태도가 감지된다는 점, 그렇기에 한국전쟁기 종군은 ‘항일중국망명기’에서 ‘연안’이라는 유토피아가 제거된, 정치파벌로만 남은 ‘연안-유토피아’의 종언을 뜻하는 비극적인 행위로 보이기도 합니다. 김사량의 삶과 문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질문에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새롭고 흥미로운 관점의 논문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어령의 일본문화론과 전후세대의 식민주의적 무의식

전성욱(동아대)

### 차례

1. 머리글: 결핍과 환상
2. 세대로서의 주제성: 분열과 괴리, 그 상상적 통합으로써의 한국문화론
3. 이어령의 일본문화론: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공간에서 벗어나 내셔널한 주체되기로
4. 나가며: 서구적 근대에서 아시아적 포스트모던으로

### 1. 머리글: 결핍과 환상

이어령은 한국 현대사의 문제적 개인이다. 그가 살아온 격정의 연대기는 곧 식민과 탈식민, 전쟁과 전후, 근대와 탈근대가 교차하는 격동의 한국사에 그대로 겹쳐진다. 교수와 언론인, 비평가와 기획자 등 숱한 직함을 달고 활동했던 박람강기의 역경 속에서도 그는 무엇보다 근대적 지성의 연술활동가였다. 그의 일생은 언어에 대한 예민한 자의식과 함께 읽고 저술하고 강연하고 가르친 삶이었다. 이어령은 자기 글쓰기의 내밀한 기원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어머니는 내 문학의 기원이었으며 외갓집은 그 문학의 순례지였다.”<sup>46)</sup> 그렇다면 어머니는 무엇이고, 외갓집이란 무엇인가? 자아를 규율하고 주체를 규정하는 대타자로서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와 외갓집은 바로 그 막강한 초자아의 힘에 대한 저항의 욕동을 가리킨다. 가부장적인 호적의 언어에 대항하는 언어, 그것을 그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고안한 ‘어머니 몸으로서의 언어’라는 기호분석론(semanalysis)의 개념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그 무수한 언설(문학)들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고백한다.

내 존재의 텃줄을 지키기 위한 전략- 그것이 바로 크리스테바가 말한 “어머니 몸으로서의 언어”였는지 모른다. 말하자면 가부장적인 호적의 언어와 역행하는 신생아의 울음, 그리고 그다음에 오는 갓난 아이의 미소들.

그 언어로 매일 아침마다 황국신민이라고 외우던 국민선서 속에서 시들어 죽어가던 나의 축계화의 붉은 닭벼슬을 가꾸어간다.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나의 이름을 훔쳐 간 출석부의 검은 음모를 몰아내기 위해 굶을 벌인다.

항상 명쾌한 결론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 되풀이하자면 호적의 나이와 실제의 나이가 일치하지 않은 이 상징적인 조건이 나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욕이든 칭찬이든 잘못 위조되어가는

46) 이어령,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열림원, 2010, 41쪽.

나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당방위를 하는 방법은 문학뿐이었던 것이다. 인간의 존재를 왜곡하는 모든 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태어나 아직 호적에 오르지 않았던 여드레 동안의 순수한 생의 성체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유아 체험이 존재론적인 것으로 탐색된 것이 어렸을 때의 이미지를 탐색한 글들이고, 그것을 사회·집단적인 면에서 탐구한 것이 한국인론들이다.<sup>47)</sup>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만큼이나 그렇게 자기의 언어를 분석하고 있는 그의 자의식이다. 자기의 언어적 무의식을 지성의 힘으로 말끔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자의식. 그 자의식으로 자기를 분석하는 단초는 호적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어긋난다는 그 불일치의 사태에 대한 자각이었다. 이어령은 음력으로 1933년 11월 13일 충남 아산군에서 출생하였으나, 호적이라는 행정상의 문서에는 1934년 1월 15일 생으로 뒤늦게 기재가 되었다. 실존의 인간을 행정상의 국민으로 등록시키는 과정에 개입하는 우악스러운 힘에 대한 자각, 피지스를 노모스로 길들이는 그 폭력의 유력한 장치가 다름 아닌 아버지의 언어라는 자각. 어머니와 외갓집이라는 환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의 언어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이다. 1940년(만7세)에 온양의 명륜소학교 입학하기 직전인 1939년부터 조선어(모어) 사용이 금지되었고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가 국어로 주입되었다. 해방 직전인 1944년에 어머니가 병사하였을 때 이어령은 11살이었다. 식민지에서 나고 자란 소년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성장하였고, 그 성장기에 남은 결핍과 균열의 틈새는 그렇게 사후적으로 언어라는 환상의 거멀못을 통해 메워진다.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이론에 비추어 자기의 존재를 설명하는 그 논법에서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이어령이라는 실존의 인간에게 있어 그 환상의 출처는 그가 읽고 공부한 것들, 다시 말해 필사적인 지성의 활동으로부터 생산된 것들이다. 방대한 규모의 저작으로써 입증되는 그 필사적임이란 그만큼의 환상으로 메워야만 하는 정신적 결여의 크기를 반증한다.

정신분석학의 개념을 빌리자면 이어령의 펜은 결여를 봉합하는 향락의 팔루스라고 할 수 있겠다. 그가 펜으로 그려낸 것은 불연속적이고 불투명했던 것을 연속적이고 투명한 것으로 복원한 전체상으로서의 자화상이었다. 마치 그는 자기의 동일화된 이미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기쁨에 겨워하는 거울 앞의 아이처럼, 스스로 만든 성장의 서사—어머니와 외갓집의 문학을—를 통해 자기의 주체성을 온전하게 상상해내고 안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거울상이다. 따라서 허상이다. 표상이다. 그것은 죽어있다.”<sup>48)</sup> 다시 말해 그것은 살아있는 진실이 아니라 결여를 견뎌내기 위한 일종의 환상이며 이데올로기이다. 이어령의 필사적 언술은 자기를 주체에게끔 하는 랑가주(Langage)이며, 그것은 “시니피에, 즉 시니피앙의 연쇄와 그 효과로서 주체가 만들어내는 그 무엇”<sup>49)</sup>이라고도 할 수 있다. 라캉 이론의 광활한 지평 속에서 주체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탐색한 사사키 아타루는 인간의 실존을 상징계의 주체성으로 걸러내는 그 랑가주의 작용을 일컬어 ‘향락의 레귤레이터’라고 하였다. 사사키가 궁리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주체로 조형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렇게 누락되고 떨어져나간 그 무엇들(대상 a)의 빈 자국, 그러니까 결여함으로써 암시되는 진정한 실재(the Real)와의 조우 가능성이다. 그것을 사사키는 ‘향락의 레귤레이터’로 조정되지 않은 절대적 향락으로서 ‘여성의 향락’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상징계의 랑가주와 구분되는 상징계 바깥의 라랑그(Lalangue)와 관계한다.

47) 위의 책, 148쪽.

48) 사사키 아타루, 안천 옮김, 『야전과 영원』, 자음과모음, 2015, 121쪽.

49) 위의 책, 101쪽.

라랑그, 신을 염모하는 여성의 말은 특정한 내용을 갖는다. 기도의 외침, 연모의 한숨, 상흔의 얼룩, 시구를 고르는 한순간의 망설임이다. 연애편지로서의 언어, 사랑의 문자로서의 언어. 이렇게 말하자. 언어란 언어가 아니다. 언어는 형식화되지 않는다. 동일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것은 열기를 띠고, 향기가 나고, 땀이 나고, 묵직하고, 불투명한 둔탁함을 지닌 그 무엇이다. 그것은 때때로 굽히고, 고이고, 탁해진다. 그리고 산뜻하게 뿔쳐나간다.<sup>50)</sup>

근거와 인과에 따라 자기를 주체로서 증명하는 입증의 양식들을 일컬어 ‘도그마’라고 할 때 그것에 순응하는 언어가 곧 랑가주이며, 그에 반해 위의 인용문이 비유적으로 암시하는 여성의 향락은 그 도그마를 거부하는 언어 즉 라랑그이다. 사사키에게 라랑그로 실현되는 여성의 향락은 ‘전부가 아닌 자’의 글쓰기이다. 전부(동일성)에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자의 글쓰기, 레굴레이터에 의해 으깨어지고 걸러지기 전의 기억을 더듬는 행위는 정치적인 저항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길게 사사키의 담론을 요약한 이유는 정치적 저항으로서의 ‘여성의 향락’이라는 라랑그에 이어령의 언술을 견주어보기 위해서였다. 이어령이 구축한 ‘어머니와 외갓집의 문학론’은 존재의 근원적 결여와 조우하려는 용감한 결단으로서의 라랑그가 아니라 그 결여의 틈새를 환상으로 봉합하는 랑가주로 여겨진다.<sup>51)</sup> 그것은 위험 속으로 기투하는(뿔쳐나가는) 불법적인 여성의 향락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자족하는 합법적이며 안전한 향락이다. 나태한 문단의 선배들을 향해 ‘저항의 문학’을 떠들 때에도, 전통의 남루함에 분노하며 ‘화전민 의식’을 외칠 때에도, 남정현의 소설을 기소한 공안 검사 앞에서 반박의 증언을 할 때에도, 불온성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김수영과의 논쟁에서 문학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이견으로 날을 세울 때에도, 그것은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진짜 저항이었다기보다 자기를 저항의 인물로 성립시키는 합법적인 향락으로서의 주체화과정이었다. 그는 환상 만들기로서의 그 작업들을 일컬어 ‘우물파기’ 혹은 ‘땅파기’라고 명명하면서, 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을 찾는 그 자체의 기쁨 때문에 평생을 파고 또 팠다고 했다.<sup>52)</sup> “땅파기- 그것이 나의 모든 문학적 동기가 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창작적 형식이고 수사학이다. (...) 표층적 의미보다 항상 심층적인 곳에 있는 의미, 매몰되고 숨겨지고 이유 없이 나에게 암호를 던지는 것들, 이런 불가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비평 작업을 계속할 수가 있다.”<sup>53)</sup> 물을 얻기 위한 우물파기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우물파기, 이 때 물은 ‘실재’가 아니라 표층의 이면에 심오한 뜻을 품은 ‘상징계의 기호’일 뿐이다. 다시 한 번 그의 방대한 언설이 라랑그가 아닌 랑가주라는 사실, 절대적인 향락이 아니라 합법적인 향락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라랑그(여성의 향락)로 도약하지 못하는 현실의 약력이 어떻게 랑가주를 통한 주체화를 추동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어령의 필사적 우물파기, 그 방대한 언설들(랑가주) 중에서도 ‘한국인론’(한국문화론)의 확장판이자 거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문화론’에 국한하여

50) 위의 책, 205쪽.

51) 이어령이 인용한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어머니 몸으로서의 언어’란 주체화의 과정에서 망실당하는 것들, 즉 아브젝트(object)와 관련이 있다. 전복적 역량으로서의 아브젝트는 사사키 아타루의 ‘여성의 향락’이라는 개념과도 서로 통한다. 그러나 이어령은 크리스테바의 아브젝트에 담긴 전투적인 정치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는 듯하다.

52) “우물 파서 물 먹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파면 물이 있을까 궁금하고 답답해서 파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스리체어스 편집부, 『바이오그래피 매거진 1: 이어령』, 스리체어스, 2014, 94-95쪽)

53) 이어령,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158쪽.

그 합법적 향락의 양상을 살펴보려고 한다.

## 2. 세대로서의 주체성: 분열과 괴리, 그 상상적 봉합으로써의 한국문화론

모어와 모성 상실이라는 이중의 결여를 감당해야 했던 주체성, 그것이 이어령의 개인적이며 세대적인 존재론을 조건 짓는 특이성이다. 그는 제국의 식민통치를 받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소학교(제도교육)에 들어가기 직전에 총력전의 체제로 들어선 조건 하에서 조선어의 공식적인 사용을 금지당했다. 그리고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어머니의 죽음과 마주해야 했다. 특히 식민통치와 모어 금지는 행정적으로 강제되었던 것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사사키 아타루의 논거를 바탕으로, 이어령에게 강제된 제도적 조건과 그 세대론적 함의를 ‘사회인 <거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탐문해 보자.

사회인 <거울>. 그것은 “이것은 너다”라고 말함으로써 그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이미 개인적인 것이 아닌 “정치적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 이 동질화에 의해 표상으로서의 주체는 생산된다. 이와 동시에 “이것은 내가 아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거기에 비친 애증의 모습으로부터 주체를 분리하고, 한계를 통보함으로써 “소격”을, “소외”를 생산한다. 이 두가 언명을 이미지의 힘을 통해 기능하게 하는 것. 이것이 <거울>의 사회적 기능이다.<sup>54)</sup>

특정한 세대의 주체성을 표상하는 사회적 조건 혹은 역사적 맥락을 일컬어 ‘사회인 <거울>’이라고 했다. 사회인 ‘거울’은 너를 이것이거나 이것이 아니라고 호명(Interpellation)함으로써 동일성의 주체를 생산한다. ‘소외’와 ‘소격’은 그렇게 동일성의 주체가 스스로를 객체와 분리하는 이질적인 거리감이다. 이어령은 그의 오래된 문단 이력만큼 문학사의 한 자리에서 어떤 특정의 집단적 주체성으로 호명되어 왔으니, 그 이름이 바로 ‘전후세대’라는 것이다. 만들어진 환상의 정신분석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 논고에서는, 그 세대론의 한계에 대한 시비나 비판보다 그 같은 호명과 표상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할 것이다.

문학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1950년대 문학에 대한 논의가 전후문학이라는 틀 속에서 본격화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이다. 그 전까지 근대문학 연구는 대체로 해방 이전의 시기에 국한되었다. 그것은 아마도 문단정치가 극렬했던 당시의 사정과 함께 전후의 문학자들이 당시 문학계의 원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현실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실존주의와 휴머니즘, 전통론과 모더니즘, 현실 도피의 관념성과 그 추상적 난해성에 대한 논의 등으로 정형화되어 있었던 전후문학 연구를 세대론의 관점에서 일신(一新)한 것이 방민호와 한수영이다. 방민호는 세대의 프레임으로 전후문학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선구적이었으나 그 연구를 개별 작가론을 넘어서는 포괄적 논의로 심화하지는 못했다.<sup>55)</sup> 한수영은 세대의 관점을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논구하면서 전후문학 특유의 복잡성을 해명하는 방향으

54) 사사키 아타루, 앞의 책, 274쪽.

55) 이어령에 대해서는 그 세대론적 전략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구세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새로운 화전민의 문학을 꿈꾼 이어령의 논쟁적 비평활동 과정은 정체성 혼란이라는 신세대 특유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李箱)을 넘어선 문학적 전통을 한국의 문학사 가운데서 발견하지 못하고 서구문학 전통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앞선 세대의 지방성과 토속성에 대한 직접적인 반정립에 불과했다.”(방민호, 「이어령 비평의 세대론적 의미」, 『한국 전후문학의 세대』, 향연, 2003, 39쪽) 방민호의 이런 비판은 소박한 사실 확인에 가깝다.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의 반정립적 비판이라는 구도를 확인하는 것보다, 그러한 반정립을 통해 만들어진 그 세대의 집단적 주체성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



로 나아갔다. 그는 “전후세대를 일종의 ‘피해자’ 혹은 ‘증세호소자로’ 보려한다는 점”<sup>56)</sup>에서 전후세대를 주체성의 정신분석을 통해 접근하려 하였으며, 그 집단적 주체성을 ‘이중언어자로서의 전후세대’, ‘관전사(貫戰史)의 기억’, ‘식민화된 주체로서의 전후세대’라는 중층적인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 세 좌표를 가로지르는 것은 식민과 탈식민의 시간을, 한국전쟁의 전과 후를 관통하여 보려는 연속과 단절의 감각이다. 그 과정을 통시적으로 전관(全觀)하는 가운데 일본어와 한국어, 이른바 ‘15년 전쟁’과 한국전쟁이라는 이원론의 공시태가 그 세대에게 불러온 균열과 분열의 증상을 징후적으로 독해(symptomatic reading)하려고 한 것이다. 한수영의 중층적 관점은 전후문학을 독해하는 정치하고 복합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있어서 그 의의가 다대하다. 다만 그 발상의 기초가 김현의 앞선 논의(「테러리즘의 문학」)를 상당 부분 반복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문학사적 평가라는 학술적 차원에서의 세대론(방민호, 한수영)과 달리, 김현은 그 세대론적인 경합의 당사자로서 자각적인 대타의식을 바탕으로 1950년대 문학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속한 세대를 ‘한글세대’(4·19세대)로 자주 호명했던 바와 같이, 앞선 세대를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는 매개의 고리로써 ‘언어’에 주목하였다.

한국어 말살 정책에 의해 일본어를 국어로 알고 성장한 세대는 급작스러운 해방 때문에 문장어(文章語)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한글로 개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어려움에 부딪힌다. 사물에 대해 반응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비판하는 작업은 일본어로 행해지는데, 그것을 작품화할 때는 일본어 아닌 한글로 행해야 한다는 어려움, 그것은 사고와 표현의 괴리 현상을 낳는다.<sup>57)</sup>

인용문에서 ‘사고와 표현의 괴리’라고 한 것은 1950년대 문학에 대한 김현의 관점을 집약하고 있는 말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념과 표현의 괴리’라고 적었던 그 현상은 “해방과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언어의 변모, 감정의 극대화 현상, 외국 사조의 무차별 수입”<sup>58)</sup>이라는 양상으로 드러났다. 갑작스런 해방으로 맞게 된 언어 환경의 변화에 더해, 이십대에 맞게 된 한국전쟁의 그 적나라한 폭력과 살상은 그들을 감정과잉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그들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그 엄청난 사태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소박한 인간애에 불과한 휴머니즘을 떠드는 선배들에게서 답을 구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서구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무차별적인 경사는 그러한 무능을 타개하는 일종의 방책이었고 무력한 선배들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또 다른 그 무엇이었던 셈이다. 김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후의 문학이 재건을 위해 취한 방향성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새로운 이념의 정립을 피하거나 한국어 표현법을 새롭게 발견하거나. 그는 특히 1955년 무렵 이어령이 ‘표현’에서 ‘이념’으로 전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과연 이어령은 ‘인간성 옹호’의 비평에서 소비문화의 비평이며 세련된 감수성을 요구하는 안정된 사회의 비평인 신비평으로 비평 방법을 바꾸며, 상징소설 예찬으로 방향을 돌려 인간이 사상된 예술의 구조 자체”<sup>59)</sup>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념이 그에 맞는 실체를 찾지 못하고 표현이 드러내야 할 이념을 획득하지 못하는 괴리, 그것이 김현이 전후세대의 문학에서 찾은 치명적인 맹점이다. 강경화는 김현과 이어령 모두에게 해당하는 세대적인 전략으로서 “타자를 배제하면서 주체를 정립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을 지목했다.<sup>60)</sup> 그들에

56)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87쪽.

57)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241쪽.

58) 위의 글, 243쪽.

59) 위의 책, 250-251쪽.

게 배제해야 할 타자는 우리 안의 남루하고 비천한 것들, 미개하고 열등한 것들, 반지성적이고 반문명적인 그 무엇들이었다. ‘이념과 표현의 괴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그렇게 부끄러운 우리 안의 타자들을 다시 오지 않을 저 먼 곳으로 추방하는 것이다. 그런 소명과 사명 속에서 추진된 것이 한국의 문화적 근대화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어령과 김현이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문화적 근대화의 기획은 그 양태는 서로 달랐지만, 이념과 표현의 괴리를 상상적으로 봉합하는 일이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어령의 그 엄청난 다설과 다변은 이념을 얻지 못한 표현의 허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허기 속에서 그는 더더욱 표현에 매달렸고, 언어라는 매질에 집중하였으며, 신비평과 구조주의에 천착하였다. 더불어 이념으로서의 한국과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규명하고 정립하는데 일로매진하였다. 다시 말해 『흙속에 저 바람 속에』,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신한국인』과 같은 한국문화론은 이념과 표현의 괴리를 상상적으로 봉합하는 막대한 작업이었다. 이어령의 일생은 사실 어머니의 언어를 향한 항심(恒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아버지를 찾아 떠도는 아비 찾기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에서 생산된 사조를 통해 무능한 선배들, 낡은 전통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변증법적 지양의 길, 그 근대화의 길은 곧 문명화의 길이였다. 더 유능한 아버지로서 무능하고 유약한 아버지를 대체하기, 그것은 자기 성찰의 구심적인 방향이나 미분적인 과정이 아니라 외부로 확대되는 원심적인 방향이며 적분적인 과정이었다. 그는 결코 스스로를 해체하는 라랑그의 모험을 시도한 바가 없었으며, 랑가주의 언설로써 안전한 향락을 마음껏 누렸을 따름이다.

**일제 감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아츠섬에서 일본군이 전원 옥쇄를 했다면서 교장이 추모 행사를 열면 애들이 진짜 울었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지만 식민지 교육이 그렇게 철저했어요. 자기 머리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세뇌거든요. 그러다 일본이 갑자기 패망하고, 천황이 항복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자기가 알던 게 완전히 거짓말이란 걸 깨달은 아이의 충격이 어땠어요. 나를 제외한 모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은요?** “믿은 건 딱 하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배우면서부터 어머니와 멀어지죠. 어머니라는 말을 뱉는 순간, 내가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어머니와 시니피앙(기표)으로서의 어머니가 분리되니까요. 이런 분리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니까 유난히 언어에 대한 집착을 가지게 됐어요.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이 모국어예요. 어머니를 대용하는 말. 이것이 나의 조국이고 나의 피고 나의 동지죠. 목수한테 망치와 대패를 뺏으면 그게 어디 목수예요? 언어를 떠나면 나는 죽어요.”<sup>61)</sup>

그는 이렇게 자기의 세대적 경험과 개인적 정체성에 대하여, 사후적인 기억을 유기적 서사로 재가공하여 논리 정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조국은 무능했고 제국은 가혹했다. 주체화의 과정으로써 어머니와의 강제적인 분리 그리고 아버지의 규율에 편입되기, 그런 조건들이 식민지에서 나고 자란 세대로서의 정신적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면 ‘나르시시적 우울증(narcissistic depression)’이라고 했을 그 정신적 혼란(이념과 표현의 괴리,

60) “60년대 비평가 중에서 김현만큼 이어령 비평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비평가는 없다. 김현의 비평이 이어령에 비해 한층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지만 문제의식의 발상과 문제제기 방식, 그리고 타자에 대한 배타적 전략과 수사적이고 정서적인 언어, 신화와 우화와 고사의 활용까지 이어령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이어령과 김현이 활용했던 이러한 방식은 어쩌면 타자를 배제하면서 주체를 정립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일 수 있다는 조심스런 판단도 가능하다.”(강경화, 『김현과 이어령』, 『한국 문학 비평의 실존』, 푸른사상사, 2005, 224쪽)

61) 스리체어스 편집부, 앞의 책, 86쪽.

주체성의 분열)을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어머니의 언어, 모국어에 대한 집착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국어라는 표현의 문제는 곧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조국의 이념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한국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한국인이라는 집단적인 주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으로써 그는 식민 통치의 기억을 갖고 한국전쟁을 체험한 전후 세대의 정신적 괴리와 분열을 극복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어령이 스스로 구축한 자기 합리화의 내러티브는 논리 정합적으로 잘 짜여있다. 그러나 랑가주로 구축된 그 동일성의 서사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진정한 극복이 아니라 상상적인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집착하는 어머니의 언어는 주체화의 과정에서 망실된 아브젝트가 아니다. 아브젝트는 아버지의 법과 규율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절대적 향락이고, 전복의 언어 곧 라랑그이다. 그러나 이어령의 저항은 진짜 저항이 아니라 저항이라는 포즈, 혹은 아버지의 법 안에서 저항을 연기하는 합법적 향락이다.

그가 이십대 후반에 써낸 『흙 속에 저 바람 속에』는 1963년 현암사에서 출간된 이래로 엄청난 판매고와 함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해외 여러 나라에도 번역 출간되었다. 이 책은 조국 근대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박정희 정권 하에서, 급격하게 산업화가 추진되었던 그 이행의 시기에 적극 부합하는 저작이었다. 그는 이 책을 문학사상사에서 다시 출간하면서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이 글을 쓸 때에는 역사에 눈을 뜨는 근대화 바람을 갈구하던 때이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서구적인 합리주의를 동경하던 때이다.”<sup>62)</sup> 책의 서장에서는 어떤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지프를 타고 언덕길을 내리달리고 있을 때 그 우렁찬 기계에 놀란 늙은 부부가 고무신이 벗겨진 채로 허둥거리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때의 강렬한 인상, 그는 그것을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다.

누렇게 들뜬 검버섯의 그 얼굴, 공포와 당혹의 表情, 마치 家畜처럼 무딘 몸짓으로 뒤뚱거리며 쫓겨 갔던 그 뒷모습, 그리고……그리고 그 危急 속에서도 서로 놓지 않으려고 꼭 부여잡은 메마른 두 손……북어대가리가 꿰져 나온 남루한 붓짐을 틀어잡은 또 하나의 손……벗겨진 고무신짝을 잡으려던 그 또 하나의 손……떨리던 손…….<sup>63)</sup>

지프라는 근대적 기기의 위세에 놀라 얼이 빠진 노인들의 누추한 모습은 후진적인 조국의 현실 그 자체였다. 그 열패감이 일종의 복수욕으로 불타오르자 청년 이어령은 타자화된 내부를 향하여 강력한 비판을 감행한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한에 받쳐 울음 우는 민족, 웃놀이에 스며들어 있는 한국적 비극, 이웃한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새우등 터지는 역사, 순응하며 인종하는 한국의 영웅상과 같이, 이렇게 열거된 한국인의 자화상은 지양되어야 하는 타자인 것이다. 하나 배울 것 없는 전통 앞에서 절규하고 안이하고 무능한 선배들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청년 이어령은 남루한 조국을 탈구축하기 위해 그 모든 어둡고 우울한 대상들을 제거하겠다는 열의로 달뜬다. “이 어두움이 신의 인간 창조와 동시에 제거된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서도 새로운 언어의 창조로 제거되어야 함을 이제 우리는 안다.”<sup>64)</sup> 스스로를 물려받은 유산 하나 없는 혈혈단신의 고아(『저항의 문학』)로 자처한 저 부정의식(살부의식)은 새로운 주체의 수립이라는 갱생의 의지를 반영한다. 전대호는 야나기 무네요시, 이광수, 박정희, 이어령으로 이어지는 그 의지의 계보를 논하는 자리에서 다음의 문장을 인용해 보여준다. “이 모든 악의 창고 같은 우리의 역사는 차라리 불살라버려야 옳은 것이다.”<sup>65)</sup> 전대호는 타자의

62) 이어령, 「이 책을 내면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문학사상사, 1986, 5쪽.

63) 이어령, 『흙속에 저바람속에』, 현암사, 1963, 16쪽.

64) 이어령, 『화전민지역』,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10쪽.

65) 박정희, 『국가와 혁명과 나』, 1963, 22쪽(전대호, 「아주 오래된 외부인 놀이: 이어령의 한국인론을

제거를 통해 주체를 구축하는 저 계보 속의 한국인론들이 갖는 함의를 ‘외부인의 관점에서 쓴 한풀이 역전극’이라는 표현으로써 적절하게 집약한다. 1960년대 박정희가 조국의 재건을 위해 이른바 만주국(1932-1945)의 하이모더니즘 체제를 이식하고 모방했던 바와 같이<sup>66)</sup>, 그들은 모두 스스로를 외부자의 위치에 놓고 내부라는 타자를 지양하는 매개의 고리로써 외부의 방법과 이론을 참조하고 모방한다. 외부로서의 서구에 대한 이어령의 편향은 그의 한국문화론이 항상 동서문화 사례 비교의 방법론에 따라 기술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잘 드러난다.

이어령의 한국문화론에 내재하는 가장 큰 문제성은 역시 그것이 체제의 논리와 결탁하는 합법적 향락의 범주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어령은 당대 권력의 강력한 개조의지를 공유했다. 그는 한국인을 소위 ‘근대화’의 길로 이끌 필요를 절감했다.”<sup>67)</sup> 이처럼 전대호는 이어령의 한국인론이 내포하는 체제 친화성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와 박정희 정권의 조국 근대화 논리가 맺는 관련성, 전두환 정권의 ‘국풍81’과 『신한국인』의 연루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sup>68)</sup> 이어령의 한국문화론이 갖는 탈정치적 정치성의 요지를 그는 다음과 같이 그 ‘외부자’의 감각에서 찾는다.

이런 의미에서 탈정치 지향은 눈앞의 내부 갈등을 해결 불가능한 내부-외부 갈등으로 보는 시각과 맥이 닿는다. 더 나아가 엘리트의 탈정치 지향은 자신을 외부인으로 자리매김하는 태도, 상대를 자신과 대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다시 외부의 관점이다. 야나기의 조선인론과 그 뒤를 이은 이어령의 한국인론뿐 아니라 이 땅의 엘리트 일반이 보이는 행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부인 노릇이다.<sup>69)</sup>

발표해온 글과 공식적인 이력을 통해 추정컨대 이어령은 분명 외부를 향한 확대지향의 인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늘 외부와의 비교 속에서 내부를 해명하는 사람이었고, 내부의 타자화를 통해서 주체로서의 자기를 확립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어령은 미개발의 조국에 대한 열패감으로 울분과 복수심에 불타는 식민지의 자식이었고 전후의 청년이었다. 그는 명민한 지성의 힘을 길러 입신양명하고 싶었고, 외부를 통해 내부의 문명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믿었으리라. 그에게 외부는 내부의 그 모든 초라하고 열등한 실상을 해소시켜주는 일종의 유토피아이거나 판타지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외부는 ‘한풀이 역전극’을 수행하는 상상의 토포스였다. 그런데 그렇게 외부를 향해서 자기의 욕망을 투사하는 확대지향의 끝은 드디어 추상으로 귀결된다. 마침내 외부는 기호라는 소설점에서 추상적인 관념의 극점을 찍는다. “첫 번째 유럽을 보았을 때 나는 놀랐었다. 두 번째 유럽을 보았을 때에는 그냥 덤덤했었다. 그런데 세 번째 유럽을 방문했을 때에는 실망과 고통뿐이었다.”<sup>70)</sup> 지치지 않고 달려온 외부 지향의 길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구체적인 실상으로서의 외부에 대한 막심한 회한이었다. 이제 외부는 추상의 언어로서 파악된다. 기호로서의 외부, 그러니까 식민지의 아이로 자란 그에게 일본이라는 외부는 축소지향형의 기호로 읽혀졌다. 다시 말해 기호의 제국으로서 새롭게 발견된 축소지향형의 일본은 확대지향형의 이어령이 마주하게 된 일종의 거울상이었다고 하겠다.

그 계보를 따져 비판함, 『철학은 뿔이다』, 복인더깍, 2016, 261쪽에서 재인용)

66) 한석정, 『만주 모던』, 문학과지성사, 2016 참조.

67) 전대호, 앞의 책, 279쪽.

68) 위의 책, 271쪽.

69) 위의 책, 243쪽.

70) 이어령,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갑인출판사, 1984, 341쪽.

### 3. 이어령의 일본문화론: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공간에서 벗어나 내셔널한 주체되기로

일본문화론은 일종의 정체성 담론이다. 지금까지 나온 일본론이 일천 수백 종에 이른다고 하니, 일본만큼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고 집착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모르겠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국가로서의 국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미 제국과의 차이를 자각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일본과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일본문화론이라는 거울을 통해 그들은 “상대와의 거리를 확인하며 자기를 식별”해 왔고, “일본인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은 단순한 한 면의 거울이 아니라 무수히 다른 각도의 거울을 조합한 다면거울, 만화경인 것이다.”<sup>71)</sup> 그들이 것처럼 자기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정체성의 담론에 예민하다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를 확립하고자 하는 자의식이 강하다는 반증이다. 그것은 동시에 타자에 의해 인정받기를 바라는 욕망의 강력한 표현이기도 하다.

『축소지향의 일본인』(갑인출판사, 1982)이 도쿄의 가쿠세이사(學生社)에서 『縮み志向の日本人』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것이 1982년이었으며, 1984년에는 고단샤(講談社)에서 문고본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전문 서평가들을 통해 이 책을 자세하게 소개하였고, 저자 이어령에게는 일본의 여러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각종의 단체에서 인터뷰와 강연 요청이 쇄도하였다. 추코신쇼(中公新書)로 발간된 『외국인에 의한 일본론의 명저』에서 가려 뽑은 42편 중 하나로도 소개되어 있을 만큼 이어령의 일본문화론은 큰 반향과 함께 일본사회로부터 인정받았다.<sup>72)</sup> 반성은커녕 역사적인 망발로 도발을 일삼던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만연했던 국내에 그런 열광이 알려졌을 때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꼈으리라. 이른바 학병세대로 식민지 본국의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징집되었던 이병주는 그 책에 대한 일본에서의 뜨거운 반응들을 일별하는 글에서 이렇게 적었다. “한 마리 제비를 보고서도 우리는 봄이 온 것을 깨닫듯이, 이 교수에 대한 일본인의 시각은 이 교수 자신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된다는 점에서 그 통쾌함과 긍지가 있는 것이다.”<sup>73)</sup> 그 ‘통쾌함과 긍지’의 밑바닥에는 집단적 정념으로서의 민족주의적 통분이 스며있다. 그런 통한의 정을 되갚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란 안타깝고 서글픈 것이다. 이어령을 도와 잡지를 함께 만들었던 호영송도 그의 평전에 이렇게 적었다. “이어령의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일어세대가 한국인의 모국어조차 빼앗은 일본인들에게, 때로는 날카로운 잭을 날리고 때로는 유머를 하며, 때로는 당당한 충고를 보내는 매니페스테이션이었다.”<sup>74)</sup> 그리고 누구보다 이어령 본인이 그 집필의도에 담긴 탈식민의 열의를 이처럼 자각적으로 밝히고 있다.

(…)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도 같은 것, 한(恨)과도 같은 것 그리고 무슨 도전과도 같은 긴장……. 그것은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그날부터 제 나라의 모국어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언어의 수인(囚人)으로 자라야 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비로소 ‘가나다’를 배운 세대였다. 내가 문필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줄곧 이 모욕받은 역사의 빛을 어떤 형태로든 청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따라다녔다.<sup>75)</sup>

71) 오쿠보 다카키, 송석원 옮김, 『일본문화론의 계보』, 소화, 2007, 7쪽.

72) 佐伯彰一・芳賀徹, 『外國人による日本論の名著—ゴンチャロフからパンゲまで』, 中央公論社, 1987

73) 이병주, 「일본에서의 이어령」,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문학사상사, 2003, 302쪽.

74) 호영송, 『창조의 아이콘, 이어령 평전』, 문학세계사, 2013, 180-181쪽.

75) 이어령, 『축소지향형의 일본인』(제2판), 문학사상, 2011, 434-435쪽. 앞으로 이 책을 인용할 때는 본문의 인용문 뒤에 쪽수만 표기함.

제국의 가해자를 향한 피식민자의 통쾌한 복수를,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전재호의 표현으로는 ‘한풀이 역전극’이라 할 수 있고, 임지현이 입안한 역사학적 개념으로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victimhood nationalism)’라고 할 수 있다.<sup>76)</sup> 내셔널히스토리의 차원에서 스스로를 희생자로 주체화함으로써 가해자로서의 타자에 대한 징벌을 합리화하는 심리적 기제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사실 피식민자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언어는 가해자로서의 제국의 그것(일본어)이다. 탈식민의 주체는 해방된 조국에서 그 해방공간(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공간)의 언어적 혼종과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모국어를 회복해야 한다는 조건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전후 세대는 그 조건을 결정하는 해방된 조국의 국어(대타자의 언어/아버지의 명령)를 통해 자기를 재주체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다. “갑자기 해방이 되니까 태극기가 있겠어요? 일본 깃발에 태극 문양을 넣고 사방에 괘를 넣어 만들었죠. 그 얼마나 아이러니예요. 일장기 속에 태극기가 숨어 있던 거죠.”<sup>77)</sup> 그 세대가 겪어내야 했던 언어적 전환기의 기막힌 혼란상, 그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공간에 얽힌 에피소드이다. 일장기 속의 태극기는 아버지가 교체되는 전환기의 혼종성과 양가성을 징후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이다. 물론 그것이 빛 갇기 내지 상징적인 복수를 통해서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사실이, 그 세대에 대하여 김현이 지적했던 바의 표현과 이념의 괴리를 낳게 만든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1950년대 중반 이후, 이념에서 표현으로 전향했던 이어령의 지성사적 행보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념에서 표현으로의 전향, 그것은 사실 전향이라기보다 발견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다. 애초에 언어의 감각에 예민하고 명민하였던 이어령에게 한국전쟁 직후는 그 적나라한 폭력의 사태가 빛은 참상을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사상, 즉 이념의 필요가 절실하였다. 그러나 현실을 오인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의 왜곡하는 힘을 깨닫고 난 뒤에, 그는 언어 그 자체야말로 현실을 견디는 진정한 힘의 원천임을 자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흙속에 저 바람 속에』는 한국인의 심성과 민족문화의 이념을 언어라는 매질(표현)을 통하여 파악해보려고 했던 과도기의 저작이다. 그러니까 그 책은 첫 장부터, 한의 정서로써 한국인의 정체성이라는 이념을 해명하기 위해 ‘운다’라는 어휘의 언어적 표현에 대한 비교문화론—‘새가 운다’고 하는 한국어와 ‘새가 노래한다’고 하는 영어식 표현의 비교—으로 시작하고 있다. 나아가 그 정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굶주림과 배고픔, 거기서 기인하는 식탐의 언어가 “‘쓰고’ ‘씹쓸하고’ ‘쓰디쓰고’ 또 ‘달고’ ‘들콤하고’ ‘달콤하고’ ‘달짝지근하고’”<sup>78)</sup>를 구별하는 미각언어의 발달로 이어졌다는 설명이 그러하다.

『흙속에 저 바람 속에』에는 한국을 비추는 거울상의 타자로서 일본과의 문화 비교가 적지 않다. 예컨대 폐쇄적인 서양의 성벽문명과 한국 돌담의 반개방성을 대비하는 자리에서, 일본의 와라부키(草家)에는 담이 없거나 있다손 치더라도 내부가 훤히 보이는 이케가키(生垣)라고 하면서 그 특유의 개방성을 주목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느긋한 싸움을 고양이 싸움에 빗대면서 일본인의 잔혹한 사무라이식 싸움을 닭싸움에 비견한다. 또 한국어의 일인칭이 ‘나’로 간명하게 주체성을 표명하는데 반해, 일본의 일인칭이 ‘와타쿠시(私)’라는 긴 음절로 되어있다는

76)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제기하였던 ‘세습적 희생자의식’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요컨대 그것은 “트랜스내셔널한 기억공간에서 탈영토화하는 기억과 재영토화하는 기억이 가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관계적 기억을 중심으로 어떻게 서로 경합하고, 전유하고, 타협하면서” 트랜스내셔널한 기억의 정치를 만들어나가는지를 탐색하는 역사학적 개념이다.(임지현,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나무, 2016, 345쪽)

77) 스리체어스 편집부, 앞의 책, 87쪽.

78) 이어령, 『흙속에 저바람속에』, 21쪽.

점을 들어 자아의 관념이 부족하다고 해석한다. 이밖에도 완구(玩具)가 발달한 일본과 그렇지 못한 한국의 대비 등 다채로운 사례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십여 년 뒤에 『축소지향의 일본인』에서 그 축소 사례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잇스보시(一寸法師)와 모모타로(桃太郎)라는 옛 설화의 ‘작은 거인’들에 대한 문화적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흙속에 저 바람 속에』에서 그 설화의 주인공들은 수난당하다가 도피를 꿈꾸는 한국 설화의 주인공들과는 달리 일본의 침략주의를 표상하는 잔인한 캐릭터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시니피앙들(문화적 사례들)을 가로지르는 축소라는 기호의 규약을 발견하기 전과 후가, 같은 대상을 두고 이렇게 큰 해석의 차이를 낳은 것이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이어령은 일본을 침략자로는 바라보는 피해자의 감각, 가해와 피해의 분법적인 이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어령이 이념의 족쇄에서 벗어나 점차 표현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과정은 곧 신비평과 구조주의라는 지성의 세레 속에서 기호학자로 거듭나는 과정과 겹쳐진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문학공간의 기호론적 연구—청마의 시를 모형으로 한 이론과 분석』(단국대학교, 1987)이다. 이 논문에서 인용 혹은 적용되고 있는 이론과 이론가들을 통해, 그의 기호학적 소양의 방대한 레퍼런스와 그 이해의 정도, 그리고 수용의 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다만 대상 텍스트에서 공간을 분석의 중심에 두는 그 방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구조주의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공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이유는 신체성이 강조되어 온 현상학의 영향 탓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체론에서 관계론으로 20세기의 담론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공간이야말로 실체가 아니라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위, 아래, 안, 바깥의 공간 의식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해서 인식되고 분절되는 것으로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공간의 랑그는 언제나 개인의 신체성의 파롤에 의해서 실현된다.<sup>79)</sup>

쉽게 말해 이제 그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해석하고 규명할 수 있는 공간기호학이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얻게 된 것이다. 이념으로부터 완전하게 멀어지고 표현으로 밀착하게 되는 그 분기점에 공간기호학이라는 해석의 장치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닥치는 대로 해석하고 분석한다. 마침내 그의 다변과 달변은 기호학이라는 날개를 달고 문예학의 높은 지평으로 날아오른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징계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랑가주의 연술이었음을 놓치지 않아야 하겠다. 그 합법적인 향락의 연술을 통해 일본이라는 대상마저도 움켜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그는 장악한 자의 자신감으로 이념에서 표현으로의 이행을 분명하게 선언한다.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무대는 바로 일본문화를 대표적으로 표상하는 하이쿠(俳句)를 논하는 자리였다. “시조가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념을 내세우고 논쟁적인 주장과 설복 그리고 교훈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 하이쿠는 단지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포착하여 그것을 제시하고 묘사하여 종국에는 어떤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발견에 그 주안점을 둔다.”<sup>80)</sup> 앞서 이어령이 공간기호학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실체에서 관계로의 담론 전환을 여기에 대입해 보면, 보편을 전제하는 연역적 사유로서의 이념은 실체

79)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7쪽. 이 책은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80) 이어령, 『하이쿠의 시학』, 서정시학, 2009, 321쪽. 이 책은 도쿄에서 『俳句で日本を読む』(PHP研究所, 1983)라는 제목으로 처음 출간되었고, 1986년에 국내에 번역되었던 것을 다시 수정하고 증보한 것이다.

론에 해당하며, 각각의 실존적 특이성에 따라서 때때로 곳곳마다 저마다의 차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깨달음과 발견은 관계론에 해당한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자가 이념이고 후자가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의 현상학적 세계야말로, 하이쿠가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세계”<sup>81)</sup>인 것이다. 그래서 예로 들기를, 까마귀를 노래한 정몽주의 시조(“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말라.”)에서 그것이 악이라는 가치의 이념을 보편적으로 표상하고 있다면, 바쇼의 하이쿠(“마른 나뭇가지에 까마귀가 앉아 있구나, 가을 저녁이여”)에서 그것은 가을 저녁(지금/때), 마른 나뭇가지(여기/장소), 까마귀(나/사물)의 개별적 사건성 속에서 세상 유일의 것으로 드러난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주의해야 할 것은 바쇼의 하이쿠가 어떠한지는 몰라도, 그 작품을 해석하는 이어령의 언술은 지극히 이념적인 랑가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가 지향하는 ‘표현’이 그가 멀어지고자 했던 ‘이념’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그 아이러니가 바로 지금까지 거듭 언급하였던 그 ‘괴리’의 핵심이다. 이념을 타자화함으로써 표현을 주체화하기, 그러나 객관적인 분석자이기를 자처하는 그 전략과 기획은 결국 주체화라는 동일성의 회로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어령은 기호학이라는 그 신화적인 상징계의 랑가주를 통해 일본이라는 타자를 기호학적인 코드로 약호화(coding)함으로써 자기의 수중에 움켜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이어령이 수행한 탈식민의 전략이었다. 이제 그는 일본을 ‘축소’라는 약호로 코딩하기 위한 전제로써 일본문화의 특유한 양식성에 주목한다.

일본의 문화를 지탱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리고 우리와 다른 문화가 바로 모든 행위를 양식화하는 데 있다. 이른바 일정한 형식으로 정형화하는 일종의 틀 만들기이다. 마음이 있어서 어떤 양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겨난다. 이런 원리는 차를 마시는 다도에서도 노·가부키 같은 생활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일본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에 뻗어 있다.<sup>82)</sup>

우리와 달리 일본문화가 유독 행위의 양식화를 특징으로 한다는 것, 따라서 그런 양식화의 원리를 적용해 일본사회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83)</sup> 그리고 그는 식민지 교육을 받았던 어린 시절에 교사로부터 “내일은 수수깁을 ‘사이쿠(細工)’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집필하게 된 동기의 하나라고 밝혔다.<sup>84)</sup>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냥 만든다는 것을, 일본인들은 굳이 정교하고 섬세하게 공작한다는 의미의 ‘세공’이라는 어휘로 표현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이쿠’라는 말에 집약된 한일 간의 문화적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던 그의 명민한 감각이 기호학이라는 방법론과 결합함으로써, 마침내 일본인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탁월한 일본문화론을 내놓게 된다. 더군다나 이어령의 기호학은 이념을 괄호에 넣은 순수한 표현의 분석에 몰두하는 것이었기에 예민한 정치적 논란을 비껴갈 수 있었다. 그의 이런 고백이 그 기호학의 탈정치성, 다시 말해 그것이 절대적 향락(신적인 것)이 아닌 합법적 향락(신화적인 것)으로서의 일본문화론임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본래 수축과 확산은 동사(動詞)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므로 역학적(力學的)인 것이다. 더욱이 이데올로기적인 가치를 내포하

81) 이어령, 「하이쿠(俳句)와 일본인의 발상」,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194쪽.

82) 이어령, 「신화 만들기」,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76쪽.

83) 문예비평가 요시무라 데이지와의 대담에서 이어령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에 적용한 그 연역적 양식화의 기호학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그 책에서 문화적 보기(예)를 하나하나 나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한 ‘체계’를 쓰려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의 문화적 예가 언어에 나타나거나 또는 어느 미적 세계나 여러 가지 레벨에 나타난 현상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이어령, 「축소 문화의 가능성」, 『세계 지성과의 대화』, 문학사상사, 2004, 390쪽)

84) 이어령, 「한국과 일본, 무엇이 다른가」,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219쪽.



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보다 중립적인 서술이 가능해진다.”<sup>85)</sup> 이처럼 중립적 서술이라는 미명 하에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포기해버린 문화론은, 마치 내관을 제거해버린 폭탄과 마찬가지로 신화의 허구성을 폭로하지 않는 신화론으로 안전하게 자족할 뿐이다.

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우물파기, 이어령은 자신의 그 막대한 언설들이 그런 무목적의 순수한 행위였음을 고백한 바 있다. 이념으로부터 멀어져 표현으로 근접해나간 그의 행로가 그 고백을 입증한다. 이처럼 가치중립적이고 탈정치적인 그의 기호학적 방법론은 이념이 아니라 표현에 집중하는 일본문화의 양식화된 성격과 정확하게 서로 일치한다. 시바 료타로와의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꼬집었다. “일본에 왜 격식이나 양식화된 것이 이다지도 많은가 하면, 목적과 이념이 없기 때문이에요.”<sup>86)</sup> 그래서 『축소지향의 일본인』을 읽을 때 가장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표현들 중의 하나가 바로 그 무목적의 순수성을 가리키는 부분들이다. 무목적성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것은 공리적이 아니라는 점에서의 자기목적성을 가리키며, 도구적이 아니라 자족적(자율적)이라는 의미에서의 순수를 가리킨다.

“일본의 다도에서는 차가 없어도 ‘달마의 눈꺼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차에서 얻어지는 ‘각성 효과’는 다실의 분위기과 차제구(茶諸具) 그리고 차를 달이고 마시는 양식의 행동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240쪽); “일본인에게는 요리 그 자체의 맛보다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노고와 정성을 맛보려는 묘한 습관이 있다.”(284쪽); “총이 맨 처음 일본에 들어왔을 때 그 기능의 개량보다는 칼의 ‘쓰바’처럼 그 장식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는 예만 보아도 알 수 있다.”(354쪽); “물건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 나라에서 물건을 삼으로써 그 이미지, 그 풍속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일본의 ‘오미야게(土産品)’ 문화이다.”(322쪽)

다도와 꽃꽂이에 내포된 그 무목적의 순수성이라는 양식을 알렉상드르 코제브는 역사의 종말 이후를 징후적으로 표현하는 스노비즘이라고 독해하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어령은 그것을 단지 축소의 사례로써 서술할 따름이다. 그의 이런 탈이데올로기적이고 탈정치적인 자의식은, 이 책의 구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조르주 풀레의 ‘플로베르론’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어령이 설명하고 있는 풀레의 그 축소와 확산의 논의는 소박한 이원론을 벗어나지 않는다.<sup>87)</sup> 따라서 그의 직접적인 설명을 신뢰하기보다, 풀레와 이어령 비평의 상관성을 통해 그 진짜 영향의 맥락을 유추하는 것이 유효하리라 생각된다. 다음은 이른바 풀레의 현상학적 비평 방법론이 잘 드러나 있는 한 대목이다. “즉 전제절(protase)에서 결과절(apodose)에 이르는 몇 개의 상이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상승적이고 하강적인 종합을 이룩한, 이 종합이 완성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현재가 되는 확고한 일체성을 문장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간의 문제는 문체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된다.”<sup>88)</sup> 지극히 난해한 문장이지만 나름의 주해(註解)를 시도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의 텍스트에 대하여 그 전제에서 결과에 이르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상

85) 이어령, 『축소지향의 일본인』 그 이후, 위의 책, 219쪽.

86) 시바 료타로와의 대담, 『일본인의 정체성』, 『세계 지성과의 대화』, 461쪽.

87) 본문에서 풀레의 플로베르론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르주 풀레라는 비평가는 ‘확대’와 ‘축소’의 두 의식 지향성으로 『보바리 부인』을 분석하고 있다. 마담 보바리는 확산에의 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있다. 그 확산의 의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이 소설의 결정적 전환점인, 보비에사르 저택에서 자작(子爵)과 왈츠를 추는 장면이다. 그녀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빙빙 돌며 선회 운동을 할 때 그 춤의 이미지는 상류 사회와 더 넓은 파리의 사교계에 나가고 싶은 마담 보바리의 꿈 그 자체인 것이다.”(204쪽)

88) 조르주 풀레, 조종권 옮김, 『인간적 시간의 연구』, 동인, 1994, 347쪽.

하의 역동적 토포스를 통하여 종합할 때, 시간은 일체화된 현재로 응집됨으로써 역사적인 것(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문체적인 것(표현적인 것)으로 의식하게 된다. 이어령의 일본문화론에는 그 심층에 이미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꺼리는 탈정치화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탈정치화가 합법적 향락의 주체라는 그의 존재론과 결부되어 있음은 따로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대개의 일본문화론들이 일본인만의 고유한 특질을 문화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이 아니라, 언제나 서구와의 차이를 통해 발견해 왔다는 것에서 이어령은 그 한계와 함께 여전한 탈아주의의 고정관념을 읽어낸다. 식민지 교육을 받았던 그는 “아직 민족의식을 지니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의 경험으로도 분명 이것은 내 것과는 다르다고 느낀, 일본 문화에 대한 이질감”(29쪽)을 단서 삼아서 다른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차이를 밝혀낼 수 있다는 도전적인 의지를 내비친다. 그리고 그 논의의 출발지점에 등장하는 것이 잇스보시, 모모타로, 긴타로, 우시와카마루, 가구야히메와 같은 옛날이야기 속의 작지만 강한 주인공(고비토)들이다. 일본어의 어휘에 있어서도 콩알을 뜻하는 ‘마메(豆)’와 병아리를 뜻하는 ‘히나(雛)’와 같이 축소의 의미를 지니는 접두어 사용이 빈번하다는 것, 일본의 고어에서 작고 섬세한 것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구와시(くわしい)’에 내재하는 축소의 미학을 간파해낸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이처럼 “큰 것을 작게 줄인 것은 그냥 작은 것과는 달리 원형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좀 더 힘센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33쪽) 일본인의 축소지향은 환경과 풍토보다는 그들의 원형적 상상력과 집단적 무의식과 더 깊이 연루하고 있다는 것이 이어령의 생각이다. 여기까지가 논의를 풀어가기 위한 총론으로서 앞서 풀레가 언급했던 전제절(protase)이라고 한다면, 축소지향의 여섯 가지 모형(이레코형, 질부채형, 아네사마 인형형, 도시락형, 노멘형, 문장형)과 그 구체적 사례의 범주로서 일본의 자연물, 인간과 사회, 산업에 나타나는 축소의 양상과 양태는 결과절(apodose)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축소지향이라는 ‘전제’로부터, 그 증거로서의 사례들을 제시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서로 다른 각각의 단편들을 하나의 기호학적 원리로 ‘종합’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 유기체적인 종합은 전체성의 환상을 해체하는 발터 벤야만의 넘마주이식 파편 모으기와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구조적 동일성의 원리’<sup>89)</sup>에 따라 이어령이 수행하는 ‘기호학적인 종합’은 정원, 분재, 꽃꽂이, 다도, 하이쿠, 인형, 정원, 사토미야(里宮), 오미코시(御神輿), 가미다나(神棚), 일본기, 캡슐호텔, 목욕(風呂)문화, 세이자(正座), 이치고이치에(一期一会)의 문화, 접이우산, 가부키(歌舞伎)의 하나미치(花道), 잇쇼켄메이(一所懸命)의 생활방식, 이치자콘류(一座建立), 가이세키(懷石)요리, 트랜지스터라디오, 로봇, 파친코 등에 이르는 잡다하고 난잡한 소재들을 유기적인 전체의 하나로써 치환한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축소지향이라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구조적 동일성과 이질성에 따라 비교하거나 대조할만한 사례들을 제시하는 그 수사적인 방식에 있어서도 각별한 점이 있다. 어휘소의 정치한 분석을 단서로 주장하는 바를 이끌어 내거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인상적인 비유를 구사하고, 문헌, 격언, 속담, 일화 등을 적소에 배치한다. 물론 달변과 달필의 그에게 이런 문체상의 특징은 다른 여러 저작들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식이다. 그러나 특히 이 책에서는 이질적인 것들을 종합하는 역량이나 인용하는 출처의 희귀함과 방대함이라는 차원에서 본인의 여타 저작들과 결을 달리한다. 그는 축소지향을 원리를 확고하게 입증하기 위해서 『고

89) 서로 다른 다양한 사례들을 그 구조의 동일성에 따라서 하나로 묶어내는 서술방식은 이 책의 이곳저곳에서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적으로 이 하나의 예시만 인용해 본다. “자연의 일부인 돌과 모래만을 따와서 대우주를 축소하고, 그것을 조그만 개인의 뜰 안에 집어넣은 일본의 정원과 일본의 전자 제품에는 분명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338쪽)

지키(古事記), 『니혼쇼키(日本書紀)』, 『만요슈(萬葉集)』, 『마쿠라노소시(枕草子)』와 같은 널리 알려진 일본의 고전문헌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고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동서고금의 온갖 문헌들을 종합으로 인용한다. 우선은 그의 치밀하고 성실한 문헌 연구에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겠지만, 그 놀라운 종합에의 의지와 박람강기의 이면에는 타자 극복의 열의와 강박증적인 인정 투쟁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웬만한 일본인들도 모르는 희소한 일본적 제재들을 화려하게 인용함으로써, 그 압도적인 지성의 역량으로 일본이라는 타자의 기를 눌러놓겠다는 자의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은 기호학적인 방법론으로 일본인의 정체성을 규명한 성실한 일본문화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은 일본이라는 타자의 거울에 비친 한국의 자아상을 규명하는 한국문화론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것은 그 어떤 본인의 저작들보다 자신의 모습이 심층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황호덕의 이런 평가는 적합하고 적확하다. “다소 과감하게 말해 이 책은 한때 ‘일본인’이었던 사람이 한국을 자국이자 이방으로 보게 되는 프레임, 즉 강요된 객관성에 기초하고 있다.”<sup>90)</sup> 이 책은 서구와의 대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일본의 그 무엇,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외부자는 한때 그들의 내부자였던 한국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피식민자이며 동시에 제국의 이등국민이었던 한때의 내부자가 탈식민의 기획으로써 서술한 그 담론 속에는, 내외의 혼란과 함께 포스트식민성의 아포리아에 노출된 주체의 자기 분열상이 마치 피폭(被暴)의 자국처럼 남아있다.

가라타니 고진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노출하고 있는 치명적인 논리적 허점으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구성되어진 문화적 현상을 마치 본질적인 실체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무한한 것을 축소라는 형식으로 장악하려는 의지 속에서 근대적인 의미를 읽어내고, 민족성의 원리가 아닌 그것을 전통적인 것으로 박제화할 때 축소는 근대적 급진은 그 역사적 저항성과 혁명성을 상실한다고 했다.<sup>91)</sup> 이어령의 일본문화론에 대한 가라타니 고진의 비판적 독해는, 역시 역사성을 표상기호론으로 탈색한 그 탈정치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가라타니가 미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포스트식민주체의 탈정치적 욕망이야말로, 제국의 통치와 전쟁의 경험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상황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스스로를 암흑천지의 배덕아이자 황무지의 화전민이라고 규정하며 현대와의 조우를 통해 미개발의 현실을 타개하려 했지만, 이어령은 이념의 전투(라랑그)가 아니라 표현의 논쟁(랑가주) 속에서 수사적 격렬함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에 대하여 감히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감했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 성실한 인간이었기 때문이다.

#### 4. 나가며: 서구적 근대에서 아시아적 포스트모던으로

이십대 후반의 이어령이 쓴 『흙 속에 저 바람 속에』가 전후의 비참했던 시기를 지나 이제 막 개발 근대화로 질주하던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탐구였다면, 사십대에 쓴 『축소지향의

90) 황호덕, 「일본,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기식민지인의 초상」, 『일본비평』(2010년 하반기, 제3호), 179쪽.

91) “일본에 있어서 정원이거나 또는 다실이거나, 인형이거나 간에 그것들을 극도로 축소하려는 지향성은 결코 전통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에 직면하여 그것을 가두어넣으려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축소지향성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가라타니 고진, 「사케이(借景)에 관한 고찰」, 『상상력의 거미줄』, 494쪽)

일본인』은 식민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정체성의 어떤 기원을 탐구하고 그것과 마주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론에서 일본문화론으로 확대되었던 그의 담론은, 쉽 없이 그 상상력의 영역을 넓혀 아날로그로 디지털을 감싸고(『디지로그』, 생각의나무, 2006), 지성을 바탕으로 영성마저도 끌어안고(『지성에서 영성으로』, 열림원, 2010), 근원적인 생명으로 세속의 자본을 길들인다(『생명이 자본이다』, 마로니에북스, 2014).

이념에서 표현으로 전환이 이어령의 지성사에서 전반부를 규정하는 술어라면, 후반부의 그것은 서구적 근대에서 아시아적 포스트모던으로의 전회라고 할 수 있겠다. 문화적 근대주의자였던 그는 이제 서구적 근대성의 폐해를 비판하고 동아시아적 가치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담론에 주력한다. 현재의 그가 과거의 그를 갱신하면서, 부정되었던 한국적 전통이 새롭게 해석되고 찬미되었던 서구적 근대의 합리주의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가치중립을 표방하던 그의 일본인론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나와서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때는 일본경제의 호황기가 끝나고 부풀러오를 때로 올랐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출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일본지식인들과의 여러 대담에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피하지 않는다. “19세기에 들어와 서양의 도끼가 울창한 아시아 문화의 수목을 찍어 넘어뜨렸을 때 일본은 마치 그 도끼의 자루 역할을 했던 거예요.”<sup>92)</sup> 당시에 문제로 떠올랐던 역사교과서 갈등이나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에 대한 비판이 신랄하다. 그에 따르면 용맹한 사무라이의 정신이 군국주의로, 성실한 조년의 상인정신이 무역마찰로 이어지는 불상사는 ‘의사 가족 제도’로 오도된 일본적 화(和)의 사상이 직조해낸 배타성 때문이다. 화(和)는 부동(不同)을 전제로 하는데, 같지 않은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화의 강조는 잔혹한 폭력으로 귀결된다. 서양을 따라잡아서 앞지르겠다고 공세적인 태도로 내달려왔던 일본이, 이제는 따라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수세적 태도로 한국을 적대시하고 있다.<sup>93)</sup> 막다른 곳에 이른 서구적 근대성의 대안을 동아시아에서 찾으려고 하는 이어령은, 탈아입구 내지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로 방향했던 일본이 자기의 잘못을 직시하고 아시아의 건전한 일원으로 돌아와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한 ‘말년의 양식’이라고 할까, 노년에 접어든 이어령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서구적 근대성의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길로 나선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큰 나라, 발전된 나라, 말하자면 서양 문화만 공부했습니다.”<sup>94)</sup> 짧지만 회한이 어린 진솔한 고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는 이제 근대주의자에서 포스트모던한 사상가로 전향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단지 시대의 동향에 예민했던 근대적 지성의 기민함과 민첩성이 발휘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인론에서 일본문화론으로 확대되었던 그의 문화론이 동서문명 비교론으로까지 확장된 것이 『이어령의 가위바위보 문명론』(마로니에북스, 2015)<sup>95)</sup>이다. 표제에서부터 문화론이 아니라 문명론임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문명 패러다임이 전환을 화두로 붙잡고 있다. 본문에서 프랜시스 후쿠야마와 사무엘 헌팅턴을 상대로 한 언급이 자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동서문명 비교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책은 동아시아론이면서 일본론이고 무엇보다 한국

92) 시바 료타로와의 대담, 「일본인의 정체성」, 『세계 지성과의 대화』, 446쪽.

93) “앞지를 나라가 더 이상 없게 된 시점에서 그 대역을 맡게 되는 것은 의당 뒤쫓아오는 나라이며 그 모델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다.”(이어령, 「교과서」를 잃어버린 일본인, 『일본문화와 상인정신』148쪽)

94) 우메라 다케시와의 대담, 「아시아가 미래를 이끈다」, 『세계 지성과의 대화』, 487쪽.

95) 이 책은 일본에서 먼저 출간된 『ジャンケン文明論』(新潮社, 2005)을 이례적으로 한국어 번역본과 합본한 것이다. 이하 이 책을 인용할 때는 인용문 옆에 쪽수를 병기함.

론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가 주장하는 문명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간단명료하다. 서양의 근대를 추동해온 원리를 ‘동전 던지기’(이항체계)라고 한다면 동아시아의 전통에는 ‘가위바위보’(삼항체계)가 있다. 서구적 근대와 동아시아의 전통은 그렇게 이분법적인 체계로 대립한다. 다시 가위바위보에서는 중국(대륙, 보자기)과 일본(섬, 바위)의 이항체계에 그 대립을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는 한국(반도, 가위)의 역할을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이어령의 다른 저작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책의 시작도 하나의 단어를 출발점으로 한다.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서구의 배타적이고 직선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낸다면, 아시아에서는 오르고 내리는 상호성과 그 대립하는 양면성을 포괄하는 ‘승강기’라는 명명이 그 문명적 성격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승강기로의 사유 전환이 곧 문명의 거대한 전환을 암시한다.

사물에서 사람으로, 실체에서 관계로, 택일에서 병존으로, 서열성에서 공시성으로, 극단에서 양단불락(兩端不落)의 중간인 그레이존(Gray zone)으로 시선을 바꾸면 어두운 문명의 동굴 속 미로에서 무언가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엘리베이터라는 이항대립 코드가 승강기라는 상호와 융합의 코드로 바뀌어 가는 조짐이다.(44쪽)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구조의 서구적 근대와 상호적이고 순환적인 동아시아의 사유 전통은 각각 바이너리 코드의 동전 던지기과 삼자관계의 가위바위보에 비견된다.<sup>96)</sup> 그것은 또한 독자형의 1인칭과 집단형의 3인칭으로부터 구별되는 상호성의 2인칭 문화 모델로 변주되기도 한다. 언젠가부터 이어령의 말과 글에서 플렉시블, 퍼지, 노이즈, 커뮤니케이션, 예외, 애매함, 엉터리와 같은 어휘들에 대한 애호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직선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외 없는 인과론적 계층에 집착하는 근대적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자의식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손의 신체성에 바탕을 둔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동아시아의 놀이문화이다. 가위바위보를 하는 손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일하는 손에서 놀이하는 손으로, 대화하는 손으로, 점치는 손으로, 기도하는 손으로 옮겨가면서, 공리적인 목적에 주박당한 신체성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한다. “요컨대 가위바위보의 손가락은 수를 세기 위한 손가락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수를 뒤집고 해체하고 탈구축하여 숫자를 신비화하거나 가지고 논 것이다.”(121쪽)

가위바위보의 삼항체계는 이항대립의 양극논리 혹은 짝수체계를 뒤흔드는 홀수의 체계이다. 그 양극의 대립(바위와 보의 대립)을 조화롭게 화해시키는 중간자로서의 가위 역할을, 대륙과 섬의 성격을 포괄하는 반도 한국에 맡기는 것에서, 이른바 한국발 동아시아 담론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한국중심주의를 다시 확인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주장의 내용에 대한 시비가 아니라, 그런 주장에 이르기까지의 정신의 여정이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 어머니의 언어, 모국의 품으로 회귀한다. 남루하고 누추한 집이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탕아의 귀환처럼, 서구적 근대성의 황홀경을 좇던 포스트식민성의 주체는 그것의 숨겨져 있던 무서운 실체를 맞닥뜨리고서야 고향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귀환으로서의 정신적 비약이 아니라 원래의 장소로 회귀한 것일 따름이다. 탈근대의 의식마저도 근대적인 논리의

96) 문명 패러다임의 전환을 집약하는 키워드로 이 책에서는 엘리베이터와 승강기, 동전 던지기과 가위 바위보 이외에 자동차와 휴대전화도 있다. “산업시대를 대표하는 자동차와 정보문명을 상징하는 휴대 전화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도구’에서 ‘신체’로, ‘소유’에서 ‘접속’으로, ‘실체’에서 ‘관계’로 ‘사물’에서 ‘마음’으로, 세상의 가치와 기능의 축이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260 쪽)

체계 안에서 합리적으로 논구되었을 뿐이다. 그야말로 부처님 손바닥 위의 손오공처럼, 량가주의 자장 안에서 현란한 지성의 역량을 마음껏 뽐냈을 따름이다. 확대일로의 길을 걸었던 한 문제적 개인의 기나긴 정신사적 여정의 끝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내파하고 초월하는 것의 난해함과 내재하는 자의 곤란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령의 생애사가 곧 한국의 근현대사 위에 포개진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화, 「김현과 이어령」, 『한국 문학 비평의 실존』, 푸른사상사, 2005
- 김윤식 외, 『상상력의 거미줄』, 생각의나무, 2001
- 김현, 「테러리즘의 문학」,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김현문학전집 2), 문학과지성사, 1991
- 방민호, 「이어령 비평의 세대론적 의미」, 『한국 전후문학과 세대』, 향연, 2003
- 스리체어스 편집부, 『바이오그래피 매거진 1: 이어령』, 스리체어스, 2014
- 이동하, 「무지의 편견 지성의 외로움」, 『상상력의 거미줄』, 생각의나무, 2001
- 이어령, 「화전민지역」, 『저항의 문학』, 경지사, 1959
- 이어령, 『푸는 문화 신바람의 문화』, 갑인출판사, 1984
- 이어령,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문학사상사, 1986
- 이어령, 『공간의 기호학』, 민음사, 2000
- 이어령, 『일본문화와 상인정신』, 문학사상사, 2003
- 이어령, 『세계 지성과의 대화』, 문학사상사, 2004
- 이어령, 『하이쿠의 시학』, 서정시학, 2009
- 이어령, 『어머니를 위한 여섯 가지 은유』, 열림원, 2010
- 이어령, 『축소지향형의 일본인』(제2판), 문학사상, 2011
- 이어령, 『이어령의 가위바위보 문명론』(마로니에북스, 2015)
- 임지현,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나무, 2016
- 전대호, 「아주 오래된 외부인 놀이: 이어령의 한국인론을 그 계보를 따져 비판함」, 『철학은 뭘이다』, 복인더깍, 2016
- 한석정, 『만주 모던』, 문학과지성사, 2016
-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 호영송, 『창조의 아이콘, 이어령 평전』, 문학세계사, 2013
- 황호덕, 「일본, 그럼에도 여전히, 세계의 입구—『축소지향의 일본인』으로 읽는 한 후기식민지인의 초상」, 『일본비평』(2010년 하반기, 제3호)
- 사사키 아타루, 안천 율김, 『야전과 영원』, 자음과모음, 2015
- 오쿠보 다카키, 송석원 율김, 『일본문화론의 계보』, 소화, 2007
- 조르주 폴레, 조종권 율김, 『인간적 시간의 연구』, 동인, 1994
- 조르주 폴레, 조한경 · 이현진 율김, 『비평적 의식』, 지식올만드는지식, 2013

【자유주제3 토론】

「이어령의 일본문화론과 전후세대의 식민주의적 무의식」에 대한 토론문

이희원(부산대)

# 별지

【자유주제4】

문학의 게임화(Gamification of Literature)

고성범(진형연구소)

---

# 문학의 게임화

## (Gamification of Literature)

고성범

진형연구소



# 문학의 게임화

(Gamification of Literature)

고성범

진형 연구소

## 문학계의 현실

오랫동안 시, 수필, 소설은 문학 그 자체로만 소비되어 왔다



문학 시장의 위축

작가들의 경제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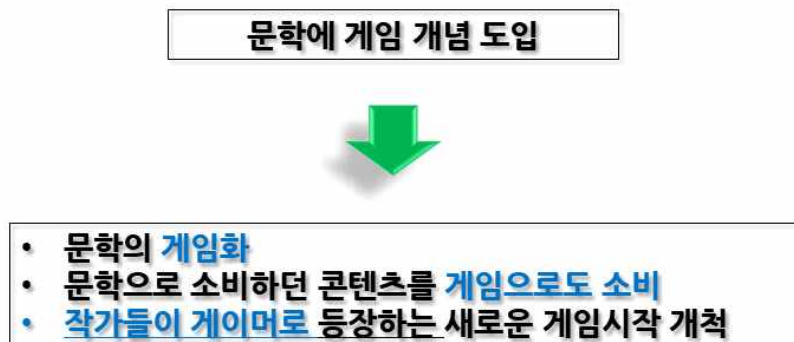
## 시장 축소의 원인



3

진형 연구소

## 한 가지 솔루션



4

진형 연구소

# 시너지

문학의 매력 + 게임의 매력



시너지

5

진형 연구소

# 급 게임 제안

게임의 4대 요소



요소	설명
목표	완성도가 높은 작품
장애물	여러 강제 규칙(제약) 채택
보상	작품 창조 + 장애물 돌파 + 상금
빠른 피드백	빠르고 객관적인 평가 방법 개발(알파고?)

6

진형 연구소

## 게임 설계의 포인트

번호	요소	설명
1	방해	다양한 장애물(방해자/경쟁자)이 있어야
2	공간	링은 가능한 한 좁아야
3	주제	원초적 본성(성, 폭력, 미학, 창조, 도전)에 부응해야
4	전략	적당한 자유도(선택의 여지)가 보장되어야
5	색깔	잡탕이 되는 건 지양해야
6	우열	높은 변별력은 필수
7	궁합	사람들의 취향과 시대의 트렌드를 고려해야

7

진형연구소

## 글 게임 장르

기존의 문학 장르는 링이 너무 넓다!



글 게임을 위한 전용 장르가 필요 하다!



공-게임 : 축구, 배구, 농구, ...  
글-게임 : b-수필, ?, ?, ?, ...

8

진형연구소

## (게임화의) 두 가지 접근

---

- 문학 쪽 : 게임 based 문학(문학의 틀에)
- ★ 게임 쪽 : 문학 based 게임(게임의 틀에)

9

진형 연구소

## 최근의 디자인 경향 : 강제 융합

---

(스티브 잡스)

많은 기능을  
아주 좁은 공간 안에 강제로  
구겨 넣는다.

아이폰 : IT분야의 여러 기능을 하나로 모음  
강정호 : 야구의 여러 기술을 하나로 모음  
우리가 만들 글 게임 장르 : ?

10

진형 연구소

## 급 게임 설계(b-수필)

트렌드	→ 요구	→ 지침	→ 규칙
게임화	변별성	쉽게	규칙 01
인스턴스화	규격성	어렵게	규칙 02
스마트화	융합성	짧게	규칙 02
	간결성	예쁘게	규칙 02
	세련성	유쾌하게	규칙 02
	유용성	편리하게	규칙 02
	편리성	유용하게	규칙 02
	다양성	다양하게	규칙 02
	대중성	구체적이고	규칙 09
		명료하게	규칙 10

11

진형 연구소

## b-수필 : 10개의 규칙(장애물)

시와 담론으로 구성될 것	메시지가 뚜렷할 것
짧을 것	Hooking 구절이 있을 것
쉬울 것	형태미를 갖출 것
밝을 것	필수 규칙을 지정할 것
자연스러울 것	꼬리표를 붙일 것

### 뚜렷한 메시지란?

통념을 깨는 발상 + 흥미로운 지식 + 답하기 어려운 질문

12

진형 연구소

## 표준 평가서 설계

변별력 →

판정 시비가 없거나 충분히 작을 것

구체적이고 명시적이고 정량적일 것

판정단계가 많을 것(장애물이 많을 것)

13

진형 연구소

## 평가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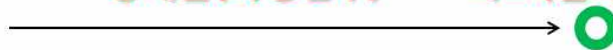
### b-수필 게임

10개의 장애물을 피해서  
완성도가 높은 문학작품을 만드는 게임

1. 제1 평가 (반칙/절대평가)	과정점수	항목당 0점 ~ 10 점을 획득
2. 제2 평가 (반칙/상대평가)	과정점수	항목당 승자가 0.1점을 획득
3. 제3 평가 (목표/상대평가)	결과점수	항목당 승자가 0.01점을 획득

장애물(과정점수)

목표(결과점수)



14

진형 연구소

## b-게임 : b-수필 기반 게임

### b-게임 = F(b-수필 규칙, 3개의 평가서)

- b-게임 Ver 1** : 반칙 여부로 승부한다.
- b-게임 Ver 2** : 전반전/후반전으로 승부한다.
- b-게임 Ver 3** : 작품성 위주로 승부한다.
- b-게임 Ver 4** : 3단계 레벨 개념이 들어간다.
- b-게임 Ver 5** : 선수가 평가에 참여한다.
- b-게임 Ver 6** : 매번 룰이 바뀐다.
- b-게임 Ver 7** : 4단계 **battle** 로 승부한다.

15

진형 연구소

## Ver 2

- ① 참여자  
심판 : 1명, 선수 : 2명, 배심원 : 3명
- ② 평가 기준 : 전반전/제1 평가, 후반전/제2 평가
- ③ 게임 절차 : 1회전부터 시작
  - 1) (작품을 놓고) 두 선수가 공방을 벌인다.
  - 2) 배심원이 논쟁의 우열을 판정한다.
  - 3) 심판이 작품의 우열을 판정한다(점수를 매긴다).
  - 4) 9회전까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 5) 단, 10회전은 심판과 배심원의 역할이 바뀐다.

16

진형 연구소



## Ver 4

- ① 선수 : 8명 이상
- ② 컨셉 : 3단계 레벨 개념
  - 낮은 레벨 : 반칙여부로 승부
  - 높은 레벨 : 작품성으로 승부
- ③ 게임 방법  
(레벨 1)예선 : 제1 평가로 승부한다 (규칙대결).  
(레벨 2)준결 : 제2 평가로 승부한다 ( ↓ ).  
(레벨 3)결승 : 제3 평가로 승부한다 (작품대결).
- ④ 전략 측면
  - 규칙을 무시하면 예선 통과가 어렵다.
  - 규칙을 너무 의식하면 작품성 추구가 어렵다.

17

진형 연구소

## Ver 7

**역동성을 극대화 시킨 게임이다.**

- 매 회전마다 룰이 바뀐다.
- 난해한 게임으로 잘 훈련된 선수가 필요하다.
- 많은 인력과 전문 경기장이 요구된다.

18

진형 연구소

# Ver 8

**b-게임을 입체화시킨 팀 게임이다.**

1차전 : **Story Battle** (작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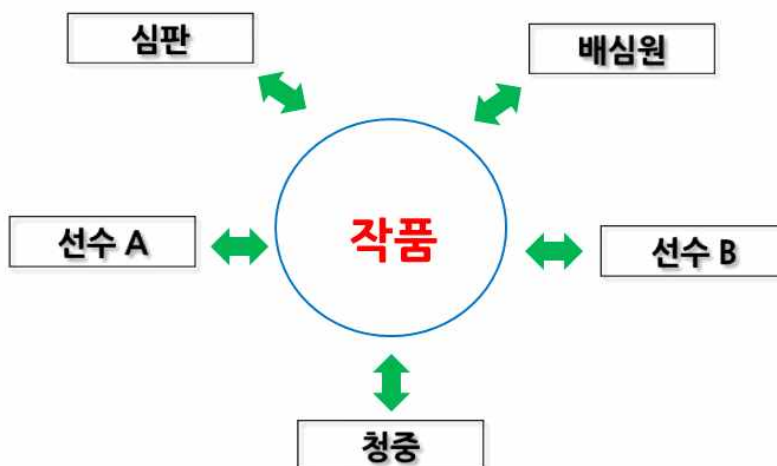
2차전 : **Image Battle** (화가 )

3차전 : **Music Battle** (음악가)

4차전 : **Dance Battle** (무용가)

메시지

# 상호작용



# Ver2 게임의 예

- 게임 종류 : Ver 2
- 주제 : 신 + 과학 + 인간
- 게이머 : 선수 A, 선수 B
- 작품 제목 : 매트릭스(게이머A), 원자탄(게이머B)

**매트릭스**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가  
언제 어디서든 영혼을 포기하면  
우려도 거제가  
된다.

답론)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절대 힘이 존재한다.  
영혼을 가진 신의 힘과 영혼이 없는 과학의 힘.  
영화 '매트릭스' 에서 보여 주는 전쟁은  
저는 기계의 힘으로 온 과학과  
인간의 힘으로 온 신과의  
간간일적의 승부다.  
뭐, 누가 이기는 상관없다.  
첫째, 인간으로 온 신이 이긴다면  
신이 주신 몸 그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직행하면 되고,  
둘째, 기계로 온 과학이 이긴다면  
영혼을 포기한 채 기계로  
불사불멸의 삶을  
살면 된다.

HP/MP/G : (언제 어디서든-) / (☹) [A.1.1.1]

**원자탄**

혹시 신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악마는 아직 존재하다.  
원자탄이 그  
증거다.

답론)

원자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만든 놈이 나쁜 거지(??).  
과학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킨 놈이 나쁜 거지(??).  
경지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짧은 놈이 나쁜 거지(??).  
국민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그 놈의 종 나쁜 공화국 헌법이  
죽일 놈인 거죠.  
(???) .

HP/MP/G : (안타깝게도-) / (▼) [B.014]

21

진형 연구소

# 전반전(제1 평가)

**매트릭스**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가  
언제 어디서든 영혼을 포기하면  
우려도 거제가  
된다.

답론)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절대 힘이 존재한다.  
영혼을 가진 신의 힘과 영혼이 없는 과학의 힘.  
영화 '매트릭스' 에서 보여 주는 전쟁은  
저는 기계의 힘으로 온 과학과  
인간의 힘으로 온 신과의  
간간일적의 승부다.  
뭐, 누가 이기는 상관없다.  
첫째, 인간으로 온 신이 이긴다면  
신이 주신 몸 그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직행하면 되고,  
둘째, 기계로 온 과학이 이긴다면  
영혼을 포기한 채 기계로  
불사불멸의 삶을  
살면 된다.

HP/MP/G : (언제 어디서든-) / (☹) [A.1.1.1]

**원자탄**

혹시 신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악마는 아직 존재하다.  
원자탄이 그  
증거다.

답론)

원자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만든 놈이 나쁜 거지(??).  
과학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킨 놈이 나쁜 거지(??).  
경지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짧은 놈이 나쁜 거지(??).  
국민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그 놈의 종 나쁜 공화국 헌법이  
죽일 놈인 거죠.  
(???) .

HP/MP/G : (안타깝게도-) / (▼) [B.014]

규칙	유형	매트릭스	원자탄
총론 규칙	장애물	5	10
짧게 규칙	장애물	10	10
쉽게 규칙	장애물	6	5
방게 규칙	장애물	5	10
흐름 규칙	장애물	10	10
의미 규칙	장애물	10	10
HP 규칙	장애물	0	0
형태 규칙	장애물	10	7
특수 규칙	장애물	10	10
작품 규칙	목표	7	6
<b>총점</b>		<b>73점</b>	<b>78점</b>

22

진형 연구소

## 후반전(제2 평가)

매트릭스	원자탄	규칙	유형	매트릭스	원자탄
그러나 얼마나 다행인가 언제 어디서든 영혼을 포기하면 우리도 기계가 된다.	혹시 심은 죽었는지 모르지만 악마는 아직 존재하다. 원자탄이 그 증거다.	총론 규칙	장애물	0	0.1
답문) 이 우주에는 두 개의 절대 힘이 존재한다. 영혼을 가진 신의 힘과 영혼이 없는 과학의 힘. 영화 '매트릭스' 에서 보여 주는 전쟁은 지능 기계의 힘으로 온 과학과 인간의 힘으로 온 신과의 간접적의 승부다.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셋째, 인간으로 온 신이 이긴다면 신이 주신 몸 그대로 살다가 천국으로 격상하면 되고, 둘째, 기계로 온 과학이 이긴다면 영혼을 포기한 채 기계로 불사불멸의 삶을 살면 된다.	원자탄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만든 놈이 나쁜 거지(??). 과학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킨 놈이 나쁜 거지(??). 경쟁자는 무슨 죄가 있어요. 좁은 놈이 나쁜 거지(??). 국민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요.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들어 준 그 놈의 종 나쁜 공화국 탄압이 죽일 높은 거죠. (???)	짧게 규칙	장애물	0.1	0
HP/FG : (언제 어디서든-)(A) [A]4	HP/FG : (악마는-)(A) [B]4	쉽게 규칙	장애물	0	0.1
		밝게 규칙	장애물	0	0
		흐름 규칙	장애물	0.1	0
		의미 규칙	장애물	0	0.1
		HP 규칙	장애물	0	0
		형태 규칙	장애물	0.1	0
		전반 득점	장애물	0	0.1
		작품 득점	목표	0.1	0
		총점		0.4점	0.4점

23

진형 연구소

## 최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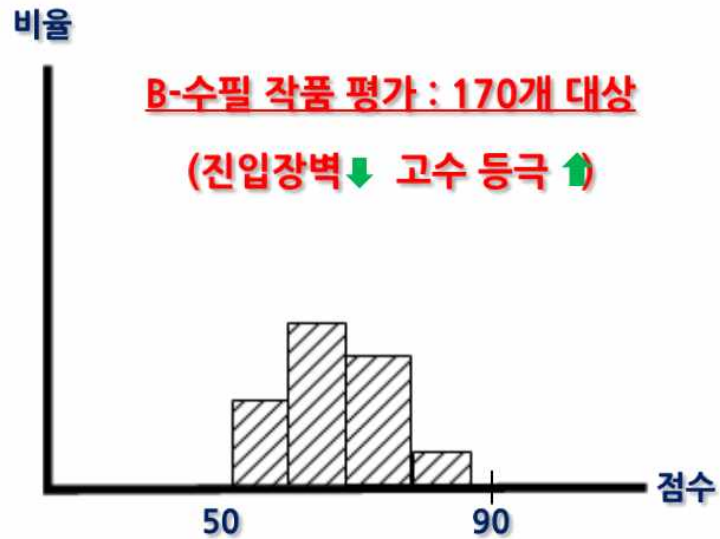
전반전				후반전			
규칙	유형	매트릭스(A)	원자탄(B)	규칙	유형	매트릭스(A)	원자탄(B)
총론 규칙	장애물	5	10	총론 규칙	장애물	0	0.1
짧게 규칙	장애물	10	10	짧게 규칙	장애물	0.1	0
쉽게 규칙	장애물	6	5	쉽게 규칙	장애물	0	0.1
밝게 규칙	장애물	5	10	밝게 규칙	장애물	0	0
흐름 규칙	장애물	10	10	흐름 규칙	장애물	0.1	0
의미 규칙	장애물	10	10	의미 규칙	장애물	0	0.1
HP 규칙	장애물	0	0	HP 규칙	장애물	0	0
형태 규칙	장애물	10	7	형태 규칙	장애물	0.1	0
특수 규칙	장애물	10	10	전반 득점	장애물	0	0.1
작품 규칙	목표 달성	7	6	작품 득점	목표 달성	0.1	0
총점		73점	78점	총점		0.4점	0.4점

- 전반전: B의 승리, 후반전: 무승부
- 무승부 규정(운영기준1: 작품성이 앞서면 승리한다)에 따라 => A의 승리
- 평가: 전반전에 앞서던 B가 후반전에서 역전패 함.

24

진형 연구소

## (겉본) b-수필의 변별력



25

진형 연구소

## (겉본) 글 게임의 매력 1

### 재미의 유형

병적인 재미 => 쾌락 => 중독

★ 건강한 재미 => 기쁨 => 조화

26

진형 연구소

## (겉본) 글 게임의 매력 2

### 후유증

게임이 끝나면 → 허전함

★ 글 게임이 끝나면 → 보람 (창조물)

27

진형 연구소

## (겉본) 글 게임의 매력 3

게임고수라는 것은 (그냥) 게임을 잘 한다는 뜻이다.

글 게임 고수라는 것은?

글을 잘 쓰고,  
지식/경험/재치가 풍부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제대로 갖추었다는 뜻이다.

28

진형 연구소

## (겉본) 경제 요소

---

1. 새로운 게임 시장
2. 게임 Tool 판매 : 게임 플랫폼/ 알파고 심판
3. 게임 스타의 출현으로 : 팬(돈?)을 모은다.
4. 게임의 진화(흥미 증가)
  - 1세대 : 인간 vs 인간
  - 2세대 : (인간+AI) vs (인간+AI)
  - 3세대 : AI vs AI

29

진형 연구소

## 인간의 미래, 게임의 미래, 문학의 미래

---

지능로봇 때문에  
일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할 수 있는 건  
전쟁과 게임 뿐이다.



**글 게임은**  
**건강하고, 우아하고, 수명이 긴 게임이다.**

30

진형 연구소

## 「문학의 게임화」에 대한 토론문

임태훈(DGIST)

핵심 키워드와 중심 문구만으로 정리된 PPT 발표문이다 보니, 이 연구가 목표로 하는 ‘문학의 게임화’라는 주제를 선명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당일에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지점들을 하나씩 알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사전에 전달된 자료에 의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 연구의 목적이 종래의 OSMU 담론과 어떤 차별 지점이 있을까요? 문학 작품을 미디어 콘텐츠로 활용, 변용, 응용하자는 이야기는 십수 년 전부터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이 담론이 지속적인 갱신이 이뤄졌다기보다는 제도권에서 흔하게 동원하고,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클리셰가 된 까닭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학이 게임이든 뭐든 다른 것으로 바뀌기 위해선 ‘문학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창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학을 게임화한다는 것 역시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이미 구성된 담론이나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문학성’과 ‘게임성’이 서로를 비판적으로 상대화시킬 수 있는 주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1과 비슷한 취지의 질문입니다. 강렬한 서사 체험과 게임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으로 구성된 <더 스탠리 패러블>(2011)은 ‘문학의 게임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지마 시데오의 신작 <데스 스트랜딩>(2019)이 보여주는 거대한 세계관의 구성이나 철학적 질문 역시 ‘문학의 게임화’의 한 사례로 탐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문에서 ‘문학의 게임화’ 구상으로 제시한 내용은 기술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컨셉의 입체성 측면에서 시효가 지난 1990년대 게임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몰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발표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자유주제5】

죽음에 갇힌 자와 일상적 공포의 기원 : 부역자의 경계성과 냉전의 ‘마음’

--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과 사회적 의미

이선미(경남대)

1. 1972년 이후의 박완서 소설과 ‘빨갱이’ 서사

『태백산맥』 10권 마지막 부분에는 포로가 되었던 인물 김범우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면서 남한을 선택하여 집으로 돌아와 목욕하는 장면이 나온다. 목욕을 하던 중 팔뚝에 새겨진 ‘반공’이라는 푸른 글자 문신을 보며 회환에 잠긴다. 이물스러운 문신을 바라보며, 그 낯선 글자가 이후 자신의 생에서 자신이 남한사람임을 보증해줄 증서 같은 역할을 할 것임을 생각하며 자조한다. 집으로 오는 길에 마주쳤던 상이군인들이 자신의 훼손된 신체를 구국의 증거인 듯이 내세우다못해 보상을 강요하는 행태를 떠올리며, 것처럼 물질적인 확실한 증거만이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세상을 자각하는 장면이다.

1953년 휴전 즈음의 일이지만, 이런 물질적 증거물로 적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냉전적 관념은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주쳐야 하는 자기증명의 현실이 된다. 자신이 살고있는 장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인정하는 이데올로기/사상이 자신의 마음 속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작동하는 현실이다. 내가 어느 편인지를 정해야 하며, 나아가 내가 살고있는 장소(국가)가 인정한 마음을 갖고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회.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회. 냉전이 심각하게 사유해야 할 삶의 상황인 것은 바로 이 적과 동지를 항상 구분해야하는 논리가 상식적 삶으로 작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또는 적이 아님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38선이라는 분단선을 중심으로 한 냉전의 정치구조는 이 지리적인 경계가 사상적 경계로 작동하는 것이어서, 38선 이북 지역에서는 그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 사상을 가질 수 없으며, 이남 역시 마찬가지다.<sup>1)</sup> 그리고 각 국가체제가 허락하지 않는 사상을 지닌 자는 바로 적으로 명명될 수 있는 사회이다. 나아가 이 적은 그냥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고, 적으로 오인받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부정당해도 마땅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위 소설의 경우처럼, ‘반공’이라는 문신이 신원을 증명하고,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서 구출하는 물증일 수 있는 것이다. 분단이 지속되고, 그 지속을 위한 통치의 논리가 강화될수록 이 냉전의 구조, 즉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사상을 구성해야 하는 논리는 증폭된다. 한반도

1) 인간의 마음에서 구성되는 ‘사상(이데올로기)’은 물리적인 공간지리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8선은 공간적인 분할로 사상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해령, 「사상지리(ideological geography)의 형성으로서의 냉전과 검열 - 해방기 염상섭의 이동과 문학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34, 2012 참조.

의 분단은 남북한이 각기 단독 정부를 세워 독립국가를 구성하는 시기부터 사상적 신원을 구별하고 그를 토대로 ‘국민’을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적 체제가 구축되는 전형적 냉전국가의 양상이었다. 그 직후 바로 겪은 전쟁은 이 통치의 기획을 한층 가속화시킨다. 적의 실체로 개념화된 ‘빨갱이’는 냉전 속 열전을 안고 분단상태를 유지하는 한국사회 냉전의 상징물이다.<sup>2)</sup>

‘빨갱이’ 담론은 남한 사회의 냉전의 논리가 상식적 관념이 되고, 공포심이 일상적 정서로 자리잡게된 기원이다. 빨갱이 담론은 통치의 가장 강력한 윤리적 명분으로까지 비약하여, 지배권력의 지배력을 구축하는 동력과도 같은 것으로 작용한다.<sup>3)</sup> 그리고 동력이었기 때문에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권력의 작동을 위해서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논리였다. 그래서 빨치산의 활동이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에서부터 이어져온 것이었고,<sup>4)</sup> 38선 이남의 사회주의 역사나, 혹은 빨치산 활동의 사회적 기원, 혹은 원인 등이 사실로서 밝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빨치산(사회주의)의 활동으로 해석된 것들이 진보적인 사회운동에서 연원한 것이었다는 등의 한국지식사, 사상사적 맥락은 논의되기도 어렵고, 공론화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사회적 구조로 진화해간다. 빨갱이 담론이 상식이 되고, 윤리가 됨으로써 반론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물망 같은 공론장이 구성된다.<sup>5)</sup> 사상검열이라는 장치가 여론의 흐름 자체를 장악하는 수준이 될 때, 이 담론적 효과는 개개인의 마음을 단속하는 내면화의 수준까지 진화해간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는 줄곧 이 공론장적 인식의 망을 촘촘하게 직조해가면서 전사회적 상식으로 확장해가는 정치권력화의 과정이었다.

이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진보적인 활동으로 해석되려는 순간, ‘빨갱이’라는 프레임에 걸려들어 “폭력적 좌파 세력”으로 명명되고,<sup>6)</sup> 그 이후는 사회적인 제거의 대상으로 전략한다는 생존원리로서의 냉전 관념이다. 분단을 고착화하는 냉전은 이 냉전의 관념 때문에 더 강고하게 구축되고, 확대되어 ‘냉전사회’로 진화했다.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상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이 냉전의 관념이 상식이 되고, 사회윤리가 되어 ‘냉전사회’로서의 사회적 상상을 고착화시켰다는 것이며, 분단이 지속되는 한 언제나 위협과 공포가 작동한다는 사회적 감시의 장치가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다.<sup>7)</sup>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비록 곧바로 무산되었지만, 그로 인해 만들어진 해금의 영역은 냉전사회의 ‘균열’로서 주목해볼 만하다. 특히 문학작품에서 금기시된 빨갱이 관련 가족사가 수면 위로 부상하여, 소설이라는 허구적 형식을 거치면서 공론화된다는 점은 의미있게 평가할 대목이다. 1972년 지리산의 빨치산을 지식사의 맥락에서 다룬 이병주의 『지리산』이 <세대>

2)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2009, 선인 참조.

3) 김득중, 위의 책 참조.

4) 현재도 지속되는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의 평가 문제는 이런 역사적 과정이 얽혀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5) 담론장이나 사회적 상상 등의 의식의 연결망과 같은 의미이다. 사회의 어떤 상식적 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담론적 공동체 같은 것이고, 이는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념과 관련될 것이다. 빨갱이 담론이 사회적 윤리를 간섭하는 인식적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담론 공동체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생겨나기도 한다.

6) 김득중은 이를 “냉전적 역사 인식”으로 명명한다. 김득중 앞의 책 44쪽 참조.

7) 이병범은 문학연구자로서 한반도적 정세변화에 따라 세밀하게 짜여진 통치의 정책이나 제도적 요소들을 통해서 냉전사회가 정교하게 구축되고 강화되고, 재편되는 과정을 방대한 자료로 해명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양상을 분석하는 이 자료들의 관점 하에서 문학적 영역에서 냉전의 이병범, 「냉전과 월북, (남)월북 의제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7호 2017, 「1980년대 검열과 제도적 민주화」, 구보학보 20집, 2018, 「냉전금제와 프로라간다-반란,전향,부역 의제의 제도화와 내부냉전」, 대동문화연구 107집, 2019 참조.

지에 연재되기 시작하며, 1972년 황석영은 「한씨연대기」를 통해 월남민이 남한사회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상검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빨갱이로 만들어져 비국민으로 버려진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1973년 김원일은 「어둠의 혼」에서 빨치산으로 총살당한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한 어린 아들 갑해라는 인물을 창조해낸다. 아직 열 살에 불과한 아들은 한없이 다정하고 평범했던 아버지가 짐승과도 같은 빨갱이로 처참하게 죽어간다는 사실을 “수수께끼”로 표현함으로써 빨갱이 관념에 저항하는 서사를 만들어낸다.<sup>8)</sup> 1975년 현기영은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대규모였고,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진행중인 제주 4.3 학살사건을 다룬 소설을 발표하기도 한다.<sup>9)</sup> 1960년대 후반 미소 양국의 데탕트로부터 시작되어 한반도의 평화논의로 이어진 1972년 남북공동성명은 한국사회의 냉전구조를 그 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변화시킨 것만은 분명하다.<sup>10)</sup> 7.4공동성명 논의는 비록 아무런 성과없이 무산되었지만, 냉전 구조를 점차 약화시키는 균열의 조짐을 만들어낸다. 1970년대 초중반의 소설들은 이 균열로 읽힐 수 있는 첫 번째 징조로 보인다.

1970년 늦은 나이에 전쟁기의 경험을 다룬 『나무』로 등단한 박완서는 20대 초반에 전쟁을 경험한 자로서 1970년대 초반의 이런 변화에 즉각적으로 소설적 대응을 보인 작가이다. 단편소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1972), 「부처님 근처」(1973), 「카메라와 워커」(1975), 「겨울나들이」(1975), 「돌아온 땅」(1977),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1977), 장편소설 『한발기』(1971.7~1972.11)<sup>11)</sup> 등은 전쟁 이후 금지된 것으로서 빨갱이와 연관된 가족사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면화된 소설들이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 빨갱이라는 판결을 받고 처벌된 사람들은 김원일이나 이병주의 소설처럼 명징한 사상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소설은 빨갱이 가족들의 삶을 주로 다룬다. 빨갱이로 명명된 자가 누구인가라는 신원을 밝히는 것에는 별달리 주목하지 않는다. 이 점은 박완서 소설이 빨갱이를 다룸으로써 한국사회 냉전관념에 저항하고 있지만, 빨갱이의 신원을 밝히는 소설들과 달리, 한국전쟁의 다른 문제들을 부각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냉전사회적 특수성을 만들어가는 한국사회의 자체적인 구조에 더 관심이 가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에게 소설은 무엇일까? 왜, 혹은 누가 손가락질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손가락질로 처형이 되는 사람들을 나중에 ‘부역자’로 명명하는 구조가 박완서가 조심스럽게 꺼낸 전쟁이야기, 빨갱이 가족사의 중심 이야기이다. 이는 주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생존을 위해 철저히 벌레가 되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근원적 질문이기도 한다. 국가와 사회 속에서 인정받고 정체성을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근대적 개인들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다. 우연적으로 한 순간에 개인이 처한 사회적 자리(소문의 자리)에서 주권이 구성되고,<sup>12)</sup> 생존이 결정된 자. 그가 박완서 소설의 ‘부역자’이다. 이 주권형

8) 빨갱이 아버지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아들의 서사는 김원일 소설의 중심 서사이며, 2013년 출간한 장편소설 『아들의 아버지』는 이 서사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선미, 「냉전 역사의 재현과 근대지식사의 거점으로서 “아버지/진영”」, 2018년도 배달말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2018.10 참조) 이병주나 조정래처럼 빨치산을 직접 다루고 있는 소설들 역시 빨갱이로 짐승처럼 죽어간 사람들의 신원을 증명하고자 공산주의 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을 한국의 반일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지식사의 맥락에서 해명하는 연구로 신원증명의 서사로 분류할 수 있다.

9) 김요섭, 김원일·현기영 소설의 학살 서사 연구, 상허학보 53, 2018.6 참조

10) 이봉범, 냉전과 월북, (남)월북 의제의 문화정치, 역사문제연구 37호.

11) 『한발기』는 박완서의 장편소설 중 연재(여성동아)를 마치고 곧바로 단행본으로 발간되지 않은 유일한 장편소설이다. 1978년 수문서관에서 『목마른 계절』로 제목이 바뀌어 출간된다.

12) 차미령은 박완서의 전쟁체험 소설이 주권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차미령 역시 주권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신원증명서와 같은 신원증명장치를 거론하는 것이지, 신원을 증명하는 서사로 분석하기 위해 신원증명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차미령, 「한국전쟁과 신원증명장치의 기원」, 구보학

성의 우연성과 나를 증명하기 위해 과장과 허위를 일삼아야하는 ‘밀고자’의 ‘악성’. 그렇지만 이 어두운 밀고자의 마음은 주권형성이 우연적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생존이 결정되는 한국전쟁기를 살아냈던 인간의 일반적인 내면일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 부역자 프레임이 어떤 사상을 지닌 인물이었는가라는 신원증명만큼이나 한국사회의 냉전구조를 해명하는 근원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 박완서 1970년대 소설의 빨갱이 담론의 의미일 것이다. 박완서 소설이 전쟁이라는 가장 극적인 삶의 시간에서 인간의 문제를 포착하는 방법이며, 소설이 구성할 수 있는 삶의 영역이라는 인식의 발현이다.<sup>13)</sup>

## 2. 행방불명의 블랙홀 효과, 죽음(부역자)에 갇힌 자

그러나 그밖의 인명의 피해는 전쟁을 겪고 폭격을 당한 인근 마을에 못지않았다. 몇 달을 두고 전선이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대로 세상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었으니 그때마다 부역했다 고발하고 반동했다 고발해서 생사람 목숨을 빼앗는 일을 마을사람들은 미친 듯이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청년들은 국군으로 지원하기도 했고, 인민군으로 끌려가기도 했고, 또 남쪽으로 피난간 사람,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도 생겨서 마을 사람들은 줄 대로 줄었다. 어떻게 줄었거나 집집마다 준 식구는 남자 식구들이어서 마을엔 여자들만 남았다. 과부도 있고 생과부도 있고 처녀도 있고 노파도 있었다. 남자라곤 젓먹이 빼곤 아녀석조차 없었다. 걸을 수만 있는 아녀석이면 피난 가는 아버지나 삼촌, 하다못해 구촌 십촌 뺄 되는 친척 편에라도 달려보냈기 때문이다.<sup>14)</sup>

1977년에 발표된 박완서의 소설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의 한 부분이다. 3년 간 밀고 밀리며, 유엔군과 중공군이 참전하여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던 한국전쟁의 성격이 요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국전쟁은 점령과 수복을 반복하며 전선을 이동하면서 3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다. 그동안 수없이 전선이 이동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편이 바뀌어 한 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편이 바뀔 때마다 서로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며 희생된 전쟁이었다. 박완서 소설은 손바닥 뒤집듯이 편이 바뀌고 전선이 이동하는 중에도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삶의 터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1972년 이후에 비로소 ‘토악질’처럼 꺼내놓는 이야기이다.<sup>15)</sup> 이편이기도 하고 저편이기도 했던 사람들, 국군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인민군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쪽으로 피난간 사람, 북쪽으로 끌려간 사람들처럼, 청년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갔고, 남은 사람들은 남자들을 떠나보내고 전선이 바뀔 때마다 고발과 반동을 일삼던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던 전쟁 시기의 경험이다.<sup>16)</sup> 큰 뜻을 품고 어느 편에 가담하여 쫓기고 잡

보 18집, 2018.4 참조.

13) 1993년에 출간한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마지막 부분에서 1.4후퇴로 인해 모두가 피난을 간 텅빈 서울을 내려다보며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한다고 다짐하는 “벌레의 시간”은 바로 이 ‘밀고자의 어두운 마음’이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는 전쟁의 면모라는 생각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4) 박완서, 「그 살벌했던 날의 할미꽃」, 240쪽.

15) 「부처님 근처」의 주인공은 삼친 것들을 뺏어내듯이 소설가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16) 사실 박완서의 전쟁경험 소설들이 유독 여자들의 이야기인 것은 부역자의 문제나 부역자 가족의 문제를 다루는 전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점과 같은 맥락의 특성이다. 이 젠더적 경험의 구조는 전쟁서사의 특성으로서 달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의 전쟁서사가 (이편 저편 식의)하나의 역사적 해석을 거부하는 방식의 역사인식을 유도하는 서술방식을 취한다고 평가한 이선미의 연구 역시 이런 관점과 연결된다.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이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 - 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박완서 소설 연구』, 깎은샘, 2004 참조.

혀서 취조를 당하고 모진 고문 끝에 처형되는 그런 뚜렷한 삶의 이력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니다. 서울이 수복된 후, 또는 전쟁이 끝난 후 치안을 정비하고 적으로 활동한 죄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부역’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6월 25일 휴전선이 밀리면서 시작된 1950년 한국전쟁은 3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한다. 대통령과 행정부는 시민을 안심시키는 거짓 방송을 틀어놓고 한강을 폭파하면서 서울을 버리고 후퇴한다. 그리고 9월28일 3달 후 서울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수복지구가 된다. 적군의 점령이 3개월이라는 장기간 지속되었기에 서울로 환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대통령과 국군, 미군 사령부 등은 점령 상태의 서울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 이 과정에서 적군이나 적군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구분하고 처벌하는 방법으로 ‘부역(附逆)’이라는 말이 생겨난다. 역도(逆徒), 즉 ‘반역의 무리에 편승하거나 도움을 준 자’라는 의미의 ‘부역’이라는 말을 통해 수복 지구의 치안을 유지하고, 적군의 흔적을 소탕하는 통치를 기도했던 것이다.<sup>17)</sup>

그러나 ‘부역’은 치안을 유지하고 적군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로 보기에는 그것을 규정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불명확하고 모호해서, 환도한 정부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더 앞선 듯 드러난다.<sup>18)</sup> ‘부역’은 부역자를 판단할 주체가 임의적이고 우연적이어서 법적 영역을 넘어선 감정적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활용되기가 다반사였다. 박완서의 전쟁 서사는 이 ‘부역’의 사회적 효과와 긴밀히 연관된다.

의용군에 끌려가서 월복한 오빠가 간첩이 되어 내려올지 모른다는 국가정보원의 정보는 남한에 살고있는 가족들의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해집어놓는 재앙 수준의 변화를 가져온다.(「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욕이오가 터지고 좌익운동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좌익활동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동지들에 의해 총살당한 오빠와 오빠의 죽음을 목격하고서 과도하게 좌익 편에서 활동했던 아버지에게 얽힌 가족들이 겪은 삶은 더 극심하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즉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밀고하는 부역활동을 한 댓가로 수복 후 빨갱이로 매맞아 죽은 아버지 때문에 남은 가족들은 이웃조차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부처님 근처」)

이들은 이렇다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 빨갱이로 지목된 경우가 많다. 좌익 활동을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 활동을 그만 두었거나 의용군에 끌려나갔거나, 가족의 변절로 인해 해를 입을까 두려워 더 그악스럽게 인민군 점령시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밀고함으로써 빨갱이 편에 서고자 했던 사람들이다. 좌익 경력이 될만한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었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소위 ‘부역’ 행위로 분류되는 일상적 활동으로 혐의를 받게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인민군 점령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점령군의 편에서 그 시기를 살아냈던 사람들이며, 그런 의미에서 평범한 활동이지만, 점령 하에서 점령군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수복 후에는 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빨갱이로 지목되어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누가봐도 공공연하게 빨갱이로 죽을 만한 사람은 아닌 사람들도 대다수 포함된 다수의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갱이로 죽어도 기억될 만한 사회적 활동이나 순교적 의미를 부여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무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이 부역자들이 빨갱이로 죽었다는 사실이 공식화될 때 남아있는 가족들은 화를 면

17) 이임하, 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사림 36호, 113-115쪽 참조.

18) “9.28 수복 뒤 서울시민은 ‘역도’와 역도에 협력한 ‘부역자’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부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부역의 범위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었다. 반역이 아닌 ‘부역’이라는 용어는 모호하고 불특정하고 광범위함을 등을 포괄했다. 부역행위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자의성, 모호성, 불특정성 따위가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부역행위의 자의성, 모호성, 불특정성이라는 규정은 그대로 부역자 재판과 처벌과정에서 재현되었다.” 이임하, 위의 글, 115쪽.

하기 어렵다. 빨갱이로 죽은 자는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완서 소설에서 이 죽은 부역자들의 가족들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애도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다. 행방불명으로 처리해버린다. 죽음을 알고있으면서도 죽은 사실을 없애버리는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평화로운 듯이 유지한다. 그러나 죽음을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살아가는 남은 가족들의 삶은 평화로운 겉모습과 대비되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내면을 가진 삶으로 극단적이다. 분단이 지속되는 동안 냉전의 구조는 더 깊어지고 확장되면서, 이 죽은 부역자의 가족들은 죽음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살아간다. “죽음을 삼킨 자”는 결국 “죽음에 갇힌 자”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는 부역자 가족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이름이다.

죽음을 숨길 수 있다는 것, 즉 행방불명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인가? 이 부역자의 부역이 별달리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뚜렷하게 심판을 받을 만한 부역이라면 죽은 사실을 숨기기는 어려울 게 뻔하기 때문이다. 행방불명은 폭파된 한강다리를 보며 서울에 남겨진 많은 서울시민들이 부역의 처벌을 덜어내는 묘수였다. 행방불명은 블랙홀처럼 모든 불온한 혐의들을 빨아들여 봉인하는 효과를 만들고, 수복 후의 국민으로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행방불명’은 모든 것을 그 속에 봉인하고 없애버리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지만, 이 행방불명으로 처리된 부역자의 가족은 억울함과 분함이라는 공격적 감정과 불안과 공포라는 방어적인 감정을 모두 갖고 비밀을 품고서 살아가는 불안정한 국민일 수밖에 없었다. 죽음을 삼킨 자가 죽음에 갇힌 자가 되는 이유이다.

### 3. 일상적 공포와 ‘카메라’ 판타지, 경계에 선 자의 마음

# 별지 첨부

【자유주제5 토론】

「죽음에 갇힌 자와 일상적 공포의 기원 : 부역자의 경계성과 냉전의 ‘마음’  
- 1970년대 박완서 소설의 빨갱이 담론과 사회적 의미」에 대한 토론문

김주현(인제대)

# 별지

##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정은영(부산가톨릭대)

### 차 례

1. 서론
2. 통신사와 임진왜란
3. 국내 노정에서 느낀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 1) 흔적: 아물지 않은 전쟁의 고통
  - 2) 기억: 충절과 再造之恩의 내면화
4. 결론

### 1. 서론

조선후기 통신사는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의 국교를 재개하고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래서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 대한 기존의 연구 대부분은 통신사행원들이 일본에서 수집한 정보의 내용과 그 속에 투영된 통신사의 일본(인)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하지만 통신사의 노정은 임금께 辭朝하고 서울을 출발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례가 거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부산은 국내노정의 종착지이자 일본으로 떠나는 출발지였으며, 사행에 대한 최종 점검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그래서 통신사와 부산을 함께 다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부산 영가대에서 거행된 해신제<sup>1)</sup>에 관한 연구, 부산에 남아있는 통신사 유적<sup>2)</sup>에 대한 연구가 이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통신사와 부산의 관련성분이 전체 내용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통신사와 부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한태문<sup>3)</sup>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태문은 통신사행록에 나타난 부산의 역할을 대일 외교의 중심지, 국가 차원의 전별연의 개최지, 도일 전 통신사행의 최종 점검지, 통신사행의 왕환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물론 충렬사·영가대·해운대·태종

1) 송지원, 「조선통신사의 의례」, 『조선통신사연구』 제2호, 조선통신사학회, 2006; 이경희·조수미·한태문, 「永嘉臺 海神祭 祭需 요리의 원형복원에 대하여」, 『조선통신사연구』 제8호, 조선통신사학회, 2009.

2) 김동철, 「부산의 일본 관련 문화유적과 활용방안」, 『한국민족문화』 23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3) 한태문, 「통신사문화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부산 - 『해행총재』 소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21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대 등 조선후기 통신사 문학 속에 등장하는 부산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한편 임진왜란과 부산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문학적 측면<sup>4)</sup>, 역사적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특히 부산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기억·전승되었는지 살펴보는 연구<sup>5)</sup>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임진왜란과 부산, 부산과 통신사로 나누어져 진행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의 발발 이전, 그리고 전쟁 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통신사가 파견된 점을 고려하면 임진왜란과 통신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임진왜란 발발 전후에 파견된 통신사에 대해 알아보고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 등장하는 임진왜란 관련 기록을 그 파견 시기에 따라 흔적과 기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통신사와 임진왜란

100년간의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일본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織田信長이 本能寺에서 암살되자, 秀吉은 서둘러 암살범 明智光秀를 토벌하고 신장의 후계자가 되었다. 1585년 關白에 오른 수길은 조선과 중국을 차지하겠다는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는데 1586년 6월에는 대마도주를 불러 조선 국왕이 入朝하지 않으면 조선 정벌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전하였다. 하지만 조선 조정이 수길의 뜻에 따르지 않을 걸 알았던 對馬島主는 수길의 본뜻은 감춘 채, 새로운 관백의 즉위를 축하하는 통신사를 보내 달려가 가짜 일본국왕사를 조선에 파견하였다.

· 상이 ‘일본국은 국왕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웠으니 바로 찬역의 나라이므로 그들이 보내는 사신을 접대할 수가 없다. 마땅히 대의로 타일러 돌려보내야 한다. 종2품 이상은 그 가부(可否)를 비밀리에 논의하라.’ 하니, 모두들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의로써 나무랄 수는 없다. 사신이 올 경우엔 의례대로 접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신왕(新王)이 보낸 사신이 이미 대마도에 당도했다는 것을 도주가 書契로 먼저 통지하였었다.<sup>6)</sup>

· 玄蘇 東堂과 부관 승 대마도주의 둘째 아들 平義智와 侍奉僧 瑞俊 등 正官이 半儻 8명을 합하여 모두 25명을 거느리고 나왔는데, 부관 평의지가 말하기를 “사사로이 진상하는 안장을 갖춘 말 1필과 잡물에 대하여 품질을 살펴보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客人들의 말이 “이번에는 오직 通信을 위해 나왔다.”라고 하기에, 신이 “別幅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은 사사로이 살펴볼 수 없으니 조정에 아뢰어 처리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sup>7)</sup>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까지의 海路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통신사 파견 요청을 거절하

4) 이성혜, 「임진왜란이 만든 부산문학」, 『한일군사문화연구』 제14집, 한일군사문화학회, 2012.

5) 변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호, 부경역사연구소, 2010; 오인택, 「조선후기 ‘충렬공 송상헌 서사’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 세계』 40, 효원사학회, 2011;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양홍숙,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화」, 『지역과 역사』 40호, 부경역사연구소, 2017; 김경태, 「임진·정유재란기 동래 지역의 전황 -일본군의 주둔 동향과 조선의 대응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3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9.

6) 『선조실록』 21권, 20년 10월 20일(을해), “上以日本國廢放其國王 而立新君 乃篡弒之國 不可接待其來使 當以大義開諭入送 從二品以上 秘密議其可否 皆以化外之國 不可責以禮義 使臣出來 則依例接待爲當 新王遣使 已到對馬島事 島主先通書契”

7) 『선조실록』 23권, 22년 6월 30일(을사), “玄蘇(東望)[東堂]副官僧對馬島主第二子平義智 侍奉僧瑞俊等 正官 率伴儻八人 合二十五人出來 副官平義智言內 私進上鞍俱馬一匹及雜物 願取看品云云 客人等咸言 今行唯以通信一事委來云 臣答以別幅不付之物 不得私自看品 當啓稟朝廷 以待處置”

였다. 그러나 조선 국왕의 입조를 성사시키라는 수길의 거듭된 명령에 대마도주는 현소를 정사로, 자신의 아들 평의지를 부사로 한 일본국왕사를 다시 파견하면서 일본의 길 안내를 대마도가 담당하겠다고 조선 조정의 거절 명분을 봉쇄하였다. 결국 유성룡 리트 후 선조는 2년 전 발생한 왜구의 損竹島 약탈 사건을 언급하며 그 때 잡혀갔던 조선인을 쇄환하고 왜적의 우두머리를 잡아서 조선에 보낼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마도주는 1590년 2월, 손죽도 약탈 사건에서 길안내를 했던 진도 사람 沙乙火同과 왜적 信三甫羅·緊要時羅·望古時羅는 물론 조선인 포로 130여 명을 쇄환하여 조선에 보냈고, 조선 조정에서는 그해 3월 통신사를 파견하였다.<sup>8)</sup>

그러나 경인사행은 대마도주가 조선 조정과 관백 수길을 속이고 성사시킨 일이었기에 통신사와 대마도주, 그리고 관백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경인사행원들은 일본측에서 迎接使를 보내지 않아 한 달을 대마도에 체류해야 했으며, 大坂에 도착하고도 5개월 간 관백 수길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관백 수길이 선조에게 보내는 答書의 내용이었다.

앞에서는 “한 번 뛰어 바로 大明國에 들어가서 4백여 주를 우리 풍속으로 바꾸고 帝都에서 억만년토록 政化를 시행하겠다.” 하였으니, 이것은 귀국이 대명을 빼앗아 일본의 정화를 베풀고자 한다는 말이고, 뒤에는 “귀국이 먼저 입조한다면 원대한 생각이 있고 가까운 근심은 없을 것이다.” 운운하였으니, 이것은 귀국이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사신을 보낸 것을 가지고 원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존사께서는 과연 이 ‘朝’라는 글자를 대명에 조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아래에 또 “먼 지방에서 뒤늦게 오는 무리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귀국에 먼저 입조하는 자는 허용하고 뒤에 오는 자는 벌을 준다고 한 말입니다. 또 “내가 대명에 들어가는 날에 군사를 거느리고 군영을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와의 맹약을 더욱 닦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귀국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군사를 있는 대로 거느리고 정벌하는 데 따라오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중략) 귀국의 답서에는 그런 일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뜻은 생략해 버리고, 도리어 나라의 위세를 장황하게 늘어놓아 병력을 자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먼저 와서 입조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지었으니, 어찌 예로써 이웃 나라와 사귀는 도리라 하겠습니까. 이웃 나라 사신으로서 귀국에 오래 머물면서 功業의 성대한 모습을 직접 보니, 실로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書契의 내용을 보니 위로는 대명국을 엿보고 옆으로는 이웃 나라를 위협하여 업신여기고 공갈하는 말이 마치 적진에 임해서 적을 꾸짖는 격문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예로써 서로 수교하는 글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어찌 관백 전하의 뜻이겠습니까. 아마도 글을 지은 사람이 우연히 살피지 못한 것일 겁니다.<sup>9)</sup>

8) 경인사행 파견 과정에 대해서는 하우봉, 「김성일의 일본 인식과 귀국보고」, 『한일관계사연구』 43호, 한일관계사학회, 2012, 141~142쪽; 90~93쪽; 한태문, 「경인통신사(1590)의 문화사절로서의 성격」, 『동양한문학회』 제36집, 동양한문학회, 2013, 310~311쪽 참조.

9) 김성일, 『해사록』 4, 「서간」, <答玄蘇書>, “先則曰一超直入大明國 易吾朝風俗於四百餘州 施帝都政化於億萬斯年 是貴國欲取大明 而施日本政化之謂也 後則曰貴國先驅而入朝 有遠慮無近憂云云 是貴國以我國今日之遣使 爲有遠慮之謂也 尊師果以此朝字 指爲朝大明耶 其下又曰 遠方後進輩者 不可作許容也 是貴國先朝者許容 後至者有戮之謂也 又曰予入大明之日 將士卒望軍營 則彌可修隣盟也 是貴國欲令諸國 悉索弊賦從征之謂也 (中略) 貴國書契中 略其報謝之意 而反爲之張皇國威 欲以兵力誇耀之至 以先驅入朝爲文 豈以禮交隣之義乎 隣國使臣 久留貴國之庭 目觀功業之盛 實有欣賀之情矣 及見書契 則上窺大國 旁脅隣邦 凌侮恐動之言 政如臨陣數敵之檄文 豈曰玉帛相交之書乎 雖然豈盡關伯殿下之意 抑恐行辭者 偶未之察也”

처음 일본측에서는 통신사가 귀국길에 오르면 답서는 나중에 따로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三使가 불가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자 답서를 보냈다. 하지만 이번엔 그 표현이 문제였는데 ‘閣下’, ‘方物’, ‘入朝’ 등 통신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일본은 ‘합하’와 ‘방물’ 두 가지는 통신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殿下’와 ‘禮幣’로 수정하였으나, ‘입조’는 ‘大明入朝’를 뜻한다고 핑계를 대며 수정을 하지 않았다. 부사 김성일은 전후 맥락을 살폈을 때 ‘입조’의 주체가 일본의 관백이 아니라 조선 국왕임을 들어 답서의 내용을 고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답서의 내용 자체가 교린 관계에 있는 국가 간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수용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답서에서 수길은 명 정벌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조선이 여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이 일본과 뜻을 같이 하여 명 정벌에 나서는 것, 또 조선 국왕이 일본을 상국으로 섬겨 입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기에 정사 황윤길은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장계를 올렸다.

부산으로 돌아와 정박하자 황윤길은 그간의 실정과 형세를 馳啓하면서 ‘필시 兵禍가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복명한 뒤에 상이 인견하고 하문하니, 윤길은, 전일의 치계 내용과 같은 의견을 아뢰었고, 성일은 아뢰기를,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의에 매우 어긋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당시 조헌이 和議를 극력 공격하면서 왜적이 기필코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대체로 윤길의 말을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 모두가 ‘西인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이다.’고 하면서 구별하여 배척하였으므로 조정에서 감히 말을 하지 못하였다. 유성룡이 성일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황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라고 하니 성일이 말하기를, "나도 어찌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sup>10)</sup>

황윤길은 復命을 하는 자리에서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하지만 부사 김성일은 답서를 통해 전쟁 발발의 가능성을 감지했음에도 민심의 동요를 우려해 일본 침략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아뢰었다.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두고 정사와 부사의 의견이 달랐으나 당시 조정에서는 황윤길의 의견을 권력을 빼앗긴 서인이 정국을 뒤흔들려 낸 술책으로 치부했다. 물론 조선이 먼저 통신사와 함께 부산에 들어 온 倭使를 죽이고 중국에 자문을 보내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묵살되었다. 여기에 대마도주가 보낸 현소가 수길의 도발은 중국이 일본의 조공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조선이 두 나라 사이를 잘 중재하여 조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면 전쟁의 위험도 사라질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선 조정에서는 이런 상황을 중국에 알리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방비책을 구축하지 않았다.

그리고 1592년 4월 14일,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小西行長과 대마도주 평의지로 구성된 일본 제1군이 4월 13일 대마도를 출발하여 4월 14일 부산 앞바다에 이르렀다. 소서행장은 부산

10) 『선조수정실록』 25권, 24년 3월 1일(정유), “回泊釜山 允吉馳啓情形 以爲必有兵禍 既復命上引見而問之 允吉對如前 誠一曰 臣則不見如許情形 允吉張皇論奏 搖動人心 甚乖事宜 (中略) 時趙憲力攻和議 策倭必來 故凡主允吉之言者 皆以爲西人失勢 搖亂人心 區別靡斥 以此廷中不敢言 柳成龍謂誠一曰 君言故與黃異 萬一有兵禍 將奈何 誠一曰 吾亦豈能必倭不來 但恐中外驚惑 故解之耳”

진첩사 정발에게 ‘入明假道’를 요구하였으나 정발은 거절하였고 이를 빌미고 공격을 개시하여 한나절 만에 부산진성이 함락되었다. 이튿날에는 2만여 명에 달하는 소서행장 휘하 부대가 동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는데 이때 동래부사 송상현을 비롯하여 3천 명이 넘는 군민이 전사하였다. 일본 제1군은 이후 밀양, 대구, 충주 전투를 치르며 부산 상륙 20일 만인 5월 2일에 한양에 도달하였다. 加藤清正의 일본 제2군과 黒田長政의 일본 제3군, 毛利吉成의 제4군은 4월 18일 부산진에 도착하여 서로 다른 길로 북상하였다.<sup>11)</sup>

일본군에 의해 한양이 함락되자 조선 조정은 명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명은 遼東廣寧鎮守總兵官 楊廣勳과 군사 3,500명을 조선에 파견하여 평양성 탈환을 노렸으나 실패하였고, 일본과의 전투에서 연패를 거듭하였다. 원병 파견으로 재정 압박이 심해진 명은 심유경을 내서워 일본과의 강화회담을 추진하였다. 명은 가등청정에게 사로잡힌 조선의 두 왕자 임해군와 순화군을 돌려보내고 일본군이 한강 이남으로 철수할 것을 강화교섭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일본은 명에는 冊封使 파견을, 또 조선에는 왕자 송환을 사례하는 통신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명은 일본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책봉사 파견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심유경을 일본으로 보냈다.<sup>12)</sup> 일본을 다녀온 심유경은 책봉사의 파견만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며 조선 조정에 통신사 파견을 요구했다.

본부는 두 나라를 조정하여 피차의 실정을 함께 통하게 하려고 합니다. 헤아려보면 귀국이 이 병화를 당한 뒤로 그야말로 臥薪嘗膽하는 때이니 또한 마땅히 권도로 일을 처리하여 이 일을 완결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안으로 文德을 닦고 밖으로 武備를 엄히 하여 장래에 나라가 부유하고 군사가 강성하면 왕업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니, 수치를 반드시 씻지 아니하더라도 저들이 또한 스스로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것이 왕께서 오늘날 도모하여 마음에 시원하게 여기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다른 논의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사신을 陪臣에 비교하면 경중이 분명하건만 본부가 능히 담당할 수 있는데 귀국의 배신을 담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귀국의 어지러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백을 봉왕(封王)하는 일을 윤희하고 이에 開國帶礪元勳 및 명망 있는 대신을 보내어 멀리 海島를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사리로 헤아려보면 관백이 배신이 동행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귀국에서 응당 배신 2~3인을 보내어 중국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이 또한 예이며 의리인데, 하물며 저들이 또 이러한 의사가 있는데 이겠습니까. 이를 통지하기 위하여 자문을 보내니, 국왕께서는 자문 안의 사리를 查照하여 곧 배신 2員을 보내십시오. 그리하여 속히 와서 사신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 관백과 면대해서 영원히 盟好를 닦아 조속히 세상을 맑게 하여 세 나라가 수년 동안의 노고를 쉬게 되면 피차가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절대로 미혹함을 고집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지체하고 의심하여 큰일을 그르치지 마소서.<sup>13)</sup>

11) 김경태, 「임진·정유재란기 동래 지역의 전황 -일본군의 주둔 동향과 조선의 대응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38,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9, 5쪽.

12) 정은영, 「『일본왕환일기』의 통신사행문학적 위상 재고」, 『국제어문』 제67집, 국제어문학회, 2015, 118~119쪽.

13) 『선조실록』 70권, 28년 12월 29일(정묘), “本府調戡兩國彼此之情 俱要通達 計貴國當此遭罹之後 正臥薪嘗膽之日 亦宜權衡爲之 了結此事 嗣後內修文德 外嚴武備 將來國富兵強 王業可興 恥不必雪 彼亦自畏 非王今日之圖以爲快心事耶 倘有異議 以天使視陪臣 輕重較然 本府力能擔之 獨不能擔貴國之陪臣乎 天朝爲貴國解紛 允其封事 乃遣開國帶礪元勳及倚重大臣 遠涉海島 揆之理勢 不必關白欲煩陪臣同行 而貴國亦應遣二三陪臣 追隨天使東渡 亦禮也義也 況彼又有是意乎 擬合知會 爲此合咨前去 國王煩爲查照咨內事理 卽遣陪臣二員 作速前來 跟隨天使渡海 面與關白 永修盟好 早清海宇 庶三國數年之勞息眉 彼此幸甚 慎勿執迷不悟 以致遲疑 耽誤大事”

심유경은 명이 조선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책봉사 파견을 결정한 만큼, 조선도 통신사를 파견하라는 일본측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의 사신이 일본에 들어가는 만큼 조선이 마땅히 자신들을 배행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선의 감정적 대응이 전쟁 종식이라는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조선 조정은 심유경의 接伴使로 倭營에 머물며 소서행장과도 소통하고 있었던 황신을 정사로 삼아 1596년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수길은 일본이 일본의 왕자를 풀어주었음에도 조선이 그에 대한 사례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며 통신사와의 만남을 거부하였다. 심유경 역시 강화회담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만 거듭할 뿐, 회담 관련 정보를 통신사와 공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황신은 소서행장, 대마도주, 平調信 등을 만나 일본 내 분위기를 탐지하였고 명과 일본 간의 강화 교섭이 결렬되자 이를 서둘러 조선 조정에 전하여 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 關白이 방자하고 난폭하여 인심을 잃었고 악한 짓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으니, 3년이나 5년을 벗어나지 못해서 필시 세력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에서 만약 羈縻하는 계책으로써 잘 버티어 시일을 끌어간다면, 마침내는 반드시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sup>14)</sup>
- 상이 말씀하시기를, “淸正이 장차 올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하시니, 황신이 아뢰기를, “淸正 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2~3월경이 될 것이고, 또 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울산이나 기장 등의 읍에 진을 치고 머무르면서 關白의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sup>15)</sup>

황신은 일본인들이 전쟁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수길에 대한 반감도 고조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래서 수길의 권력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동시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길이 일본 내부의 불만을 타개하기 위해 조선 재침략을 생각보다 일찍 단행할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군관 趙德秀와 朴挺豪를 조선에 먼저 보내 대비책을 강구할 것을 전하였다. 이에 선조는 한강을 사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탐꾼을 파견하여 일본군의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심유경에게 부탁하여 가등청정이 명의 관작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명하였다. 조선으로 돌아온 황신은 복명을 하며 일본군의 예상 출정 시기, 경로와 그에 따른 조선 수군의 운용 방안에 대해 선조에게 아뢰었다.

황신의 예상대로 가등청정을 선봉으로 한 일본군이 재침략을 단행하였다. 1597년 5월 수길은 전라, 충청도를 비롯하여 조선의 모든 성을 함락시켜 조선이 일본의 강화 조건에 굴복하게 만들라는 공격 명령을 내렸다. 일본군은 그 해 7월 칠천량에서 원군이 이끌던 조선 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펼쳤는데 이를 기점으로 전쟁이 다시 본격화되었다.<sup>16)</sup> 그러나 1598년 5월 수길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일본군의 철수가 시작되었고 같은 해 8월 18일 수길이 병사하면서 7년간의 전쟁은 종료되었다.

조선과의 무역이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대마도는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한 직후인

14) 황신, 『일본왕환일기』, 10월 10일(계유), “時羅言關白橫失人心 爲惡不悛 不出三五年 勢必難保 朝鮮若能以計羈縻 撐過日子 則終必無事矣”

15) 『선조실록』 83권, 29년 12월 21일(계미), “上曰 淸正將爲出來云 然乎 愼曰 淸正等之出來 當在二三月 雖來必留陣蔚山機張等邑 以待關白號令云”

16) 허남린, 「정유재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쟁의 추이와 삼국의 전략구도」, 『정유재란 1597』, 국립진주박물관, 2017, 14~16쪽.

1599년부터 사자를 파견하여 교역 재개를 요구했으며, 1600년에는 조선인 피로인 160명을 쇄환하여 조선에 돌려보냈다. 그리고 수길 사후 일본에서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노력했던 德川家康은 동아시아에서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대마도를 통해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강화 협상 직후 정유재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었기에 선불리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선조는 2품 이상의 관원들에게 일본의 강화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논하게 했는데, 대의에 따라 원수 일본과의 강화는 있을 수 없다는 의견과 진정한 복수는 왜란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고서도 가능하니 羈縻하는 방책으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그런데 남해안에서 對馬島民에 의한 영해침범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일본의 再侵을 우려하며 민심이 동요하였고 後金の 성장은 조선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었다. 일본의 강화 제의를 거절할 수 없었던 선조는 우선 일본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1601년 全繼信과 孫文彥을 대마도에 탐적사로 파견하였고, 1604년에는 四溟堂을 탐적사로 파견<sup>17)</sup>하여 가강의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조선 조정은 1606년 가강이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서계를 조선에 보내고 임진왜란 때 宣陵과 靖陵을 범한 왜적을 압송하며 피로인을 쇄환할 것을 국교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 처음 倭酋 源家康이 국정을 독단하고 한결같이 풍신수길의 소행과는 반대로 하여 계속 피로인의 刷送을 허락하는가 하면, 이어 差倭 굴지정을 보내 부산에 도착한 뒤 통신사의 회복을 요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가강의 國書가 없었으므로 조정에서는 犯陵한 왜인을 잡아 보내고 가강의 국서도 가져와야 화의를 의논할 수 있다고 하고 먼저 사람에게 보내 이를 알렸다. 이에 가강이 비로소 국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 “전하가 일찍 사신을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오게 허락하시어 이곳 60여 주의 인민으로 하여금 和好的 실상을 알게 하신다면 피차간에 크게 다행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대마도 왜인 중 사형에 처할 죄인이었던 麻古沙九·麻多化之 두 사람을 犯陵倭라고 속여 국서와 함께 보내왔다.<sup>18)</sup>
- 군주는 백성에게 부모의 도리가 있다. 백성들이 오랑캐에게 잡혀가 禮義之邦의 백성들로서 장차 오랑캐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었으니 슬프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전날 回答使에게 그곳에 이르러서 刷還에 관한 일을 스스로 주선해 보도록 啓下하였으나, 이 말은 허술한 듯하여 그가 능히 刷還해 올 것인지를 期必하지 못하겠다. 또 회답사를 보내면서 마땅한 명칭이 없는 것도 혐의스럽다. 이제 위에서 보내거나 혹 禮曹에게 글을 보내게 하여 곧장 의리에 의거, 우리나라의 포로를 모두 刷還시켜 두 나라의 우호를 다지게 하라고 하여 한 번 그들의 뜻을 떠보는 것이 마땅하다. 사신의 칭호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刷還하는 것으로 명분을 삼을 경우 그 호칭을 回答刷還使라고 하는 것도 한 계책일 것이다.<sup>19)</sup>

17) 하우봉, 「16세기말 동아시아 국제전쟁」, 『동아시아의 역사 II』, 동북아역사재단, 2011, 240~242쪽.

18) 『선조수정실록』 40권, 선조 39년 11월 1일(병인), “倭酋源家康擅主國政 一反秀吉所爲 連許刷送被擄人 仍送差倭橘智正 到釜山求復通信使 而實無家康國書 朝廷以爲 縛送犯陵倭 且致家康書 乃可議和 先遣人諭之 於是家康始通書曰 殿下早許送使過海 使六十餘州人民 知和好之實 則彼此大幸又以馬島倭有罪當死者 麻古沙九麻多化之二口 詐稱犯陵之倭 隨國書出送”

19) 『선조실록』 207권, 40년 1월 4일(무진), “君之於民 有父母之道 其民陷於虜庭 忍令禮義之民 將爲蠻貊之民 可不爲悲乎 前日令回答使 到彼自爲周旋刷還事 啓下矣 此似歇後 未可必其能刷出否也 且回答使之遣 亦嫌無名 今宜或自上貽書 或令禮曹致書 直據義理 令盡刷我國被擄人 以申兩國之好 一以探試其意 使臣以刷還被擄爲其名號則以回答刷還使爲稱 此一謀也”

그로부터 4달 뒤 가장 명의의 서계와 범릉왜 마고사구와 마다화지가 한양에 도착하였다. 조선 조정은 그 심문 과정에서 범릉왜로 잡혀온 대마도인들이 대마도주에게 속아 압송된 가짜 범인임을 알았다. 그러나 선조는 대마도인이라면 그 누구든 조선의 적이 아니겠냐며 두 사람을 저자에서 효수하고 사건을 일단락하였다. 선조는 備忘記를 내려 임진왜란 때 잡혀간 조선인을 본국으로 데려오는 것이 군왕의 책무임을 밝히며 피로인 쇄환을 명분으로 ‘回答兼刷還使’라는 명칭으로 조선후기 첫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이렇듯 임진왜란의 발발 전, 그리고 전쟁 중 강화 교섭기, 또 종전 이후에도 조선에서 일본으로 통신사가 파견되었다. 이 시기 통신사가 남긴 기록에는 임진왜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동아시아 삼국의 정치·외교적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 3. 국내 노정에서 느낀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

#### 1) 흔적: 아물지 않은 전쟁의 고통

통신사 파견은 조선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일본에 당한 치욕과 그로 인한 적개심은 정치·외교적 판단과는 별개의 감정이었다. 이러한 점은 선조의 명의로 德川家康에게 보낸 국서에도 잘 드러나 있다.

임진년의 변란은, 귀국이 까닭 없이 군대를 일으켜 극히 참혹한 禍亂을 만들고 심지어 先王之陵墓에까지 욕이 미쳤으므로, 우리나라 군신의 마음이 아프고 뼈가 저리어, 의리에 귀국과는 한 하늘 밑에 살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6, 7년 동안 대마도가 비록 강화할 것을 청해 오기는 하였으나, 실로 우리나라가 수치스럽게 여겼던 바입니다. 이제 귀국이 옛일을 혁신하여 위문편지를 먼저 보내와 ‘전대의 잘못을 고쳤다.’ 하여 성의를 보이니,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어찌 두 나라 生靈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사신을 보내어, 보내 온 후의에 답하는 것입니다.<sup>20)</sup>

조선 조정은 일본의 국교 재개를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면서도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모든 책임이 일본에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아무런 명분 없이 참혹한 전쟁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왕의 능을 파헤쳐 모욕한 일본을 조선의 신민은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강화를 춘추대의에 어긋난,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덕천강이 먼저 국서를 보내 화의를 청해왔고 그가 풍신수길과는 다른 인물이기에 조선이 이를 수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피로인 쇄환을 위해 통신사 파견을 결정했다는 선조의 비망기가 조선의 신민에게 국교 재개의 필요성을 피력했던 것이라면 일본에 보내는 국서는 양국의 국교 재개가 일본의 요청에 의해 성사된 것임을 밝혀 향후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우위를 선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무엇보다 조선의 국서에는 일본과의 국교 재개가 조선의 백성과 국왕 스스로에게 명분을 제시해야 할 만큼 힘든 결정이었음이 드러나 있다.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는 일본과의 교린을 둘러싼 복잡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20) 경섭, 『해사록』, 정월 12일(병자), “壬辰之變 無故動兵 構禍極慘 而至及先王丘墓 敝邦君臣 痛心切骨 義不與貴國 共戴一天 六七年來 馬島雖以和事爲請 實是敝邦所恥 今者貴國 革舊而新 問札先及 乃謂改前代非者 致款至此 苟如斯說 豈非兩國生靈之福也 茲馳使价 庸答來意”

• 대궐을 하직하는데 임금께서 세 사신을 熙政堂에서引見하고, 이르기를, “이 걸음은 북경에 가는 것과는 달라 내가 애처롭게 여긴다. 너희들은 모름지기 협력하여 좋게 갔다 오기 바란다.”라고 하시며 이어 납약·호피·油席·弓矢·후추·부채 등 물건을 내리셨다. 신 등이 감격하여 명심하고 절하며 받아가지고 나오자, 中使가 빈청에 술을 내와서 마시기를 권하였다.<sup>21)</sup>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되지 않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한다는 것이 치욕이라는 것을 알지만 부득히 통신사를 파견해야 했던 조선 국왕은 일본으로 떠나는 통신사행원을 친히 불러 보고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南邊의 안정을 도모하고 일본의 재침략 가능성을 탐지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적국 일본으로의 사행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것임을 국왕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1655년 을미사행의 삼사를 인견한 효종은 일본으로의 사행이 연행과는 달라 애처롭다며 왕명을 수행하기 위해 떠나는 사행원들을 다독였으며 사신의 부모와 가족에게도 有司를 시켜 특별히 廩料와 약물을 하사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 역시 일본으로의 사행이 춘추대의에 어긋났다고 생각했지만 봉명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먼저 떠올리며 이를 상쇄시키려 했다.

감도는 먼 길에 말이 날듯이 달리고	原隰紆回快馬飛
푸른 휘장에 바람 일고 해가 기울네	風生翠憲澹斜暉
행인은 뺨안 수레 먼저 달아나며 피하고	行人走避車塵舍
높이 펼쳐진 장막 삶은 고기도 좋구나	供帳高張鼎肉肥
임금의 두터운 은혜 물처럼 몸에 배니	霄漢渥恩沾似水
부상으로의 행역 좋은 듯 보이네	扶桑行役視如襪
금절이 훨훨 매화 밖에 펄럭이니	翩翩金節梅花外
위타를 봉하지 않고선 내 아니 돌아오리	不拜尉佗吾不歸 <sup>22)</sup>

임금을 뵈고 나온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으로 떠나기 싫은 마음을 ‘더딘 걸음’이나 ‘서성이는 걸음’으로 나타내고는 하였다. 하지만 1643년 계미사행의 부사 조경은 일본으로의 사행이 좋은 듯도 하다며 그 이유로 임금의 두터운 은혜를 들었다. 그러면서 陸賈가 南越의 왕 위타를 설복하여 월을 漢의 속국으로 삼았던 것처럼 자신 역시 일본을 복속시키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 통신사는 자신들의 상황을 朱子が 통분함을 잊고 오랑캐와 화친했던 방책과 견주거나 스스로를 육가나 張騫에 비유하며 오랑캐 일본을 회유하여 교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하지만 통신사행원들의 국내 노정은 평탄하지 않았다. 전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는 것이라 사행원들은 제대로 된 지공도 받을 수 없었으며, 편안하게 묵을 숙소도 제공받지 못했다.

• 서울에서 여기까지 나흘 동안의 길을 모두 점심을 먹지 않고 연일 역참을 지나는데, 飢困이 뼈에 사무쳐 괴로웠다.<sup>23)</sup>

21) 남용익, 『부상록』, “上引見三臣于熙政堂 教曰 此行異於燕行 予用依然 爾等須與協和 好爲往還 仍賜臘藥虎皮油席弓矢胡椒扇子等物 臣等感佩拜受而出 出則中使宣醢于賓廳 勸飲至醉”

22) 조경, 『동사록』, <社倉道中>



• 大灘에 이르니 날이 어두워져 배를 묶어 놓고 저녁밥을 차려 먹은 뒤에, 촌가에 들어가 묵으려 하니 역병이 있다고 했다. 달빛을 타고 대탄을 거슬러 올라가서 밤에 정덕여의 田庄에 들었는데, 오래된 집이 헐고 무너져 있었다.<sup>24)</sup>

1607년 정미사행의 부사 경섬은 사행에서 느낀 현실적인 문제를 사행록에 고스란히 기록하였다. 경섬은 1월 13일에 서울을 떠나 4일 만에 충주 용안역에 당도하였다. 그 나흘 동안 점심도 먹지 못한 채 이동을 하느라 배고픔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괴로웠다고 표현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천에서는 좁고 누추한 촌집에서 묵었는데 그런 숙소마저도 부족하여 정사와 한 방에서 지내야 했다. 1617년 정사사행의 부사 박재는 부산으로 가는 길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선영을 들렀는데 자신은 물론 배종하는 군관까지 제대로 된 지공을 받지 못해 집안사람에게 쌀을 얻어 밥을 해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은 병자사행 때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아 여전히 민가를 숙소로 사용했으며 심지어 경기도 대탄에서는 천연두가 창궐하여 촌가에 머무는 것도 여의치 않아 급하게 인근의 허물어진 농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굶주림과 육체적 고통보다 통신사를 괴롭힌 건 전란의 흔적을 마주할 때였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은 곧 일본군의 북상 경로와 닿아있었으므로 통신사의 국내노정에는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오랑캐 일본의 교화로 치환하려고 했던 통신사의 다짐은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충주를 지나며 무너졌다.

낙숫물이 줄줄 흘러 개울을 이루고	簷鈴滴歷亂成流
먼 안개 자욱하고 날이 개지 않는구나	遠靄微茫苦未收
무심한 비야 왕사가 급한 줄 알리오	雨意豈知王事急
인정으로 고향이라 머무르라 하는게지	人情亦爲故鄉留
탄금대의 물빛은 말갭게 불어나고	琴臺水色晴初漲
월악산의 봄빛은 파랗게 비쳐나네	月岳春光翠欲浮
마음 가득 이제 사신된 것 부끄러워라	多情自慚今杖節
십년 전엔 포의로 놀았던 곳이라네	十年曾是布衣遊 <sup>25)</sup>

탄금대는 임진왜란 초기 최대의 격전지이자 都巡邊使 申砬이 이끄는 조선의 주력군 8,000명이 일본군에게 패하여 몰살된 곳이었다. 4월 28일 탄금대 전투에서 이긴 일본군은 불과 5일 만에 한양에 입성할 수 있었다. 충주에 도착한 조선후기 통신사는 자연스럽게 탄금대와 신립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시로 표현했다. 병자사행의 종사관 황호는 충주에 내리는 비가 사행의 바쁜 길을 늦추는 것은 자신을 고향에 더 머물게 하려는 인정이라 하였으나 곧 탄금대를 보면서도 사신된 것이 부끄럽다고 적고 있다. 비록 왕명을 수행하러 일본으로 떠나는 길이지만 임진왜란을 떠올리면 원수 일본과 교린을 위해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운, 복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으로 인한 상흔은 더 뚜렷해졌고, 통신사행원들은 격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23) 경섬, 『해사록』, 정월 16일(경진), “自京城至此四日程 並不設中火 連日過站 飢困逼骨 苦哉”  
 24) 김세렴, 『해사록』, 8월 13일(갑신), “至大灘日昏 維舟設夕飯 欲入宿村舍 聞有疫患 乘月泝大灘 夜投鄭德餘庄 舊屋頽廢”  
 25) 황호, 『동사록』, <遇雨留忠州>

성문을 나서서 甌山을 바라보니, 높이가 수십 길인데 포구에 우뚝 솟아 있다. 城壘가 아직 남아 있는데, 큰 돌로 가로 세로 구불구불하게 쌓은 것이 우리나라의 성 쌓는 제도와 같지 않으니, 바로 중국의 經理 楊鎬가 일본의 가등청정을 공격하던 곳이다. 그 당시에 바야흐로 都督 麻貴가 기마병으로 앞서 달리고, 浙江의 보병이 또 먼저 오르기를 청하여, 벽력과 바람같이 공격하니 감히 버티지 못하였다. 여러 왜적의 연달은 진영을 짓밟은 뒤에 또 진격하여 外寨를 빼앗으니, 가등청정이 묶이는 것은 한 번 복을 칠 사이에 달려 있었다. 가등청정이 金帛을 성 밖으로 마구 던지니, 여러 군사들이 다투어 갖느라고 싸움에 힘쓰지 않으니, 양 경리가 교만한 빛을 띠며 말하기를, “여러 군사가 매우 굶주렸으니, 내일 무찌르는 것이 좋겠다.” 하고, 드디어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니, 적이 밤새워 수비를 준비하였다. 새벽이 되어 진격하여 공격하니, 포환이 비 오듯 하여 절강의 군사가 2천이나 죽었고, 경리가 여러 가지 계책으로 공격하였으나 빼앗지 못하였다. 중국 군사들이 산 왼쪽에 진을 치고 있다가, 경리가 탄핵을 받아서 돌아갔다. 아! 우리나라가 오랑캐를 면한 것은 모두 경리의 힘이었으나, 징을 울려 나아가지 않아 드디어 잡을 수 있었던 왜로 하여금 다시 해독을 부리게 하였다. 이는 또한 피가 적었다고 하겠지만, 하늘이 눈을 내려서 성 안으로 하여금 곤란하지 않을 수 있게 한 것은 또한 어떻게 된 일인가?26)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울산에서 일본군이 쌓은 왜성을 보며 울산성 전투를 떠올렸다. 1597년 12월 양호와 마귀가 이끄는 명나라 군사 4만 명과 권을 휘하의 군사 1만 명이 연합하여 가등청정이 주둔하고 있던 울산성을 공격하였다. 명군은 성의 삼면을 포위하고 화포와 화전을 쏘며 총공세에 나섰고 군량과 물의 공급을 차단하여 일본군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그러나 갑자기 내린 눈비로 명의 화포 공격이 소용이 없어진 데다 부산포를 출발한 일본의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다. 양호는 일본의 지원군이 태화강에 이르자 퇴각 명령을 내렸고 조·명 연합군의 울산성 공격은 실패로 끝났다.27) 김세렴은 조·명 연합군이 승기를 잡았음에도 이를 이어가지 못하고 퇴각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특히 이들의 피해가 단순히 전략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날씨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오랑캐 일본에게 유리한 눈비를 내린 하늘의 뜻은 무엇인지 한탄하였다.

부산에 도착한 사행원들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더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우선 통신사가 부산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으면 보름에서 길면 50일에 달해 다른 경유 지역에 비해 많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다. 또 부산은 7년의 전쟁 기간 내내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쓸쓸하게 무너진 성이 바로 동래성이니  
그 해를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 않네

蕭條殘郭是萊城  
憶着當年意未平

26) 김세렴, 『해사록』, 9월 4일(을사), “出城門 望見甌山 高數十丈 斗起浦口 城壘尙存 築以巨石 縱橫曲複 不似我國城制 卽楊經理鎬 擊清正處也 方麻都督 以馬兵先驅 浙江步軍 又請先登 若霹靂風霆 莫敢支吾 諸倭之連營者 旣已蹂躪 又進拔外寨 清正就縛 只在一鼓間矣 清正亂投金帛于城外 諸軍爭取不力 戰 經理有驕色曰 諸軍飢甚 明日可鑿糟之 遂鳴金收軍 賊達夜設守備 及曉進攻 砲丸如雨 浙兵死者二千 經理百計攻之不得拔 會天大雨雪 士馬皆凍 立城中之水 得不困 海上諸軍四集 王師左次 經理被參而還 噫東土之免爲奔服 皆經理力也 鳴金不進 遂使垂縛之禿 再肆其毒 亦可謂寡謀 天之雨雪 使城中得不困者 亦何哉”

27) 울산성 전투에 대해서는 나성린, 「울산성 전투와 울산왜성」, 『1598 정유재란』, 국립진주박물관, 2017, 276~284쪽 참조.

버려진 성가퀴 수리 않은 채 시든 풀에 묻혀 있고	廢堞不修衰草合
황량한 터 주인 없이 석양 속에 횡하구나	荒墟無主夕陽明
청산은 여전히 서글픈 기색 띠고 있고	青山尙臺淒涼色
흐르는 물 오래도록 오열을 삼키고 있네	流水長含嗚咽聲
의로운 혼백 틀림없이 남은 울분 있을 텐데	義魄想應餘憤在
오히려 오늘 바다 동쪽으로 가야 하다니	却慚今日海東行 <sup>28)</sup>

1624년 갑자사행의 종사관 신계영은 허물어진 성과 황무지로 변한 동래 지역을 보며 임진왜란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시점이었지만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동래성은 전쟁의 고통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신계영은 동래의 산도 슬픈 기색을 띠고 있고 강물도 오열한다고 했지만 이는 폐허가 된 동래를 본 신계영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특히 신계영은 조선을 지키다 사라져 간 이들의 울분이 남아있는 부산을 출발하여 적국 일본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에 참담함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부산에 들어와 왜성을 보면서 계속되었다. 일본군은 명과 일본이 강화회담을 추진하자 장기간 주둔 목적으로 여러 개의 왜성은 쌓았다. 부산의 왜성은 일본 병력을 충원하고 물자를 보급·관리하는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종전 후 원래의 부산진성이 일본군에 의해 훼손되면서 조선군은 잔존했던 子城 일대에 부산포진을 주둔시키고 부산진성으로 쓰고 있었다.<sup>29)</sup> 1655년 을미사행의 종사관 남용익은 부산에 남아있는 왜성을 보며 임진왜란을 떠올렸다.

저 일본성을 바라보니	緬彼日本城
일찍이 운세가 좋지 않았네	南風曾不競
두 능이 아직도 부끄러움을 머금었으니	二陵尙含羞
임진왜란의 패악함을 어찌 말하랴	忍說龍蛇橫
죄악이 거듭 쌓여 스스로 멸망으로 나아갔으니	罪貫自就滅
원씨(가강)가 평씨(수길)를 무찔렀네	源氏剗平姓
조정에서 權道の 계책 펼쳐	廟算出權宜
십 년에 한 번씩 통신사가 가네	十年修一聘
湯임금이 葛伯을 먹여 주는 것이지	自是湯餉葛
周가 쫓과 鄭에 의지했던 관계가 아니라네 (후략)	非關晉依鄭 <sup>30)</sup>

남용익은 '이름'을 언급하며 왕릉을 파헤친 일본군의 패악을 드러내는 동시에 조선 스스로가 아직도 그 수치스러움을 만회하지 못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그 치욕을 씻지도 못했음에도 지금 일본과의 교린을 위해 사신으로 떠나야 하는 자신의 상황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조선이 교린을 하는 대상은 적 수길을 무찌른 가강이라는 점, 통신사는 조선과 일본이 대등한 관계를 맺고자 가는 것이 아니라 탕 임금이 오랑캐를 교화하고 시혜를 베푸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표현하며 사신 파견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있다. 즉 통신사의 파견이 오랑캐 일본에게 머리

28) 신계영, 『선석유고』, <東萊有感甲子奉使日本>

29) 부산 왜성에 대해서는 김강식, 『조선시대 해항도시 부산의 모습 - 군항과 해항』, 선인, 2018, 121~123쪽; 송혜영·서치상, 「부산진성의 공간구성과 변화과정 연구」, 『건축역사연구』 28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9, 37~38쪽 참조.

30) 남용익, 『부상록』, 4월 21일, <萊館書懷得長篇四十韻呈兩使兼示讀祝李文哉>

를 속이는 일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海神祭의 祭文에도 잘 드러나 있다. 통신사는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영가대에서 해신제를 거행하였다. 해로로의 이동은 조선 조정에서 통신사 파견을 거절한 명분으로 삼을 만큼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으며 위험한 노정이었다. 그런 두려움을 지닌 통신사해원들은 해신에 대한 제의를 베풀어 안전한 항해를 보장받고자 하였다. 바다에서 맞닥뜨릴 지도 모를 위험 요소의 제거를 해신에게 희구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sup>31)</sup>을 찾았다.

우리 임금의 명을 받아 節을 들고 동으로 멀리 일본에 갑니다. 바닷길이 3천리인데 마련한 배가 6척이고, 무리가 수백 명입니다. 우리가 감히 원수를 잊은 것이 아니라 일은 經과 權이 있어, 廟堂의 계획을 돕는 것입니다. 말이 忠信하고, 행동이 篤敬하면 蠻貊의 나라에도 다닐 수 있는 것이니 감히 그 공부에 힘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사방에 사신으로 가서 임금의 명을 욕되지 않게 해야 배운 바를 저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sup>32)</sup>

1617년 정사사행의 종사관 이경직은 『부상록』에 당시의 제문을 수록하였다. 그런데 제문에는 사행원들의 안전을 기원하는 내용 이외에 통신사 파견의 명분을 언급하고 있어 흥미롭다. 제문에서 통신사해원들은 자신들의 일본행이 원수를 잊은 것이 아니라 常經과 權道에 따른 것이며 임금과 조정의 계획을 돕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는 통분함을 잠시 잊고 내일을 도모하는 방편의 하나로 통신사를 파견한다는 조선 조정의 입장과 달아있었다. 또한 통신사가 일찍이 배우고 익혔던 禮에 따라 사신 임무를 수행한다면 임금의 德을 오랑캐에게도 누리게 할 수 있다며 통신사 파견의 목적이 일본 교화에 있음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이는 대내외적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정치적 계책일 뿐, 사행원 개개인이 느끼는 적개심과는 별개의 문제였다. 봉명사신으로서 마음을 다잡고 사행을 떠난 이경직이었지만 일본의 경제력을 보고는 하늘을 원망하였고, 秀忠에게 국서를 전달한 후에는 원수에게 무릎을 꿇으니 마음과 쓸개가 찢어진다고 탄식하였다.

일본에서 돌아와 부산에 도착한 통신사는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 마부와 말이 준비되지 않아 즉시 길에 오르지 못하였다. 왜인 橘智正이 絶影島에 왔는데, 옛날 관사는 철취되고 초가집이 보잘 것 없으며, 지공도 整齊하지 않으므로, 즉시 육지에 내려오지 않고 크게 성내며 돌아가려 하였다. 그래서 두 당상 역관을 시켜 쌀섬을 마련하여 보내주고 위로하게 하였다.<sup>33)</sup>

• 부산에서 발행할 때에 쇠환인 등이 서로 이끌고 따라오며 말 앞에서 통곡하였다. 아마 배 안에서는 주방에서 먹을 것을 주었는데, 부산에 와서는 의뢰할 곳이 없고, 고향으로 가고자 해도 또 길을 알지 못하여서이리라. 이 때문에 울부짖으며 따라오니, 정경이 지극히 가련하였다. 행중의 나머지 양식을 덜어내어 각기 5일간 양식을 주어 보내고, 그 살던 고을에 關文을 써서 각기 그 사람에게 부쳤다.<sup>34)</sup>

31) 한태문, 「통신사문학에 반영된 조선시대의 부산 - 『해행총재』 소재 사행록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21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5, 13~14쪽.

32) 이경직, 『부상록』, 7월 5일(정묘), “受我后之命 仗節而東 遙指日域也 海路宁三千 治船六艘 徒衆數百也 匪敢我忘讎 事有經權 資廟略也 忠信篤敬 蠻貊可行 何敢自謂得力也 使於四方 不辱君命 庶不負於所學也”

33) 경섬, 『해사록』, 7월 4일(갑오), “人馬不齊 未卽登途 橘倭到泊於絶影島 則舊館撤毀 草屋齟齬 支供亦不整齊 不卽下陸 大怒欲爲回去 令兩堂譯 謀送米石而慰之”

임진왜란 후 부산포에 있던 왜관은 조선의 군영이 들어서 있어 군사적 이유로 사용할 수 없었다. 아울러 민가 가까이에 왜관을 두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긴 조선 조정은 영도에 왜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영도의 왜관은 보잘 것 없었고 지공의 질도 좋지 않아 정미사행을 배종한 대마도인들이 불만을 제기하였고 삼사는 이들을 달래기 위해 당상역관을 보내야만 했다. 일본의 경제력을 직접 보고 응송한 대접을 받았던 통신사로서는 부산으로 돌아와서 맞는 상반된 상황이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의 조선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 쇠환하여 데리고 온 피로인에 대한 처우는 더 열악해 통신사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통신사 파견의 명분이 피로인 쇠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조선으로 돌아온 피로인을 어떻게 대우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안마저 마련하지 않았다. 통신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행단의 양식을 덜어 나누어주고 관문을 써주는 것밖에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통곡하는 피로인의 모습, 인마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해 한양으로 떠나지 못하는 통신사의 모습은 임진왜란의 남긴 고통이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통신사행원들은 부산으로 내려오는 국내 노정 중에, 또 부산 체류기간 동안 조선 곳곳에 남아있던 임진왜란의 흔적을 직접 보았고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적 열악함을 몸소 겪었다. 그러한 경험은 일본군이 퇴각하는 것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또 수십 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였다.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는 임진왜란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기억: 충절과 再造之恩의 내면화

조선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안정됨에 따라 조선후기 통신사 역시 관백 襄職과 若君 탄생의 하례사절이자 문화사절로 그 성격이 변모되었다. 또한 전후 복구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행 준비 미비로 인한 통신사의 고통은 사라졌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기억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상이 崇賢門에 납시어 통신사로 가는 세 사신을 입시하도록 하니, 정사 조엄·부사 이인배·종사관 김상익이 차례로 앞에 나아갔다. 상이 친히 ‘二陵松柏’이란 글귀를 외우면서 목이 메고 눈물을 머금어 감개하는 뜻을 나타내시며 친히 ‘好往好來’라는 네 글자를 써서 세 사신에게 각각 주시며 사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sup>35)</sup>

남대문 밖 떠나는 자리 해는 장차 석양인데 南郭離筵日將夕  
 대궐을 나오자마자 내 걸음이 서성대네 纔違京闕却蹣跚  
 백 년이라 통신하는 이 강산 길에 다다르니 百年通信江山路  
 춘추의 대의서를 대하기 부끄러워라 羞對春秋大義書<sup>36)</sup>

34) 강홍중, 『동사록』, 3월 7일(을묘), “自釜山發行時刷還人等 相率追來 慟哭於馬前 蓋船中則自行廚供饋 而及到釜山 無所依賴 欲尋故鄉 又不知路 以此號泣追來 情事極可憐也 除出行中用餘 各給五日糧而送之 各其所居處 并作關文 各付其人”

35) 조엄, 『해사일기』, 8월 3일(정해), “上御崇賢門 命通信三使臣入侍 正使臣趙曦副使臣李仁培從事官臣金相翊 以次進前 上親誦二陵松柏之句 嗚咽含涕 以寓感慨之意 親書好往好來四字 各給三使 以慰行人之心”

36) 조엄, 『해사일기』, 「수창록」, <歲癸未八月哉生明余以通信正使拜辭闕下出國門敬次先考赴燕時西郊韻>

1763년 계미사행의 삼사를 부른 영조는 친히 ‘二陵松柏’이란 글귀를 외우고 ‘好往好來’를 직접 써서 주었다. 영조가 말한 이릉은 성종의 능인 宣陵과 중종의 능인 靖陵으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 파헤쳐진 곳이었다. 정사 조엄은 선대를 생각하는 임금의 효성과 신하를 걱정하는 마음에 감동하였다고 했지만, 영조의 이릉 언급은 임진왜란의 참담함과 치욕을 기억하라는 당부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백년 간 통신사가 파견되었지만 춘추대의를 생각하면 일본과의 교린에 부끄러워 선뜻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조엄의 심경은 전대의 통신사와 마찬가지로였다.

하지만 전별연을 위해 찾은 관왕묘에서 통신사행원들은 개인적 감정보다는 봉명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먼저 생각하며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다.

- 궐에서 물러나와 남관왕묘에 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몇 명의 친구들이 송별하러 왔고 영의정 또한 뒤따라 도착했다.<sup>37)</sup>
- 아침에 한강을 건너니, 太常寺의 하인 몇 사람이 미리 와 있었다. 세 사신의 행차가 일제히 성의 남쪽 관왕묘에 도착하여 흉단령으로 갈아입고 차례로 말을 타고 서울에 들어가서 복명하였다.<sup>38)</sup>

1617년 정사사행의 삼사와 일행 원역들은 임금께 사조하고 재상들이 열어준 전별연에 참석하기 위해 남관왕묘를 방문하였다. 또한 1624년 갑자사행의 부사 강홍중은 일본에서 돌아온 사행원들이 임금께 복명하기에 앞서 관왕묘에 들러 의복을 바꿔 입었다고 기록하였다. 관왕묘는 통신사에 대한 송별 장소이자 관복에서 평복, 혹은 평복에서 관복으로 換服하는 곳으로 통신사의 출·입국과 관련된 장소<sup>39)</sup>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래 관왕묘는 임진왜란을 돕기 위해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들에 의해 세워졌다. 명의 장수와 군사들은 왜란 때 명군이 평양, 행주, 또 삼남에서의 싸움에서 이긴 것은 관우가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관왕묘를 설치하였다. 또 명의 神宗이 칙사 萬世德을 통해 관왕묘를 세우라는 칙령을 내리고 금 4천 냡을 자금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경리도감 당상 윤근수의 건의에 따라 병조 주관으로 동대문 밖 영도교 근처에 동관왕묘를 건립했다. 그러므로 통신사의 관왕묘 방문을 단순히 전별연이나 환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조선을 돕기 위해 명군을 보냈던 신종이 건립했다는 점에서 再造之恩을 부각시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병자호란 때 두 개의 관왕묘가 淸 태종과 군사들이 머물렀던 핵심 병영으로 사용되면서 임병양란의 상흔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자, 오랑개에 대한 치욕을 상기하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그래서 병자사행 이후에는 한동안 관왕묘가 전별 장소로 쓰이지 않았다. 그런데 1682년 임술사행부터는 통신사에 대한 전별연이 관왕묘에서 다시 베풀어졌다. 숙종이 동관왕묘 방문 후 관우의 忠義를 숭상하라는 비망기를 내리고 직접 관왕묘를 찾아 致祭하면서 관왕묘의 위상이 높아졌다. 숙종의 이러한 행보는 임진왜란 때 지원군을 보내 준 명 신종을 추모하는 大報壇을 설치하여 再造之恩을 강조했던 일련의 정책들과 연결되는 조치였다. 더하여 군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다.<sup>40)</sup> 관왕묘가 임진왜란을 상기시키는 공간, 충

37) 이수간, 『동사일기』 5월 15일, “退出 往南關王廟更衣 親舊若而人來送 領台亦追到矣”

38) 신유한, 『해유록』 1월 24일, “朝渡漢江 太常僉從數人 已來候 三使行齊到城南關王廟 改着紅團領 以次乘馬入京復命”

39) 장장식, 「서울의 관왕묘 건치와 관우신앙의 양상」, 『민속학연구』 제1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4, 411쪽.

의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기억되면서 통신사의 관양묘 방문은 봉명사신의 임무를 자각하게 만들었다.

이렇듯 국왕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진왜란 관련 追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어질 수밖에 없는 전쟁의 흔적을 기억으로 대체하여 재현하는 동시에 정치 이념에 따라 조선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통신사는 前例를 행동 규범, 문제 상황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에 통신사행원으로 선발되면 이전 사행의 기록을 읽고 숙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이전 사행원들이 기록으로 남긴 내용을 확인·수정·확충해 나가며 관련 정보를 심화시켜 나갔다. 이미 정해져 있는 사행 노정에 통신사행록의 전통적 글쓰기 방식까지 더해지면서 통신사 기록 속에서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 재현이 더 용이하였다.

탄금대라 흐르는 물 한을 남기고	遺恨彈琴水
야마대라 깊은 원수 어찌 잊으랴	深讐野馬臺
산하는 오히려 기세가 웅장하건만	山河猶壯氣
여전히 죽은 이들의 슬픔은 남았네	猿鶴尙餘哀
지나가는 나그네는 비통함을 더하는데	過客增悲慨
외로운 배는 홀로 물결을 거스르네	孤舟獨泝洄
섞에 놓고 쓸개 씹은 백년의 쓰라림	百年薪膽痛
눈물을 가리우며 동래로 내려가네	掩淚下東萊 <sup>41)</sup>

잇닿은 구름송이 조도에 달렸으니	連雲懸鳥道
천년이 지나가도 슬픔은 남아 있으리	千載有餘悲
하늘이 만들어 준 험관을 가지고서	天設重關險
어찌하여 한 가지 기책도 없었던고	那無一策奇
배수진 친단 말만 헛되이 들었을 뿐	空聞背水陣
강을 끊는 군사를 뉘라서 막아내지	誰遏斷江師
왕명을 받은 사신 남쪽 끝 왕래하니	旋節通南極
속으로 앓으면서도 시를 짓지 아니하네	沈吟不賦詩 <sup>42)</sup>

17세기에 파견된 통신사는 충주 탄금대를 보고는 전몰자에 대한 애도나 탄금대 전투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로 드러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난 지 150년이 지난 후에 파견된 계미사행의 서기 김인겸 역시 탄금대에 남아있는 죽은 이들의 한과 슬픔에 비통함을 자아낸다면서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사행을 떠난다고 표현하였다. 특히 탄금대 전투에서는 배수진이라는 신립의 전략이 통신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는데, 이는 조령을 지날 때에도 동일했다. 1747년 정묘사행의 종사관 조명채는 사신이 되어 남쪽으로 내려가며 조령을 보고는 신립이 그 험난함을 이용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지 못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전대 통신사가 남긴 시에 후대 사행원들이 차운을 하거나 동일한 노정지에서 시를 지으면서 기억의 재현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40) 관양묘에 대해서는 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의 관양묘 방문과 그 의미」, 『국제어문』 제50집, 국제어문학회, 2010, 71~79쪽 참조.

41) 조엄, 『해사일기』, 「수창록」, <過彈琴臺>

42) 조엄, 『해사일기』, 「수창록」, <鳥嶺次丁卯通信正使洪尙書純甫丈懸板韻>

한편 동래에 도착한 통신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되는데, 바로 제향공간을 통해서였다. 임진왜란 이후 선조와 광해군은 전란 때 활약했던 인물에 대한 공신 책훈을, 인조 이후에는 전사한 인물에 대한 제향과 祠宇·서원의 건립, 賜額과 旌表 정책을 통해 전쟁을 기억<sup>43)</sup>하게 만들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동래부사 송상현이었다.

- 해 늦게 떠나서 저녁에 동래에 닿았다. 이곳은 충신 송상현이 죽음으로 절개를 세운 곳이니, 忠烈祠가 있다.<sup>44)</sup>
- 성 밖으로 나가 충렬사에 참배하였다. 동래부 객사 옆에 부사 송상현이 순절한 곳이 있는데 후세 사람들이 그곳에 단을 쌓고 宋公壇이라고 불렀다.<sup>45)</sup>
- 두 벗과 함께 東城을 나가서 충렬사에 참배했다. 마침 秋享 齋日이었으므로 5-6명의 유생들이 송충렬과 정충장이 성이 함락되었을 때 순절한 그림[城陷殉身圖]을 구경하고 송시열의 『二忠傳』을 읽고 있었다. 정당에 송, 정 두 공을 아울러 제향하고 양산군수 조영규 공, 동래 교수 노개방 공을 배향하고 東廡에는 유생 문덕겸 공, 비장 송봉수, 김희수 공을, 서무에는 겸인 僉人 신여로, 향리 송백, 읍민 김상을, 문 밖의 별사에는 송공의 기생 금섬과 정공의 기생 애향을 배향하였다. (중략) 사당에 참배를 마치고 여러 居齋儒生에게 이르기를 “제군들이 장차 이 사당을 모실 것이니 우리들 마음이 흡족하오. 이 일은 단지 충성스러운 영령들 빚기가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여러 유생들 보는 것도 부끄럽소.”라고 했다.<sup>46)</sup>

동래에 도착한 전대의 통신사가 허물어진 성, 황무지가 된 땅 등 전쟁의 흔적을 보고 임진왜란을 떠올렸다면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충렬사를 통해 동래성 전투를 기억하게 되었다. 1594년 강화협상 자리에 나간 경상우병사 김용서는 소서행장으로부터 그의 장렬한 죽음을 전해 듣고 이를 조정에 알렸다. 그러다 1605년 동래부사로 부임한 윤환이 宋公祠를 세워 송상현에 대한 享祀를 시작하였고 1622년에는 선위사 이민구가 송공사에 대한 사액을 건의, 1624년 忠烈이라는 사액을 받으면서 송공사가 충렬사가 되었다. 1651년 부임한 윤문거가 ‘祠로써 충의를 표창하고 院으로 도를 높인다’고 하여 사우로 남아있던 충렬사를 이전·확장하여 안락서원을 세워 지역 유림을 양성하고 그 안에 충렬사를 조성하였는데 이때가 바로 임진왜란 발발 1주갑이 되는 해(1652)였다. 그리고 1709년 동래부사 권이진이 별사를 세워 송상현과 함께 순국하였으나 충렬사에서 배향되지 못한 인물들을 모셨다.<sup>47)</sup>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동래를 충신 송상현이 죽음으로 절개를 세운 곳이라고 기록하였다. 그가 동래를 방문한 때가 충렬사라는 사액이 내려진 지 12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송상현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리라 생각되며, 김세렴이나 통신사행원들이 충렬사를 방문했을 것

43)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7~8쪽.  
 44) 김세렴, 『해사록』, 9월 5일(병오), “日晩發行。夕抵東萊。卽忠臣宋 象賢。壬辰死節處。有忠烈祠”  
 45) 홍경해, 『수사일록』, 12월 17일, “出城外拜忠烈祠 本府客舍傍 有宋東萊殉節處 後人築坊門之 遂稱以宋公壇”  
 46) 남옥, 『일관기』, 8월 22일(병오), “與兩友出東城 拜忠烈祠 值秋享齋日 有五六童甫觀宋忠烈鄭忠壯城陷殉身圖 讀尤翁二忠傳 正堂並享宋鄭兩公 配梁山守趙公英珪東萊教授盧公蓋邦 東廡儒生文公德謙裨將宋公鳳壽金公希壽 西廡僉人申汝檣鄉士人宋伯邑民金祥門外 別祀宋公妓金蟾鄭公妓愛香 (中略) 拜祠畢謂齋生曰 諸君將事此祠 吾儕甘心 是役非但愧謁忠靈羞 見諸童甫也”  
 47) 송상현에 대한 추인 과정에 대해서는 번광석,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호, 부경역사연구소, 2010, 191~193쪽; 오인택, 「조선후기 ‘충렬공 송상현 서사’의 사회문화적 성격」, 『역사와 세계』 40, 효원사학회, 2011, 37쪽; 김강식, 「조선후기의 임진왜란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호, 부경역사연구소, 2012, 22~24쪽; 양홍숙, 「부산의 임진왜란 기념물 조성과 도시경관화」, 『지역과 역사』 40호, 부경역사연구소, 2017, 296~297쪽 참조.



으로 여겨지나 관련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1747년 정묘사행의 자제군관이었던 홍경해는 충렬사에 가서 참배를 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뒤이은 계미사행에서도 제술관을 비롯한 서기들이 충렬사에 가 참배를 하였다. 마침 추향 재일이라 사행원들은 동래의 유생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술관 남옥은 유생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곳에 모셔둔 영령들을 보니 일본과의 교린을 위해 사행을 떠나는 자신들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통탄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서기 김인겸 역시 “우리길(사행길) 생각하니 괴루(愧淚: 부끄러운 눈물)를 금할소냐”라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이처럼 통신사는 충렬사라는 별도의 제향공간에서 임진왜란 때 순절한 선인을 참배하며 전쟁을 기억하고 그들의 의기를 본받아야 한다며 자신들을 독려했다.

한편 1719년 기해사행의 정사 홍치중은 부사, 종사관과 함께 부산진성에 올라 일명 萬世德紀功碑, 釜山子城碑銘으로 불리는 釜山平倭碑銘을 보았다.

- 부사, 종사와 함께 부산진 뒷산 정상에 올랐다. 임진년 때의 명나라 장수 만세덕의 비가 있었는데 새로 세운 것이나 옛날에 세운 것이나 다 낡아서 읽을 수가 없었다. 멀리 대마도를 바라보니 쪽 뺨은 푸른 바다 한 자락 가운데의 푸른 연기와도 같아서 바라만 보면 그리 먼 것도 아니었다.<sup>48)</sup>

- 황제께서는 인자함으로 세상을 덮어 먼 변방의 사람도 이를 믿어 의지하는데 이 흉악한 효경이 꿈틀거리며 제후의 강토를 침략하였네. 이에 六軍을 정돈하고 저들을 막아 정벌하여 추악한 적을 사로잡으니 그 누가 인자한 이에게 대적하랴. 잔혹한 자 취하고 약한 자 세워주어 해방을 고요하게 하니 먼 나라 복종하게 하고 가까운 나라 회유하여 사방을 풍화하였네. 저 높은 산을 쳐다보면 천자의 위엄 혁혁하고 저 바다의 물 따라내도록 황제의 은덕 망극하도다. 손 모아 절을 하고 돌에 새겨 큰 공적을 밝히나니, 천년 만년토록 영원히 왕국을 안정시키리.<sup>49)</sup>

- 부산 자성에 부러진 碑가 있는데, 명의 經理 만세덕이 東征한 功을 서술하고, 將士 59인의 성명이 陰刻되어 있습니다. 萬公은 卿貳의 존귀한 몸으로 旌節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2년 동안 수고롭게 지켰으니 經에 이른바 ‘큰 환난을 막았으니 제사지내야 한다.’는 데에 합당합니다. 지금 나라에서 힘을 다하여 날마다 쌀과 베를 이 땅에 실어 보내어 원수인 倭人들에게는 주고, 명나라의 여러 해 동안 힘써 원수를 없앤 사람에게는 한 조각 쯤을 준비하여 분향한 적이 없었으니, 신은 이를 슬프게 여깁니다. 마땅히 이 땅에 만공을 위해 廟宇를 세워 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영구히 이 賊을 잊을 수 없게 하시고, 영구히 이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sup>50)</sup>

만세덕은 경리 양호를 대신하여 1597년 12월 조선에 와 정유재란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머물렀다. 종전 이후에는 동해를 순시하러 왔다 부산을 방문하였는데 황제의 위엄이 이곳까지 미쳤음을 기념하여 兵部職方司郎中 賈維翰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參將 陳蠶에게 비를 세우게 하였다.<sup>51)</sup> 만세덕의 비문에는 신종이 제후국 조선을 침략한 오랑캐 일본을 정벌하였다는 점,

48) 홍치중, 『해사일록』, 5월 17일(기축), “與副使從事 登釜山鎮後山頂上 有壬辰天將萬世德碑 新舊兩石 皆頑缺不可讀矣 遙見對馬島 如一抹青煙 橫亘海濤之中 望之不甚遠矣”

49) 부산광역시, 『국역 萊營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104쪽.

50) 『숙종실록』 49권, 36년 11월 10일(경자), “釜山子城 有折碑 敘天朝經理萬世德東征之功 其陰刻將士姓名五十九人 萬公以卿貳之尊 杖節東臨 勞戍二年 亦經所謂 抗大難 則祀之者也 今者竭國之力 日輸米布於此地 以給讎倭 而不爲天朝累年勞苦 廓清讎賊之人 燒一瓣香 臣竊悲之 宜於此地 爲萬公立廟 使邊民知萬世不可忘此賊 萬世不可忘此恩”

그렇게 세상을 교화하니 그 은혜가 망극하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비가 부러져 방치되었다가 1709년 동래부사 권이진이 이를 발견하고는 구리를 부어 보수하였다. 권이진은 조선 사람들이 명의 신종이 만세덕을 보내 베풀어준 큰 은혜를 잊어버려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며 비각을 지어 비를 안치하였다. 또 조정에는 명이 조선을 도와 준 은혜도, 그리고 조선을 침략한 일본도 잊지 않게 해야 한다며 만세덕을 제향하는 묘우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이후 만세덕의 비각은 임진왜란을 기억하고 재조지은을 상징하는 장소로 인식되었다.

임진년 때 사람들 모두 어육이 되었는데	壬辰之歲人盡魚
다행히 백 년 후에 다시 터를 잡았네	幸觀百年復奠居
신종황제가 은혜 베푼 땅	神宗皇帝樹恩地
한 마디의 거친 밭도 모두 새밭 되었네	一寸荒田皆得畬

섬 오랑캐 변심하기 민땅 시냇물과 같으니	島夷反覆類閩溪
다른 날 흉악한 짓 안 할지 어찌 알겠나	安知他日不鯨鯢
장문원처럼 변방을 지킬 수 있다면	守邊得似張文遠
오아로 하여금 밤에도 울지 않게 할텐데	可使吾兒夜不啼 <sup>52)</sup>

기해사행의 자제군관이었던 정후교는 부산에 머물며 느낀 감흥을 시로 지어 남겼다. 정후교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했는데 명 신종이 은혜를 베풀어 모두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때 말하는 신종의 은혜란 곧 조선에 원군을 보낸 것이며 재조지은의 다른 말이었다. 뒤이어 정후교는 일본을 섬 오랑캐로 지칭하며 그들이 언제 흉악한 마음을 먹고 조선을 침략할지 모른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나라를 쪼쪼매게 만들었던 위의 장수 張遼처럼 변방을 지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하였다. 정후교가 보기에 부산은 조선을 위기에서 구해준 명 신종의 재조지은을 생각나게 하는 장소이자,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는 오랑캐 일본이 지척에 있는 곳이었다.

- 西城을 나가 구에 도착하여 도해선 6척을 구경하고 식파정에 앉아서 태종대와 절영도, 왜관을 바라보았다. 전함소를 따라서 영가대에 올라가니 대가 더욱 상쾌하고 아름다웠다. 인하여 鄭忠壯公의 戰亡碑를 보았다. (중략) 저녁에 將臺의 東征將士碑를 구경했다.<sup>53)</sup>
- 두 사신이 萬公壇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다.<sup>54)</sup>

계미사행의 제술관 남옥은 만세덕의 비는 물론 충장공 정발의 전망비도 보고 왔다고 기록하였다. 동래부사 송상현에 이어 부산진첨사 정발 역시 임진왜란 때의 공훈이 인정되어 충장공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충렬사에서 제향하였다. 1761년 절도사 박재하가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영가대 안에 비를 세웠다. 박재하는 그 비문에 부산진은 오랑캐 일본의 배가 왕래하는 첫 길목인데 이곳에 충장공의 전망비를 세운 것은 부산 백성들의 민심을 격동시키고 일본의

51) 박현규, 「임진왜란 명 水將 季鎭의 유적과 조선 문사의 수창 시편」, 『이순신연구논총』 제23호,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 2015, 13쪽.

52) 정후교, 『부상기행』, <釜山歌十首>

53) 남옥, 『일관기』, 8월 23일(정미), “西城到港口觀渡海船六艘 坐息波亭望太宗臺絕影島倭館 戰艦所係上永嘉臺尤爽麗 仍觀鄭忠壯公戰亡碑 (中略) 夕觀將臺東征將士碑”

54) 유상필, 『동사록』, 3월 4일, “兩使臣登萬公壇而還”

간담을 서늘케 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적었다. 아울러 석자의 작은 비문이라도 일본을 경계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장소를 조성하였다. 더 이상 전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시점에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행원들은 동래의 총렬사, 부산진성의 만세덕 비, 또 영가대의 정충장공 전망비 등을 통해 임진왜란을 기억하게 되었다. 조국을 위해 순절한 선인을 보며 그들의 충절을 내면화하는 것은 물론 오랑캐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그리고 조선의 구원병을 보낸 명 황제와 만세덕을 기리며 재조지은을 생각하였다.

#### 4. 결론

부산은 임진왜란, 또 통신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임진왜란 최초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자 7년 간 일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아울러 부산은 통신사 노정의 종착지이자 일본으로 떠나는 출발지였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다른 경유지에 비해 오랜 시간을 체류하며 사행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또 통신사행원들은 해신제나 전별연 등 사행과 관련된 공식 행사에 참여하였고, 공무가 없을 때에는 시간을 내어 부산의 곳곳을 누비며 객수를 달래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 속에는 부산의 다양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임진왜란에 대한 기록이다. 조선 후기 첫 번째 통신사는 임진왜란 종전 후 10년 만에 파견되었다. 또 통신사의 국내노정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북상 경로와 비슷하였다. 그래서 당시 통신사행록에는 노정 중에 목도하게 된 전란의 흔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통신사행원들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애써 누르며 북명사신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려고 했지만 부산으로 내려오는 국내 노정 중에, 또 부산 체류기간 동안 조선 곳곳에 남아있던 임진왜란의 흔적을 직접 보았고 전쟁으로 야기된 경제적 열악함을 몸소 겪었다. 그러한 경험은 일본군이 퇴각하는 것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또 수십 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깨닫게 하였다. 조선 후기 통신사행록에는 임진왜란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반면 18세기가 되면 전쟁의 흔적이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임진왜란의 흔적 대신 그 참상과 고통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이 국가 혹은 지방 주도로 조성되었다. 더 이상 전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시점에 일본으로 파견된 통신사행원들은 동래의 총렬사, 부산진성의 만세덕 비, 또 영가대의 정충장공 전망비 등을 통해 임진왜란을 기억하게 되었다. 조국을 위해 순절한 선인을 보며 그들의 충절을 내면화하는 것은 물론 오랑캐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겼다. 그리고 조선의 구원병을 보낸 명 황제와 만세덕을 기리며 재조지은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임진왜란을 기억했다.

## 정은영,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에 대한 토론

심민정(동명대)

이 연구는 임진전쟁 발생을 전후하여 파견된 통신사들의 사행록을 통해 ① 임진전쟁의 배경, ② 부산을 비롯한 국내 여정에서 보이는 전쟁의 상흔, ③ 부산 지역에 남은 충신, 재조지은의 흔적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의 체재 기간이 가장 긴 장소였던 부산이 타 지역에 비해 전쟁 기억에 대한 내면화가 깊은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 본 연구는 ‘임진전쟁 - 통신사 - 부산’의 연계성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일본과의 충돌 및 교류의 장이었던 부산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해주는 데 의미가 깊다 하겠다.

이 연구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이면성까지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자의 역량에 부족함을 느끼지만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고자 한다.

### 1. ‘회답검쇄환사’와 ‘통신사’, ‘임진왜란’과 ‘임진전쟁’ 등의 용어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은?

본 연구에서는 임진전쟁의 배경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임진전쟁 이후의 통신사행록을 주로 분석하고 있다. 연구자는 p.7.에서 ‘회답검쇄환사’를 ‘통신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입장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임진왜란’이라는 용어도 염두에 둔 용어선택인지 궁금하다. 오늘 발표하는 다른 연구자의 경우 ‘임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용어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

### 2. 전쟁의 고통과 상흔을 표현한 작품 내용 인용에 대한 재고

본 연구 3. 1) 부분은 임진전쟁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견된 통신사들이 느끼는 전쟁의 상처 등을 사행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고 있다. 주로 전쟁 후 처음 회답검쇄환사로 파견되었던 1607년부터 1655년(1607, 1617, 1624, 1636, 1643, 1655)까지의 사행록 내용을 분석, 적용하고 있는데, 일부 인용문은 전쟁의 상흔과 깊은 연관이 느껴지지 않는다.

8쪽 각주21(1655, 남용익, 『부상록』) 임금이 “이 걸음은 북경에 가는 것과는 달리 내가 애처롭게 여긴다.”는 문구의 경우 전쟁이 끝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게 된 치욕적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기 보다 육로를 통해 가는 북경과 달리 해로를 이용해야 하는 통신사에 대한 안타까움은 아닐지?

10쪽 황호의 『동사록』 「遇雨留忠州」라는 시에서도 탄금대와 신립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은유적인 의미를 토론자가 찾지 못한 것인지.....

3. 18세기 통신사행록에서 ‘충신’, ‘재조지은’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수 없는지?

3. 2)에서는 주로 18세기 통신사행록을 인용하여 부산이 내면화하고 있는 ‘충절’, ‘재조지은’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부산과 관련해서는 임진전쟁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현, 정발을 비롯한 충신들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충렬사’에 대한 설명 및 참배 기록이 대표적이다. 명에 대한 ‘재조지은’과 관련해서는 부산진성에 있는 ‘만세덕기공비’, ‘부산평왜비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이들 유적 외에 충절과 관련하여 부산 지역의 다른 명소에 대한 언급은 없는지? 사행록의 내용을 다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다대포침사 윤희신을 기린 ‘윤희공단’이나 부산포해전에서 활약한 정운과 관련된 명소인 ‘물운대’ 등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첨언하자면, 조선시대 한일교류사를 공부하고 있는 토론자의 입장에서 1682년 임술통신사행은 그 전후 통신사행의 성격을 구분하게 해주는 기점이 된다고 생각한다. 발표자 또한 사행록 중 1682년 임술 통신사행 사행록은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다.

【기획주제1 토론】

「조선후기 통신사행록 속에 나타난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에 대한 토론

류속영(부산대)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에 나타난 전쟁의 상흔, 그리고 부산」은 조선후기 통신사행록을 통해 통신사가 국내노정을 거치며 보게 된 임진왜란의 참상과 상처는 무엇이었는지, 또 부산이라는 공간을 임진왜란과 어떻게 관련시켜 생각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1. 2장 ‘흔적’과 3장 ‘기억’은 17세기, 18세기에 파견된 통신사의 기록을 다룬다고 보여 진다. 17세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이 시기에 파견된 통신사가 임진왜란의 흔적을 볼 수 있었고, 18세기는 전쟁이 끝나고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때이므로 흔적보다는 기억을 통해 임진왜란을 떠올리는 건 어찌면 당연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관련한 기억 재현이 17세기 초반부터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통신사행록의 내용을 시기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도식적이라 느껴지는 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하다. 또한 흔적과 기억의 개념 정확히 무엇이며, 이것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변별되어 드러나며 그 특징들은 어떤 것이지도 궁금하다.

2. 부산이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발발한 곳이자 7년간 일본군의 주둔지였다는 점과 조선후기 통신사가 적국 일본과의 교린을 위해 떠나는 출발지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부산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통신사에게 남달랐을 것이다. 발표문에는 이런 점이 잘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 이를 좀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궁금하다.

3. 부산이라는 공간은 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작품화되어 왔다. 부산은 일본과 대치하는 국방의 요새지로 대일 외교, 무역의 공식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고 한다. 또한 최종 전별지로 근처 지방의 기생들이 동원된 화려한 대연회장, 도일 전 통신사행의 최종 점검지, 왕환의 첫 지점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그렇다면 임란 이후 부산이란 공간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달라진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점도 궁금해진다. 또한 흔적과 기억을 통해 그들이 지향하는 의식은 무엇이며 임진왜란 이전과 달라진 점들이 좀더 세밀하게 포착될 때 본 논의의 의가 풍성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획주제2】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 <동래양부하전(東萊梁敷河傳)>

송철호(동서대)

# 별지

【기획주제2 토론】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 <동래양부하전(東萊梁敷河傳)>」에 대한 토론문

김재웅(경북대)

# 별지



## 〈仙遊洞記〉에 대한 연구

이강석\*

### <목 차>

1. 머리말
2. 인물과 공간 설정의 의미
3.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의 층위
4. 맺음말을 대신하여

### 1. 머리말

〈仙遊洞記〉는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현재 연세대 귀중본 서가에 소장되어 있다. 필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창작연대는 1748년(英祖 24), 즉 18세기 중엽으로,<sup>1)</sup> 북학파의 연행이 활발했던 18세기 후반과 멀지 않은 시기이다. 이 작품은 「許生故事」를 모티프로 하며, 致富와 北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북벌을 첨예한 시각으로 비판한 燕巖 朴趾源(1737-1805)의 〈許生傳〉보다 조금 앞서는 작품이라 하겠다.

정환국(2006)은 이 작품을 서사양식의 변화 과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주목하는 한편, 북벌에 대한 시대적 시각 변화 속에서 그 의의를 읽어 내고자 하였다.<sup>2)</sup> 물론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를 검토하고, 의의를 밝혀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하지만 ‘〈선유동기〉 만큼 ‘북벌불가론’을 확실하고 전일하게 묘사한 작품도 없었다<sup>3)</sup>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북벌에 대한 비판의 층위를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점<sup>4)</sup>은 다소 아쉽다.

조선 후기를 지배했던 북벌 담론은 ‘(北으로 표상된)청나라를 정벌한다’라는 표면적 의미보다 훨씬 북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박사과정 / rkdtjr28@hanmail.net

1)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자료 〈선유동기〉를 통해서」,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회, 2006, 46면. “작품의 말미에 “歲崇禎紀後己卯, 松軒散人徐宗記. 我聖上即位後戊辰元月日凡拙齋書.”라는 필사기가 적혀 있다. … 여기 기묘년은 1699년에 해당하며, 무진년은 1748년 아니면 1808년으로 상정된다. 만약 필사시기가 1748년 이라면 「선유동기」는 연암의 「허생전」보다 앞서 성립된 작품이 되는 것이다.”

2) 정환국, 같은 논문, 37-38면. “〈선유동기〉는 다른 허생고사류가 한문단편 서사임에 비해, 전통적인 소설적 기법을 이용하여 분량과 편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런 형식적인 측면은 허생고사의 연변 양상의 최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 〈선유동기〉는 조선후기 이념화의 한 축이었던 북벌론을 서사화한 ‘담론의 서사’라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선유동기〉는 조선후기 서사양식의 연변 과정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실례인 것이다.”

3) 정환국, 같은 논문, 54면.

4) 그런 점에서 〈선유동기〉의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을, ‘시의상’의 측면에서만 주목했던 ‘줄고, 「북벌 담론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부산대 석사 논문, 2019.’에서의 부분적 논의 역시 북벌 담론 비판의 층위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잡한 성격을 갖는다. 애초부터 부실한 근거와 어설픈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제출된 이 담론은, 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하였고, 반박할 수 없는 定論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족들의 강고한 화이관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했다. 마침내 연행을 통해 직접 청나라의 실체를 목도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自省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지만, 여전히 사족들은 청나라가 夷狄化된 공간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선유동기〉는 북벌의 준비와 계획에 관여한 인물들의 발언을 통해 북벌 담론의 허위를 다각도로 들춰내는 한편, 북벌을 상징하는 尤庵 宋時烈(1607-1689)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李厚源(1598-1660)을 내세워 북벌 주도층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을 감행한다. 이는 사족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위험한 사유였던 까닭에, 現實과 仙界를 넘나드는 ‘선유동’이라는 공간 설정을 통해 은폐된다. 〈선유동기〉의 이러한 북벌 비판은 「허생고사」 계열 다른 작품의 북벌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유동기〉에서 다른 북벌에 대한 비판의 층위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선유동기〉에 드러난 서사 구조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 사안인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그 비판의 층위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2. 인물과 공간 설정의 의미

〈仙遊洞記〉는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永曆 연간(1647-1661), 西江 근처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許讓은 오직 독서만 하는 선비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부인이 ‘三不可之事(無資身·不保身·無糊口之資)’를 내세워 허양을 몰아세우자, 그는 그 길로 富商大賈 許同知를 찾아가 돈을 빌린다. 허양은 빌린 돈을 탕진하며 세월을 보냈지만, 知人之感이 있는 허동지는 끝까지 돈을 대준다. 결국 단 한 번의 상행위로 줄부가 된 허양은 빌린 돈을 갚고, 小民들에게 시혜한 뒤 별당에 은거한다.

치부담이 끝난 뒤, 북벌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 무렵 효종은 북벌을 위해 李厚源에게 그 준비를 일임한다. 이후원은 인재 발탁을 위해 허동지의 조언으로 허양을 소개받지만, 허양은 ‘北伐三策’을 진술한 뒤 종적을 감춘다. 이에 이후원은 직접 인물을 물색하고자 의주부윤을 자청한다.

의주에서 인재 물색에 열을 올리던 어느 날, 이후원은 자신을 찾아온 金昌錫이라는 인물에게 이끌려 仙遊洞으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절치부심하며 복수를 노리던 인물들로부터 그간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들은 대명유민과의 결탁을 위해 직접 중원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도중에 만난 皇朝의 遺臣들로부터 北伐不可論을 듣고 돌아왔다고 했다. 이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형세를 살폈으나 오히려 더욱 번성한 청나라의 모습만 확인하고는 결국 북벌을 포기했다며, 북벌의 중단을 요청한다. 조정으로 돌아온 이후원은 선유동에서 겪은 일의 전말을 보고했고, 효종이 마침내 북벌을 중단함으로써 작품은 마무리된다.

작품의 경계가 말해주듯, 〈선유동기〉의 서사 구조는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하는 여느 작품과 다르다. 우선 치부담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자. 연암의 〈허생전〉에는 富를 축적하는 과정이 상세하면서도 광범위하게 그려진다. 그 과정을 통해 축적된 富는 群盜를 구제하고, (윤리적) 무역과 (이타적) 분배를 통해 施惠하는 데 활용된다. 다른 작품에서도 ‘북벌’에 대한 언급이 없을지언정 치부담은 핵심 화소로 다뤄진다. 그러나 40면 8,000여자에 달하는 〈선유동기〉에서 치부담의 분량은 10면 안팎이다. 또 부의 축적 과정에서 인과관계가 대폭 축소되었고, 치부 이후 행적은 小民들에게 시혜했다는 정도로 간단하게 매듭지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선유동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물과 공간 설정의 문제는 〈선유동기〉의 주제의식이 표출되는 양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우선 인물 설정에 있어 주목할 지점은 주인공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부담에서는 許讓으로, 북벌을 다룬 후반부에서는 李厚源으로 주인공이 바뀐다. 또 선유동에서의 서사가 시작되는 대목에서는 오래전부터 북벌을 준비한 바 있는 선유동 인물들에게로 시선이 옮겨간다. 이러한 양상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바, ‘전일하지 않은 주인공 설정이 작품의 내적 인과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경정할 만하다. 하지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선유동기〉는 선계에서 벌어지는 북벌 담론의 비판에 무게를 둔 작품이다. 그리고 그 비판은 단일한 주인공이 아닌, 북벌을 계획·준비하며 직접적으로 관계되었던 다수의 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벌을 향한 비판의 강도와 준거의 신뢰성은 더욱 확고해진다. 그런 점에서, 서사 전개 시점의 다변화는 단지 작품의 짜임새를 해치는 요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북벌에 대한 비판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 또한 마땅히 주목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왜 이후원인가?’이다.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하는 작품 중에서 북벌을 다루는 경우는 대개 李滄(1602-1674)을 내세운다. 이완은 효종이 계획했던 북벌의 실무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인물이니, 그의 등장은 의문을 품을 만한 부분이 없다. 하지만 이후원의 경우는 그런 접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 관련 기록으로는, 黃景源(1709-1787)의 〈明陪臣傳〉에 실린, 북벌 준비의 일환으로 전함 200여 척을 건조했다는 짙은 증언이 전부라 할 수 있다.<sup>6)</sup> 17-18세기 초 조선의 수군에 배속된 선박이 60여 척<sup>7)</sup>이었으니 200척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지 않다. 허나 공식 기록에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황경원의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유동기〉에서 이후원을 등장시킨 이유는 송시열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후원은 沙溪 金長生(1548-1631)에게 수학하였고, 同門인 송준길과 송시열의 정계 진출을 독려했다. 송시열과 북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니, 북벌을 비판하는 〈선유동기〉에 이후원을 등장시킨 것은 나름 적합한 인물 선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북벌의 化身으로 추앙받는 송시열과 긴밀했던 이후원을 서사 전면에 드러낸 것은 〈선유동기〉가 취한 서사적 전략이었다.

송시열에 대한 우회적 비판은 1659년(顯宗 即位) 영남 남인이었던 木齋 洪汝河(1620-1674)가 올린 應旨上疏<sup>8)</sup>에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이는 1658년(孝宗 10)에 내려진 求言教旨에 응한 것으로, 時事를 광범위하게 지적한 것이다. 흥여하는 혼란한 정국의 원인으로 우의정 이후원을 지목했고, 당시 銓曹의 人選에 대해 문제 삼으며 이조판서 송시열을 공박했다. 이후원과 송시열이 모두 언급되었지만, 상소가 실린 《顯宗實錄》 기사의 말미에도 밝혀져 있듯 흥여하의 비판은 기실 송시열을 겨냥하고 있었다.<sup>9)</sup>

이 사건으로 흥여하는 송시열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연 인물로 인식되었다.<sup>10)</sup> 이후 남인은 1860년(肅宗 6) 庚申大黜陟으로 실각했으나, 서인을 향한 남인의 攻斥이 중단되지는 않았다. 《桐巢漫錄》은 대표적인 남인 계열의 黨論書이자, 저자인 南夏正(1678-1751)이 서인에 의하여 왜곡된 사실에 대한 서술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결과물이다. 여기에서 남하정이 지목한 대표적 서인 인사가 바로 송시열이었

5) 정환국, 앞의 논문, 48면.

6) 黃景源, 〈明陪臣傳〉, 《江漢集》: 『韓國文集叢刊』a225, 94면. “王欲伐清, 乃使厚源治舟師, 厚源別得關艦二百餘艘, 請發御史, 比年大閱.”

7)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 《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76, 대동문화연구원, 2011, 27면.

8) 《顯宗實錄》 즉위년(1659) 6월 2일(5).

9) 《顯宗實錄》 위의 기사. “從因時議, 力攻汝河意在侵詆宋時烈, 上以爲汝河陰隱猜險之疏, 不可以求言, 而改書上之, 命止之.”

10) 우인수, 「목재 흥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29-34면.

다.<sup>11)</sup> 남하정은 송시열의 북벌론에 대해 실체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sup>12)</sup>이라며 비평했다. 흥여하가 집권 서인을 공박하는 데에 있어 時事를 언급했던 반면, 남하정은 송시열의 북벌론을 비판의 재료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보면, 〈선유동기〉에서 이완이 아닌 이후원을 선택한 이유는 송시열과 同門 修學했던 점과 정치적 후원 관계였던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당대 정치적 역학 관계의 일면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송시열의 북벌 담론과 그 정치적 변질에 관계되는 지점으로,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선유동’이라는 공간에 관한 문제이다. 북벌을 위한 인재를 구하라는 효종의 특명을 받은 이후원은 義州府尹을 자처한다. 의주로 부임한 뒤 원성이 자자했을 정도로,<sup>13)</sup> 이후원은 公務를 쟁개친 채 오직 인재의 물색에만 열을 올린다. 그러던 어느 날 밤, 金昌錫이라는 인물이 찾아와 이후원을 선유동으로 데려가면서 본격적인 후반부의 북벌 서사가 시작된다. 이후원을 찾아온 김창석이 가까운 곳에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sup>14)</sup> 선유동은 의주 근방의 某處로 설정된 듯하다.

몇 리쯤을 가자, 넓은 들이 펼쳐졌다. 배산임수에 흙은 기름지고 물산은 풍성하였다. 그 안에 띠 집들로 한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 층층 난간과 꽃 계단에는 온갖 화초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뜰의 소나무엔 백학이 앉았고 연못에는 오리 떼가 헤엄을 치며, 산에는 원숭이가 객을 보고 소리치고 앵무새와 공작은 푸른 바위 사이에서 교대로 우니, 진실로 이른바 하늘이 내려준 선경으로 별유천지비인간이었다.<sup>15)</sup>

‘선유동’의 모습은 그야말로 별세계이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은 ‘이상적인 세계에서 당대의 현안에 대한 담론이 펼쳐지는 아이러니컬한 구상’이라는 평가<sup>16)</sup>로 직결된다. 하지만 ‘선유동’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와 서사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좀 더 살필 여지가 있다. 작품에서 명명된 의주 근방의 모처가 아닌, 실제 ‘선유동’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선유동은 경북 문경과 충북 괴산에 걸쳐 있는 大耶山을 기준으로 內仙遊·外仙遊로 나뉜다. 일찍이 孤雲 崔致遠(857-미상)이 은거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선유동에 대한 관심은, 退溪 李滉(1501-1570)을 거쳐 송시열과 그의 제자인 寒水齋 權尙夏(1641-1721), 그리고 農巖 金昌協(1651-1708) 등 걸출한 문사들의 방문과 유람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그 仙境에 대해 찬미해 마지않았는데, 송시열조차 華陽九曲의 아홉 번째인 葩谷(巴串)보다 선유동의 勝景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으니,<sup>17)</sup> 그 관심이 범범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관심은 壬辰倭亂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왜란 당시 의병 활동으로 익히 알려진 重峯 趙憲(1544-1592)은 전란이 임박했음을 알고 이미 피난처로 선유동을 염두에 두었다. 마침내 1592년(宣祖 25) 4월, 전란이 발발하자 조헌은 母夫人을 선유동으로 피난시켰다.<sup>18)</sup> 중요한 것은, 이는 조헌 혼

11) 원재린, 「조선후기 남인 당론서 편찬의 제 특징 - 《桐巢漫錄》과 《朝野信筆》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 53, 한국사상사학회, 2016.

12) 南夏正 著·원재린 譯, 『桐巢漫錄』, 해안, 2017, 209면.

13) 〈仙遊洞記〉. “誤決訟事, 民怨四起, 境內鼓動, 眞所謂歌聲高處怨…聲.”

14) 〈仙遊洞記〉. “金昌錫曰: “此去不遠之地, 有人才多聚之處, 願與相公偕往, 求見如何?””

15) 〈仙遊洞記〉. “至數里許, 則開一大野, 背山臨流, 土沃物豐, 隱然茅屋, 遽作一村. 層欄階, 百花鏡發, 白鶴棲于庭松, 白鵝一群, 游泳池塘, 山猿吠客, 鸚鵡武孔雀, 交啼於翠屏之間, 眞所謂天賜仙境, 別有天地非人間也.”

16) 정환국, 앞의 논문, 43면.

17) 宋時烈, 〈仙遊洞〉,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08, 114면. “巴谷勝於此, 此評恐未公. 幽深兼洒落, 還憶石塘翁.”

18) 趙憲, 〈年譜〉, 〈附錄〉, 《重峰集》: 『韓國文集叢刊』a054, 458면. “[ 奉母夫人, 避于清州東面. ] 是月辛卯, 日本清正 調信·行長·玄蘇·秀嘉·隆景·義智等大舉入寇, 二十日下陸, 攻陷釜山·東萊, 列邑望風瓦解. 先生遂奉母夫人, 避入于清州東面仙遊洞而還.”

자만의 결단이 아니라 土亭 李之菡(1517-1578)에게 修學한 同門들과의 토론을 거친 판단이며, 그 과정에서 이들이 ‘피난처’로서 선유동의 적합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보였다는 점이다.<sup>19)</sup>

요컨대, 선유동의 수려한 ‘경관에 집중되었던 시선과 ‘피난처’로서의 선유동에 대한 관심이 병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시점 이후에 보이는 문학작품 속 선유동의 모습이 이상적이고 완전한 피난지, 험한 절벽과 장애물로 가로막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신비의 마을이라는 이미지를 띠며 허구적으로 증폭되고 추상화되었던 것은 여기에 연원을 둔다.<sup>20)</sup>

하지만 이러한 사정도 〈선유동기〉의 ‘공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선유동기〉에서는 실제 존재하는 선유동의 이미지와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교묘하게 겹쳐 서술하면서, 그 지역은 현실과 전혀 다른 곳인 義州의 某處로 설정했다. 게다가 현실의 ‘선유동’에 부여된 ‘피난처’라는 속성에서 나아가, 북벌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른바 북벌의 ‘전초기지’라는 의미까지 함께 부여하고 있다. 현실과 선계를 넘나들며 복합적 의미가 부여된 〈선유동기〉의 이러한 공간 설정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그 단서를 추적해보기 위해 동일한 뼈대의 〈허생전〉에 붙여진 두 번째 後識에<sup>21)</sup> 주목해보고자 한다. 〈허생전〉은 ‘尹映’이라는 인물에게 들은 것이라는 연암의 말로<sup>22)</sup> 시작한다. 여기서 창작의 책임은 윤영에게 1차적으로 떠넘겨지고, 이러한 작업은 두 번째 후지에서 다시 한 번 이뤄진다. 연암은 훗날 재회한 윤영의 이름을 ‘辛齋’이라 소개하며<sup>23)</sup> 다른 인물과의 혼란을 야기한다.<sup>24)</sup> 그리고 정체를 감추고 세상을 살아가는 윤영과 같은 이들도 있는데, 유독 허생에 대해서만 의심할 수 있겠느냐며 이야기 출처에 대한 재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sup>25)</sup> 알려져 있듯, 〈허생전〉에서는 ‘북벌 삼대책’을 통해 북벌을 주장하는 사족들의 허위를 통렬히 비판한다. 이는 여전히 북벌과 대명의리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족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위험하고도 내밀한 사유였던바, 두 번째 후지를 통해 그 출처를 은폐하고자했던 것이다.<sup>26)</sup>

물론 〈선유동기〉에도 鬼神·大明遺民·蠻夷를 포섭하라는 북벌을 위한 삼대책이 등장하지만, 주된 비판 장치는 아니다. 〈선유동기〉에서는 북벌의 계획과 준비에 직접 관여했던 이들의 발언을 통해 불가능성을 날날이 드러내고, 명분만을 내세우는 북벌 주도층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다. 북벌 담론의 허위

19) 조헌을 비롯한 토정의 제자들이 보였던 피난처로서의 선유동에 대한 인식과 그 적합성을 논의하는 과정은 ‘황인덕, 『임란기 전승업과 師友들의 피난지 모색활동과 학연성』, 『인문학연구』104,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20) 황인덕, 같은 논문, 312면.

21) 첫 번째 후지는 慶尙監司 趙啟遠(1592-1670)을 등장시켜 空言 뿐인 북벌을 거듭 비판하며 〈허생전〉의 논지를 강조한 것이다. 두 번째 후지는 통행본인 박영철본(朴榮喆本)에는 없고, 일제본(一齋本)-옥류산장본(玉溜山莊本)-녹천산장본(綠天山莊本)에만 있다.

22) 朴趾源, 〈玉匣夜話〉, 《熱河日記》, 《燕巖集》: 『韓國文集叢刊』a252, 303면. “余亦言有尹映者. 嘗道卞承業之富. 其貨財有自來, 富甲一國, 至承業時少衰. 方其初起時, 莫不有命存焉. 觀許生事可異也. 許生竟不言其名, 故世無得而知者云.”

23) 朴趾源, 〈玉匣夜話〉 後識(二), 《熱河日記》. “語問余呼尹老人, 老人曰: “我姓辛, 非尹也. 子誤認.” 余愕然問其名, 曰: “吾名齋也.” 余詰之曰: “老人豈非姓名尹映也? 今何改言辛齋也?” 老人大怒曰: “君自誤認, 乃謂人變姓名耶?” 我欲再詰, 則老人轉益怒, 青腫瑩瑩.”

24) 朴趾源, 같은 글. “又廣州神一寺, 有一老人. 號竊笠李生員. 年九十餘, 力扼虎, 善奕棋, 往往談東方故事, 言論風生. 人無知名者, 聞其年貌, 甚類尹映. 余欲一見, 而未果.”

25) 朴趾源, 같은 글. “世固有藏名隱居, 玩世不恭者. 何獨於許生而疑之.”

26) 강명관,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휴머니스트, 2017. 27-32면. 연암이 이야기의 출처 은폐를 위해 구사한 장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허생전〉이 실린 〈玉匣夜話〉는 혹은 필사본에 따라 〈進德齋夜話〉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玉匣’은 어떤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進德齋’는 역관들이 숙소로 삼은 장소가 아니었다. 또한 연암은 〈虎叱〉과 같이 비관적 시각이 강력하게 투영된 작품이 중국의 한 식당에 걸려있던 것이라며 둘러대기도 했다. 이러한 (의도적) 착오와 불명료함은 이야기 출처 은폐를 위한 문학적 장치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와 주도세력의 모순된 작태를 동시에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허생전〉에 드러난 비판보다 넓은 차원에서 발현된 것이면서, 그 강도는 더욱 강력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선유동기〉에서도 특별 비판이라는 부담스러운 사유를 은폐하기 위해 그것이 펼쳐지는 장소를 ‘선유동’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공간으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선유동기〉의 서사 구조적 특징에 대하여 인물 및 공간의 설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물 설정은 정치적 역학 관계의 일면을 염두에 둔 것이고, ‘선유동’이라는 공간의 설정은 이야기의 출처 은폐를 위해 현실과 선계를 넘나들며 복합적 의미를 갖도록 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 펼쳐지는 특별 담론에 대한 비판과 그 층위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특별 담론에 대한 비판의 층위

마침내 李汲을 비롯한 선유동의 인물들을 마주한 이후원은, 그동안의 내막을 듣게 된다. 그들은 십대 초반부터 복수설치를 혈맹한 사이라고 한다.<sup>27)</sup> 몇 년 뒤 청나라를 염탐하기 위해 중원으로 들어간 그들은 幽州에서 명나라 조신을 지낸 ‘亡國의 大夫’를 만난다. 그는 선유동 인물들에게 지금의 형세가 螳螂拒 轍에 불과하다며 만류한다. 자신들도 원수를 갚고자 지금까지 절치부심하였으나 ‘天運’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8)</sup> 선유동의 인물들은 그 말에 수긍하는 한편, 여전히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다시 길을 나선다. 江淮를 건너 南屏山에 도착한 일행은 한 동자의 안내를 받아 한 茅屋으로 인도된다. 여기에서 驥州刺史와 皇朝의 公卿을 지낸 노인을 만난다. 그 역시 ‘天運論’을 근거로, 특별의 불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파한다.

아, 여러분은 정말 대장부의 일을 하고 계시오. 죽어도 변치 않을 충국의 마음이 가슴 속에 꼭 차 나라의 치욕을 씻고자 이 만리 밖에서 고초를 마다하고 있으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으며 부럽지 않겠소? 나는 부끄러워 몸들 바를 모르겠소. 그러나 천운이 저 만주 오랑캐에게 왕성하니 이를 어찌하겠소? 옛사람들의 말에도 ‘먼저 천운을 얻는 것이요, 그 다음이 지리이며, 다시 인심을 얻은 후에야 대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빈말이 아니오. 제군들은 아직 젊은 남자들로 기이한 술수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덕과 힘을 헤아리지 않고 천명을 가볍게 여기나 보구려. 심사숙고하기를! 천명이 돌아가면 사람이 이를 뺏기는 어려운 일, 자고로 제왕은 이 천명을 얻은 후에야 흥할 수 있었소. 부디 하늘을 업신여기지 마시오.<sup>29)</sup>

노인 역시 한때 豫讓의 마음을 지니고 복수의 기회를 엿보았던[挾匕塗廁, 效豫讓之心] 인물이다. 그는 선유동의 인물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지만, 천운이 이미 오랑캐에게 넘어간 상황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선결 조건은 ‘天運(天命)’이며, 그것은 결코 人力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니, 하늘의 뜻을 업신여기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대목에서는 선유동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복수설치의 뜻을 품었던 노인의 입을 통해, 특별의 불가능성이 서술되고 있다. 이급 등은 더 이상 부인하지 못하고 조

27) 〈仙遊洞記〉, “其時, 吾輩十兒, 共爲作黨, 憤心滿腹, 奴[怒]氣塞胸, 然而年少稚兒, 何能爲之? 血淚濕襟, 無可奈何. 十兒共咋脂, 作誓血書于城石.”

28) 〈仙遊洞記〉, “(…)然天運所關, 奈何奈何?”

29) 〈仙遊洞記〉, “嗚呼, 諸公眞大丈夫之事也. 滿腸丹忠, 至死不易, 欲爲國家雪恥, 勞苦於萬里之外, 豈不美哉, 豈(不)羨哉! 不勝羞愧耳. 雖然, 天運旺於金胡, 爲之奈何? 古人云, ‘先得天運, 次得地理, 又得人心, 然後將成大事.’ 此非虛言也. 諸君年少男子, 雖有奇術, 不以度德量力, 輕忽天命耶? 深思深思焉! 天命所歸, 人能難奪, 自古帝王之興亡, 得天命然後有所歸焉, 幸勿以謾天也.”

선으로 발길을 돌린다. 망국의 대부와 남병산의 노인은 공통적으로 ‘天運(天命)’을 언급하면서 북벌 담론의 불가성을 피력한다. 이러한 발언은 어설픈 전제 조건에서 배태된 북벌 담론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초부터 북벌은 실행방안에 있어 군신 간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는 북벌 주도세력의 정세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던 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30)</sup> 1654년(孝宗 5), 閔鼎重(1628-1692)은 宋浚吉(1606-1672)에게 보낸 편지에서 군대 조발 요구를 위한 淸使 韓巨源의 파견을 청나라의 위세가 기울기 시작한 조짐으로 판단했다.<sup>31)</sup> 그러나 명나라가 국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반드시 조선에게 북중의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sup>32)</sup> 조발 요구를 핑계 삼아 정벌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3)</sup> 하지만 민정중이 편지의 끝에, 한거원의 파견이 나선정벌을 위한 조총병의 파견이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직접 밝히고 있는바<sup>34)</sup>, 청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판단은 희망사항에 불과했다. 훗날 조선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발언에 전제된 명나라의 부흥 역시, 정밀한 판단에 의한 예측이라 보기는 힘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른 뒤, 조선의 사족들은 북수설치가 불가능해진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sup>35)</sup> 민정중과 같은 류의 인식은 여전히 공유되고 있었다.<sup>36)</sup> 그들은 수시로 ‘오랑캐 10년가는 운수는 없다’는<sup>37)</sup> 말을 되뇌며 時運에 기대어, 소극적이거나 청나라의 종식과 명나라의 부흥을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시운’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인과관계를 期必한다는 점에서, 선유동의 인물들과 조우한 중원의 인물들이 제시했던 ‘天運(天命)’과 어의 상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는 중요하다. 북벌 주도세력들은 효종이 말한바 ‘오랑캐가 중원의 문물을 배우면 저절로 쇠약해진다’<sup>38)</sup>는 명제를 떠받들며, 청나라의 국운이 쇠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어설픈 북벌의 전

30) 북벌 주도세력의 정세 판단능력에 대해서는 ‘줄고, 앞의 논문, 80-81면’ 참고.

31) 閔鼎重, 〈上同春宋先生(浚吉○甲午)〉, 《老峯集》: 『韓國文集叢刊』a129, 124면. “我國之阻絕中朝, 已過一紀, 固不知天下之勢果如何也. 然自數年以來, 月犯昴宿者三矣, 夷虜自相戕殺者再矣, 傳言天兵已復山西者三矣. 虜人之疲殘凋零, 歲異而月不同者, 又往來使臣之所目見而口談也. 仰觀天象, 既如彼, 俯察形勢, 又如彼. 矧乎中國有必伸之理, 夷狄無百年之命, 則亡胡復漢之運, 其不在斯歟? 其不在斯歟, 由是觀之, 今日北差之蒼黃急迫者, 安知夫父老之牛酒已迎於西郊, 而僞賊奪魄, 復思北遁之計哉?”

32) 閔鼎重, 같은 곳. “嗚呼! 我國之屈於夷虜, 既非本心, 而我國之所畏而不敢動者, 只是此虜在耳, 今此虜之勢已蹙, 則無復可畏矣. 何乃助兵犯順, 要禍求害, 昧義理之正, 喪厥初之心哉? 一朝天兵盡殲醜類, 驅其餘孽, 直臨我境, 遣一行人, 奉咫尺書, 悉問前後之罪, 欲責我國君臣, 則未知朝廷上下其將拒天子之命乎? 順天子之命乎? 拒命則陷大辟, 順命則無以爲吾君地. 思之及此, 心膽墜地. 當此之時, 爲臣子者, 雖千百其身, 亦將何補於忠孝哉?”

33) 閔鼎重, 같은 곳. “爲今日計, 速宜因其請兵之端, 廣選精銳之卒, 特遣信將, 鎮乎遼東舊境, 大發國內之民, 守諸灣上, 以張聲勢, 急送一价, 奉表天朝, 以暴本心, 以請軍期, 前後挾擊, 斬首擒生, 則虜人之命, 當在吾手中矣.”

34) 閔鼎重, 위의 책, 같은 곳. “昨日作得此書, 今聞虜人請兵, 專爲協攻寧古叛種云, 與愚者所料相左矣. 然虜情巨測, 不可推知, 而寧古乃吾關北相接處, 部落最盛, 識者虜之久矣. 實恐國家之禍反速, 而向日嶺東關北三尺赤雪尤可慮也. 此書仍付呈, 欲望諸丈理會及此. 覽後裂去勿留.”

35) 《肅宗實錄》 30년(1704) 1월 10일(1).

36) 강명관, 앞의 책, 409면. “李夏坤(1677-1724)은 1723년(景宗 3) 徐命均(1680-1745)이 進賀使의 副使로 북경에 파견될 때 기념으로 써준 글에서 청나라가 오래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한 뒤, 청나라가 망한다 하더라도 몽고가 중국을 차지하면 조선을 침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漢族이 대륙을 지배하게 되면 반드시 조선이 명나라를 배신한 죄를 물을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두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대개 민정중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 허태용, 앞의 책, 115면. “崔奎瑞(1642-1704) 1695년(肅宗 21)에 연행하는 洪受疇(1642-1704)에게 天運의 변화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사정을 잘 살피라고 부탁하였던 것은 사실 이런 기대의 표출이었던 셈이고, 1706년(肅宗 32) 李箕洪(1641-1708)이 재발굴된 명나라의 대통력을 감회어린 심정으로 대하면서 ‘白首眞人’의 출현을 포기하지 못한 것도, 비록 회고적 감상이지만 변화된 상황에서조차 기존 관념을 포기할 수 없는 곤혹스러움의 또 다른 소극적 표현이었던 셈이다.”

37) 《漢書》 94, 〈列傳〉 64, 〈匈奴傳〉, “至孝宣之世, 承武帝奮擊之威, 直匈奴百年之運, 因其壞亂幾亡之厄, 權時施宜, 覆以德威, 然後單于稽首臣服, 遣子入侍, 三世稱藩, 賓於漢庭.”

38) 宋時烈, 〈惺對說話〉,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16, 138면. “上因喟然曰: “今日之所欲言者, 當今大事也. 彼

제 조건으로 내세울 뿐이었다.

빈약한 근거에서 출발한 북벌 담론은 명확한 실천적 방향성을 가질 수 없었다.<sup>39)</sup> 효종은 송시열과의 독대에서 정예병을 길러 기습하는 전략을 내세워 북벌의 가능성을 타진했지만,<sup>40)</sup> 돌아온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송시열은 오히려 국가가 처할 위기를 거론하며 효종을 압박하기까지 했다.<sup>41)</sup> 송시열이 생각하는 북벌이란<sup>42)</sup> 臥薪嘗膽의 의지를 굳게 하되, 조공을 바치고 말을 공손하게 하는 등 굴욕적 事大를 인내하며 청나라의 盛衰를 살피자는 것<sup>43)</sup>이었다. 그것은 오로지 현실을 감내하고 힘을 기르며, 대명리의리 수호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일 따름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송시열이 숙종 6년(1860) 庚申換局으로 정계에 복귀하면서 더욱 강력한 근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삼가 생각건대 天叙·天秩은 君臣과 父子가 가장 큰 것으로 이것이 이른바 天經이요, 地義요, 民彝인 것입니다. 예로부터 제왕이 몸을 바르게 하고 집을 다스린 것도 이것을 확립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진실로 이것을 버린다면 인류가 禽獸가 되고 중국이 오랑캐가 되고 말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箕子朝鮮 때부터 이미 예의 나라로 일컬어 왔으므로, 高麗에 이르러서도 오랑캐인 元의 풍속에 다 변화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sup>44)</sup>

이 주치의 논리는 주희의 북벌론에서 추출한 것이다. 주희가 살았던 南宋은 ‘靖康의 變을 겪은 이후, 금나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주희는 君臣과 父子 간의 忠孝 윤리를 가져와, 복수의 당위성을 보편 윤리로 확장시킴으로써<sup>45)</sup> 主戰論을 반박 불가능한 담론으로 위치 지으려 했다. 문제는 송시열이 주희의 화이관만 선택적으로 수용했다는 데에 있다. 송시열 역시 ‘天叙’와 ‘天秩’이라는 보편 윤리를 동원했지만,

---

虜有必亡之勢. 前汗時兄弟甚蕃, 今則漸漸消耗, 前汗時人才甚多, 今則皆是庸惡者, 前汗時專尚武事, 今則武事漸廢, 頗效中國之事. 此正卿前日所誦朱子謂虜得中原人, 教以中國制度, 虜漸衰微者也.”

39) 黃景源이 金亮行에게 보낸 편지에서, 효종이 민정중과 이완 등 측근의 인물들과 북벌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음을 들어 북벌의 실패를 회고하는 장면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黃景源, 〈與金參議書〉, 《江漢集》:『韓國文集叢刊』a224, 134면. “然謀臣畫策各殊, 有欲從鳳皇山而入遼東者, 文忠公閱鼎重議也; 有欲從置礮島而入山東者, 貞翼公李浣議也. 鼎重之議曰: “奴兒所置甲軍於瀋陽, 不過千人, 於寧遠不過四十人. 若率萬兵擣關外, 則遼廣斷可定矣.” 浣之議曰: “選十萬卒, 十年教養, 由大海西襲登州, 則功可十八九成矣. 請爲王率師前驅.” 故孝廟之所以汲汲治兵者有年矣, 惜乎! 大計未之成也!”

40) 宋時烈, 앞의 책, 같은 곳. “群臣皆欲予勿治兵事, 而予固不聽者. 天時人事, 不知何日是好機會來時. 故欲養精砲土萬, 愛恤如子, 皆爲敢死之卒, 然後俟其有變, 出其不意, 直抵關外. 則中原義士豪傑, 豈無響應者? 蓋直抵關外, 有不甚難者. 虜不事武備, 遼瀋千里, 了無操弓騎馬者, 似當如入無人之境矣. 且以天意揣之, 我國歲幣, 虜皆置之遼瀋, 天意似欲使還爲我用. 而我國被虜人, 不知其幾萬, 亦豈無內應者耶? 今日事, 惟患其不爲而已, 不患其難成.”

41) 宋時烈, 같은 곳. “聖意如此, 非但我東, 實天下萬世之幸. 然諸葛亮尙不能有成, 乃曰: ‘難平者事.’ 萬一蹉跌, 有覆亡之禍則奈何?”

42) 송시열이 제기한 북벌론과 그 파급력에 대해서는 ‘줄고, 앞의 논문, 25-27면’ 참고.

43) 宋時烈, 〈己丑封事〉, 《宋子大全》:『韓國文集叢刊』a108, 187면. “然於今日, 不量時勢, 輕絕強虜, 讎惡未報而禍敗先至, 則亦非先王忍恥屈己, 以延宗祀之本意也. 伏願殿下, 堅定於心曰: ‘此虜者君父之大讎, 矢不忍共戴一天.’ 蓄憾積怨, 忍痛含冤, 卑辭之中, 忿怒愈蘊, 金幣之中, 薪膽愈切, 樞機之密, 鬼神莫窺, 志氣之堅, 賁, 育莫奪. 期以五年七年, 以至於十年二十年而不解, 視吾力之強弱, 觀彼勢之盛衰, 則縱未能提戈問罪, 掃清中原, 以報我神宗皇帝罔極之恩, 猶或有閉關絕約, 正名明理, 以守吾義之便矣. 假使成敗利鈍, 不可逆睹, 然吾於君臣父子之間, 既已無憾, 則其賢於屈辱而苟存, 不亦遠乎?”

44) 宋時烈, 〈進修堂奏劄〉, 《宋子大全》:『韓國文集叢刊』a108, 391면. “伏以天敘天秩, 惟君臣父子爲大, 是所謂天之經地之義民之彝者也. 自古帝王所以正己齊家者在此, 所以持綱挈維者在此. 苟或捨此, 則人類入於禽獸, 中國淪於夷狄, 可不懼哉? 惟我東方, 自箕子以來, 已爲禮義之邦, 而至於勝國, 胡風猶未盡變矣.”

45) 朱熹 著·朱杰人 外編, 『朱子全書』24, 上海古籍出版社, 2002, 3618면. “君臣父子之大倫, 天之經, 地之義, 而所謂民彝也. 故臣之於君, 子之於父, 生則敬養之, 沒則哀送之. 所以致其忠孝之誠者, 無所不用其極, 而非虛加之也, 以爲不如是, 則無以盡乎吾心云爾. 然則其有君父不幸, 而罹於橫逆之故, 則夫爲臣子者, 所以痛憤怨疾, 而求爲之必報其讎者, 其志豈有窮哉!”



실질적으로는 주전론의 입장에 선 주희의 북벌론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희의 논리를 차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송시열의 주장은 반박 불가능한 담론이 되었다.

少論 계열의 林泳(1649-1696)이 청나라를 사대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함을 주장했지만,<sup>46)</sup> 노론의 적통을 자처한 韓元震(1682-1751)은 孟子가 華夷의 극명한 차이를 변론했음을 들어 극력 비판했다.<sup>47)</sup> 또 한원진은 少論 계열의 남구만과 조태억이 ‘虜’가 아닌 ‘淸國’, ‘皇帝’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점을 극단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sup>48)</sup> 이러한 상황은 송시열이 제시한 북벌 담론에서 파생되어 나온 강고한 화이관은 상대 정파를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준다.

망국의 대부와 남병산의 노인이 운운한 ‘天運(天命)’ 역시 보편 윤리로서, 송시열이 제기한 ‘天叙’와 ‘天秩’과 같은 층위에서 발화된 것이다. 그러나 ‘天叙’와 ‘天秩’은 어떠한 실제적 근거도 없는 발언인 반면, 〈선유동기〉에서 제기된 북벌 불가론은 과거 복수설치의 뜻을 품었던 ‘현지의 인물들이 내린 판단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선유동기〉는 객관적 근거를 내장한 북벌 불가론을 통해, 막연한 기대감으로부터 시작되어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한 북벌 담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두 차례의 전란과 굴욕적인 항복의 기억에서 배태된 청나라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일방적인 무시와 폄하로 연결되었다. 청나라의 다채로운 문물을 관찰하고 배우려 했던<sup>49)</sup> 朴齊家(1750-1805)의 여행 기록이, 오히려 조선에 알려져 봤자 화만 돋우는 단서가 될 것이라 여겼던 연암의 인식은 당시의 상황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중국을 오랑캐가 점유한 땅이라며 최악시했던 분위기는 청나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개심의 발로였고, 그것은 강고한 화이관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하지만 호란 이후 5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두 나라 사이의 긴장 관계는 청나라의 국가 기반이 안정을 찾음에 따라 완화되어 갔다. 18세기의 활발한 연행을 통해 그 실체를 마주한 조선의 사족들은 견문과 감상을 연행록에 담아냈다. 그들이 목도한 청나라는 완비된 문물제도를 바탕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왕조였으며, 머지않아 멸망할 것이라던 오랑캐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 이런 분위기는 18세기 중엽 북학파의 연쇄적 연행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醫山問答〉에서 華夷의 구분을 부정한 담헌과 《熱河日記》 곳곳에서 명분에 불과한 대명의리에 신랄한 비판을 가했던 연암의 반응이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마침내 정치적으로 변질된 북벌 담론에 대한 회의와 반성이 표출되었던 것이다.

〈선유동기〉는 이러한 인식변화의 추이를 고스란히 옮겨 온다. 선유동의 인물들은 북벌 불가론에 대한 이야기를 두 차례 듣고 조선으로 발길을 돌린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 이들은 다시 중원으로 들어간다. 차마 꺾지 못했던 복수에 대한 의지와 이제는 시운이 옮겨오지 않았을까하는 막연한 기대

46) 林泳, 〈讀書筭錄-孟子〉, 《滄溪集》: 『韓國文集叢刊』a159, 492면. “然則今日之義, 惟當以文王治岐爲準的, 修德行仁, 自家及國, 大得民心, 維新舊命, 則小國七年, 大國五年, 必爲政於天下矣. 若不務此, 而坐談大義則空言而已. 若不法此, 而只求小康則亦苟而已, 皆非聖賢隨時之大用也, 此又一義也.”

47) 韓元震, 〈雜識-外篇〉下, 《南塘集》: 『韓國文集叢刊』a202, 321면. “孟子之時, 周之天命已去. 當時中國之君, 有能行王者, 皆可以王矣, 此孟子所以見齊梁之君而勸行王道也. 至於夷狄, 則華夷之分自截, 又與中國之僭王不同. 其不可行於中國, 本不係於中國, 天命之改不改也. 故孟子以兼夷狄, 并之於驅猛獸抑洪水, 而又痛斥陳相之變於夷, 則孟子雖見齊梁之君, 亦豈肯見夷狄之君長而勸行王道乎? 太王文王之事狄, 亦只以皮幣珠玉賂遺之, 以弭其侵凌之患, 豈稱臣奉貢, 如後世之爲哉! 且使獯鬻昆夷吞滅諸夏, 廢逐天子而自帝之, 則大王文王又豈肯事之而不攘斥乎? 此等議論, 直是毀冠裂冕也, 而經學自名者, 乃言之以爲當然, 爲流俗倡而漸染氣習. 義理日晦, 豈吾東將復淪於夷狄而然耶?”

48) 韓元震, 같은 곳. “南九萬文集, 其稱虜人, 必曰淸國曰皇帝, 不忍斥言以虜. 壬寅康熙之死, 趙奉億輩爲虜主成服, 取用公府錢財, 書其簿曰: ‘康熙皇帝成服時用下, 乙巳臺官論啓, 上以語逼君上寢其事. 朱子未嘗稱虜爲金國, 其稱金則必曰金虜, 又未嘗加以皇帝之稱, 尤翁與俞市南書, 論秉筆事曰: ‘改作淸人處尤未安, 大行王必稱虜, 未嘗稱淸, 今乃如此, 有所不敢, 亦有所不忍. 大行即孝廟也. 九萬輩非不知此而必如彼者, 蓋不以朱子之訓聖祖之事, 爲必可法也. 小人之無忌憚, 此亦可見矣. 朱子獨於朱奉使行狀, 言充大金軍前通問使, 此因奉使官銜而書之, 非自稱也.’”

49) 朴齊家 著-안대희 譯, 『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32면. “自農蚕畜牧城郭宮室舟車, 以至瓦簞筆尺之制, 莫不目數而心較. 目有所未至, 則必問焉, 心有所未諳, 則必學焉.”

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리라. 허나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10년 전의 상황과 차이가 없었다.<sup>50)</sup>

우리 열 사람은 비록 布衣寒士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항상 왕실에 두고 한 조각 붉은 마음 죽어도 변치 않을 것이나, 時運이 이러하니 영웅의 힘을 쓸 데가 없게 되었구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sup>51)</sup>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변함없는 현실 앞에, 선유동의 인물들은 時運을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복수설치에 대한 뜻은 죽어도 변함이 없지만, 人力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시운 앞에 무기력해진 신세가 한심하다며 자탄한다. 북벌의 불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기에, 저들이 오랑캐라는 이유만으로 체제의 안정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던 막연한 희망은 이제 유효할 수 없었다. 그런 그들이 이후원에게 건넨 마지막 말은 이런 상황을 다시금 각인시켜주는 충고였다.

왜 공연히 三公의 자리에 올라 아무 때나 전하에게 북벌의 의지를 부추기고 있는가? 그래서 중원의 흰모래 시장에서 장정들이 다치게 하고, 神州의 구렁에다 곡식을 허비하던 말인가? 부질없이 천기를 누설할 뿐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를 중국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生民들의 큰 화를 야기하려 하는가? 바라건대 상공께서는 관직을 버리고 성상께 간곡히 간언하여 이 북벌의 뜻을 그치게 한다면 천만다행이겠소!<sup>52)</sup>

선유동의 인물들은 ‘三公’으로 표상된 북벌 주도세력들이, 막대한 희생은 뒷전인 채, 임금의 측근에서 오직 ‘명분’만을 내세워 북벌의 뜻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비판한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예견하는 한편, 청나라와 등을 지기라도 한다면, 그 화는 오롯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라며 북벌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무리한 도발로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은, 언뜻 굴욕적인 事大를 인내하자는 송시열의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지향점은 달랐다. 송시열의 주장은 대명 의리의 수호라는 ‘명분론’으로 귀결되는 반면, 선유동 인물들은 국가와 백성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무렵 북벌 주도세력을 향한 회의적 인식은 한문단편에 누차 드러난다.<sup>53)</sup> 북벌을 표상하는 인물인 효종과 송시열을 향한 비판이 다양한 한문단편집에서 반복적으로 취재되었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한편 〈선유동기〉에서와 같이 북벌 주도층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을 가한 작품도 있다. 〈抱川異聞〉에 그러한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 주목해 볼 만하다. 河崙은 북벌의 成敗[吉凶]에 대한 陽坡 鄭太和의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하륜이 말하였다.

“그 길흉은 분명해서 알기 쉬우니 물어볼 것도 없소. 그런데 조정의 여러분들이 대의를 굳게 지키고 城을 등지고 한 번 싸워 강역에서 죽음을 맞으면 멸망해도 명성이 있을 것이고, 단절되더라도 영예가 있을 것이오. 나는 응당 찬양해 마지 않거니와 만약 온갖 어려움을 겪고 세워진 나라의 기틀을 淸議의 재료로 삼고자 하고 尊周大義를 자기 일신을 진출하는 계단으로 삼으면서, 내심으로는 오랑캐들을 두려워하고 밖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흠치려 한즉 나는 그 정당함을 알지 못하겠소!”<sup>54)</sup>

50) 〈仙遊洞記〉. “至于二十五歲, 十人又入中國望氣, 則又如前日, 故涕天歎歸.”

51) 〈仙遊洞記〉. “此十人, 雖是布衣寒士, 自少至老, 心存王室, 一片丹忠, 至死不易, 時運如此, 英雄無用武地, 豈不寒心哉!”

52) 〈仙遊洞記〉. “何空就三台之位, 使時君興起北伐之志? 一以爲傷民丁於中國白沙之場, 一以爲費糧穀於神州溝壑之境, 空泄天氣. 又與中國構怨於東國, 以爲生民之大禍耶? 願相公棄官就位, 極諫聖上, 以止北伐之志, 幸甚幸甚!”

53) 정환국, 앞의 논문, 58면.

하륜의 발언은 表裏不同한 조선의 사족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그는 지금의 북벌이, 고상한 논의를 통해 일신을 발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들은 겉으로 북벌의 구호를 내걸지만, 이것은 내심 청나라를 두려워하며 아름다운 이름만 흠치려 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선유동기〉와 〈포천이문〉에서 비판한 북벌에 대한 사족들의 이중적 태도는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술했듯, 북벌의 불가능함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청나라를 적대시했던 강고한 화이관은 사족들의 뇌리에서 쉽사리 지워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연암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우리 조선 선비들은 세계 한 모퉁이의 구석진 땅에서 편협한 기풍을 지니고 살고 있다. 발로는 모든 것을 가진 중국 대지를 한번 밟아 보지도 못했고, 눈으로는 중국 사람을 한번 보지도 못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까지 조선 강토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긴 다리의 학과 검은 깃의 까마귀가 제각기 자기 天分을 지키며 사는 격이며, 우물 안 개구리와 작은 나뭇가지 위 뱀새가 제가 사는 곳이 제일인 양 으스스하며 사는 꼴이다. 그런 탓에 예법이란 세련되기보다는 차라리 소박한 편이 좋다고 생각하고, 초라한 생활을 두고 검소하다고 잘못 알고 있다. 이른바 네 부류의 백성도 겨우 이름만 남아 있을 뿐이요, 이용과 후생에 필요한 도구에 이르면 날이 갈수록 곤궁한 지경에 처해 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학문을 줄 모르는 잘못에 있다.<sup>55)</sup>

좁고 치우친 위치만큼이나 편협한 기풍을 가지고 조선의 사족들은 자신이 서 있는 땅에 대한 자부심을 고수한다. 그들은 조선의 바깥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살아간다.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구차함을 소박하고 검소한 것이라 여긴다. 그 결과 四民의 구분은 有名無實해졌고, 이른바 ‘利用’과 ‘厚生’이라는 더 나은 학문을 향한 눈과 귀를 닫은 결과, 곤궁한 일상에 직면해야 했던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다.

요컨대, 청나라를 오랑캐에 의해 오염된 공간, 즉 夷狄化한 공간으로 상정하는 도착적 사고는 폐쇄적 중국 담론의 생성으로 이어졌고, 이는 오래전부터 대륙과 호흡해오던 조선에 예외적 쇠국기를 불러왔으며, 문화폐색의 상황에 이르게 했다.<sup>56)</sup>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소위 북학파라 불리는 일군의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되었고, 특히 박제가는 ‘그들의 풍속 가운데 본국에서 시행하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발견하는 대로 글을 기록하며’<sup>57)</sup> 《북학의》에 자기의 생각을 담아내었다.

선유동 인물들의 마지막 주장은 북벌의 중단을 촉구하는 것임과 동시에, 위정자들이 북벌에 쏟은 열의를 生民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8)</sup> 그리고 마지막 발언에 앞서 선유동의 인물들이 이후원에게 참된 재상의 직업에 대해 언급하였듯,<sup>59)</sup> 이 말은 곧,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나라의 盛世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도, 丹忠의 마음만은 잊지

54) 李玄綺, 〈抱川異聞〉, 《綺里叢話》, “河公曰: “吉凶昭然易知, 不必動問. 然朝端諸公, 欲堅守大節, 背城一戰, 死於封疆, 則亡亦有名, 絕亦有榮. 吾當仰贊之不暇. 而若欲而艱難基業, 爲清議之資, 尊夏大義, 爲進身之階, 內實畏虜, 外沽美名, 則未見其可也.””(임형택譯, 「《綺里叢話》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화사연구』11, 민족문화사연구소, 1997. 에서 인용)

55) 朴齊家 著·안대회 譯, 앞의 책, 31~32면. “吾東之士, 得偏氣於一隅之士. 足不蹈函夏之地, 目未見中州之人, 生老病死, 不離疆域. 則鶴長烏黑, 各守其天, 蛙井蚶田, 獨信其地. 謂禮寧野, 認陋爲儉. 所謂四民, 僅存名目, 而至於利用厚生之具, 日趨困窮. 此無他, 不知學問之過也.”

56) 姜명관, 앞의 책, 305면.

57) 朴齊家 著·안대회 譯, 위의 책, 27면. “輒隨其俗之可以行於本國, 便於日用者, 筆之於書.”

58) 정환국, 앞의 논문, 54면.

59) 〈仙遊洞記〉. “今上公爲國柱石, 上以承宗廟, 下以安北民, 出入禁圍, 補過拾遺, 使主上祐爲堯舜之君, 康衢煙月作太平之治, 眞宰相之事耳.”

않고자 했던 이들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더욱 호소력을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선유동에서 돌아온 이후원은 그간의 일을 보고한다. 이에 효종은 긴 탄식을 그치지 않으면서도 북벌의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다. 선유동의 인물들을 수소문해보지만, ‘허생’이 그러했듯, 그들은 모두 흔적을 감춘 뒤였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북벌 담론에 대한 〈선유동기〉의 비판은 단순히 그 불가능성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애초부터 부실한 근거에서 출발한 북벌 담론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나아가 그런 담론을 주장한 사족들이 보인 이중적 태도에 날 선 비판을 보여준다. 이것은 「허생고사」를 차용한 작품들이 사족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그 진정성을 묻는 방식으로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의 시각을 드러내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선유동기〉에서는 조선 후기를 지배했던 북벌 담론의 부실한 출발점으로부터 조선이 예외적 쇠국기에 봉착하는 도착점에 이르는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고 있었다.

#### 4. 맺음말을 대신하여

〈선유동기〉는 「허생고사」를 모체로 하면서, 소설적 기법을 가미한 작품이다. 이러한 전변 양상을 거치며, 서사가 일관되지 못하고 문맥이나 표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노출되는 등 문학작품으로서의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sup>60)</sup> 이뿐만 아니라, 내외의 표제를 모두 〈仙遊記洞〉으로 잘못 표기한 점, 작품의 곳곳에서 조악하게 내용을 수정하고 있는 점, 권두와 권말에 작품과 무관한 낙서들이 지면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점 또한 〈선유동기〉라는 텍스트에 긍정적 가치를 선뜻 부여할 수 없게 하는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면적 ‘불완전성’이 단지 부정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문단편이라는 장르적 특수성을 생각해본다면, 이 이야기는 거듭 人口에 膾炙되는 과정에서 폭넓은 공감을 얻었을 것이고, 마침내 기록으로 남겨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겉모습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친 〈선유동기〉의 이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선유동기〉의 비판적 시각은 동일한 유형의 비판의식을 보여주는 어떤 작품보다도 날카롭다. 반박 불가능한 정론으로 기능했던 북벌 담론을 근거에서부터 비판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족들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는 장면이 그러하다. 이 작품의 창작 연대는 이미 추론된 바<sup>61)</sup>, 18세기 중반이다. 앞서 지적했듯, 이 무렵 한문단편 속 북벌에 대한 비판의 조짐은 여러 차례 감지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존주대의라는 가치를 기본값으로 지녔던 조선의 지식인들과 송시열로부터 시작되는 노론 계열의 지식인들에게서도 드러나고 있었다.<sup>62)</sup>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선유동기〉는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을 최대치로 끌어 올린다. 비판의 강도는 강력해지고, 확신의 범위는 지식인계층을 넘어 사회 저층까지 더욱 넓혀진 것이다. 껍 다사다난했던 이력을 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선유동기〉는 이 작품은 한문단편과 한문소설에서 동원 가능한 장치들을 실험적으로 구사한 산물인 한편, 당시의 사회에 광범위하게 침투하기 시작한 북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가장 깊숙한 단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0) 정환국, 앞의 논문, 48면.

61) 정환국, 같은 논문, 46면.

62) 줄고, 앞의 논문, 74면.

## 참고문헌

《漢書》

《顯宗實錄》

《肅宗實錄》

未詳, 〈仙遊洞記〉

閔鼎重, 《老峯集》: 『韓國文集叢刊』a129.

朴趾源, 《燕巖集》: 『韓國文集叢刊』a252.

宋時烈, 《宋子大全》: 『韓國文集叢刊』a108; a116.

林泳, 《滄溪集》: 『韓國文集叢刊』a159.

趙憲, 《重峰集》: 『韓國文集叢刊』a054.

韓元震, 《南塘集》: 『韓國文集叢刊』a202.

黃景源, 《江漢集》: 『韓國文集叢刊』a225.

강명관, 『허생의 섬, 연암의 아나키즘』, 휴머니스트, 2017.

南夏正 著·원재린 譯, 『桐巢漫錄』, 혜안, 2017.

朴齊家 著·안대회 譯, 『완역 정본 북학의』, 돌베개, 2013.

朱熹 著·朱杰人 外編, 『朱子全書』24, 上海古籍出版社, 2002.

이강석, 「복벌 담론의 전개양상과 문학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 부산대 석사 논문, 2019.

송기중, 「17-18세기 전반 水軍役制의 운영과 변화 - 《兩南水軍變通節目》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76, 대동문화연구원, 2011.

우인수, 「목재 흥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 『한국사상사학』43, 한국사상사학회, 2013.

원재린, 「조선후기 남인 당론서 편찬의 제 특징 - 《桐巢漫錄》과 《朝野信筆》을 중심으로 -」, 『한국사상사학』53, 한국사상사학회, 2016.

임형택 譯, 「《綺里叢話》 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화사연구』11, 민족문화사연구소, 1997.

정환국, 「허생고사와 북벌인식의 추이-자료 〈선유동기〉를 통해서」, 『한국어문학연구』47, 한국어문학회, 2006.

황인덕, 「임란기 전승업과 師友들의 피난지 모색활동과 학연성」, 『인문학연구』104,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6.

## 「<仙遊洞記>에 대한 연구」 토론문

김소연(경북대)

「<仙遊洞記>에 대한 연구」는 <선유동기>라는 작품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당대의 북벌 담론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여 북벌이라는 주요 담론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북벌과 관련하여 <선유동기>라는 작품이 지니는 의의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유동기>의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 논문은 <선유동기>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며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 1.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과 <선유동기>의 시운론

선유동의 인물들은 중국을 답사하고 명나라 조신이었던 대부를 만난 후, 북벌이 불가한 이유로 시운론을 들며 백성들을 쓸데없이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대명의리만을 강조하고 정치적으로 변질된 북벌 담론 속에서, 위정자들에게 민생이 우선임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선유동기>는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행을 통해 청나라의 문물을 체험하고 청나라의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며, 이를 기반으로 화이론을 비판했던 북학파와는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박지원의 <허생전>에서는 허생을 통해 사대부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조목조목 꾸짖고 비판하여 위정자들의 무능함을 꼬집으면서 북벌 담론을 비판합니다.

이와 달리 <선유동기>에서는 단순히 시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북벌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당대 위정자의 무능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허생전> 등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시운만으로 북벌의 불가함을 주장한 <선유동기>의 경우 북벌 담론을 비판하는 강도나 날카로움이 과연 강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 의식이 추상적이고 막연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2. 선유동에 은거하는 인물들의 인물 설정에 대하여

2장에서 발표자는 <선유동기>의 인물 설정과 공간에 대해 다루며, 인물의 경우 이후원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이후원과 함께 허양을 비롯한 선유동에 은거하는 인물들의 인물 설정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유동기> 후반부는 이후원이 김창석을 따라 선유동으로 들어가, 선유동에서 은거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선유동에 은거하는 인물들은 북벌을 위해 중국을 직접 답사하기

도 하고, 이후원에게 북벌이 불가함을 설파합니다. 북벌의 불가함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선유동에 은거하는 인물들은 작품의 분량 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후반부는 허양을 비롯하여 선유동에 은거하는 인물들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유동에 은거하는 인물들의 인물 설정도 함께 분석한다면 <선유동기>의 인물 설정 논의가 좀 더 풍성해질 듯합니다.

한편, 발표문에서는 이후원이 송시열과 밀접한 인물로서 당대 북벌 담론의 정치적 변질을 반영한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물 설정에 있어서, 선유동에 은거하는 인물들의 경우 당대의 북벌 담론의 어떠한 면을 반영한 인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벌을 위해 직접 중국을 다녀왔고, 북벌의 불가함과 민생의 안정을 이후원에게 설파하면서도, 작품의 결말부에서 각자 시를 읊으며 북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선유동의 인물들은 북벌을 위해 직접적으로 노력했고, 북벌의 불가함을 몸소 체험했으면서도 북벌의 미완을 아쉬워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면모를 지닌 선유동의 인물 설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仙遊洞記>에 대한 연구」 토론문

박양리(창원대)

「<선유동기>에 대한 연구」는 ‘허생고사’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선유동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본 연구입니다. 연구자는 <선유동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공간의 설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설정이 북벌 담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불온한 사유를 염두에 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원과 선유동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이 작품이 북벌 담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당대 사족의 이중적 태도에 날 선 비판을 보여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소홀히 다루어졌던 <선유동기>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당대 북벌 담론의 다양한 층위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자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키고, 연구의 지평을 넓혀 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연구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허생고사는 18세기 중엽 세간에 널리 유포되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선유동기>가 여타의 허생고사와 변별되는 지점은 바로 ‘선유동’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뒷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 역시 허양(허생)에 의한 삼대책은 주된 비판장치가 아니며, 오히려 북벌의 계획과 준비에 직접 관여했던 이들의 발언이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이라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북벌에 대한 비판을 심도 있게 다루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지적하시고 후반부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후원과 선유동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살펴보면, 결국 <선유동기>에서 작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유동에서의 문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작품은 주인공의 설정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앞 부분에 허생고사를 배치하고 뒤에 핵심적인 선유동의 문답을 배치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망국의 대부와 남병산의 노인이 공통적으로 ‘천운’을 언급하면서 북벌 담론의 불가성을 피력, 이러한 발언은 어설뿐 전제 조건에서 배태된 북벌 담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작품 속에서 이들의 발화는 ‘현지의 인물’들이 내린 판단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에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한 북벌 담론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객관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후기 한문단편 속에서 북벌과 관련한 이야기들 가운데 이러한 ‘시운’ 혹은 ‘천명’으로 북벌이 껴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입니다. 병자호란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천명이었다거나, 북벌을 위한 인재를 모집하였지만 효종(혹은 이완)의 관상을 보고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었다고 귀인이 떠난다는 식의 설정은 운명론적 체념이라고도 읽힐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연구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조선후기에 편찬된 여러 야담집 속에는 북벌에 관한 회의적인 인식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이들 작품 속에서는 정태화 등의 실무자나 여항의 민간인 등 다양한 계층의 인물의 입을 통해 북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북벌 담론 역시 함께 살펴본다면 <선유동기>가 보여주는 비판적 인식과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획주제4】

壬辰戰爭을 묘사한 작품 속의 부산 실상-漢詩를 중심으로-

金康植(한국해양대)

<목 차>

1. 머리말
2. 부산진성의 묘사
3. 동래읍성의 묘사
4. 다대진성의 묘사
5. 기장읍성의 묘사
6. 맺음말

1. 머리말

한반도의 동남단에 위치한 부산은 倭寇의 출몰이 잦은 지역이었다. 조선 왕조의 건국 후 부산은 국방 要塞로서의 이미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sup>1)</sup> 임진전쟁은 부산 지역에서는 7년 동안 계속 이어짐으로써 많은 영향을 남긴 전쟁이었다.<sup>2)</sup> 부산은 우리나라의 關門으로서 임진전쟁의 발발과 함께 피할 수 없이 왜적의 첫 상륙지점이 되어 戰禍를 계속 당하였다. 그래서 임진전쟁에 있어 부산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자못 크다.

한국문학사에서 외적의 침략에 항거하는 투쟁을 표현한 시기는 세 차례였다고<sup>3)</sup> 한다. 고려말의 몽고 침입, 조선 중기의 임진전쟁, 근대 일본의 국권 침탈기이다. 사실 임진전쟁은 문학적으로 좋은 소재가 되었다.<sup>4)</sup> 그리고 임진전쟁 시기에 살았던 문인들은 근대문학으로 이행하기 위한 선행 작업의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라고<sup>5)</sup> 평가되기도 한다.

1) 김강식, 「조선전기 부산지역의 지방행정과 관방」 『항도부산』 21, 2005.  
2) 김석희, 「임진전쟁과 부산항전」 『항도부산』 9, 1992; 김강식, 「임진전쟁 전후 부산지역의 사회변화」 『항도부산』 22, 2006.  
3)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전쟁의 기억, 역사와 문학』 월인, 2005; 장경남, 『임진전쟁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소재영, 『壬丙兩亂과 文學意識』 한국연구원, 1980; 황패강,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일지사, 1992;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김태준 외, 『임진전쟁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4) 배주연, 「東岳 李安調(1571~1637)의 임진전쟁 체험 한시 연구」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2, 2006; 최재호, 「戰爭實記의 새로운 분류방법 모색 試論-壬亂 戰爭實記를 中心으로-」 『퇴계학과 유교문화』 46, 2010; 정우락, 「임진전쟁기 대구지역 한강학파의문학적 대응」 『퇴계학과 유교문화』 59, 2016; 김동석, 「敍事 작품 속에 形象化된 임진전쟁」 『東方漢文學』 60, 2014; 이동근, 「임진전쟁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20, 1995.

임진전쟁문학에서는 전쟁으로 초토화 된 실상이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전근대시기 전쟁의 경우 戰場의 사실적 형상화, 忠節의 표상과 현실에서의 갈등이 중요 주제이다. 임진전쟁문학에서 反戰意識만이 전쟁문학의 주된 경향이라고 한다면 조선시대의 고전문학 작품들은 전쟁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방어전쟁을 치러야 했던 한반도에서 전개된 전쟁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견해는 한국문학에서는 타당성을 상실한다고<sup>6)</sup> 한다.

이러한 임진전쟁문학은 다양하게 묘사되었는데, 형식적으로 크게 詩歌와 散文으로 나뉜다. 산문은 虛構敘事體와 非虛構敘事體로 나눌 수 있다. 시가는 民謠, 歌詞, 時調, 漢詩이며, 허구서사체는 說話,<sup>7)</sup> 夢遊錄, 小說이며,<sup>8)</sup> 비허구서사체는 傳, 實記이다.<sup>9)</sup> 이 가운데서도 시가는 전란으로 인한 충격을 抒情的으로 형상화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 속에는 민족과 민중의 고통을 절실하게 인식하여 묘사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도 임진전쟁에 대한 문학적인 정리가 시도된 적이 있었다.<sup>10)</sup> 임진전쟁 이후 전쟁의 참상과 상흔을 상기하며, 이민족의 침략에 대항하는 우리의 경계심을 각성하고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임진전쟁 후 부산 지역의 전쟁문학은 임진전쟁으로 야기된 적개심의 고조와 전쟁 체험, 刷邊使로 일본을 왕래한 이들이 부산 체류 등을 노래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의 모체가 된 동래는 1592년(선조 25)에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599년(선조 32)에 다시 府로 승격되었는데, 전란으로 인해 수령이 모두 武人으로 채워졌다.<sup>11)</sup> 그러다가 1604년(선조 37)에 洪遵이 부사로 보임된 이후에는 줄곧 文人이 수령이 되었고, 이들에 의해 題詠 시문이 많이 지어졌다. 동래부사를 역임하였거나 관찰사나 宣慰使 등으로 동래를 찾은 이들이 지은 제영 시문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sup>12)</sup> 이들 제영 시문은 朴師昌이 1740년(영조 16)에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 『동래부지』의 「題詠雜著」과 『釜鎭諸詠』에 수록되어 있다. 부산에서 임진전쟁 및 일본과 관련된 詩歌와 쌍벽을 이루는 것은 동래부사를 역임한 이들이 남긴 題詠 시문이다.

특히 李安訥(1571~1637)의 「萊山錄」은<sup>13)</sup> 전란 이전의 勝景과 名所들이 전란으로 사라진

5) 배주연, 위의 논문, 2006.

6) 이동근, 「임진전쟁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20, 1995.

7) 野談을 설화에 포함시켰다. 야담은 사실적인 내용과 비현실적인 내용을 敘事 작품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의 기록에 충실하기보다는 역사 사실에 근거를 두고 독자가 바라거나 희망하는 내용으로 각색이 되었다. 임진전쟁과 관련하여 떠도는 야담은 당시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조명하여 부각시키고 있다(김동석, 위의 논문, 2014).

8) 역사가 사실에 무게를 둔다면 문학은 진실을 중시한다. 역사가 사실을 기록한다면 문학은 사람을 기록한다. 전장의 기억은 기억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가 뒤얽힌 수행적 시간 속의 무수한 이야기로 살아 있고, 시간이 갈수록 망각과 결합한다. 문제는 그런 기억이 망각의 굴레에 구속되는 것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다 마코토는 일본이 저지른 침략 전쟁의 구체적인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일본인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엄중 경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에도 그 여파가 깊이 뻗쳐져 있음을 솔직하게 지적하고 있다(최영호, 「임진전쟁과 전쟁문학-오다 마코토, <소설 임진전쟁(民岩太閤記)을 중심으로>」 『경남문화연구』 33, 2012).

9) 실기는 종군기록, 전후기록, 피난기록, 피로일기, 사행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이동근, 「임진전쟁과 문학적 대응」 『관악어문연구』 20, 1995). 임진전쟁의 실기는 종군실기·피란실기·포로실기로 3분(이채연) 하기도 하고, 포로실기·종군실기·피란실기·호종실기로 4분(장경남) 하기도 한다.

10) 정경주, 「부산의 고전문학」 『항도부산』 13, 1996; 황병익, 「임란기 부산지역의 전란가사 의미 고찰」 『항도부산』 26, 2010.

11) 김강식, 「17·18세기 부산의 행정과 관방」 『항도부산』 11, 1993.

12) 대표적으로 동래부사를 지낸 尹暄(1605, 부임연도), 李春元(1607), 이안눌(1608), 李元鎭(1644) 등이 많은 제영 시문을 남겼다.

데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며,<sup>14)</sup> 또 李春元(1571~1634)의 「次萊州雜詠」은 1607년(선조 40)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재임 중에 지은 漢詩이다.<sup>15)</sup> 「次萊州雜詠」은 이춘원이 전란의 화가 아직 아물지 않은 때에 지은 것이어서 17수의 곳곳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드러나 있다. 한편 부산 지역에서 임진전쟁의 체험을 기록한 散文도 8편 가량 남아 있다. 부산은 임진전쟁 때에 일본군과 처음 맞서 싸운 곳이며, 동래읍성은 임진전쟁 전투의 현장이었다. 동래읍성에서 순절한 송상현과 동래읍성 주민을 기리기 위한 것이 宋公壇, 忠烈祠, 安樂書院 등을 세우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sup>16)</sup>

본고에서는 부산 지역의 임진전쟁문학 가운데서 漢詩를 중심으로 戰場의 사실적 형상화, 忠節의 표상과 현실에서의 갈등과 적국 일본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임진전쟁 때 주요 전투 현장이었던 장소를 주요 배경이 된 한시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보다 생생한 장면과 묘사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기적으로는 임진전쟁의 終戰에 가까운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부록하였다.

## 2. 부산진성의 묘사

임진전쟁 때 부산진성은 첫 전투가 있었던 현장이다. 부산진성은 경상도 해안에 설치된 水軍僉節制使의 진영인 부산포진, 다대포진, 가덕진, 미조항진 등 4개 진 가운데 경상도 제1의 해상관문으로서 일본군들이 조선 땅에 상륙할 때는 반드시 거쳐야 할 군사적 요충이었다.<sup>17)</sup> 때문에 적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다. 그런 참상은 일본 측의 기록에 ‘성중의 군대는 물론 부녀자, 어린 아이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모두 죽였다.’고<sup>18)</sup> 하였으며, 또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베어 죽였다.’고<sup>19)</sup> 하였다. 한편 조선 측의 기록으로는 정발의 幕賓으로 성에 있다 싸움에 임했던 李庭憲의 사적에 ‘滿營에 해골이 쌓였다.’고 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전사자를 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군은 상륙 당일로 부산포진을 점령함으로써 조선군의 해안 방어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 침략을 위한 海頭堡를 확보하였으며, 부산진성 일원을 병참 기지로 확보하여 7년 동안 계속 사용하였다.

먼저 이안눌의 「登釜山浦 西門樓上作」이다. 이 시에서 이안눌은 임진전쟁으로 비참하게

13) 『내산록』은 이안눌이 1607년(선조 40)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뒤 이임하여 서울로 되돌아갈 때까지의 노정과 견문을 276수의 시로 읊은 것이다. 이 가운데 217수가 부산에서 지어졌다. 「내산록」의 「入東萊府」, 「題東軒壁上」, 「題機張縣」 등에는 동래부와 주변 마을의 황폐한 모습과 전쟁의 참혹한 상흔이 잘 그려져 있다.

14) 시조시인 朴仁老는 1598년에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成允文의 막하에 있다가 부산 인근에서 일본군과 싸운 후 본영에 돌아가 전쟁에 이긴 기쁨을 노래한 「太平詞」, 1605년(선조 38)에 경상좌수영의 統舟使로 부임해서 왜적과 대적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144구로 된 「船上嘆」이라는 가사를 지었다.

15) 1605년(선조 38) 말부터 1607년 초까지 동래부사로 재임하였던 尹暄의 제영시에 이춘원이 차운한 것이다. 윤환의 문집인 『白沙集』에 「내주잡영」이란 명칭의 시는 없지만, 「차래주잡영」과 마찬가지로 「蓑山國」, 「太宗臺」 등의 제명으로 本集과 補遺에 17수의 제영시가 실려 있다. 『백사집』에 실려 있는 이들 시와 이춘원의 문집인 『九畹先生集』에 실려 있는 「차래주잡영」의 17수는 押韻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춘원의 「차래주잡영」은 현전하는 죽지사류 연작 한시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래주잡영」은 총 17수로 된 7언 절구로 되어 있으며, 연작 한시라고 하지만 동일한 운을 쓰고 있지는 않다.

16) 대표적으로 宋時烈的 「東萊南門碑記」와 「宋府使行狀」, 「宋府使神道碑銘」, 申欽의 「宋東萊傳」, 俞榮의 「祠宇改建記」, 權以鎭의 「畫記」 등이다.

17) 『經國大典』 兵典 外官職條.

18) 對馬島主 宗義智의 從軍僧 天荊의 『西征日記』에 나오는 기록이다.

19) 『吉野日記』에 기록되어 있다.

함락되었다가 이제 대일 전초기지가 된 부산진성의 문루에서 변방에서 국가에 대한 자세를 밝히고,<sup>20)</sup> 부산진성이 일본 땅을 제압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을 고래로 비유하고 이를 잡아서 왕에게 보이겠다는 충성심을 밝히고 있다.

畎畝常懷社稷憂	들판에서도 늘 社稷의 근심을 품고 있었는데
饗軍樓上倚清秋	맑은 가을날 饗軍樓 위에 기대서니
山連長白三千里	산은 長白에서 삼천리 뻗어 있고
城壓扶桑六十州	성은 일본 육십 州를 누르고 있구나
日月如流男子老	세월은 흐르는 물 같으니 사나이도 늙어가네
功名不立古人羞	功名을 세우지 못하니 옛사람에 부끄러워
揚帆直欲東飛渡	돛 올려 바로 동쪽으로 뛰어넘어
手戮穹鯨奏冕旒	손으로 큰 고래 잡아 주상께 바치고저

이안눌의 「釜山城上 望對馬島」는 그가 동래부사 재임할 때인 1608년 부산진성에 들러 海防을 생각하며 쓴 시이다. 이때 그가 지은 시 중에는 임진전쟁의 상흔과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시가 다수 있다.<sup>21)</sup> 전쟁이 끝나고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에 조선이 다시 일본과 화친하려 하자,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남방을 정복하여 복속시키고 싶으며, 왜적이 왕릉을 파헤친 극악무도한 일을 꺼집어 냈다. 그리고 對馬島가 원래 신라 땅이므로 이를 정벌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조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음은 春秋大義에 어긋난다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그는 對馬는 적의 咽喉로서 항상 군사적 경계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전쟁에 대한 복수의 의지를 표현하였다.

海中孤島賊咽喉	바다 가운데 외로운 섬 도적의 목구멍인데
本是鷄林舊屬州	본래 신라에 예속된 옛 고을이라네
忍與通和天共戴	차마 화해하여 하늘을 일 수 있겠는가
終須伐叛地全收	끝내 반란을 정벌하여 땅을 거두어 드리리
擒吳霸越平生計	오나라 잡고 월나라가 패자됨이 평생의 계획이니
舉郢燒陵百代讎	수도를 치고 왕릉을 태웠으니 영원한 원수로다
杖劍高城向東望	높은 성에서 검을 잡고 동쪽을 바라보니
世無人解讀春秋	세상에 春秋를 바로 읽은 이 없구나

다음으로 申濡의 「鎮東門」이다. 문인 신유가 자성대의 동문인 진동문을 본 감회를 읊은 칠언 절구의 한시이다. 그가 부산을 찾은 것은 1643년(인조 21) 통신사의 從事官으로 일본에 갈 때였다. 그는 부산에 머무른 동안 만세덕의 군대가 철수하고 잘 정비된 자성대에<sup>22)</sup> 올랐다. 자성대에 홀로 오르자, 옛날 일본에게 침략을 받았던 부산에 대한 생각이 끝없이 이어진다. 더구나 멀리 구름과 안개에 가려 흐릿하게 보이는 외딴 섬인 대마도를 바라보니, 오래 묵은 시름이 다시 살아났다. 아직도 그 아픈 기억이 남아 있는 이 전장의 뿔피리 소리에 평상시 처

20) 김강식, 「17·18세기 부산의 행정과 관방」 『항도부산』 11, 1993.

21) 『萊山錄』에는 宣慰使로 동래에 왔던 斗峯 李芝完과 주고받은 次韻詩가 40편 55수가 실려 있다.

22) 자성대는 지금은 정비되어 전쟁의 상흔을 확인할 수 없지만, 원래 부산진성에 딸린 子城이었다. 임진전쟁으로 일본군에 의해 침입을 받아 倭城이 되었다가(小西城, 毛利城), 명나라 군대의 주둔지로, 다시 조선의 부산진성으로 사용된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역사 현장이다.

럼 문은 닫히고, 바닷바람에 불려온 듯 밝은 달만 무심히 진동문 다락 위에 걸려 있다고 노래 하였다.

孤城獨倚思悠悠	외로운 성에 홀로 오르니 생각은 끝이 없고
絕島雲煙生遠愁	외딴 섬 구름과 안개 오랜 시름을 자아내네
殘角一聲門閉後	아직 남은 뿔피리 소리에 문 닫힌 뒤
海風吹月上高樓	바닷바람 달을 불어 높은 다락에 오르네

마지막으로 申達道の 「萬公壇」이다. 부산진성에 있었던 萬公壇은<sup>23)</sup> 명나라 萬歲德의 공적을 기리는 祭壇이었다.<sup>24)</sup> 만세덕은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군사를 거느린 장수로서, 왜적을 소탕한 이후 1599년(선조 32) 8월부터 1600년까지 子城臺에서 주둔하였다. 정유재란 때 신달도는 20대였다. 20대의 마음속에는 우리를 침범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에 오랑개와의 화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시에서 신달도는 명나라 황제의 은혜와 만세덕의 현명하고도 어진 태도를 칭송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대로 오랑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皇朝圖澤大如天	황제의 조정 은혜는 하늘만큼 커
壯士東征七八年	굳센 군사 동쪽 정벌 7~8년
海上遺墟壇尙屹	바닷가 옛 터 단은 아직 우뚝하니
至今人道萬公賢	지금 사람들 만공 어질다 말하네

### 3. 동래읍성의 묘사

임진전쟁 때 동래읍성은 부산의 행정 중심지를 두고 치열한 전투를 벌인 현장이다. 동래는 부산진과 가까운 거리였고, 또 부산의 행정 관할은 동래부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진성 함락 후 적군의 동태는 곧 동래에 알려졌다. 동래읍성전투의 대격전은 우리 측에 많은 희생자를 내게 만들었다. 당시 府民이 전사한 상황은 「趙公遺事記」에 보면 ‘조군수의 아들 趙廷老가 부친의 유해를 찾으려 동래성에 가 본즉 가득히 시체가 쌓여서 부친의 유골을 찾을 수 없었다.’한 글과 임진왜란 17년 후 동래부사로 온 李安訥의 「東萊孟夏有感」이란<sup>25)</sup> 詩 중에 잘 나타나고 있다.

동래읍성전투는 일본군의 제1군의 장수 小西行長이 직접 참전하여 전투하였으므로 병력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그 때의 상황은 ‘총성은 울려 퍼지고 그 劍光은 百日을 무색케 하면서 차례로 적군이 성중에 사람으로 매우다시피 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한 기사에는 ‘성은 협소하고 사람은 많은 데다 적병 수만 명이 일시에 성으로 다투어 들어오니 성중은 메워져 움직일

23) 만공단을 노래한 漢詩는 7편 정도가 있다. 이 가운데 만공단을 직접 노래한 것은 申達道の 「만공단」, 李震相의 「만공단」, 許愈의 「만공단」 3편뿐이다. 만공단 주변의 경물을 노래한 것으로는 申濡의 「鎮東門」이 있으며, 만공단이 있는 만공대(자성대)를 노래한 시로는 李安訥의 「釜山城上 次斗峯韻」, 李敏求의 「登釜山故城」 등이 있다. 漢詩의 내용은 만세덕의 공을 기리면서 왜군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 대부분이며, 지난날 萬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만공단을 바라보며 인생무상함을 노래한 시도 더러 있다.

24) 만공대가 있는 子城은 자성대를 중심으로 동문인 鎮東門, 서문인 金壘關, 남문인 鎮南門, 북문인 龜藏樓가 있었다(김강식, 앞의 논문, 2006).

25) 영조 16년(1740) 동래부사 朴師昌 때 간행된 『東萊府誌』에 나온다.

수 없었다.’고<sup>26)</sup> 하였다. 이러한 대군사에 맞서 당시 군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중들도 싸웠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저항이 전개되었다. 무기를 갖지 못한 성민들은 혹은 도수로 적에 부딪치고, 혹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혹은 팽이·낫·도끼칼 등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싸웠으며, 심지어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거두어 적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워낙 많은 적의 대군에 당해낼 수가 없었다.<sup>27)</sup>

동래성에서의 대격전의 패배는 조선 측에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당시 군사와 백성이 전사한 상황은 여러 기록에 잘 나타난다. 먼저 동래성 전투에서 거둔 일본군의 전과에 대해서는 덴케이의 『서정일기』에서는 목을 벤 자 3,000여 명, 포로 500여 명이라 하였다. 가톨릭 신부 루이스 프로이스(Luis Frois)의 『일본사(日本史)』에서는 조선군 전사자가 약 5,000여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임진전쟁 직후 부산의 모습을 가장 잘 담은 대표적인 고전 작품은 李安訥(1571~1637)의 『萊山錄』이다. 이안눌은 許筠 등과 함께 당대에 명망이 높았던 사람이다. 그는 동래부사 재임시절의 시가를 모아 『내산록』이라<sup>28)</sup> 하였다. 그가 지은 시 276수 가운데 한양까지 오고 간 노정에서 지은 59수를 제외한 217수는 모두 부산 지역에서 지은 것이다. 그 중 「四月十五日」은 임진전쟁의 피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장시다. 매년 4월 15일이 되면 동래성의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은 사연을 듣고 왜적이 동래에 쳐들어왔을 때 관민이 함께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사연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먼저 이안눌의 「二月十五日 入東萊府」이다. 1607년 2월 보름에 이안눌이 동래부사로 부임하면서 임진전쟁 이후 눈에 보이는 황량하고 피폐한 모습을 읊고 있다. 황량한 마을의 전경과 마을마다 들리는 곡성은 참혹했던 임진전쟁의 비극을 암시하고 있다. 소생하는 계절과 침울한 고을의 분위기가 암울한 대조를 이루며, 마지막의 송상현의 충렬을 기리는 사당의 모습과도 비교된다. 아전들이 오랑개의 말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오직 송상현의 군센 혼백만이 변방을 지킬 것이라고 지적하여 나태한 위정자를 비판하는 시선이라고<sup>29)</sup> 한다. 아울러 전쟁의 참상에 대한 기억과 현실을 통해 변방 수비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아가 순절자 사당의 존엄성을 각인시켜 전쟁 후의 재건 의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였다고<sup>30)</sup> 하였다.

七載天南海賊屯	7년 동안 남녘에 海賊들이 주둔하니
州居燒作一荒原	고을의 주거는 불타서 황량한 벌판일세
春來乳燕巢無樹	봄이 와도 어린 제비 둥지 틀 나무가 없네
日暮殤魂哭幾村	해지자 희생된 魂魄들 우는 마을 몇인가
衙吏僅存蠻語謾	겨우 남은 아전들이 오랑개 말 지껄이고
驛田都廢野流渾	황폐한 驛田은 모두 물길에 휩쓸렸네

26) 『忠烈祠志』 「壬辰東萊遺事」.

27)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의 「동래부순절도」에 잘 묘사되어 있다. 「동래부순절도」는 3종이 전해온다.

28) 『내산록』에는 이안눌이 1607년(선조 40) 12월 11일에 동래부사로 임명되어 한양을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6월 21일 금정산 범어사를 출발하여 양산 통도사를 거쳐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路程과 견문을 지은 276수가 실려 있다. 특히 이안눌은 시문을 잘 짓고 唐詩에 뛰어나 李太白에 비유되었다. 그는 4,379수의 방대한 양의 시를 남겼다. 또 임진전쟁 때 義士들의 행적을 「東萊孟夏有感」이라는 시도 담았다. 이안눌의 작품은 26권으로 된 『東岳集』에 전부 실려 있다. 그 가운데 권8이 「萊山錄」이다.

29) 배주연, 앞의 논문, 2006, 384~385쪽.

30) 변광석, 「임진전쟁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 2010, 189쪽.

宋公忠烈新祠儼      宋公 기리는 새 사당 엄숙하니  
 毅魄惟應鎮國藩      굳센 혼백이 아마도 나라의 변방 지키리라.

임진전쟁 때 동래는 일본군과 처음 맞서 싸운 전투의 현장이었다. 임진전쟁으로 인한 동래 지역의 참상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 「四月十五日」은 임진전쟁의 참상을 묘사한 名篇 中の 名篇이다. 무엇보다도 전란 참상의 현장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sup>31)</sup> 이 시는 시 속에 늙은 아전을 끌어들이고 경험한 사실을 대화 형식을 빌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쓴 사실주의적 작품이다. 실제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본에 의해서 저질러진 전쟁이 백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친 점을 실감나게 그린 작품이라고<sup>32)</sup> 할 수 있다.

平明家家哭	이른 아침 집집마다 곡소리
天地變簫瑟	천지가 스산하게 변하여
淒風振林木	처량한 바람 숲을 흔드네
驚怪問老吏	깜짝 놀라 늙은 아전에게 물었네
哭聲何慘怛	곡소리 어찌 그리 애달프냐고
壬辰海賊至	임진년 바다 건너 도적떼 와서
是日城陷沒	이 날 성이 함락되었지요
惟時宋使君	그 당시 송 부사께서는
堅壁守忠節	성문 닫고 충절을 지켰지요
闔境驅入城	온 고을 사람들 성에 몰아넣어
同時化爲血	동시에 피로 변했지요
投身積屍底	시신 더미 아래 몸을 던져
千百遺一二	백 명 천 명에 한 둘이 살았습니다
所以逢是日	그래서 이 날이 되면
設奠哭其死	제물 차려 죽은 이를 곡한답니다
父或哭其子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곡하고
子或哭其父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곡하며
祖或哭其孫	혹은 할아버지가 손자를 곡하고
孫或哭其祖	혹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곡하며
亦有母哭女	또 어미가 딸을 곡하고
亦有女哭母	또 딸이 어미를 곡하며
亦有婦哭夫	아내가 남편을 곡하기도 하고
亦有夫哭婦	남편이 아내를 곡하기도 하며
兄弟與姊妹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有生皆哭之	살아 있다면 모두 곡을 한답니다
蹙額聽未終	이마를 찡그리고 듣다가 다 듣지 못하고
涕泗忽交頤	눈물이 갑자기 주르륵 흐르네
吏乃前致詞	아전이 나서서 하는 말씀
有哭猶未悲	곡하는 이 그래도 슬프지 않소

31) 이종묵, 「이안눌 한시 연구」 『한국문화』 15, 1994.

32) 배주연, 앞의 논문, 2006, 384쪽.

幾多白刃下      시퍼런 칼날 아래 모두 죽어서  
 擧族無哭者      곡할 사람 없는 이가 대부분이랴오

이 시의 배경은 현재의 동래성과 과거의 동래성으로 교차되고 있다. 1~6구는 작품의 도입부로 현재의 시점이다. 7~26구는 과거 시점으로 동래성의 함락과 府民의 전몰이라는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27~32구는 현실로 돌아와 통곡의 소리에 대해서 설명한다.<sup>33)</sup>

4월 15일은 동래성이 함락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임진전쟁 전투 중에 돌아가신 義士들을 제사 지낸다. 작자 이안눌이 동래 부사로 부임한 것은 임진전쟁이 끝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다. 그러므로 아직 임진전쟁의 피해가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다. 백성들은 이제야 겨우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눈물이라도 흘릴 수 있는 여유라도 찾을 수 있었다. 이렇듯 이 시는 임진전쟁 직후 동래 전역의 백성들이 거의 죽었다. 임진전쟁 17년 후 동래 부사로 온 李安訥의 「東萊孟夏有感」이란 시 중에 잘 나타난다. 즉 4월 14일 저녁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일어나 늙은 향리에게 물으니, “바로 이 날이 임진년성이 함락된 날이란 것이었다. 당시 송 부사를 좇아 성중에 모였던 지방민들은 같은 시간에 피바다로 변하고 쌓인 시체 밑에 투신하여 생존자는 천백 명 중에 한두 명 정도였으며, 조손 부모 부부 자매 간에 무릇 생존한 자는 이 날에 죽은 친족을 제사하고 통곡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니, 늙은 향리는 다시 말하기를, “곡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슬프기가 덜한 것이니, 휘두르는 적의 白刀 아래 온 가족이 다 죽어서 곡해 줄 사람조차 남기지 못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4월 15일의 풍경을 생생하게 잘 그려 내고 있다.

다음은 이안눌의 「題東軒壁上」이다. 東軒은 수령이 직접 공무를 처리하던 곳으로 동래의 중심인데, 동헌을 노래한 시 중 부사를 지낸 이안눌이 동래부 동헌에서 지어 벽에다 걸었던 「제동헌벽상」은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동래부의 참담하고 을씨년스러운 광경을 보고서 벽에 적어 두었다. 고을의 퇴락상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동래읍성 전투 과정에서의 대량 학살한 흔적을 묘사하고 있다.

蔓草蕭森古郭門	덩굴 풀 우거진 옛 성문
燼殘閭井但頽垣	불타버린 마을 무너진 담뽀이로구나
叢祠有鬼風煙暗	속 祠堂 귀신 있어 바람 불고 안개 가렸고
瘵市無人鳥雀喧	학질 걸린 저자 사람 없고 참새만 짹짹
城底廢壕堆白骨	성 아래 무너진 해자엔 백골이 쌓여 있고
雨中寒燐照黃昏	빗속에 섬뜩한 반딧불만 황혼에 번뜩이네
傷心忍問龍蛇歲	마음 상해서 차마 壬辰 癸巳年을 물었더니
遺老相看不敢言	살아남은 노인들이 쳐다만 보고 감히 말을 못하네

사실 이안눌이 동래부사로 왔던 시기는 임진전쟁이 끝난 지 10년이 되지 않은 때까지 아직까지 성도 성문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시에서 이안눌은 동래부 동헌에서 바라다본 동래의 모습을 무성한 자연물과 빈터만 남은 마을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임진전쟁이 끝난 후이지만 상흔이 여전히 복구되지 못해서, 폐허와 시신만이 도성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 위로조차 할 수 없는 백성들의 참혹상에 그는 말을 잃었다고<sup>34)</sup>

33) 배주연, 앞의 논문, 2006, 384쪽.



한다. 이후 이러한 참상은 동래 지역민이 임진전쟁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보편적인 기제가 되었다.

한편 충렬사와 관련된 漢詩에는 동래 전투에서 순절한 인물들의 충절을 기리는 작품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sup>35)</sup> 임진전쟁 후 조선왕조 차원에서 국가 재건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 이념이었던 성리학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먼저 임진왜란 이후 바로 전쟁의 기억을 형성하여 추모하려는 작업이 전개되었다.<sup>36)</sup> 동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임진전쟁이 끝난 뒤 1605년(선조 38) 동래부사로 온 윤환은 송상현 부사를 모시는 宋公祠를 세워 위패를 모시고 매년 제사를 지냈는데, 그의 한시에서는 송상현의 충절뿐만 아니라 첩실로 따라왔던 金蟾의 의기가 가상하다고 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송공사에 처음 기제를 거행하고 올린 이안눌의 한시 「동래맹하유감」에 당시의 정황과 백성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이처럼 임진전쟁 때 순절한 순절자들을 기억하는 일은 1605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尹暄(1605. 12~1607. 1)에 의해서 정식으로 시작되었다.<sup>37)</sup> 윤환은 宋公祠를 건립하여 향사하기 시작하였다. 송공사는 인조 즉위 후 忠烈祠로 賜額되었다.

먼저 李元鎮의 「題宋公祀」이다. 동래부사 李元鎮이 송공사를 제향한 후 「제송공사」를 창작하였다. 이원진은 宋象賢과 鄭撥의 절개를 세한 후에 더욱 빛나는 소나무·잣나무 등에 빗대어 높이 평가하였다. 당나라 현종 때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睢陽城을 지켰던 허원과 장순은 쌍묘를 썼지만, 송공과 정공은 함께 배향되고 있다고 하였다. 송공과 정공이 순국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살신의 슬픔을 띠었지만 彝倫, 즉 온 나라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떳떳한 道理를 빛나게 했다고 노래하였다. 이 시에서는 두 사람이 송공사에 배향될 충분한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충정과 절개가 길이 전해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忠烈堂堂宇宙垂	충렬을 당당하게 우주에 드리우니
後凋松柏歲寒知	歲寒 후에 松柏의 절개를 알 수 있도다
許張在皆聯雙廟	옛적에 許遠과 張巡은 雙廟를 나란히 남겼고
宋鄭如今共一祠	지금에 宋公과 鄭公은 一祀로 함께 모셨네
日月高懸殉國節	일월은 높이 殉國의 節義를 걸었는데
風雲長帶殺身悲	풍운은 길이 殺身의 슬픔을 띠었도다
無論氣作山河壯	기가 산하를 이루어 장하다고 논하지 말라
百世三韓揭秉彝	백세토록 三韓에 彝倫을 빛나게 하리라

다음으로 崔守範의 「宋公壇」이다.<sup>38)</sup> 이 시는 송공단 건립 후 송상현의 충절을 동래사람들이 아프게 기억하지만, 襄陽의 墮淚碑보다 낫다고 노래하고 있다.

風雨圍城孰死綏	풍우에 성이 포위될 때 누가 관직을 지키다 죽었나
宋公忠烈府人悲	宋公의 충렬을 동래부 사람이 슬퍼하네

34) 배주연, 앞의 논문, 2006, 386쪽.

35) 대표적으로 동래부사 윤환의 「충렬사」, 이안눌의 「東萊孟夏有感」, 접위관 李廷濟의 「충렬사」, 權以鎭의 「충렬사」, 李正臣의 「충렬사」, 양산군수 김환의 「충렬사」 등이 있다.

36) 김강식, 「조선후기 임진왜란의 기억과 의미」 『지역과 역사』 31, 2012.

37) 『崇節祠三忠錄』 권1, 附錄, 諡狀.

38) 崔守範, 『萊營誌』 題詠.

空壇數尺今猶在      몇 척의 빈 단이 지금도 남아 있으니  
 勝似襄陽墮淚碑      襄陽의 墮淚碑보다 나으리

마지막으로 鄭恒重의 「瞻拜忠烈祠感吟」이다. 이 시는 충장공 鄭撥의 玄孫 鄭恒重이 충렬사를 배알하고 난 뒤의 감회를 노래하고 있다. 정항중은 송상현과 정발의 절개와 충성을 웅장과 홍모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熊掌(곰의 발바닥), 즉 좋은 것을 취할 때 의리를 밝혔으며, 鴻毛(매우 가벼운 사물)가 떨어지는 곳에서 사람의 도리를 세웠다는 것이다. 그 자신은 이 두 사람이 仁을 이룬 곳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지만 지금도 많은 선비들이 공손히 배향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충렬사에 두 공을 기리는 추모의 행렬이 끊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瞻拜祠前涕白滂      祠前に 瞻拜하매 눈물이 절로 쏟아지나니  
 兩公神位儼成行      兩公의 神位는 엄연히 行列을 이루었도다  
 釜城大節秋霜烈      釜山城의 大節은 秋霜과 같이 열렬하고  
 萊府貞忠白日光      東萊府 貞忠은 태양과 같이 밝도다  
 熊掌取時明義理      熊掌을 취할 때 義理를 밝히고  
 鴻毛捐處樹綱常      鴻毛가 떨어지는 곳에 綱常을 세웠도다  
 適來適去成仁地      兩公의 成仁한 곳에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데  
 多士于今敬奉香      지금도 많은 士子들이 공손히 香火를 받들고 있도다

이어서 李春元의 「次萊州雜詠」이다.<sup>39)</sup> 이 시는 동래읍성전투에서 순국한 영령들이 일본군에 무참하게 죽어 나갔지만, 전쟁 후에 그들은 宣武功臣으로 선정되어 역사에 길이 전해질 것임을 노래하면서 뒷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隻手橫瀾事不如      한 손으로 狂亂을 막다 여의치 못하여  
 空留英爽小祠虛      영령만 작은 사당에 헛되이 남겼네  
 未知宣武功臣券      모르리라, 宣武功臣의 錄券이  
 爭勝他年太史書      뒷날의 역사책에서 어떻다고 할지

한편 이안눌의 「卽事遣懷 題衙軒壁上」에서는 전쟁 이후 일본이 끼친 영향을 표현하고 있다. 전쟁 후 일본의 언어와 풍습을 따르고 있는 동래 지역의 현실을 꼬집었다. 부임하여 거처도 마련하지 못한 환경과 전란으로 인해 오랑캐의 풍속이 지역의 민謡를 바꾸어 놓은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왔다. 이처럼 동래 지역에는 倭色이 混種되어 있었다.

燒後邑居依賊壘      불탄 고을의 거처를 도적의 진지에 의존하고  
 亂來蠻俗變民謡      전란 후로 오랑캐의 풍속이 민요를 바꾸었네  
 玉貂不是江潭客      수령은 강가를 노니는 나그네가 아니니  
 還恐歸魂未易招      돌아간 魂魄을 잘 부르지 못할까 두렵구나

39) 『九畹先生集』 권1, 詩, 「次萊州雜詠」.

#### 4. 다대진성의 묘사

임진전쟁 때 다대진은 동래의 변방으로 전쟁의 기억도 늦었던 지역이었다.<sup>40)</sup>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小西行長 군은 그 기세를 타고 인접 지역의 西平浦와 多大浦鎮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 두 진영의 전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서평포·다대포·부산포는 모두 지금의 부산 영역이지만, 부산포보다 군사적 지체도 낮고 고을 규모가 작으며 당시로 보아서는 외떨어진 곳이라서 당시 상황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1782년(정조 52)에 찬한 洪鐘應의 「僉使尹公興信殉節碑文」을 통해서 당시 전투상황의 일면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부산진성을 함락한 왜군이 군사를 나누어 그 선봉군이 다대를 포위하였다. 이에 첨사는 힘써 싸워 적을 격퇴하였다. 그 때에 휘하의 한 군사가 말하되, 머지않아 적이 반드시 대거 침공해 올 것이니 피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뢰니,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고 결사의 뜻을 피력하였다. 그 다음날 드디어 적의 대군이 침략하여 오니 첨사는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尹興悌와 함께 적군에 뛰어 들어 분투를 거듭하다가 장렬한 전사를 함에, 이에 성도 함락되었다.

다대포는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로 임진전쟁 이전에 鎭으로 승격되었으며, 임진전쟁의 첫 전승지가 바로 다대포전투였다. 따라서 다대포의 승경을 노래한 작품 역시 의미가 있지만, 다대포를 노래한 고전 문학은 전쟁의 상흔을 생생히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沒雲臺는 임진전쟁 당시 순절한 鄭運의 순절비가 세워진 곳인 동시에 대마도로 통하는 바닷길의 출발지였기 때문에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시가 많이 남아 있다.<sup>41)</sup>

다대포는 낙동강 하구와 바다를 끼고 있어서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인데다가 주변 풍광이 아름다워 시에 뛰어난 많은 관리들과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들렀고, 다대포 주변의 풍경을 읊은 시를 남겼다. 그러므로 다대포를 노래한 작품은 군사적 중요성을 부각시키거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노래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연적·군사적 여건에 비해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다대포를 노래한 漢詩는 대략 13여 편 정도이다.<sup>42)</sup>

먼저 군사적 요충지로서 전쟁의 상흔을 노래한 이안눌의 「多大浦作」이다. 이안눌이 동래부사를 역임한 것은 1608년 2월에서 1609년 7월까지이다. 이때는 임진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로, 전쟁의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시에서 이안눌은 왜군의 함락에 무너진 성과 복구되지 않은 人家를 잘 묘사하고 있다. 노란 띠풀과 늦은 매미 소리라는 표현을 통해 계절이 가을임을 알 수 있으니, 아마도 1608년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인 듯하다. 다대포 바다는 일본과 가까운 곳이라 병사들은 장사꾼의 배만 봐도 왜군이 쳐들어올까 놀라고, 자신은 80세 가까운 노모를 두고 있지만 고향에서 천 리 떨어진 변방에서 벼슬살이 하고 있는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40) 김강식, 『조선시대 해양도시 부산의 모습 : 군항과 해양』 선인, 2018.

41) 통신사 일행은 부산의 승경과 명소를 매개로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애국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다른 편으로는 선경과도 같은 빼어난 경치를 구경하며 객수를 달랬다.

42) 다대포를 노래한 시는 내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다대포의 勝景을 노래한 시에는 洪聖民의 「多大浦韻」과 「次多大浦板上韻」, 申益愷의 「多大浦」, 李獻慶의 「多大浦壯關樓觀打魚歌」 등이다. 이들은 다대포의 풍경을 직접 노래하거나 다대포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둘째, 군사적 요충지로서 전쟁의 상흔을 노래한 시에는 이안눌의 「多大浦作」이 속한다. 셋째, 일본과 맞닿은 포구로서의 역할을 노래한 시에는 申濡의 「多大浦雨中」 등이 있다.

行盡黃茅到海邊	노란 띠풀 길 끝나 바닷가에 이르니
壞城牢落斷人煙	무너진 성 쓸쓸하고 인가는 끊어졌네
溟波直接蠻兒島	바다 물결 곧바로 오랑캐 섬에 닿아
邏卒常驚賈客船	邏卒들은 장삿배에도 놀 놀라네
故國一千增廿里	고향은 일천리에 이십 리를 더하고
孀親八十少三年	홀어머니는 팔십에서 삼년이 적네
孤身此地頭堪白	외로운 몸 여기서 늙어 감을 건디는데
況對寒林聽晚蟬	건너편 찬 숲엔 늦은 매미소리조차 들리네

다음으로 일본과 맞닿은 포구로서 다대포의 역할을 노래한 신유의 「多大浦雨中」이다. 신유가 1643년(인조 21) 통신사(通信使)의 종사관으로 뽑혀 일본에 갈 때 부산에 머물면서 지은 것이다. 그는 새는 인가 옆 나무에 깃들여 있고, 자신은 비 오는 배 안에 누워 있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신세를 새의 신세에 빗대고 있다. 더구나 그가 다대포에 머문 것은 4월 초로 가을과는 계절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풍 숲과 밀 이삭 익는 가을 등의 표현을 쓴 것은 제때 떠나지 못하고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자신의 심경을 쓸쓸한 가을이라는 이미지에 이입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만 리 밖 일본으로 떠나야 하는 몸이 떠나지 못하고 오래도록 머물고 있으니 이 시름을 어이할까라고 노래하였다.

古壘近沙岸	옛 성이 모래 언덕에 가까우니
暮潮連戍樓	저녁 밀물이 수루에 맞닿는구나
鳥棲烟際樹	새들은 인가 옆 나무에 깃들었고
人臥雨中舟	사람은 비오는 배 안에 누워 있네
水國楓林暗	물 나라엔 단풍 숲이 검검하고
山田麥穗秋	산밭엔 밀 이삭 익으니 가을이구나
東行萬里外	동으로 만 리 밖에 가는 길
愁絕此淹留	에서 오래 묵자니 시름을 어이할까

李海文의 「尹公壇」이다.<sup>43)</sup> 이 시는 이해문이 다대진성전투가 오래도록 알려지지 못한 현실을 읊고, 윤공단이 만들어져 제향되기 전에 송공단에 함께 尹興信이 모셔진 것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龍蛇欲說淚先垂	임진년 이야기 하자니 눈물 먼저 흐르고
往事孤城益惋悲	외로운 성 지난 일이 더욱 슬프다
人有雙拳捐北虜	한 주먹 있건마는 북녘 오랑캐 내버려두고
士無雙傳載南兒	無雙의 南八이라고 역사에 전해오네
忠魂掩抑長虹吐	충혼은 분노를 눌러 긴 무지개로 토하고
戰地滄茫返鶴疑	전쟁터 망망하여 돌아온 학도 의심하네
隔嶺時時風雨響	고개 건너 때때로 비바람 소리 들리는 건
也應來去宋公祠	아마도 宋公의 사당에 오고 가심이라

43) 『萊營誌』題詠, 尹公壇.

## 5. 기장읍성의 묘사

임진전쟁 때 기장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자연스레 일본군의 주요 침략 대상이 되었다. 4월 14일 동래성을 함락시킨 일본군은 左路의 책임자 加藤清正이 기장을 공격하였다.<sup>44)</sup> 당시 기장은 육군의 경우 기장현감의 관할이었는데, 기장현감은 李容準이었다. 그는 일본군의 위세에 놀려 도망하였다고 한다. 임진전쟁 중에 기장은 일본군의 직접적인 주둔과 병참기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으로 7년 내내 적의 지세에 놓여있던 지역이었다.

임진전쟁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도 소슬하고 한산한 광경은 동남 해변의 부산 지역 일원이 모두 그러했다. 전쟁 후 기장은 행정 기능이 마비되어 大邑 동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sup>45)</sup> 이러한 폐허의 형상을 읊은 것이 이안눌의 「題機張縣 絕句四首」이다. 이 시는 1608년 동래부사로 재임할 때, 근처의 기장현을 둘러보고 지은 시이다. 전쟁 후 기장현의 폐허가 된 모습을 제대로 그리고 있다. 1수는 마을의 전경, 2수는 텅 빈 고을과 잇을 수 없는 전쟁의 처참한 참상, 3수는 터만 남은 고을의 모습과 왜적의 침입에 당했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 4수는 傷心의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상심은 전쟁으로 죽어간 사람들과 살아남은 자들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황폐한 국토에 대한 가슴의 아픔이라고<sup>46)</sup> 한다. 또 이안눌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대한 혐오와 전쟁을 일으킨 적에 대한 적개심이 응어리져 있다고<sup>47)</sup> 한다.

行尋殘郭入榛荊	무너진 성곽 찾아 가시덤불 들어가니
墟里無人野鹿驚	빈 터에 사람 없이 들 사슴이 놀라구나
白髮田翁故邑吏	백발의 농사꾼과 예전의 아전만이
獨扶藜杖馬前迎	작대기에 의지하여 말 앞에 맞이하네

破堞周遭古縣空	무너진 성곽 빙 둘러 옛 고을 텅비었고
蒺藜蓬藿蔓成叢	찔레 쑥 말오줌풀 덩굴져 우거졌네
千齡百代猶驚骨	천년 세월 지나도 뼈에 사무칠 일인데
況耐兵戈在目中	하물며 목전에 전쟁의 상흔 차마 보라

喬木寒煙滿目悲	교목엔 차가운 안개 모두가 슬픈 광경
邑中廬舍但荒基	고을의 오두막도 황폐한 터만 남아
逢人不敢詢前事	만나는 사람에게 이전 일을 묻지 못하니
恐說官軍陣沒時	관군 무너지던 때 말할까 두려워

雀噪蟲鳴鴉亂啼	참새소리 벌레소리 떼까지 지저귀니
滿城秋草沒官蹊	온 성엔 시든 풀이 관청 앞을 뒤덮었네
蕭條百戰傷心地	쓸쓸하다, 많은 전투로 마음 아픈 이곳에
日暮更堪風雨淒	해 저물고 다시금 비바람마저 처량하니

44) 安藤英男 編, 貫井正之, 「清正と朝鮮役」 『加藤清正のすべて』 新人物往來社, 1993, 102쪽,

45) 李安訥, 「機張縣作」에 묘사되어 있다. “機張縣本小 兵後屬萊州 版籍無三戶 城池變一丘 煙沈山色暮 木落雨聲秋 愧乏安人術 傷時只自愁.”

46) 배주연, 앞의 논문, 2006, 387쪽.

47) 정경주, 앞의 논문, 1996, 35쪽.

## 6. 맺음말

임진전쟁이 낳게 한 부산 지역의 전쟁문학은 무엇보다도 부산의 장소성과 관련지어진다. 부산은 일본과 마주하는 동남쪽 바닷가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서울에서 떨어진 변방으로서 외교와 무역의 통로이자, 외적에 대비하는 관문이었다. 때문에 임진전쟁 전후에 자리잡은 부산 지역의 임진전쟁문학은 고스란히 지역적 특성과 연관되어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면서 만들어졌다. 그 속에는 예기치 못했던 바다 건너 일본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 강건한 기상이 깔려 있다. 임진전쟁을 겪고 난 후 부산 지역의 전쟁문학은 전란의 체험과 그 체험의 刻印이 두드러져서 나타난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부산진성, 동래읍성, 다대진성의 血戰을 기억하고, 그 충렬을 기리는 내용이 傳, 碑文, 記文과 같은 사실적 기록물뿐 아니라 抒情의 장르인 詩歌에도 다양하게 반영되어 나타났다. 시가는 전쟁의 참상과 장소성을 기억하는 좋은 문학적 기재였다.

한편 임진전쟁문학에서 전시와 전후 당대인들의 의식이 지배층 비판, 적개심 고취, 忠義 실천, 자기반성, 전쟁에 대한 허무감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부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러한 임진전쟁문학에는 주체의식의 발로, 민족문학의 개화, 비허구서사체의 왕성한 창작, 逸話 양식의 확대, 근대적 전쟁문학의 창작 등의 면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임진전쟁 이후 부산 지역을 묘사한 詩歌들은 그것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壬辰戰爭을 묘사한 작품 속의 부산 실상-漢詩를 중심으로-」 토론문

정규식(동아대)

이 논문은 임진 7년 전쟁 후, 부산을 묘사한 한시를 대상으로 부산의 실상에 접근하고자 한 글이다. 논문을 읽으면서 작품 속에 구현된 시적 화자의 감정이 절실하게 다가와 당시 전란의 참상이 어떠한지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더불어 정서적 표현 위주의 한시가 지니는 장르적 특징이 잘 드러난 글이라 생각한다. 논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서론에서 ‘임진전쟁문학 가운데서 漢詩를 중심으로 戰場의 사실적 형상화, 忠節의 표상과 현실에서의 갈등과 적국 일본에 대한 대응’ 등을 살피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상기 논문에서는 발표자가 제시한 연구의 목적이 잘 구현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 등은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전장의 사실적 형상화 등에 대한 접근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시라는 장르적 특성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분석 대상 작품 중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의 작품이 절대적이다. 전쟁, 그리고 전후에 대한 부산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이 반영된 자료에 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데 특정 인물의 작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3. 상기 논문은 임진전쟁 후 부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시를 대상으로 논의를 펼쳤다. 특정 장르를 대상으로 어떠한 역사적 사건(임진전쟁)에 대한 특정 장소(부산)의 실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사건의 담당층, 장소에 대한 인식의 층위 등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과 내용도 각양각색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시를 통해 임진전쟁과 부산을 바라볼 때 지니는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4. 본 발표문에서는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발표자는 임진전쟁과 연관되는 부산의 장소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듯하다. 장소성을 다른 장소와 구별되게 하는 특징으로 이해하고 그것은 사람과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어떠한 의미를 창출해 내는 과정에서 발현된다고 할 때, 한시를 통한 임진전쟁과 부산의 장소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壬辰戰爭을 묘사한 작품 속의 부산 실상-漢詩를 중심으로-」 토론문

임주탁(부산대)

부산을 노래한 한시에서 임진왜란이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살핀 글이다. 선행 논의들을 수렴하는 방향에서 논의를 전개한 탓인지, 새로운 관점이나 논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읽으면서 몇 가지 해소되지 않는 의문을 발표자에게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갈음하고자 한다.

### 1. 논지와 관련하여

시문을 쓸 줄 아는 인물은 거의 죽임을 당하거나 도피한 까닭인지 인용한 시는 모두 종전 이후 부산에 들렀던 관료들이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전쟁 상흔(傷痕)을 매개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공통점을 지닌 듯한데, 이러한 한시에 대해서 “주체의식의 발로, 민족문학의 개화, 비허구서사체의 왕성한 창작, 逸話 양식의 확대, 근대적 전쟁문학의 창작 등의 면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임진전쟁 이후 부산 지역을 묘사한 詩歌들은 그것의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인가? 전쟁 초기에 일본에 점령된 지역이라서 직접 전장을 누비며 다녔던 문인 관료들이 전쟁 체험을 표현한 시를 남길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부산 지역의 한시와 임진왜란과 관계는 다른 지역과는 사정이 사뭇 달랐으리라 짐작되고, 따라서 그런 특성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종전 이후 부산 지역에 파견된 관료들이 시문을 통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한 것이,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지역과 지역민을 다시금 국가주의의 울타리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길을 찾는 일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임진왜란이란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전쟁문학은 없고 전후문학만 있는 것이 부산 지역 문학의 특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2. 한시의 번역과 관련하여

○ 이안눌, 「登釜山浦西門樓上作」의 “畎畝常懷社稷憂(들판에서도 늘 社稷의 근심을 품고 있었는데), 饗軍樓上倚淸秋(맑은 가을날 饗軍樓 위에 기대서니)”에서 ‘淸秋’는 ‘8월’을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요?(각주 28)에서 “이안눌이 1607년(선조 40) 12월 11일에 동래부사로 임명되어 한양을 출발할 때부터 시작하여, 이듬해 6월 21일 금정산 범어사를 출발하여 양산 통도사를 거쳐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路程과 견문을 지은 276수가 실려 있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과 시의 계절 배경 사이에는 어긋남이 있지 않은가요? 또, “揚帆直欲東飛渡(돛 올려 바로 동쪽으로 뛰어넘어), 手戮穹鯨奏冕旒(손으로 큰 고래 잡아 주상께 바치고저)”에서 ‘穹鯨’을 ‘일본’을 비유한 것으로 본 근거가 무엇인가? 혹 대마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 이안눌, 「釜山城上望對馬島」의 “擒吳霸越平生計(오나라 잡고 월나라가 패자됨이 평생의 계획이니) 擧郢燒陵百代讎(수도를 치고 왕릉을 태웠으니 영원한 원수로다). 杖劍高城向東望(높은 성에서 검을 잡고 동쪽을 바라보니), 世無人解讀春秋(세상에 春秋를 바로 읽은 이 없구



나).”에서 평생의 계책으로 여기는 주체가 화자인가요 아니면 왜(倭)인가요? 춘추의 “子貢一出，存魯、亂齊、破吳、彊晉而霸越”에 대해 시인이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보아야 하는가요? 그와 관련하여 세상에 춘추를 해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 이안눌, 「二月十五日入東萊府」의 “衙吏僅存蠻語譟(겨우 남은 아전들이 오랑캐 말 지껄이고), 驛田都廢野流渾(황폐한 驛田은 모두 물길에 휩쓸렸네)”에서 ‘오랑캐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일본어?(이안눌, 「卽事遺懷 題衙軒壁上」에서 “亂來蠻俗變民謠(전란 후로 오랑캐의 풍속이 민요를 바꾸었네)”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임.)

○ 이안눌, 「題東軒壁上」의 “叢祠有鬼風煙暗(수풀 속 祠堂 귀신 있어 바람 불고 안개 가렸고), 疫市無人鳥雀喧(학질 걸린 저자 사람 없고 참새만 짹짹)”에서 ‘총사’는 ‘수풀 속 사당’이 아니라 여러 신위를 모시고 한꺼번에 제사하는 사당을 일컫는 말이 아닌가요?

○ 李春元, 「次萊州雜詠」를 “隻手橫瀾事不如(한 손으로 狂亂을 막다 여의치 못하여), 空留英爽小祠虛(영령만 작은 사당에 헛되이 남겼네). 未知宣武功臣券(모르리라, 宣武功臣의 錄券이), 爭勝他年太史書(뒷날의 역사책에서 어떻게 할지)”라 번역해도 좋을까요? 이렇게 번역해 두고 “이 시는 동래읍성전투에서 순국한 영령들이 일본군에 무참하게 죽어 나갔지만, 전쟁 후에 그들은 宣武功臣으로 선정되어 역사에 길이 전해질 것임을 노래하면서 뒷사람들이 귀감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까요?

전후/해방' 공간의 재배치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이은직 장편소설 『탁류』(1967-68)를 중심으로

조은애(동국대)

<목 차>

1. 번역의 컨텍스트와 서술의 컨텍스트
2. '전후 일본'에서 '해방 조선'을 쓴다는 것
  - 1) (포스트) 점령 공간과 새로운 이향(離鄉)의 시작
  - 2) '남북일 냉전구조' 속에서의 '해방 조선'
3. 분신술의 글쓰기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 1) 역이동 서사와 분신술의 글쓰기
  - 2) 부산이라는 기착지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4. 결론을 대신하여: '전후/해방' 공간에서 '냉전' 공간으로의 재배치

1. 번역의 컨텍스트와 서술의 컨텍스트

1988년 한국에서는 일본(어) 문학계에서 경력을 쌓으며 중견 작가의 반열에 오른 네 명의 재일조선인 작가, 이은직·김달수·김석범·이회성의 일본어 장편소설이 번역되었다.<sup>1)</sup> 1971년 재일조선인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이회성의 「다듬이질하는 여인(砧をうつ女)」은 이듬해 한국어로 번역·출판되었으며, 1973년에는 그의 단편 「죽은 자가 남긴 것(死者の遺したもの)」(1970)이 국내 문예지에 번역된 바 있다.<sup>2)</sup> 따라서 1988년 미래사에서 간행된 그의 장편소설 군단의 땅은 한국에서 번역된 첫 작품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일찍이 일본어 창작으로 각각 1939년과 1953년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른 이은직과 김달수, 그리고 1950년대부터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품을 발표해온 김석범의 경우, 1988년에 한국에서 출판된 근태백산맥차 근탁류차 근화산도차가 첫 한국어 번역작이었다.<sup>3)</sup>

1) 이들 중 이은직과 김달수는 식민지시기 조선에서 태어나(1917년, 1920년) 10대였던 1933년, 1930년에 독일했으며, 김석범은 1925년 오사카에서, 이회성은 1934년 사할린에서 출생했다.  
2) 이회성, 이호철 역, 「死者가 남긴 것」, 근문학사상차7, 1973. 4. 같은 호의 '재외작가특집'에는 이회성의 작품 외에 캐나다, 일본 등지로 이주한 작가의 한국어 작품 3편이 수록되었다.  
3) 김달수와 이은직의 데뷔 년도와 작품, 아쿠타가와상 후보작 등. 이은직은 1917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출생하여 1933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니혼대학 동인지 근예술과(芸術科)차와 근신예술(新芸術)차에 소설을 발표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해방 전 일본에서의 두 작가의 동인지 시절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곽형덕, 「일제말 각 작품의 일본어 창작과 동인지 활동에 관해서」, 근일본학보차 103, 한국일본학회,

이처럼 거의 동시적으로 번역된 위의 세 장편은 모두 해방 직후의 남한을 무대로 하여 당시의 급격한 정세 변동과 인민위원회 및 남로당의 활동, 미군정청의 폭압적 정책과 민중 항쟁 등을 서사화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은식의 근략류차는 1945년 가을부터 1946년 10월 인민항쟁까지를 서사적 시간으로 다루며 공간적으로는 정읍, 김제, 전주 등의 전라북도 지역과 부산, 서울 등지를 널리 포괄한다. 김달수의 근태백산맥차도 비슷한 시기의 대구와 서울을 이야기의 중심 공간으로 삼는다. 근화산도차는 1988년 번역된 판본에 한정하면 해방 후부터 4·3 직 후까지의 제주도를 무대화한 소설이다.<sup>4)</sup> 참고로 이회성의 근꿈단의 땅차는 박정희 정권하의 남한 정세를 다루고 있다. 한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무대화한 위의 작품들을 당시의 한 신문 기사는 ‘해금문학의 풍요’ 속에서 ‘해외동포 문인들의 문제작’이 출판된 일종의 ‘문학적 사건’으로 포착한다.

- ① ‘월·남북작가’ 작품 해금 조치 :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박태원, 임화, 이기영, 한설야, 김남천 등의 전집이 출간되었거나 출간 준비 중.
- ② 국적문제나 정치적 이유로 국내 출간이 불가능했던 ‘해외동포’ 문인들의 문제작 : 이회성, 김석범, 김달수, 김학철, 이근전 등과 북한문학작품.
- ③ 공산권 현대문학의 번역 : 리바코프(소련), 라선(중국), 볼프(동독) 등.
- ④ ‘정치적 계절’에 대응하는 정치풍자공트의 유행과 빨치산 체험 수기.<sup>5)</sup>

1988년 한 해 동안의 문학기 현상을 ‘창작의 휴식기’와 ‘해금문학의 풍요’라는 대조적인 언어로 정리한 근한겨레차 기사는, ‘풍요’를 누린 ‘해금문학’을 위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이 중 ②에 해당하는 것, 즉 재중조선인 작가인 김학철과 이근전의 작품, 그리고 북한문학과 함께 ‘해외동포’의 카테고리에서 언급된 이회성, 김석범, 김달수의 ‘문제작’이란 앞에서 거론한 근꿈단의 땅차 근화산도차 근태백산맥차이다. 이 기사가 실린 지 한 달 남짓 지난 1989년 벽두에는 여성작가인 이양지가 이회성에 이어 재일조선인 작가로는 두 번째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한국에도 전해졌다. 이와 같은 “교포 문학”에 대한 관심 속에서 바로 전년도에 한국에서 출판된 재일조선인 작가들이 다시금 거론되었는데, 여기에는 위의 작가들에 더해 이은직이 추가로 언급되었다. 이들 “교포 작가”에 대해 기사에서는 “작품을 우리말로 썼거나 현지말로 썼거나 그 소재와 정서만은 예외 없이 한국적이”이라는 평가를 내리며, “그들이 머지않아 통일된 조국의 문단에도 기여할 날을 손꼽아본다”고 요청한다.<sup>6)</sup> 이처럼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쓰인 이들의 작품이 ‘(그럼에도) 한국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에는 이들 작품이 다루고 있는 무대가 한국(남조선)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근략류차 근태백산맥차 그리고 근화산도차가 모두 해방기 남한을 무대화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은 당시 근한겨레차문화부 기자였던 조선희였다.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두 편의 기사에서, 위

2015. 5. 김달수, 이은직, 김석범, 이회성의 1988년 한국에서의 출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김달수, 임규찬 역, 근태백산맥차 上·下, 연구사, 1988; 이은직, 김명인 역, 근략류차 上·中·下, 풀빛, 1988; 김석범, 김석희 역, 근화산도차 1~5, 실천문학사, 1988; 이회성, 이호철·김석희 역, 근꿈단의 땅차 上·中·下, 미래사, 1988. 이 작품의 일본어 원작의 출판사항은 다음과 같다.

- 4) 이은직의 근략류차 김달수의 근태백산맥차는 일본어 완결본을 저본으로 번역되었으며, 김석범의 근화산도차는 근해남차 근학문차 근학문차 (1976.2-1981.)를 수정·가필하여 1983년 문예춘추사에서 간행된 근火山島차 전 3권을 저본으로 번역되었다. 이 1983년판 근火山島차는 이후 문예춘추사에서 간행된 근火山島차 전 7권, 1997)의 제1부로 편입되며, 1997년도판 근火山島차는 2015년 김환기·김학동 공역으로 보고사에서 전 12권으로 출판되었다.
- 5) ‘해금문학의 해’, 근한겨레차 1988. 12. 6, 7면(강조-인용자).
- 6) ‘교포文學’, 근경향신문차 1989. 1. 14, 2면.

의 세 장편소설은 ‘교포작가 소설’과 ‘미완의 해방을 다룬 80년대 이념소설’로 분류된 카테고리의 교집합에 정확히 포개진다.<sup>7)</sup>

한편 위에서 거론된 작가 중 한 사람인 김석범은 근화산도채에 관한 어느 연구서의 발문(跋文)을 쓰며, 1988년 당시 실천문학사에서 근화산도차제1부가 번역되었던 상황을 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출판 준비는 한국 정부측의 몰수와 판매 금지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되었”으며, 훗날 그는 “신문 광고에 출판사 이름, 작자 이름도 없이 책이름인 근화산도채만 나온 것을 보고”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sup>8)</sup> 과연 우려한 대로 그의 책은 출판 직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판금 조치를 당했다가 며칠 후 다시 합법출판으로 인정되었다고 한다. 근화산도차는 1988년 3월 월북작가들 중 김기림, 정지용 등에 대한 출판이 우선적으로 허용된(3·31 조치) 직후, 그리고 1988년 7월 문화공보부장관 정한모의 발표를 통해 월북작가의 8·15 해방 이전 문학작품에 대한 출판이 공식적으로 허용되기(7·19 조치) 직전 발행되었다.<sup>9)</sup>

1988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작품을 번역·출간하게 된 김달수, 이은직, 김석범이라는 재일조선인 작가가 동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월북작가 작품의 해금 조치와 어떤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물론 세 명 모두 당시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라 국적란에 ‘조선’으로 기재된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였고,<sup>10)</sup> 1960년대 중반까지는 모두 조선총련(재일조선인총연합회, 이하 ‘총련’으로 줄임) 관계 문화·문예조직이나 언론기관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한동안 중단했던 일본어 창작을 개시하면서 총련 조직과도 결별한 김석범의 근화산도차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 출판 허가를 얻었을 때, 한국의 한 신문기자가 “김석범은 북괴 공작원과 관계가 있는 파괴 세력이며, 적화 통일 주창자”<sup>11)</sup>라고 비난했다는 일화는, 한국에서 재일조선인이 유신독재 시대를 거치며 형성된 공안적 대상이라는 냉전적 이미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확인케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월북문인 해금 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연계성이 각인된 이들의 작품이 연쇄적으로 금지의 사슬에서 풀려났다고 보는 것은 “냉전·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공안통치적 레짐의 시혜적 조치를 사후 정당화”하는 작업에 공조하

7) 조선희, 「분단앞뒤 다룬 교포작가 소설 출간 활기」, 근화산도차 1988. 5. 31, 5면; 「8·15는 미완성 해방차 80년대 이념 소설의 주제」, 근화산도차 1988. 8. 16, 5면. 앞의 기사에서 ‘교포작가 소설’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김학철의 근적정시대차 이은직의 근적류차 김달수의 근대백산맥차 김석범의 근화산도차이다. 뒤의 기사에서 ‘80년대 이념소설’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조정래의 근대백산맥차 이병주의 근지리산차 김원일의 근울골짜기차 김주영의 근천동소리차 이은직의 근적류차 김달수의 근대백산맥차 김석범의 근화산도차이다.

8) 김석범, 「발문」, 나카무라 후쿠지, 근석범 근화산도차읽기: 제주 4·3 항쟁과 재일한국인 문학차 삼인, 2001, 268쪽.

9) 근화산도차 발행일은 1988년 6월 30일로 되어 있다. 한편, 김윤식에 따르면 한국에서 월북문인에 대한 해금은 (공식적인 언급만 취급한다면) 1976년 3·31 조치 이후 네 단계에 걸쳐 88년 7월의 “5명을 제한 해방 전의 월·재북문인 전면해금”으로 이어졌다(김윤식·권영민, 긴급대담 「한국 근대문학과 이데올로기: 월북문인 해금조치와 관련하여」, 근문학사상차191, 1988. 9. 1988년의 해금 조치 이전에도 월북작가들의 작품 출판은 존재했으며, 전면적 해금조치를 전후로 월북작가의 작품이 수록된 영인본이 다수 간행되기도 했다(장문석, 「월북작가의 해금과 작품집 출판(1): 1985-1989년 시기를 중심으로」, 근구보학보차19, 2018. 8).

10) 1947년 일본에서의 외국인등록령 실시 이후 재일조선인들의 국적표기는 ‘조선’으로 일괄 등록되었다. 1950년 외국인등록국적란에 ‘한국’ 표기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조선’적은 꾸준히 감소하기는 했어도 1955년까지 75% 이상을 유지했다(李瑜煥, 근在日韓國人五十年史-發生因に於ける歴史的背景と解放後に於ける動向 新樹物産株式会社出版部, 1960, 112쪽). 이때 국적란에서의 ‘조선’이라는 기재는 “과거 일본 영토였던 조선반도로부터 내일(來日)한 조선인을 가리키는 용어로, 어떤 국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일본 법무성에서 확인한 바 있다(「外国人登録上の国籍欄の「韓国」あるいは「朝鮮」の記載について」(法務省 1965.10.26.), 근在日韓國人의 地位에 關한 資料차II), 외무부, 1976. 11, 37-38쪽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C11M31266)).

11) 김석범, 앞의 글, 269쪽.

는 것일 수 있다.<sup>12)</sup> 그렇다면 재일조선인 문학의 동시적인 번역 출판은 ‘해금’ 조치에 의해 유도된 자유라고 보기보다는, 처음 인용한 기사에서 ‘해금문학의 풍요’로 거론된 사례의 난삽한 분류 방식에서 역으로 유추할 수 있듯이, 간행물에 대한 통치권력의 금지와 허용 체계가 무근거성에 기반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재일조선인 문학은, ‘해방’의 역사적 소환과 통일된 민족문학사 서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투쟁(culture-struggle)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발굴 행위를 통해 ‘해금’의 문화공간에 자리매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평론가 김명인은 자신이 번역한 이은직의 근탁류채 관한 서평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반(反)외세 자주화와 민족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 문학이 겪고 있는 난항을 깨는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최근 집중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재외동포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근태백산맥차화산도차근탁류차등의 재일동포들에 의한 장편소설은 모두 1945~1948년에 이르는 이른바 해방공간에서의 남한을 그 무대로 함으로써 더욱 우리 분단극복문학의 진전에 결정적인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있다.<sup>13)</sup>

같은 글에서 그는 특히 이은직의 근탁류채 대해, “8·15 직후 남한에서 전개되었던 반제·반봉건투쟁에 관한 가장 치열한 보고서”라고 언급한다.<sup>14)</sup> 그런 점에서 이들의 문학은 “해방 전후기라고 하는 격동의 시대를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형상화해낸 재외작가들의 성과”로서, “당연히 우리 민족문학사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방 전후시기에 관한 한 이들의 작품은 민족문학사의 최고봉으로서의 권위를 지닌다고” 평가되었다.<sup>15)</sup> 그것은 예컨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격렬하게 대립한 신탁통치 찬반 운동에 대한 제한적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들 소설의 공통점에 주목하며, “찬탁노선이 민족분단을 막고 제국주의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유력한 방도였다는 해석은 새로운 해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해금된’ 해석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 지적한 어느 좌담회의 맥락과도 상통한다.<sup>16)</sup>

이처럼 1988년 ‘해금’의 문화공간 내에서 재일조선인 문학은 민족문학사 복원을 위한 해방기 격동의 시대에 관한 ‘권위 있고 구체적인 보고서’이자, ‘찬탁=반민족적, 반탁=민족적’이라는 반공주의·국가주의 서사에 대한 대항서사로 발견되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당시 한국(어)의 담론 공간에서는 일본어 창작이라는 “언어의 문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 재일조선인 문학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번역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대체로 공유되었다는 사실이다.<sup>17)</sup> “민족언어, 민족정서, 풍속, 생활감정 등 역사의 형상적 복원에 기초자료가 되는 부분들은 거의 포착해낼 수 없”<sup>18)</sup> 외국어로 쓰인 민족문학이라는 ‘핸디캡’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말 감각을 지닌 우리나라 사람이 일어로 쓴 소설을 다시 우리말

12) 김성수, 「재·월북 작가 ‘해금’ 조치(1988)의 연구사·문화사적 의미」, 근향학보 55, 2019. 2, 30-31쪽.

13) 김명인, 「민족해방문학의 귀중한 유산 : 근獨流차이은직 장편소설 풀빛 刊」, 근향국문학 181, 1988. 11, 392쪽.

14) 위의 글, 394쪽.

15) 김명인, 「왜곡된 민족사의 문학적 복원」, 근향학보 194, 1988. 12, 71쪽.

16) 김재용, 정민, 진형준, 황지우, 「(좌담)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정치 소설에 대하여」, 근향학보 2, 1989. 1, 21-22쪽(정민의 발언).

17) 김명인, 위의 글, 76쪽.

18) 위의 글, 76쪽.

로 옮기는” 작업, 이를테면 **근탁류차** 같은 경우, “정읍지방과 부산지방의 사투리를 살려내는 일”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sup>19)</sup> 그런 의미에서 해방기 조선을 무대화한 재일조선인문학의 번역은 ‘일본(어)’이라는 장막을 제거하고, 긴급하고도 절실한 역사적 복원의 대상으로 부상한 ‘8·15해방’의 현장과 ‘지금-여기’를 직접적으로 매개하려는 행위였다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해방’의 공간과 ‘해금’의 공간을 중첩시키고 직접적인 복원의 대상으로 삼는 번역의 행위는, 이 소설들을 그것이 서술된 1960년대 일본(어)의 컨텍스트로부터 분리해 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근탁류차** **근태백산맥차** **근화산도차** 공통적으로 해방 직후의 남한 지역을 무대로 유사하게 당시의 미군정 지배에 대한 ‘해금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은 쉽게 포착되었으나, 그것들의 일본어 원작 출판 시기가 공통적으로 1960년대 중·후반에 집중되었다는 사실은 좀처럼 발견되기 어려웠다. 이들의 작품에 관해 평론을 쓰거나 죄담을 나누거나 기사를 작성한 그 누구도 이 작품들의 일본어 창작 또는 출판이 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다시 말하면 ‘해방3년사’에 관한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관심이 왜 그 무렵 집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이 쓰이고 출판된 1960년대의 일본, 혹은 그 시기를 포함하여 ‘전후’라고 이야기되는 일본의 시공간으로 시선을 돌려 보면 어떨까. 그것은 단지 소설의 서술(하는) 공간으로의 이동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88년 번역의 컨텍스트에서 (무)의식적으로 망각되고 있는 ‘전후 일본’이라는 서술의 컨텍스트는, 앞으로 이은직이라는 작가를 통해 살펴볼 것처럼, ‘점령’과 ‘점령 이후’가 교차하고 ‘남북일’ 냉전의 역학이 작동하는 곳, 또한 일본어 글쓰기와 조선어 글쓰기가 교차하고 재일조선인 문학에서 조선의 ‘해방’과 일본의 ‘패전’을 대하는 복수의 시선들이 교차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 무수한 경계선들이 교차하는 곳에 실로 **근탁류차**는 텍스트와 이은직의 글쓰기가 위치해 있음을 밝히고, **근탁류차** 무대인 해방기 남한의 구체적인 지역들, 그중에서도 이은직 자신이 끝내 귀환의 문턱에서 돌아섬으로써 타자의 영역에 놓이게 된 부산 내 ‘귀환자 부락’에 관한 태도를 통해 그 ‘서사적 월경’의 정치학을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 2. ‘전후 일본’에서 ‘해방 조선’을 쓴다는 것

### 1) (포스트)점령 공간과 새로운 이향(離鄉)의 시작

1945년 10월에서 1946년 10월까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정읍, 부산, 서울 등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도쿄 유학생 출신 지식인의 투쟁기이자 귀환 청년의 성장소설인 **근탁류차** 일본에서 발행된 것은 1967년에서 68년에 걸친 시기였다.<sup>20)</sup> 그런데 1968년 발행된 **근탁류차**제2부 권말에 수록된 저자 후기에 따르면, **근탁류차**제1부와 제2부의 집필 사이에는 큰 시간적 차이가 있었다. 그에 따르면 제1부는 사실 1949년 봄에 이미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집필되어 미발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며, 이것이 18년 만인 1967년에 와서야 **근탁류 그 서장(濁流 その序章)차**라는 제목으로 변경되어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제2부의 탈고 직후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후기에 따르면, 그가 제1부, 즉 <해방>이라는 원제의 소설을 단숨에 써내려간 것은

19) 김명인, 「이 책을 읽는 이들에게」, 이은직, 김명인 역, **근탁류차**上, 풀빛, 1988.

20) 일본의 신코쇼보(新興書房)에서 총3부(3권)로 출판된 이은직의 **근탁류차**는 각권의 발행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1쇄 기준으로 제1부에 해당하는 **근濁流 その序章차** 발행일은 1967년 5월 30일, **근濁流 第二部: 暴圧の下で차**는 1968년 7월 1일, **근濁流 第三部: 人民抗争차**는 1968년 10월 30일이 발행일로 되어 있다.

1949년 봄, 과로로 휴양 중이던 기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전년도인 1948년은 GHQ의 조선인학교 폐쇄령과 문부성의 조선인학교 폐쇄 강행 통첩에 반대하여 효고(兵庫) 현을 중심으로 재일조선인들의 거센 항쟁이 발생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4월에 일본 최초로 비상사태가 선언될 정도로 사태가 격화하고 있었다. 이에 당시 조련(재일본조선인연맹) 문교부장이었던 이은직은 조련 중앙 및 도쿄본부의 대표 중 한 명으로 문부성 학교교육국장과 문부대신을 면담하고 도쿄 내 각 조선인학교 대표 긴급소집회의에서 작성된 결의문을 문부성에 전달하는 등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sup>21)</sup> 또한 같은해 8월에는 도쿄조선공업학교(야간) 설치인가를 얻고 9월에는 도쿄조선학교 고등부를 병설하는 데 관여하는 등, “청춘의 피가 끓어오르도록 분투한 일꾼들”의 한 사람으로서 “일복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sup>22)</sup> 이렇게 해서 이듬해 봄에 일단락된 <해방>의 집필동기에 대해 이은직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48년 5월 미국은 조국통일을 바라던 조선민중의 의지를 짓밟았다. 남한에 단독정권을 수립하고 무력을 배경으로 단독선거를 강행했다. 그리고 각본대로 미국에서 온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8월에는 ‘대한민국정부’를 만들었다.

통일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있었던 북한의 인민위원회에서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9월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한반도엔 남북이 분단된 채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어쩌서 그렇게 되었는가? 나와 친한 일본인 친구들도 그 진상을 알고 싶어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군의 점령하에 있었던 일본은 미군의 엄중한 언론통제하에서 모든 출판물이 엄격한 검열을 받아 미국측의 일방적인 선전을 소개할 뿐이어서 해방 후의 한반도의 실상을 거의 알릴 수 없었다.

그때 나는 좀체로 원고를 쓸 여유가 없었지만, 많은 일본친구들로부터 해방 후의 조선을 전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써보라는 권유를 받고 있었다.<sup>23)</sup>

위의 「후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해방>의 집필 동기로 주목할 내용은 첫째, 한반도 분단의 진상을 알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요구에 응답하고자 했다는 점이며, 둘째, 당시 미군 점령하의 일본에서 출판물에 대한 검열로 인해 한반도의 실상을 거의 알릴 수 없었다는 점이다. 해방 직후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서술은 재일조선인 민족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개진되었다. 특히 해방 직후 결성된 조련 내에는 1946년 2월 국어, 역사, 지리, 수학, 미술 등의 과목별 교재를 편찬하여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초등교재편찬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은직도 여기에 편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지리 분야의 집필을 담당했다.<sup>24)</sup> 일본 국회도서관 프랑게문고(プランケ文庫) 소장 조선어교재에 관한 지정희의 연구에 따르면, 조련 초등교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중등조선지리책 1946년 9월 15일 발행)는 한반도를 ‘중선’, ‘남선’, ‘북선’ 지방으로 나누어 각각의 지세, 산업, 도시 및 교통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책이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해방과 신조선’이라는 항목을 두어 해방 후 한반도의 움

21) 김경해, 정희선·김인덕·주혜정 역, 근948년 한신(阪神) 교육투쟁차 경인문화사, 2006.

22) 李殷直, 근物語 「在日」民族教育の夜明け: 1945年10月~48年10月차 高文研, 2002, 761·733쪽.

23) 이은직, 「후기」, 근략류차下, 풀빛, 1988, 367쪽(원작에서는 제2부 끝에 수록된 후기를, 한국어판에서는 하권 끝에 수록하고 있다).

24) 魚塘, 「解放後初期の在日朝鮮人組織と教科書編纂事業」, 근在日朝鮮人史研究차 28, 1998. 어당은 지리 담당의 이은직, 역사 담당의 임광철과 더불어 국어 담당으로 교재편찬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역시 두 사람과 함께 1946년 10월 설립된 도쿄조선중학교의 초기 교원진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도쿄조선중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김인덕, 「재일조선인 민족교육과 東京朝鮮中學校의 설립: 근도교조선중고급학교 10년사를 중심으로」, 근중실사학차 28, 송실사학회, 2012, 6.

직임과 전망을 기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검열당국에 의해 부분삭제처분을 받은 흔적이 7군 데 남아 있다.<sup>25)</sup>

이은식의 회상에서처럼, 점령기 일본에서 해방 직후 조선의 분단 상황과 좌우 대립에 대해, 특히 미군정의 남조선 통치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한 저술은 드물었다. 그런 조건에서 눈에 띄는 것은 1949년 하쿠요샤(白揚社)에서 나온 두 권의 저서에서 다루고 있는 조선의 해방에 관한 항목이다.<sup>26)</sup> 하나는 이은식과 함께 조련 문교부에 소속되어 초등교재편찬위원과 도쿄조선중학교 역사교사로 재직했던 임광철이 일본어로 쓴 조선역사서 근조선역사독본(朝鮮歴史讀本)책의 제4편 '근대화로의 길'에 속한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세계경제연구소 편 근아시아의 민족운동(アジアの民族運動)책에서 재일조선인 역사학자 김광지(金廣志)가 서술한 「조선」 항목이다. 임광철은 1945년 10월 30일 조련 문화부에서 발행한 근조선역사교재초안(朝鮮어) 하권에서 한일합방부터 해방까지의 독립운동을 유물사관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초기 역사교육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sup>27)</sup> 또한 1948년 조련 문교부에서 발행한 근조선사입문(朝鮮어) 상권의 서문에서 해방 이후 조선반도의 혼란상을 기술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회 변혁을 개관하는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28)</sup> 초기 재일조선인의 역사서술 및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임광철에 주목해온 김인덕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의 독립: 인민혁명의 준비’, 그리고 ‘통일전선의 역사적 전망’으로 끝맺는 근조선역사독본책의 서술 방식은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인민혁명의 전망을 제시하며 ‘해방’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29)</sup>

한편, 중국, 조선, 인도, 버마, 인도차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시암(타이), 말레이, 외몽고의 민족해방운동을 기술하고 있는 근아시아의 민족운동책에 중국편 다음으로 수록된 김광지의 「조선」은, <남조선부(南朝鮮の部)>와 <북조선부(北朝鮮の部)>로 나누어 해방 직후부터 각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를 다룬다. 「조선」의 서술 체제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5) 池貞姬, 「プランク文庫に見る占領期の朝鮮語教科書について」, 근愛媛大学法文学部論叢 人文学科編 32, 2012, 170-171쪽.

26) 1917년 설립된 하쿠요샤는 1932년 잡지 근역사과학을 창간하고, 근자본론이나 근레닌중요저작집 등 수백 권의 좌익사상서를 출판했으며, 과학, 역사, 철학, 문학, 실용서 등도 두루 간행해온 출판사이다. (<http://www.hakuyo-sha.co.jp/company/>)

27) 김인덕, 「해방 후 재일본조선인연맹의 민족교육과 정체성: 근조선역사교재초안책과 근어린이 국사책을 통해」, 근역사교육 121, 역사교육연구회, 2012. 3, 187쪽.

28) 池貞姬, 앞의 글, 176쪽.

29) 김인덕, 「임광철(林光澈)의 재일조선인사 인식에 대한 소고」, 근사람 59, 수선사학회, 2017. 1, 200쪽. 조련 문교부와 교재편찬위원회, 그리고 도쿄조선중학교에 함께 재직하며 초기 조련 문화활동 및 민족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이은식과 임광철의 관계, 특히 근조선역사독본책의 서술방식이 근탁류 1부의 서술 시각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진전된 고찰이 필요하나 이 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1. 남조선부	2. 북조선부
(1)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에서 인민공화국의 해산까지 (2) 반동세력의 대두와 민주민족전선의 결성 (3) 경제적 파탄과 10월인민항쟁 (4) 단독선거와 선거반대투쟁 (5) 대한민국의 성립과 각지의 국방군의 반란	(1) 소비에트동맹군의 진주와 인민위원회의 활동 (2)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성립과 諸 민주개혁 (3) 북조선노동당의 창립과 민주민족전선의 결성 (4) 북조선 각급인민위원회의 선거와 인민경제계획의 수립 (5) 조선최고인민회의의 선거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성립

<북조선부> 서술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남조선부>의 서술상의 특징은, 각 절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 세력과 반동 세력간의 대립 구도가 전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양 진영 사이의 대립은 모스크바협정을 둘러싸고 첨예화된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양 진영간의 대립 구도가 전면화되면서 우파와 중도 우파의 차이, 이를테면 이승만과 김구, 혹은 김규식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한 군정당국이 이승만과 김구가 지도하는 ‘비상정치국민회의’를 군정청의 고문기관으로 간주하고, 이승만을 의장으로 하는 ‘남조선대한민국국민대표민주의원’이 조선임시정부수립 준비기관으로 결정되었다는 서술이 있기는 하지만, 군정당국에 의한 인민공화국 해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민주진영에 대한 미군정의 억압은 반동 진영에의 지원을 강조하는 형식을 통해 우회적, 또는 축소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반동진영이 1946년 5월 8일 미소공위 무기휴회 돌입 이후 반탁시위를 멈추지 않음에도 “군정당국은 이에 대해 ‘비판의 자유’를 부여했다”며 냉소하는 방식이다.<sup>30)</sup>

그렇다면 <해방>이라는 원제로 이미 점령 하에서 쓰였다는 사실을 ‘후기’에서와 같은 기억의 사후적 편성을 통해 부각한 권탁류차제1부는 ‘조선의 해방’이라는 이야기의 시공간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우선 제1부의 플롯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년 가을, 주인공 이상근은 일본에서의 유학 및 방랑 생활을 정리하고 전라북도 곡창지대에 위치한 팔선리(八仙里)로 귀향한다. 그는 인민위원회 간부 송진태로부터 마을 농민조합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받고, 마을의 유일한 조선인 지주였던 이관학-이용섭 부자의 방해 공작에 맞서 소작쟁의를 주도하는 한편, 마을 청년 및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습회를 여는 등의 계몽운동을 전개한다. 백정의 딸 순희와 이용섭의 딸 옥련이라는 두 여성 모두에게 매혹되면서도 그는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건국이 완수되기 전까지는 혁명의 길에만 매진하겠다고 다짐한다. 반공폭력단에 의한 좌익 습격 사건이 곳곳에서 빈발하는 가운데, 군수직을 매수한 이용섭이 이상근을 노리고 폭력단과 무장경관을 보낼 것이라는 정보를 들은 이상근은 조직의 지령에 따라 이웃 군으로 떠난다.

이처럼 권탁류차제1부의 주요 사건은 이관학-이용섭 부자를 통해 해방 전부터 후까지 이어지는 지주 계급의 횡포, 그리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을 주축으로 구성된다. 또한 그것은 해방의 감격을 기대하며 조선의 고향에 돌아왔으나 여전히 그 요원함을 깨닫는 주인공 이상근이, 그 원인을 일본의 36년간의 식민지 지배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과 관계된다. 소설의 서두에서, 막 고향 팔선리로의 진입로에 들어선 이상근이 부산에 상륙하여 기차를 타고 귀향하는 과정에서 느낀 절망감을 길게 회상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조국에, 해방된 조국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격에 빠져 있는 동포들을 그득 채

30) 金廣志, 「朝鮮」, 근아시아의民族運動史 白揚社, 1949, 33쪽.

운 기차 속에서 그는 예기하지 못했던 괴로운 심정에 사로잡혔다. 커다란 위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든 무엇 하나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이 보여졌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현실로서 다가올 때 사람들은 미치광이처럼 아우성치고 배반당했다는 생각으로 조국을, 해방을 저주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만이 점점 더해갔던 것이었다. 그는 기차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조차 견디기 어려워 숨이 차기 시작했다. 어쨌든 기차는 움직였고 그는 고향역에 내렸던 것이다.

소학교의 선생을 하면서 조용한 농촌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것이 결국은 향수로부터 비롯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보았던 고향은, 15년 전 그를 일본인 상점의 점원으로 내몰았던 그 고향과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다. 어머니가 계시는 이 형네 집까지도 무정한 객사처럼 웬지 모르게 정다와보이지 않았다.

‘나는 고향이 없는 영원한 방랑객이 되어버린 것인가…….’<sup>31)</sup>

고향에 돌아왔으나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감각, 해방된 조선의 고향이 15년 전 자신을 일본인 상점으로, 이어서 끝내 일본으로 내몰았던 과거의 고향과 다르지 않다는 감각은 귀환 후 또 다시 이향(離鄉)의 모험에 나설 수밖에 없을 청년의 향후 행보를 암시한다. 그는 귀환 직후 느낀 절망감의 원인을 일제의 36년간의 조선 통치로부터 찾고, 이를 통해 인근 농민들을 규합하고자 한다. 그는 각종 통계 자료와 일본 유학, 그리고 개전 직후 나선 방랑의 길에서 보고 들은 내용 등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순회 연설에 나선다. 그리하여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한 이래 얼마나 많은 쌀을 약탈해갔는가를 자세한 숫자를 들어 설명”하고,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국내에 있는 빈민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말했으며, 전쟁에 동원된 동포들이 일본의 탄광과 공장, 그리고 병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가를 본 사실대로 말해주었다.”<sup>32)</sup>

근략류차제1부에서 이상근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민족해방’이란 3·7제와 금납제를 골자로 하는 소작쟁의와 농민조합 결성, 그리고 그 연장선상의 농촌계몽운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한 해방 운동을 억압하는 적대의 대상 역시, 이용섭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민주당 계열 지역 유지와 그들이 동원한 폭력단으로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작성된 「후기」에서 강조된 것은 미국의 “각본”에 의해 강행되고 이로써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한 남한의 단독선거, 그리고 당국의 검열로 인해 그것을 직접적으로 쓸 수 없었던 점령 공간을 기억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과연 <해방>이라는 원고가 1949년 당시에 어느 정도까지 쓰인 상태였는지, 근략류차제 1부와 <해방>이라는 미발표 원고의 관계를 「후기」에 나타난 진술대로 신뢰할 수 있는지 하는 물음은 실상 그리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 지역으로 한정된 이야기의 공간에 미군정의 통치권력이 압박해 오며 따라, 이상근을 미군정 권력과의 본격적인 투쟁의 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제1부가 끝맺는다는 점일 것이다.

이후 제2부를 중심으로 이상근이 직면하게 될 미군정의 조직적이면서도 교묘한 감시 체계, 그리고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착취 양태는, 3부작 근략류차제 기획이 “여전히 남한의 민중을 간난의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고, 또한 베트남 민중에게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일본인의 고통이기도” 한 “신식민지적 질서를 고착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 무관치 않음을 말해준다.<sup>33)</sup> 「후기」의 뒷부분에서 이은직은 ‘남한의 민중’과 ‘베트남의 민중’, 그리고 ‘오키나와의 일본인’을 미국의 ‘신식민지적 질서’ 아래 동등하게 고통받는 “아시아의 민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식민지 조선을 무대화한 김달수의 장편소설 근현해탄차 1952

31) 근략류차上, 38쪽.

32) 위의 책, 50-51쪽.

33) 이은직, 「후기」, 근략류차下, 366쪽.

년 **근**일일본문학채 연재되었을 때, 그것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 이후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놓이게 될 상태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삼는 담론이 김달수 자신이 회원이기도 한 ‘신일본문학회’의 작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바 있었다. 즉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점령종료=독립’이 아닌 새로운 ‘예속=식민지화’임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당시의 일본을 식민지 조선의 위치에, 그리고 당시의 미국을 식민종주국 일본의 위치에 두는 논리가 형성되었던 것이다.<sup>34)</sup>

그런데 해방 이후 남한에 대한 미군정의 통치를 서사화하고 그것을 ‘아시아 민중’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지적 질서’로 전유하는 「후기」와 같은 구도가 1960년 미일안보 신조약에 기반한 미일동맹 형성 이후에 나왔음은 주목을 요한다. 20세기 말까지 약 40년에 걸친 미일동맹의 기본적 프레임으로 작용해온 1960년의 미일안보 신조약은 표면적으로는 양국의 ‘동맹’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주둔군에 관한 규정이 보여준 불평등성을 삭제하고 양국간의 대등성에 기반한 안보관계를 안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일본은 또한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 주력하는 일본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듯이, 미일안보 신조약은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의 기지로 운반할 경우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미군기지에서 군사적 출격을 감행할 경우 어떠한 사전협정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골자로 한 ‘밀약’의 내용을 포함했다. 즉 “미국이 핵을 포함한 전략방위의 ‘창’을 일본에 제공하고, 그 대신에 일본은 극동을 포함한 아시아 전 지역의 전방거점에 있는 기지를 미국에 제공해서 미국의 도서방위선의 ‘방패’가 된다는 계약”이었던 것이다.<sup>35)</sup>

“해방 직후 남한의 문제는 역사적인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문제”라는 관점, 그리고 “신식민지적 질서를 고착시키려는 미국”에 대한 “조선인의 투쟁”은 “아시아 민중들의 투쟁이며, 또한 인류해방을 위해 싸우는 세계의 모든 민중들의 투쟁과 이어지는 것”이라는 이은식의 관점은, **근**탁류차제1부에서 힘주어 서술한 일본의 식민지주의로부터의 민족적·계급적 해방이라는 사건을 냉전적 역학 속에서 전유한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 “주권을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국제 관계도 아니고, 주권과 주권을 뛰어넘은 군사적 폭력이 겹치는 곳에서 발생하는 통치 문제”<sup>36)</sup>로서의 냉전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에서 ‘8·15 해방’에 관한 기억을 재편성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주권의 경계’를 초월한 냉전의 정치가 사실상 ‘신식민지적 질서’의 정치임을 강조한 「후기」의 후반부 서술은, 그러한 냉전 정치를 미군정 통치하 남조선이라는 시공간을 경유하여 ‘해석=번역’하기를 유도한다. 그리고 「후기」에서는, 그러한 ‘해석=번역’으로서의 <해방>의 집필과 **근**탁류차3부작의 기획이, 한반도 분단에 대한 ‘일본인’들의 앞의 욕구, 그리고 제1부 출판 직후 ‘일본인’ 독자들이 보인 관심에 대해 이은식이 내놓은 나름의 ‘응답’이었음을 말해준다.<sup>37)</sup>

34) 고영란, 김미정 역, **근**후라는 이데올로기: 일본 전후를 둘러싼 기억의 노이즈차 현실문화, 2013, 제 6장 참조.

35)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야키 지음, 진창수·김철수 역, **근**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차 한울아카데미, 2005, 208쪽.

36) 도미야마 이치로, 「기지를 감지한다는 것」, 오타 오사무·허은 편, **근**동아시아 냉전의 문화차 소명출판, 2017, 424쪽.

37) 그는 미발표 상태로 보관해오던 원고가 18년 만에 신코쇼보에서 출판된 이후 “일본인 독자가 보내준 수많은 편지에서 새로운 감동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 또한, 제1부와 제2부 사이의 시간적 격차를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주인공 상군은 농촌을 떠나 서울로 갈 예정이었던 것이 (제2부에서-인용자) 지나는 길에 도청에 취직하여 마침내 미군에게 체포되어 버렸다. 완전히 예상밖의 일이었다”는 진술도 흥미롭다. 그것은 도청 취직과 미군에 의한 체포라는 사건이 (18년 전의) 의도와는 달리 1960년대의 서술 시점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의식의 반영일 수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 2) '남북일 냉전구조' 속에서의 '해방 조선'

이처럼 텍스트 사이의 시간적 단절을 강조하고 있는 「후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근략류 차는 텍스트가 점령의 한가운데라는 컨텍스트와, 점령종료 10여년 후 미일안보 신조약을 필두로 재편된 포스트 점령기의 일본이라는 컨텍스트 사이에 가로놓여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있는 사실을 통해서 해방기의 조선을 올바르게 이해할 것을 제안하는 것은—한국어판에서는 역자 서문으로 대체되었으나—제1부 끝에 수록된 편집부의 「해설」이다. 거기에서는 “자주적으로 실권을 잡고 있던 인민위원회가 미군의 탄압을 받아 해산을 명령받고, 지주들이 다시 활기를 얻어 마을을 지배하게 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인공의 투쟁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만 조선에서의 인민항쟁과 이후의 3년간의 전쟁, 그리고 “여전히 미해결”인 “조선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고 말한다.<sup>38)</sup>

그런데 근략류차 출판된 196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바라본 '조선 문제'란, 특히 해방 및 분단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전개된 담론 내에서의 '조선 문제'란 무엇이였을까.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쳐 일어난 한일회담반대운동의 맥락 속에서 '일본인 책임론'을 내세우며 설립된 연구단체 '일본조선연구소'의 창립자 중 한 사람이었던 역사학자 가지무라 히데키는, 당시 일본에서 조선의 해방과 분단, 한국전쟁의 역사를 비중 있게 조망한 역사서술들이 “일한체제로의 이행과정”이라는 시대 인식 속에서 나온 것임을 언급한다.<sup>39)</sup> 이때 그는 '일한체제'라는 용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북한 '귀국' 운동(1958~59)을 전후로 한 시기 '일조우호운동(日朝友好運動)'이 일본조선연구소 창립 당시 주요 운동 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재일조선인으로부터 선행된 문제제기를 이어받는 형태로 '한일회담반대운동'과 '일본인 책임론'의 논리를 구축했다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었다.<sup>40)</sup> 즉, '일한체제로의 이행' 속에서 바라본 '조선 문제'란, 북한에서 재일조선인을 공식적인 '재외공민'으로 인정한 이후 진행된 1955년 총련 체제로의 개편, '귀국' 운동과 이승만 주도의 '북송' 반대운동, 그리고 '한일회담반대운동'과 그에 따른 '귀국' 사업 중단과 같이 재일조선인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포괄하는 동시에, 재일조선인에 의해 선행적으로 촉발된 문제라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들을 추적하며 '북일냉전구조(日朝冷戰構造)'의 탄생에 관해 연구한 박정진은,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북일관계의 '비정상화'를 동반하며 1965년을 전후로 동북아시아의 지역냉전에 휩쓸리는 과정에서 형성된 “북일간의 행위주체별 관계 질서”를 “65년 질서”라고 명명한 바 있다.<sup>41)</sup> 그런 점에서, 가지무라가 말한 '일한체제', 혹은

38) 編輯部, 「解説」, 李殷直, 近獨流 その序章차 新興書房, 1967, 279-280쪽.

39) 梶村秀樹, 「はじめに」, 梶村秀樹編, 近朝鮮現代史の手引き차 勁草書房, 1981, 1쪽. 이 책은 근조선 근대사 안내(朝鮮近代史の手引)차 日本朝鮮研究所, 1966) 및 일본조선연구소 기관지 近朝鮮研究차 1967년 4월부터 1969년 6월까지 20회에 걸쳐 연재한 「조선현대사 안내(朝鮮現代史の手引)」를 저본으로 개정한 것이다. 가지무라 히데키가 집필한 부분에서는 1945년 이후 일본에서 출판된 조선현대사 관련 개설서의 출판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주요 저술로 1960년대까지만 한정하여 보면, 본문에서 언급한 임광철과 김광지의 저서 이외에도, 劉浩一 近現代朝鮮の歴史차三一書房, 1953), 金種鳴編 近朝鮮新民主主義革命史차五月書房, 1953. 현대사 부분은 姜在彦·吳在陽·玄尙好가 분담집필), 朴慶植·姜在彦 近朝鮮の歴史차三一書房, 1959), 統一朝鮮新聞社 近統一朝鮮年鑑 1965-66년판(統一朝鮮年鑑一九六五~六六年版)차1965)의 해방20년사 특집편(317-586쪽), 藤島宇内·畑田重夫編 近現代朝鮮論차(勁草書房, 1966), 近アジア・アフリカ講座第三卷 日本と朝鮮차勁草書房, 1965) 등이 언급된다(128-138쪽).

40) 이타가키 류타, 「조선인 강제연행론의 계보(1955~1965)」, 오타 오사무·허은 편, 앞의 책, 55-56쪽; 朴正鎮, 近朝冷戰構造の誕生: 1945-1965 封印された外交史차 平凡社, 2012, 75-91쪽.

41) 朴正鎮, 위의 책, 495-497쪽.

‘한일체제’란 바로 그러한 ‘65년 질서’까지를 포함한 ‘남북일 냉전구조’와 동의어로 해석될 수 있다.

근략류차제2부와 제3부에서는, 해방 후 귀환한 이상근이 다시 고향을 떠나 본격적으로 ‘혁명’을 향한 모험에 나서는 과정을 그린다. 이상근이 이용섭의 습격을 피해 떠난 이웃 군은 그가 일본에 유학하기 전 점원으로 일한 일본인 소유의 약국이 있던 곳으로, 그는 당시 인연을 맺었던 최봉술의 집에 은신하며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의 진상을 알리고 결정사항의 이행만이 조선 독립의 지름길이라고 호소하는 뼈라를 작성한다. 하지만 읍내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린 채 이번에는 도청소재지가 있는 도시로 떠나 전북도청 상공과의 ‘자료연구반’ 주임이 된다. 그런데 그는 미군정 사령부에서 요청한 전라북도 미곡수확 및 공출가능량 통계표를 결과적으로 미군정의 의도에 반하여 제시했다는 이유로 첩보기관의 감시대상이 된다. 그는 강제공출을 위해 농가에 파견될 예정인 경찰대의 훈련장에 잠입하여 강제공출의 부당성을 폭로하는 연설을 하여 미군 헌병대에 체포되었다가, 전향 회유를 거절하고 검사국 미결구치소로 이감된다. 그는 부산 장기 출장을 조건으로 석방되는데, 여기에서 그의 체포와 전향 회유, 그리고 석방까지의 모든 과정이 일찍이 “서로 가까운 친구가” 되자며 접근한 뒤 그 동향을 미군정에 보고해 온 미국인 선교사와 미군 장교를 통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sup>42)</sup> 미군정의 폭압성은 이후 제3부에서 부산으로 떠난 이상근이 깊숙이 관여하게 된 귀환자 부락 전체를 소각하고 강제이주시키는 지점에서 가장 극적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근략류차에서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태도는, 이은직이 동시대에 보여준 또 다른 글쓰기의 경향을 고려한다면, ‘(포스트)점령’이라는 컨텍스트뿐만 아니라 ‘남북일 냉전구조’라는 컨텍스트 역시 참조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같은 시기 그가 개진한 왕성한 집필 활동은 언어적 경계와 양식적 경계를 대단히 적극적으로 넘나드는 형태를 보였다. 그는 이 시기 일본어 장편소설 근략류차외에 여러 편의 조선어 중·단편소설을 근문학예술채 필두로 한 총련산하의 문예지 및 신문에 발표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의 옛 명장들에 관한 전기 시리즈인 근명장 이야기(名將物語)를 재일조선인 발행의 일본어 잡지 근통일평론(統一評論)채 2년 넘게 연재했다.<sup>43)</sup> 조금 더 앞선 시기까지 살펴보면, 1965년에는 그의 작품 2편이 포함된 재일조선인 작가들의 조선어소설 앤솔로지가 처음으로 북한의 출판·인쇄시스템을 통해 소개되었다. 같은 해 그는 근략류차 출판사이기도 한 신교소보(新興書房)를 통해, 한국의 4·19 관련 수기를 일본어로 번역하고 해설을 첨부한 근저울 4월봉기(ソウル 四月蜂起)를 펴내기도 했다.<sup>44)</sup> 이와 더불어 1955년에는 한설야의 근태동강채를, 1960년에는 한설야의 근환혼채 이기영의 근근향채를, 1961년과 1962년에는 이기영의 근주만강채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조선문학의 전문 번역가이기도 했다.

42) 근략류차中, 231쪽.

43) 근명장이야기채는 을지문덕 편(1965. 1)을 시작으로 서산대사와 사명당(1965. 3), 정문부(1965. 7), 김응서(1965. 10·12), 강감찬(1966. 3), 김유신(1966. 6·8), 장보고(1966. 10), 윤관(1967. 2), 망이(1967. 5) 순으로 연재되었다. 1967년 4월에는 이들 중 일부와 여기에 연개소문과 이순신을 추가하여 근조선명장전(朝鮮名將傳)채(新興書房)이 출간되었다.

44) 이은직이 집필활동을 통해 보여준 언어적·장르적 교차는 물론 이 시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은직은 작가인 동시에 재일조선인 교육 관련 운동에 평생을 몸담은 활동가이기도 했다. 해방 직후 결성된 조련(재일본조선인연맹) 초기부터 문교부에서 재일조선인 교육 분야 업무를 담당했으며, 1951년 가나가와(神奈川) 조선중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이래 평생을 재일조선인 교육관계에 종사했다. 그런 한편으로 창작 활동 또한 꾸준하게 이어가서 그는 말년까지 일본어 글쓰기와 조선어 글쓰기를 병행했다. 또 한 가지 언급해둘 점은, 사후(死後) 출판이 아닌 생전 출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은직은 자신의 단독 창작 서적(단편집 또는 장편소설)을 일본과 한국, 북한이라는 세 개의 체제 모두에서 출판한 경력을 가진 유일한 재일조선인 작가라는 점이다.

이렇게 이은직은 언어적 경계와 양식적 경계를 넘나들며 ‘조국’을 소재로 한 글쓰기를 시도해 왔는데, 그중 근탁류차 다루는 서사적 시공간으로서의 해방기 남한과 비교되는 것은 1960년대 중반의 조선어 창작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4·19전후~한일회담 전후의 남한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조선어 텍스트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근탁류차 3부작이 간행된 1967년에서 1968년 사이에 총련 산하 예술단체인 문예동(재일본문학예술가동맹) 중앙에서 발행한 조선어 잡지 근문학예술채 실린 「생활 속에서」라는 중편소설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야기 속의 시간대는 정확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4·19의 투사’, ‘군사정권’, ‘월남 전쟁터’ 등의 표현으로 보아 작품이 지면에 발표된 시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45)</sup> 이야기의 주요 공간은 서울의 한 국민학교와 그 주변의 주거지역이다. 「생활 속에서」는 한때 “4·19의 투사”<sup>46)</sup>였으나 제대 후 한 사람의 생활인이 되어 사회에 정착한 국민학교 교사 윤기철이 장기결석 아동들의 가정 방문 과정에서 시민들의 각종 비극적인 사연들을 접하며 각성하고 권력계층과의 투쟁 의지를 다시금 굳힌다는 성장의 서사를 취한다. 한편, 가정방문 소재를 활용한 옴니버스식 구성이라는 서사 전략 덕분이겠지만, 작중에서 남한의 비극적인 사회상은 무허가촌 철거문제, 거리로 내몰린 아이들, 좌파 지식인에 대한 공안의 감시와 추적, 기지촌 성매매 등 비교적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드러난다.

「생활 속에서」의 함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픽션과 논픽션, 창작과 ‘보고서’ 사이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이은직의 글쓰기 방식이 「생활 속에서」에도 여지없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그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운동에 할애해온 활동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남한의 교육 문제가 1960년대 그의 조선어 창작의 소재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미 1965년 2월에 근문학예술채 발표한 한 교육시평에서 그가 언급한 “남반부의 교육 실정”, 이를테면 1963년도 통계를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는 학령인구 대비 학급수의 절대부족 상황 등은 그대로 2년 뒤에 발표된 중편소설 「생활 속에서」의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1965년의 시평에서 남한의 열악한 교육문제의 근원은 “모든 것이 미제 강점 하의 식민지 노예 정책의 산물이며 국가 예산의 태반을 군사력 유지에 낭비하는 매판 정권의 그릇된 정치의 결과”로 수렴된다.<sup>47)</sup> 이은직은 이에 굴복하지 않는 한국의 “양심적인 교육자”들이 간혹 일본에 와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사업을 보고는 감탄하며 돌아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이와 대조해서 생각할 때 우리 공화국 북반부의 교육 실정은 얼마나 휘황찬란”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글을 맺는다.<sup>48)</sup> 여기서 짐작할 수 있듯이, 「생활 속에서」의 두 번째 함의는 그것이 놓인 컨텍스트가—근문학예술채를 비롯한 총련 산하 문예기관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북한의 문예정책 및 재일조선인 정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45) 텍스트상에서 구체적인 연도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은직의 또 다른 텍스트와 남한의 담론 공간이라는 컨텍스트를 경유하여 보면 「생활 속에서」가 어느 시점을 염두에 두고 쓰였는지는 추정이 가능하다. 「생활 속에서」에는 남한의 열악한 초등교육 실태를 보여주기 위한 통계적 수치 자료가 제시되는데, 그것은 이은직이 근문학예술채 발표한 남한 교육에 관한 시평(時評), 「이래도 교육인가: 파멸 상태인 남반부 초급 교육 실정에 대하여」(1965. 2)에서 들고 있는 수치와 거의 일치하며, 이 통계 자료의 원 출처는 한국의 교육관련 월간지 근교육평론채(1964. 12)에 발표된 1963년도 장학사의 학교평가 조사보고서(「서울시내 국민학교교육의 실태분석: 63년도 장학사의 학교평가를 중심으로」)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은애, 「북한에서의 재일조선인 문학 출판과 개작에 관한 연구: 김달수와 이은직의 경우를 중심으로」, 근한국학연구 54,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9. 8, 327-331쪽 참조.

46) 리은직, 「생활속에서」(하), 근문학예술차 24, 1968. 2, 77쪽.

47) 리은직, 「이래도 교육인가: 파멸 상태인 남반부 초급 교육 실정에 대하여」, 근문학예술차 12, 1965. 2, 88-89쪽.

48) 위의 글, 90쪽.

주지하다시피 1954년 북한의 남일 외상은 성명을 통해 재일조선인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 정식 선언한다. 이후 재일조선인 문학을 ‘공민’의 문학으로, 동시에 북한 문예정책에 충실한 자국문학 경계 내로 포섭하고자 하는 시도는 재일조선인 문학의 북한 내 출판물을 활성화하고 각종 특집 기사 등을 통해 그 역할과 가치를 평가하려는 작업으로 이어졌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허남기, 남시우, 김민과 같이 총련 체제로의 개편 초기부터 문예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 재일조선인 작가들을 1957년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에 정식 등록시키는 절차가 진행되었다.<sup>49)</sup> 재일조선인들의 북한으로의 ‘귀국’ 사업 개시 이듬해인 1960년 1월, 문예동 중앙기관지로서 창간된 문학예술차는 그 창간호 권두언에서 “귀국 실현과 더불어 더욱 양양되는 재일동포들의 (...) 창조 성과를 반영하며 천리마의 기세로 조국에서 개화되고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 문학예술 성과들을 계통적으로 이에 반영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제와 리승만도당들의 학정하에 있는 남반부 동포들의 처참한 처지와 미국식 퇴폐 문화가 범람하는 남조선의 문학예술 실정을 계통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출발했다.<sup>50)</sup> 한편,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65년 8월 30일에는 문예동 중앙위원회 제3기 제3차 회의에서 “조국의 문예 정책을 받들고 그를 일본의 현실에 가장 알맞게 구현화한 총련의 문예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실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 애국적인 ‘한일 조약’을 반대 배격하며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를 옹호하여 싸우는 재일 동포들의 용감한 투쟁 모습을 더욱 많이, 더욱 격조 높게 형상화할 것”을 결의하는 결정서가 작성되었다.<sup>51)</sup> 이때 문학예술체 실린 많은 조선어 창작들이 “남반부 동포들의 비참한 처지”를 “사실주의 기치”에 기반하여 그리고자 한 것은, 1960년대 중후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 작업으로서 수령을 정점으로 한 공산주의자, 애국자, 그리고 ‘남조선’ 혁명가라는 전형의 위계가 형성되던 맥락과도<sup>52)</sup>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기준 위에서 이은식의 「생활 속에서」는 북한의 저명한 평론가인 엄호석에 의해, “기막힌 비극들에서 남조선의 사회상을 인식하며 (...) 인민들의 투쟁에 합류하는 윤기철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가 혁명가로 장성하는 과정을 그리는” 작품으로 그 ‘성과’가 인정되었다.<sup>53)</sup>

그에 비하면, 「후기」를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일본인 독자’를 내포독자로서 설정해 둔 일본어 텍스트 문학예술차는, 엄밀히 말해 북한의 문예 정책이 일방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다시 말해 총련에 직접 관계된 조선어 기관지보다는 북한의 문예 정책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일본(어) 출판 시스템의 산물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문학예술차는 그 특정한 국가 출판 시스템의 경계 바깥으로 그의 다른 텍스트들이 가장 활발히 넘나들던—혹은 그 시스템의 예외적 경계 위에서 외출타기를 하던—시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1988년 한국어 번역판에서는 삭제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어 원작의 한 대목은 예사롭지 않다. 제1부에서 아직 고향을 떠나기 전 이상근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농민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중, 조선의 해방은 일본제국주의의 탄압에 저항한 민족지도자들의 투쟁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여운형의 이름과 함께 다음과 같이 김일성을 언급한다. “김일성 장군은 아직 젊었던 소년시절부터 항일 빨치산 부대를 조직하여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무기를 들고 일본군과 오늘날까지 싸워온 사람들 중에

49) 宋惠媛, 『근在日朝鮮人文学史』のために: 声なき声のポリフォニー차 岩波書店, 2014(한국어판은 『재일조선인 문학사를 위하여: 소리 없는 목소리의 폴리포니차 소명출판, 2019), 176쪽.

50) 「권두언」, 문학예술차창간호, 1960. 1, 5쪽.

51) 「문예동 중앙위원회(제3기 제3차) 회의 결정서」, 문학예술차15, 1965. 9, 21-22쪽.

52) 김태경, 「북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 문학에서의 당의 유일사상체계의 역사적 형성」, 서울대 박사논문, 2018, 237쪽.

53) 엄호석, 「재일조선작가예술인들의 성과」, 조선문학차8·9, 1969. 9, 98쪽.

서는 가장 용기 있고 애국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 함경남도로 진격하여 경찰들을 물리치고, 그 주변 일대에 해방지구를 만든 일은 여러분도 알고 있으셨지요.”<sup>54)</sup>

### 3. 분신술의 글쓰기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 1) 역이동 서사와 분신술의 글쓰기

2장에서 이은직의 글쓰기가 언어적 경계와 시간적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 지점에 주목했다면, 3장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 왜 **근탁류**는 가상의 인물을 ‘해방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발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답해보고자 한다. 이를 물리적 월경과 대비되는 정신적 월경, 또는 현실적 월경과 대비되는 서사적 월경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은직이 여러 저술들에 수록한 자필 연보나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한 자기서사들을 통해 밝힌 바 있듯이, 해방 직후 귀환의 문턱까지 갔으나 여러 제반 조건들로 인해 귀환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은, 그 불가능한 귀환을 대리실현하는 상상적 보충물로서의 서사적 귀환의 가능성을 생각해 한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근탁류**는 1945년 가을, 이상근이 해방된 조선의 고향 마을로 12년 만에 돌아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의 고향은 신태인역에서 10리 정도 떨어진 팔선리로 “팔부동(八富洞), 용전(龍田), 석정리(石亭里), 외동(外洞)의 네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여 가구, 약 1,3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며, 그중에서도 이상근의 고향집이 있는 마을은 용전이다.<sup>55)</sup> 이후 그는 이용섭의 추격을 피해 일본으로 도항하기 전 고용살이를 하던 이웃 군으로 옮겨가며, 그곳에서 사건에 휘말려 다시 도청소재지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된다. 텍스트상에는 서울과 부산 외에는 그 지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텍스트상에 나와 있는 지리적 정보들을 통해 해당 지역이 각각 정읍, 김제, 전주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이은직은 말년에 송영철이라는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투쟁기를 두 권의 **근** 이야기 ‘재일’ 민족교육(物語「在日」民族教育)차 시리즈로 써낸 바 있다.<sup>56)</sup> 이 자기서사는 해방 직후인 1945년 10월부터 1954년 4월까지 일본을 배경으로, 송영철이 주로 조련 문교부와 조선학교에 관여하며 펼쳐온 민족교육 운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세히 보여준다. 작가로서의 활동이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 교육운동가로서의 업무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진다. 가령 1949년에 과로로 휴양하던 당시에 대한 서술도 있는데, 앞서 본 **근탁류**의 「후기」에서처럼 장편 분량의 창작 원고를 단숨에 써내려갔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고, 다만 온천에서 요양 중 **근** **일본문학**에 실린 자기 평론을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하고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곧바로 업무로 복귀했다는 정도만 서술되어 있다. 이 자기서사 제1부의 서문에서 이은직은 작중 송영철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분신’임을 언급한다.

이것은 필자의 자전적인 소설의 일부이며, 5부작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朝鮮の夜明けを求めて) **차** 후속이 되는 이야기이다.

54) 李殷直, **근**獨流 **차**의序章 **차** 64쪽. 이 문장들은 한국어판에서는 삭제되고, 여운형을 언급한 뒤에 “이런 분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근탁류** **차**上, 53쪽).

55) **근탁류** **차**上, 14쪽.

56) 李殷直, **근**物語 「在日」民族教育の夜明け: 1945年10月~48年10月 **차** 高文研, 2002; **근**物語 「在日」民族教育・苦難の道: 1948年10月~54年4月 **차** 高文研, 2003.



필자는 30년 전에 발표한 3부작의 장편 **근략류체**서 주인공 상근이가 해방직후의 남조선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그렸으므로, 본편에서는 필자의 분신을 송영철이라고 이름지었다.<sup>57)</sup>

말하자면 **근이야기 '재일'** 민족교육차시리즈는 후생성 중앙흥생회의 신문국에서 기자로 일하던 송영철이 일본 패전 직후 신문이 휴간되면서 조련 중앙 문화부(문교부)에 자리를 얻어 일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서술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 서문에서 이은직은 송영철이 자신의 '분신'이라는 점, 또한 이 자기서사는 또 다른 자기서사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 후속이라는 점, 나아가 30년 전에 발표한 장편 **근략류체**서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 활동한 인물을 이상근이라는 이름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전 직후 일본에서 활동한 자기 분신의 이름을 (이상근이 아닌) 송영철이라고 새로 지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것은 이 서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1997년 총5부작(5권)으로 간행된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 주인공 또한 이상근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즉, **근략류체**와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 그리고 **근이야기 '재일'** 민족교육체 각 출판 시기와 이야기의 주요 시공간, 그리고 중심인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근략류체</b>	<b>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b>	<b>근이야기 '재일'</b> 민족교육체
출판시기	1967-1968년	1997년	2002-2003년
서사의 시간	1945년 10월-1946년 10월	1917년-1945년 11월	1945년 10월-1954년 4월
서사의 공간	남한	조선→일본	일본
주인공 이름	이상근	이상근	송영철

이은직의 글쓰기의 특성상, 위 세 작품을 픽션/논픽션이라는 기준으로 명확히 분류하기는 어렵다. 물론 **근략류체**는 '장편소설'이라는 허구적 장르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뒤의 두 방대한 서사물을 자서전으로 분류하기도 애매한 점들이 있다. 그보다 여기서는 세 가지 텍스트들을 서로 교차시켜 읽음으로써 보다 풍부하면서도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 텍스트 중 출판시기로 봤을 때 중간에 놓인 5부작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 각각 남한과 일본을 중심무대로 끌어들이는 **근략류체**와 **근이야기 '재일'** 민족교육체양쪽 모두의 전사(前史)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 주인공을 30년 전 출판된 **근략류체** 동명으로 설정하고, **근이야기 '재일'** 민족교육체 서문에서는 이것이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 후속작이라고 언급하는 등, 양쪽 모두의 '전사'로 읽히도록 요구하는 장치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는 1917년 정읍군에서 태어난 이상근이 동학당이었던 부친의 영향으로 민족의식을 키워나가고, 보통학교 졸업 직후 고향마을을 떠나 이웃 군인 임실과 김제의 일본인 경영 약국에서 고용살이를 하다가 학문의 뜻을 포기하지 못해 일본으로 유학하기까지의 일화가, **근략류체** 회상 부분을 보충하고 구체적인 지명과 인명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체** 서술되는 이상근의 행보의 많은 부분이 실제 이은직의 이력과 겹친다는 점이다. 실제 이은직이 다니던 니혼대학(日本大学) 예술학부와 **근예술과(藝術科)체**라는 학내 잡지, 그리고 여기에 게재되어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오르기도 한 소설 「흐름(ながれ)」을 둘러싼 사건들, 춘향전을 주제로 한 학부 졸업논문, 끝으로 후생성 중앙흥생회 신문국 기자라는 신분과 조련에서의 활동까지. 따라서 **근조선의 여명**

57) 李殷直, 「はじめに」, **근物語** 「在日」民族教育の夜明け: 1945年10月~48年10月차 1쪽.

을 찾아서차는 근탁류차는 허구적 장르의 전사 또는 스펀오프 버전인 동시에, 이은직이라는 실제 작가의 회고록이라는 서로 모순된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것이 서로 모순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의 해방과 일본의 패전을 동시에 함의하는 '8·15' 이후의 선택, 즉 '귀환'과 '미귀환'이라는 선택에 있어서 근탁류차의 이상근과 재일조선인 이은직의 선택이 명백히 나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단지 '귀환'과 '미귀환'의 차이를 넘어, '재일조선인'이라는 법적 지위, 혹은 존재적 지위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의 차이로 의미화된다. 따라서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에서 해방 직후 이상근의 '귀환 충동'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후생성 중앙흥생회 신문국 기자로 재직하던 이상근은 해방 직후 조선으로 귀환하고자 몰려드는 '동포'들을 취재하기 위해 시모노세키와 하카타로 출장을 떠난다. 그러다 그가 최초로 귀국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그가 "유일한 마음의 스승으로서 존경해온" 조선문학자 김태준의 소식과 관련이 있다.<sup>58)</sup> 그는 1939년, 졸업논문 주제를 춘향전 및 조선의 고전문학으로 정하고 자료조사를 위해 경성제대(작중에는 '서울대ソウル大学'로 명명되어 있다)로 전학을 떠난다. 그곳에서 문학부 강사인 김태준을 만나보라는 권유를 받아 그는 김태준의 자택을 방문한다. 김태준의 서재에서 낡은 한문서적들 보며 압도당한 이상근은, 그에게서 "소설을 쓰기 위한 공부를 하면서 졸업논문은 조선의 민족문학의 전통을 거론하고 싶다니 (...) 자네와 같은 학생을 상대로 하면 가르치는 보람이 있을 것이네"라는 칭찬을 듣고 경성제대로의 전학을 권유받기까지 한다.<sup>59)</sup> 사립대학에서 제국대학으로의 전학이 어렵다는 말을 하자, 김태준은 "앞으로 3일 간 자네를 위해 조선문학의 개략만이라도 이야기해주겠"다고 제안하며 자필서명한 초판본 근조선소설사체를 선물한다.<sup>60)</sup> 그렇게 '유일한 마음의 스승'이 된 자의 이름을, 해방 직후 조선인민공화국 수립 구상 발표를 보도하는 신문기사에 첨부된 인민위원회 임원 명단에서 발견한 그는 "즉각 서울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다.<sup>61)</sup> 그 후 11월이 되자 흥생회가 결국 해체되고, 그는 귀국의 결심을 조련에도 통보한다. 이로써 서사는 이상근이 "그리운 고향의 산하를 뇌리에 떠올려보며 (...)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야만 한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는 장면에서 끝난다.<sup>62)</sup>

바로 이러한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에서 결말, 즉 귀환을 결심하는 동시에 실제로 현해탄을 건너지는 않는다는 설정은, 한편으로는 근탁류차의 이상근이 시모노세키에서 귀환선을 타고 부산항에 도착하여 '해방' 조선에서의 투쟁을 시작하는 장면과도, 또 한편으로는 근이야기 '재일' 민족교육차 송영철이 '전후' 재일조선인 사회의 출발선에 합류하여 민족교육운동을 시작하는 장면과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 중에서 근탁류차의 이동 방향을 생각해 보면, 해방 후 귀환한 이상근은 다시 고향을 떠나 식민지시기의 이향(離鄉) 경로를 마치 반복하듯이 '이웃 군' 김제로 향하고, 일본인 상점 거리에서 일본인에 둘러싸여 고용살이 하던 시절의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이로써 근탁류차는 일본에서 '8·15'를 맞이한 자의 '귀환'을 향한 서사적 충동을 통해,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과거의 루트를 역으로 되밟게끔 하는 '역이동'의 서사로 독해

58) 李殷直, 朝鮮の夜明けを求めて차5, 明石書店, 1997, 300쪽.

59) 李殷直, 朝鮮の夜明けを求めて차3, 299쪽.

60) 위의 책, 300쪽. 근탁류차에서는 김태준이라는 실명은 언급되지 않은 채, 이 3일 간의 기억이 짝막하지만 강렬한 영향을 준 사건으로 회고된다. 실제로 이은직은 해방 전에 일본에서 근조선소설사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두었고, 그 원고는 김달수가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김달수의 회고에 따르면 해방 후 일본어로 된 잡지인 근민주조선체를 창간할 무렵 이은직과 연락이 닿지 않아, 김달수는 자신의 수중에 있던 근조선소설사체일본어 번역을 이은직의 양해 없이 창간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金達壽, 何が文学と生活차 靑丘文化社, 1998, 145쪽).

61) 李殷直, 朝鮮の夜明けを求めて차5, 300쪽.

62) 위의 책, 329쪽.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제일조선인 이은직의 ‘귀환자-분신’의 눈에 비친 ‘귀환자-타자’들의 장소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 2) 부산이라는 기착지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근략류체에서 고향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길을 떠난 이상근의 모험은 정읍의 작은 마을에서 과거 일본인 거리가 형성되어 있던 김제의 군청소재 읍으로, 이어서 도청소재지인 전주부(府)로, 그리고 몇 달간의 부산 생활을 거쳐 서울로 이동하는 루트로 그려진다. 그 중 부산을 주요 공간으로 하여 펼쳐지는 제3부의 플롯은 다음과 같다. 부산 장기 출장을 조건으로 석방된 이상근은 경남도청 귀환원호계에서 전라북도 출신 귀환자들의 방문 용건을 처리하는 ‘잡무’를 맡는다. 하지만 귀환자 부락에서 ‘송장대모’ 사건이 발생하자 귀환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산부청 및 미군정 부산사령부와의 교섭을 주도한다. 조직의 지시로 미소공위 정보 수집차 서울에 다녀온 이상근은 미군정 사령부에서 귀환자 부락을 소각하고 부락민을 강제 이주시킨 사건을 도화선으로 부산 지역의 동맹파업이 결정되자, 방적공장에 잠입하여 파업 동참 호소 연설을 한다. 미소공위 결렬과 조선정판사 위조지폐사건이 보도된 직후 그는 서울로 활동지를 옮기기 위해 일단 전북도청으로 복귀한다. 정읍군수 이용섭이 제안한 옥련과의 의형제 결의 기념 군민대회 참석 도중, 그는 순희가 이웃마을에서 보리공출 반대집회 선두에 나섰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그녀의 ‘약혼자’임을 내세우고 상주를 자칭하며 향의 장례를 주도한다. 이후 그는 서울에서 민전 지도부에 있는 경제학자 조(趙) 교수의 비서가 되어 1946년 10월 항쟁 전야의 가두연설장에 나타난다.<sup>63)</sup>

근략류체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일본에 거주하거나 체재하던 조선인들의 귀환이 가장 대규모로 이루어진 시기로, 1945년 8월에서 1946년 12월 사이 귀환한 조선인의 숫자는 약 14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부산항을 통해 귀환한 조선인들은 대다수가 부산에 체류하거나 정착했기 때문에 해방 직후 부산의 인구는 단기간에 급증했고, 이로 인한 주택난, 실업난, 식량난 등 많은 사회문제를 겪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이때는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부산항을 통하여 본국으로 대거 귀환(히키아게引揚げ)한 시기이기도 했다. 해방 직후 부산 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에 대한 최영호의 연구의 따르면,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귀환선은 모두 제1부두에 정박했으며 여기에 상륙한 귀환자들은 소독 절차를 밟고 부두에 마련된 환전소에서 일본은행권을 조선은행권으로 교환했다. 그런데 당시 남한의 무질서와 빈곤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일본에서 등록을 실시하고 있던 귀환희망자가 귀환을 포기하거나, 일단 귀환한 사람들의 재밀항이 증가한다(근략류체에서는 일단 귀환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인들의 히키아게를 담당한 부산일본인사회회에 일본인이라고 속여 돌아간 귀환자의 일화가 등장한다). 더군다나 1946년 여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콜레라와 홍수재해 및 철도 파업 등으로 귀환계획에는 점차 차질이 생겨, 일본점령당국 및 일본정부는 몇 차례의 계획변경 끝에 한국인에 대한 집단 귀환계획을 1946년 12월 28일로 종결한다.<sup>64)</sup>

63) 경제학을 전공하는 ‘서울대학의 조(趙) 교수’는 이상근이 석방되어 부산으로 향하던 기차에서 만난 인물인데 이후 이상근이 미소공위의 정보 수집차 서울에 잠시 다녀올 때 다시 한번 만나 서로 뜻을 나누게 된다. 텍스트상에서 북한의 사회개혁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한 조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서울대학’(경성대학) 교수라는 점부터 해서 해방 전 사회주의 사상으로 옥고를 치루고 해방 후에는 민전 지도간부의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백남운을 참조한 듯하다.

1946년 5월 부산에서 처음 발견된 콜레라 환자는, 5월 29일 시점에서 92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사망자가 25명으로, 인천(1명), 마산(1명), 대전(5명) 등지에 비하면 그 수가 월등히 높았다.<sup>65)</sup> 근략류체에서는 귀환자 부락에서 발생한 시신 처리를 당국에서 거부하자 부락민들이 시신을 들고 부산부청으로 진입하는 이른바 ‘송장데모’ 사건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때 부윤(府尹)이 노골적으로 드러낸 혐오와 공포에서도 드러나듯이, 귀환자들은 주거, 보건,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타지, 특히 얼마 전까지 식민 본국이었던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언제나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기 쉬었다. 예를 들어 1947년 벽두에 부산의 거리를 취재한 기사에서는 부산지방 범죄통계의 60퍼센트가 전재민의 절식죄(竊食罪)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기아동포’, ‘절도범’, ‘정신이상자’ 등의 차별적 어휘를 사용하여 귀환자들이 범람하는 부산의 거리를 묘사했다.<sup>66)</sup> 근략류체 이야기 속 시간으로부터 수개월 경과한 시기이긴 하지만 부산을 ‘새조선의 기지’로 포착한 어느 기사를 보면, “제국주의 침략 정책 병참기지”에서 “새조선의 해외발전기지로” 변모 중인 부산의 “썩썩한 약동”을 방해하는 “우울과 부정의 온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왜색 잔재, 부랑아와 고아의 범람, 전재민의 범람, 모리배의 암약 등이다. 특히 “일본말하는 전재아동”의 부랑생활을 지적한 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곳같이 전재민이 많이 모인 곳도 없을 것이다. 해외에서 기쁨과 희망을 품고 돌아온 이들을 부산서는 어떻게 맞아 주었는가? 들으니 대부분이 일본서 온 동포들인데 악질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다. 책임을 전재민에게만 돌릴 것인가? 거리에 거지꼴로 흩어져 있는 그들의 모습은 처량할 뿐이다.”<sup>67)</sup>

근략류체에서 이상근의 눈에 비친 귀환자의 실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실 부산의 귀환원 호계에서 본격적으로 귀환자들의 민원과 고충처리를 담당하기 전부터, 이상근이 목격한 남한의 현실 중 가장 비참한 것으로 포착된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귀환자의 재정착 문제였다. 일례로 이상근이 한창 마을 농민조합을 조직하느라 여념이 없던 시기에 같은 마을에 귀환한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연못에서 건져 올려진 다섯 구의 시체를 바라보는 상근은 처음으로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 일가의 집단자살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 같은 생각에 오염한다.”<sup>68)</sup>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마을 내 귀환자 원호기관 설립을 제창하고 모금운동을 하지만 실패한다. 플롯상으로 이상근의 부산행은 감옥에서 석방된 후 받은 근신처분에 해당하지만, 부산에 도착한 그가 처음에는 귀환자들의 민원 처리로 시작하여 결국 부락의 대리자 역할까지 자처하면서 점령당국 및 지방행정당국과 싸우게 되는 것은 이러한 귀환자 문제에 대한 관심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략류체보다 30년 뒤에 쓰인 근조선의 여명을 찾아서<sup>69)</sup> 이상근이 해방 직후 조선인들의 귀환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며 취재에 나선 것 역시 그러한 관심을 잘 말해준다.

근략류체 이상근이 출장지 부산에서 소속된 조직의 실제 모델은 경남도청에 근무하던 조선인 관리들이 중심이 되어 1945년 8월 30일 구성된 ‘귀환조선인원호본부’인 것으로 보인다.<sup>69)</sup>

64) 최영호, 「해방직후 부산경남지역의 귀환자 원호체계와 원호활동」, 근한국민족운동사연구차3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3.  
 65) 「<社說> 防疫에 協力하자」, 근동아일보차 1946. 5. 25, 1면; 「虎疫各地에 漸次로 蔓延」, 근동아일보차 1946. 5. 30, 2면.  
 66) 「慘憺한 戰災民의 實情」, 근동아일보차 1947. 1. 11, 2면.  
 67) 「새 朝鮮의 基地·釜山港의 最近片貌」, 근경향신문차 1947. 4. 5, 2면.  
 68) 근략류체 상, 185쪽.  
 69) ‘귀환조선인원호본부’와 같은 날 조직된 민간 원호단체 ‘조선귀환동포구호회’는 이후 건준위가 흡수하여,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원호회 경남지부’가 되었다(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https://www.bsseogu.go.kr/tour/index.bsseogu?menuCd=DOM\\_000000301003004010](https://www.bsseogu.go.kr/tour/index.bsseogu?menuCd=DOM_000000301003004010)).

이상근은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귀환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일독하는 일로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이 보고서들은 “어느 것이나 우울한 기록뿐”이지만, 한편으로는 귀환자의 방문 일시와 가족사항 등이 일정한 형식으로 텍스트상에 제시되어 있다.<sup>70)</sup> 이 보고서들을 읽고 난 이상근은 “자신도 귀환자의 한 사람이었던 만큼” 착잡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그만큼 귀환자 업무에 대한 이상근의 사명감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문서에 정리된 귀환자들의 사연이 아니라, 실제 귀환자 부락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부락 내에서 발생한 시신 처리를 요구하는 귀환자들 사이에서 “납치범들에게 포위된 듯한 두려움” 느끼며 그는 부락으로 향한다.

어느 집이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집은 없었다. 폭풍이라도 불면 순식간에 날아갈 것 같은, 작은 상자 같은 움막집이 늘어서 있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어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직 맨발로는 추울텐데도 모래땅인 골목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거의가 맨발이었다. 입고 있는 옷도 너털너털한 데다가 잔뜩 더럽혀져 있었다. (...) 창문이 없어서 속이 검검했지만 잠시 들여다보고 있자니, 판자 위에 명석을 깔아놓았을 뿐인 방 한가운데에 얼굴에 하얀 수건을 덮어쓴 사람이 누워 있었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그 곁에 웅크리고 있었다. (...) 상근은 그곳으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나오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지만, 주위에 둘러서서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서 애써 마음을 고쳐먹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하기 위해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sup>71)</sup>

이는 귀환자 문제를 시종일관 ‘자신도 귀환자의 한 사람이었던’ 입장에서 바라보던 그의 의식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이 더럽고 음침한 부락은 ‘귀환자-분신’과 ‘귀환자-타자’ 간의 경계로서, 또한 이상근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 민중의 행복을 위해”라는 스스로의 혁명적 각오를 시험하는 무대로서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어쩌면, 이 ‘역이동’ 서사의 시작점, “두번 다시 이 바다를 건너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로 “부산에 상륙했던”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다음과 같은 부산역의 활기가 신기루였음이 확인된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과연 역 앞은 활기에 차 있었다. 전국 각도의 인민위원회 깃발이 세워져 있었고, 굶주려 고국에 돌아온 동포들에게 훈훈한 마음을 갖게 하려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원단체의 완장이 군중 속을 바쁘게 누비고 다녔다. 우리의 우두머리로 제멋대로 설치대던 일본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들의 다다미방을 화려하게 꾸민던 가구들이랑 비싼 여자옷, 그리고 방에 쓰는 도구들까지 길거리에 산더미같이 쌓여 싸구려로 팔리고 있었다.

그는 현기증을 느꼈다. 감격이 한계를 넘어서 그 무엇을 보아도 그것은 현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sup>72)</sup>

이상근이 처음 부산에 상륙한 순간의 광경과 귀환자 부락을 목격한 순간의 광경이 보여주는 간극은, 애초에 그가 ‘귀환자’라는 동일성으로 묶일 수 없는 존재였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이상근의 ‘귀환’과 ‘재이향(再離鄉)’의 여정의 끝은 어디일까. 이상근이 석방 직후 부산 출장 지시를 받고 올라탄 기차 안에서 이루어진 조 교수와의 만남은 어쩌면 애초에 부산 출장이 끝

70) 근략류차下, 114쪽.

71) 위의 책, 128쪽.

72) 근략류차上, 37쪽.

나더라도 전북도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예비하는 복선이 아니었을까. 물론 조 교수에 대한 이상근의 개인적인 존경심과 민전 중앙 차원에서 이상근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졌다는 조건에서이긴 하지만, 그는 결국 서울대학(경성대학)에서 해임되고 병색이 완연해진 조 교수 옆에서 비서이자 연설가로 서울 중심가에 나타난다. 1946년 9월 30일, 무장경관과 우익폭력단이 철도기관고에서 파업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습격하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날 밤의 일이었다. 미군정청을 규탄하는 연설가 중에 이상근이 모습을 드러냈다는 간략한 진술만으로 서사는 끝나지만, 이날 이후의 시간이 덧붙여 쓰인다면 이상근은 어디에 있게 될까. 이 텍스트가 위치한 1967년에서 68년은 한일협정의 타격으로 재일조선인들의 북한 '귀국' 사업이 중단된 시기로, 일본 측의 일방적인 '귀국' 협정 연장 거부에 반발하는 '귀국' 재개 및 '조국자유왕래' 운동이 거세게 전개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처럼 '귀국'의 컨텍스트와 '귀환'의 컨텍스트가 교차하는 곳에서 근략류체를 독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서사 상에서는 괄호 쳐져 있지만 어쩌면 이상근의 여정의 끝에 닿아 있을지 모르는 38도선 이북으로의 루트를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 4. 결론을 대신하여: '전후/해방' 공간에서 '냉전' 공간으로의 재배치 (미완)

「전후/해방」 공간의 재배치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 이은직 장편소설  
『탁류』(1967-68)를 중심으로」 토론문

최병구(경상대)

이 논문은 일본에서 1968년 발표되고 한국에서는 1988년 번역된 재일조선인 작가 이은직의 장편소설 『탁류』를 중심으로 ①조선/북한/일본이라는 공간과 그에 따른 언어의 문제 ②해방 직후/1960년대 중후반이라는 시간의 문제 ③ 귀향서사라는 형식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방 직후와 1960년대 중후반이라는 시간적 차이를 염두하고 『탁류』를 해석하는 부분은 식민지-해방기에 한정된 논의를 벗어나는 대목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를 전제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논문의 2장에 비해 3장의 내용이 함의하는 바가 다소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3장은 “왜 『탁류』는 가상 인물을 ‘해방 조선’으로 돌려보내는 발상으로부터 시작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답해보고자 한다.”라는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탁류』 이후 출판된 두 편의 작품을 거론하며 겹쳐 읽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 에서는 『탁류』를 인용하며 귀환자로 묶일 수 없는 이은직의 존재를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한일협정으로 더 이상 북한 귀국이 중단된 시점에서 해방 직후 귀환자를 소환한 『탁류』의 서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 논문의 말처럼 (세 편의 소설을 겹쳐 읽으면서) 이북으로의 루트를 그려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일까요? 3장에서 세 편의 작품을 겹쳐 읽으며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이은직 혹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읽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재일조선인 문학은 오랫동안 문학사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을 단일한 정체성으로 수렴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야 이러한 문학사 기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이은직의 『이야기 '재일' 민족교육체(2002~2003)』까지 언급하실 만큼, 식민지-해방-1960년대를 거쳐 현재 재일조선인 작가의 정체성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다시 이은직(혹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호명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1980년대 후반 김명인 선생님이 『탁류』를 번역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민족해방운동문학’ 혹은 ‘반미제국주의’라는 시각이 갖는 의미가 현재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결론에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후/해방」 공간의 재배치와 귀환자 부락의 정치성 - 이은직 장편소설  
『탁류』(1967-68)를 중심으로」 토론문

이순욱(부산대)

이 글은 재일조선인 작가 이은직의 장편소설 탁류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의 삶과 문필활동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종합적 연구다. 해방 직후의 상황을 서사화한 작품이 많지 상황에서 재일조선인 작가의 정체성으로 담아낸 탁류와 더불어 조선의 여명을 찾아서차 이야기 재일 민족교육차를 만나는 일은 재일 지역문학의 성과를 포괄하는 한국문학사 서술의 층위를 풍요롭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발표자의 논의에 기대어 몇몇 사항을 질의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자는 1988년 재일조선인 작가 작품들의 국내 출판이 월북작가의 해금 조치와 맞물려 “‘해방’의 역사적 소환과 통일된 민족문학사 서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투쟁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발굴 행위를 통해 ‘해금’의 문화공간에 자리매김”되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통일된 민족문학사”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해금 정국에서 ‘해방’을 적극적으로 소환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재일조선인 문학, 즉 해외 지역문학 자산의 한국문학사 편입과 관련하여 놓칠 수 없는 문제는 정체성이라 생각한다. 민족적 정체성과 언어적 정체성,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문학의 범주를 결정하는 주요한 기제다. 사회운동가이자 문학인으로서 이은직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의 문학적 성과를 재일조선인문학사에 자리매김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한국문학사라는 큰 범주에서 논의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민족, 언어, 지역적 정체성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 본다. 재일조선인 작가 작품의 국내 번역 출판과 한국문학사 서술 사이에는 이은직, 김석범, 김달수와 같은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남한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창작했다거나 한국어(또는 일본어)로 창작했다는 사실에 한정할 수 없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이은직의 소설이 당시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한국(남조선) 내의 다양한 이념적 모색 가운데 한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것은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문학사회와 남한의 좌파 문학사회와의 일정한 소통과 연대의 결과인가. 아니면 조선총련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독자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는가? 국가사와 지역사에서 서술하고 있는 해방 직후의 이념 지형을 단순 대립구도로 논의할 수 없듯이, 당시 ‘남북일’의 이념 지형과 정세 인식은 지역이나 조직, 개인에 따라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재일조선인 사회에서의 이은직의 조직 활동과 문필 활동, 그리고 귀환 욕망 사이에는 어떤 이념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탁류가 일정하게 자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 작가 이은직과 주인공 이상근을 겹쳐 읽어도 무방한가. 물론 해방기의 이념 지형은 좌우로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경계 또한 명확하지 않다. 그 사이에 수많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겠다.

셋째, 탁류의 서사적 시간은 해방 직후부터 1946년 10월인민항쟁까지다. 해방과 미군정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볼 때, 10월인민항쟁에 대한 서술시각도 크게 다르고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10월인민항쟁에 대한 이은직의 관점을 보충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소설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이라면, 1960년대 후반 <후기>를 쓸 무렵에 10월인민항쟁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변화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하다.

넷째, 해방 직후의 상황을 서사화한 작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김남천의 근945년 8·15차 염상섭의 근효풍차 김동리의 「해방」과 견준다면, 이은직의 근탁류채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더불어 제일조선인문학사에서 근탁류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촘촘한 논고에 성근 질문을 엿었습니다.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